*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통일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및 각 필자 소속기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학술회의

북한의 도시 만화경

일시: 2021년 5월 26일(수) 13:00~18:00
장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정산홀(온라인 병행)

개회 인사말: 이관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제1세션 평양과 도시계획
사회: 민경태 (통일교육원 교수)

발표 1: 평양의 역사와 건축 - 안창모 (경기대 교수) 01
발표 2: 평양의 도시계획과 변화전망 - 김현수 (단국대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51

토론 1: 권영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97
토론 2: 최대식 (토지주택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103

제2세션 강과 북한 도시
사회: 정영철 (서강대 교수)

발표 1: 강이 흐르고 있다: 평양의 유동정치와 수역
- 로버트 윈스탠라 체스터 (호주국립대 박사) 111
발표 2: 북한에서 국경도시 접적의 형성은 신화인가, 현실인가?
- 엄빠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펠로우) 139

토론 1: 이찬우 (테이쿄대 교수) 173
토론 2: 마크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펠로우) 187

제3세션 도시국가 평양: 과거에서 미래로
사회: 엄빠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펠로우)

발표 1: 도시 유형보고: 북한의 이상적인 사회의 꿈
- 필리프 메우세르 (독일BDA 교수) 193
발표 2: 김정은 시대의 건축물
- 제레나 프로코피레비치 (스페인카탈루냐 국제대 박사) 225
발표 3: 화해 후의 평양을 상상하며
- 애니 패드렛 (서울대 미술대학 교수) 261

토론 1: 정인하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 341
토론 2: 히라이 히사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펠로우) 345
토론 3: 임동우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349

제1세션 평양과 도시계획

평양의 역사와 건축

평양의 도시계획과 변화전망

발표 1: 안창모 (경기대 교수) 01

발표 2: 김현수 (단국대 교수) 51

토론 1: 권영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97

토론 2: 최대식 (토지주택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103

발표 1

평양의 역사와 건축
-역사도시 평양의 사회주의 도시화 과정-

안창모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

1. 서 론

평양은 고구려의 장수왕이 427년에 수도를 평양성으로 옮긴 이후 고구려의 수도가 되었다. 668년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발해와 신라가 남북국시대를 형성한 시기에는 신라의 도시였으며, 936년 신라와 후백제를 차례로 복속시킨 고려에 의해 최초의 통일국가를 건설되면서, 평양은 고려와 조선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한반도에서 제2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를 거친 후 1945년에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으나, 곧바로 남과 북으로 분단되면서, 1948년 9월 9일 이후 평양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의 수도가 되었다. 2016년 기준으로 평양의 면적은 1300평방킬로미터, 인구는 약 287만 명[1]이다. 사회주의국가의 수도인 평양은 자본주의 국가와 달리 중심상업 및 업무지구가 존재하지 않으며, 평양의 상징적인 중심공간은 광장과 공공문화시설로 구성되었으며, 주거지는 직주근접을 원칙으로 계획되었고, 간선도로의 주경관은 집합주택에 의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도시구조와 도시경관은 고구려의 수도였던 역사도시 평양이 일제강점기까지 유지해왔던 모습이 아니다. 천년도 넘게 유지되었던 도시의 모습은 일제강점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으며, 1948년 이후 사회주의 체제가 구축되면서 변화의 방향이 달라졌다. 현재의 물리적 도시구조의 틀은 6.25전쟁 이후 구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옛 평양성을 중심으로 도시구조와 건축 측면에서 고구려의 수도였던 역사도시 평양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사회주의 도시로 변모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고구려 평양성의 공간구성

고구려시대의 평양은 현 평양성 단독이 아닌 대성산성 그리고 안학궁과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현 평양의 도시 중심인 평양성의 공간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고구려의 평양성은 금수산의 남서측 능선을 품에 안고 대동강과 보통강으로 둘러싸인 성이었다. 강으로 둘러싸인 성의 내부는 북성, 내성, 중성 그리고 외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성곽은 대동강변과 보통강변 그리고 각 성의 경계에 축조되었다. 궁궐이 위치한 내성과 행정성인 중성이 먼저 축조되고, 후에 시가지를 구성하는 외성과 방어를 위한 북성이 축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궁

그림 1 대동강변에 구축된 성벽과 모란대 원경

1) 위키피디아, https://en.wikipedia.org/wiki/Pyongyang

성으로 이용된 내성의 만수대 일대가 왕궁터 또는 조선시대 감영지로 추정된다. 특히 외성은 평지에 격자형 가구로 구성되었다.[2] 내성은 대동강에 면한 대동문과 장경문, 서문인 칠성문, 중성에 면한 정해문(남문)과 주작문, 등 5개의 성문과 성곽으로 둘러싸였다.

중성은 내성에 연결되는 정해문과 주작문외에 서문인 보통문, 외성에 면한 정양문과 함구문과 성곽으로 둘러싸여있고, 평지에 조성된 외성은 중성과 연결된 문외에 대동강과 보통문으로 연결되는 고리문, 거피문, 다경문, 선요문과 성곽으로 구성[3]되었다. 평양성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북성은 전금문과 현무문 그리고 을밀대와 성곽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2 대동강변에 면한 대동문과 평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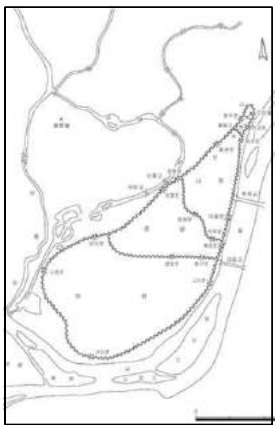


그림 3 평양성 공간구조

그림 4 평양, 1918년

북성, 내성, 중성 및 외성으로 구성된 평양성은 을밀대가 위치한 금수산이 남서쪽으로 흐르는 지형 위에 자리 잡고 있다. 평양성의 북측에 위치한 북성에는 높이가 96미터에 불과한 금수산이지만 대동강과 보통강으로 둘러싸인 평양성은 요새로서의 구성을 갖추었다. 금수산의 최고봉인 모란봉에는 최승대가 위치했고, 그 아래에 을밀대가 위치하고, 을밀대와 그 아래에 모란대와 영명사가 위치해 있다. 금수산의 능선은 내성을 거쳐 중성에서 소멸되며, 외성은 평지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외성의 도시조직은 구릉지에 형성된 내성이나 중성과는 달리 격자형으로 형성되었다.

3. 대한제국기 평양성의 변화, 1897~1910

1899년 평양개시(平壤開市) 후 천년고도인 평양의 변화가 본격화되었다. 평양개

2) 동북아역사재단, 고구려 장안성의 구조와 도성체계, http://contents.nahf.or.kr/goguryeo/pyongyang/html/7_1.html#
3) 민덕식, 고구려 평양성의 축성과정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제39집

시가 결정되었지만, 이는 외국인의 거주를 가능케 하는 개시 구역의 입지와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한국정부와 각국 대표사이의 입장이 대립했다. 한국정부는 평양성 주변 5리 까지를 정부소유로 설정하고자 했지만, 각국 대표는 평양성 전체를 개시장으로 설정하고자했다. 결국 개시장의 중심은 외성이 되었고, 평지로 구성된 외성은 한국정부는 물론 각국의 이해가 집중되는 변화의 중심이 되었다. 평양은 조선시대 제2의 도시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었으나, 오랫동안 주목할 만한 도시구조의 변화는 없었다. 평양의 도시구조와 위상의 변화는 1897년에 출범한 대한제국기에서 시작되었다. 1902년 광무제 즉위40주년을 기해 한국정부는 평양에 행궁이 설치되었는데, 위치는 외성이었다. 고구려시대에는 내성에 궁궐이 위치했고, 조선시대에도 내성에 감영이 위치했던 까닭에 내성에서 대동강에 면한 대동문 평양의 관문이었으나, 대한제국기에 이궁(離宮)이 외성에 건설되면서 중심에 변화가 일어났다. 이궁의 건설은 1902년 5월 1일 특진관 김규홍에 의해 양경제도를 채용하여 평양에 서경(西京)을 둘 것을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평양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인문이 열린 고장으로 세 성인이 연이어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다스린 지가 모두 천년”이며, 평양은 “만년의 왕기”가 서린 곳이므로 서경을 두어, 이궁을 새로 짓고, 군사를 증설하여 그를 지키게 함으로써 나라의 위엄을 장엄하게 만들고 터전을 공공히 해야 한다고 진언하였다.

1902년(광무6) 고종실록 6월 2일자 기사에 따르면, 광무제(고종)는 평양에 궁궐을 건설하는 당위성에 대해 서경 감동 당상(西京監董堂上) 민영철(閔泳喆)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로부터 제왕의 나라에 두 개의 수도가 있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 또 평양(平壤)은 기자(箕子)가 남긴 성도(聖都)이며 왕의 기운이 모인 곳이다. 짐은 그곳에 서경을 두고 호경(鎬京)이나 낙양(洛陽)과 더불어 융성함을 겨루며 대려(帶礪)를 끊없이 드리우도록 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이 공사를 경에게 맡겼으니 경은 힘쓰라. “

그림 5 구풍경궁,
조선총독부지형도/1916

그림 6 공사 중인 풍경궁의 정문인 황건문

1902년 8월 9일자 황성신문에 따르면 행궁의 입지는 외성의 옛 기자궁(箕子宮)을 기점으로 북동에 위치했다. 남북으로 1백5십칸, 동서로 1백칸으로 면적은 2만6천6백 평에 달했다.[4)]

외성의 변화는 1905년 경의철도의 부설로 본격화되었다. 1896년 프랑스 피브릴사(Compagnie de Fiveslille)에 양여되었던 경의철도부설권이 3년이 넘도록 착공되지 못하자, 한국정부는 부설권을 회수하여 대한철도회사에 넘겨주고, 서북철도국을 통해 경의철도를 직접 건설하고자했다. 그러나 러일전쟁으로 경의철도부설권이 일본에 넘어가 1905년 4월 임시 개통되고, 1906년 4월 3일 완전 개통되었다. 평양역도 외성에 건설되었다. 경부철도가 서울과 달리 평양성을 관통하고, 평양역이 외성에 설치된 것은 외성이 평지였기 때문이다. 경부철도가 격자형 가로조직의 외성을 대각선으로 관통하면서 외성의 공간조직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평양을 관통하여 의주로 향하는 경의철도는 노선은 지형을 감안하여 기존 외성의 조직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면서 남동쪽을 향한 평양역이 외성의 동북쪽에 건설되었다. 이로써 경의철도와 나란하게 도로가 개설되는 한편, 평양역에서 남동쪽으로 직선도로가 개설되면서 격자형 가로망에 대각선의 새로운 도시축이 만들어졌다.(그림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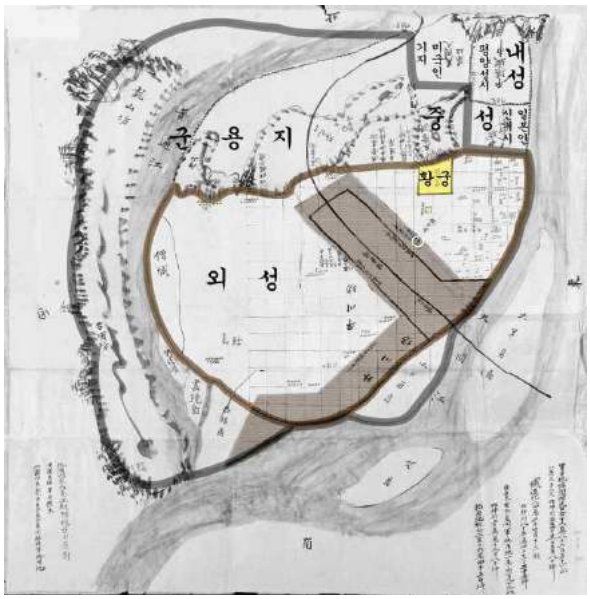


그림 7 1907년 7월경의 평양, 출처: 박준형, 1899년 평양개시 이후 평양성 외성공간의 재편과정, 한국학연구 제39집, 2015.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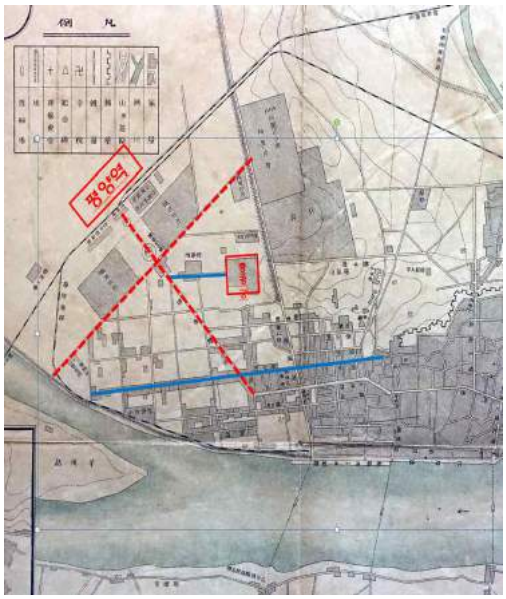


그림 8 평양역과 신설된 가로망(빨강색이 신설도로)

1902년에 건설된 풍경궁의 경우 기존의 외성의 가로체계를 따라 지어졌지만(붉은색), 1905년 경의철도와 부설로 건설된 평양역은 외성에 새로운 가로체계를 만들어,

4) 황성신문 1902년 8월 9일 2면

기존 가로조직과 충돌했다. 러일전쟁 직후에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철도관사와 병영의 설치에도 반영되었다. 외성과 면한 중성의 남측에 대규모 병영이 건설된 것이다.

4. 일제강점기 평양의 변화, 1910~1945

경의철도 부설이후 내성과 중성은 한인의 거주지로서의 성격이 유지되었으나, 외성은 평양역을 중심으로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일인거주지로 빠르게 재편되었다. 이러한 민족별 공간점유의 변화는 박현의 '일제강점기 평양의 도시공간분석'에서 제시한 도판 <그림9>에서 잘 드러난다. 일인의 상권이 외성에서 중성의 원도심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림10>의 평양의 공간 용도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성일대가 군과 철도 관련 시설이 집중되었으며, 철도를 기반으로 하는 물류의 이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공업지대가 평양역 주변과 대동강 건너편에 위치한 동평양 선교리 일대에 형성되었다. 일제강점기 초에 대동강 동편의 저습지 일원에 공업지대가 형성된 것은 서울의 영등포 일대가 공업용수 확보가 용이하면서 수로를 이용한 물류와 경인철도 이용의 편리성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공업지대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동평양 일원은 경의철도의 이용과 공업용수 확보의 유리한 점 외에도 대규모 탄광이 인접하여 연료 확보가 용이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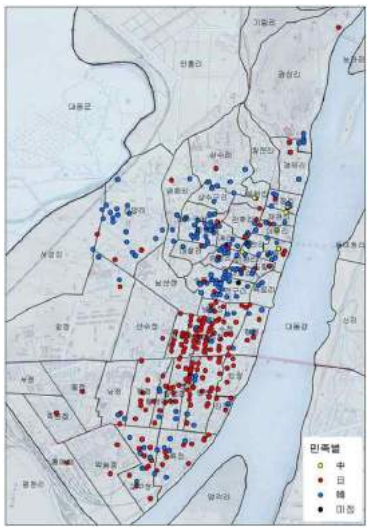


그림 9 민족별 분포양상,
출처: 박현

대한제국 시기인 1903년에 황실이 프랑스 용동상회(龍棟商會)와 합동으로 개발을 시작한 평양광업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탄광이었다. 이 탄광이 1910년 조선총독부 평양광업소가 되었는데, 1922년 이후 평양광업소의 생산권은 일본 해군성으로 이관되어 해군연료창 평양광업부가 될 정도로 군사적으로 중요했다. 이와같은 조건으로 평양은 일찍이 공업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공업화는 평양성이 아닌 대동강 동측에 국한되었다. 일제강점 초에 평양성은 일인의 신시가지와 군부대가 변화를 주도했다면, 대동강 동편은 공업지대의 형성이 평양 도시성장의 변화를 주도했다. 평양의 공업화가 평양성 일원으로 확장된 것은 만주사변(1931)년 이후다. 일

그림 10 평양 공간별 성격,
출처: 박현

그림 11 평양사동광업소 채탄장 권양기

본의 한반도 지배 초기의 식민정책은 공업화와 거리가 있었지만, 1931년 만주국 건설로 대륙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전쟁수행을 위한 공업화가 시작되었고, 1937년 중일전쟁이후 총력동원체제하에서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공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주거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공업지구조성'과 '주택지개발'이 평양 도시구조 변화에 중심이 되었다. 특히, 1938년 4월 1일에 공포된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면서 식민지 행정은 일제의 전쟁수행을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조선총독부는 '주택부족 문제'가 '노동력의 적정한 배치'와 '생산력 확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서 주택난이 심각한 곳과 공장진출로 시가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주택지경영지구로 설정했다.[5] 선정된 9개 도시에 17곳 중에서 평양의 규모가 8,221,877㎡로 전체의 51.39%를 차지할 정도로 최대 규모(조선 주둔 일본군 군용지 3,5,000㎡ 포함)였다. 평양의 주택경영지구 조성에서 가장 큰 변수는 군대였다. 중일전쟁으로 전선이 중국대륙 깊숙이 형성되면서, 기존의 19사단과 20사단 외에 1942년에 평안남북도와 황해도를 작전구역으로 하는 30사단이 새로 설치되었는데, 사령부는 평양에 위치했다. 그러나 군용지중 주택지는 대동강 동편의 평양부의 신리, 문수리, 율리) 대동군의 추을미면(사동리 빈리), 율리면(송신리 장지리 장천리 신동창리 장천리)에 위치한 까닭에 옛 평양성의 도시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이에 반해 1937년에 고시된 평양시가지계획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평양성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일찍이 공업지역으로 성장한 동평양 외에 평지가 발달한 외성의 북서쪽 일대가 공업지구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사행하천인 보통강변에 위치해 있어 해마다 반복되는 상습 범람지역이었다. 따라서 보통강변의 반복되는 여름철 홍수 문제 해결하는 것이 공업지대 조성의 핵심이었다. 김하나의 연구[6]에 따르면 1942년에 작성된 '평양부당상리공업용지조성공사계획평면도'(그림12)에서 계획면적은 약 61만평이며, 구불구불한 보통강의 직선화하여, 폭 50~100미터에 달하는 운하를 개설하고, 주 운하에서 분기되는 폭 25미터의 소운하도 계획되었다. 개착되는 운하 주변에는 공장이 배치되는 계획이었다. 1945년 해방 당시에 '당상리공업용지조성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지만, 1946년에 미군에 의해 작성된 지도(그림15)와 리화선의 '조선건축사2'에 따르면 보통강 개수공사가 1946년 5월 21일에 착공해서 19466년 7얼 15일

5) 이명학, 총동원체제기 주택정책의 변화와 주택지경영사업의 전개, 한국문화 89, 347쪽
6) 김하나, 일제강점기 말 평양의 공업지역 조성계획, 출처: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7.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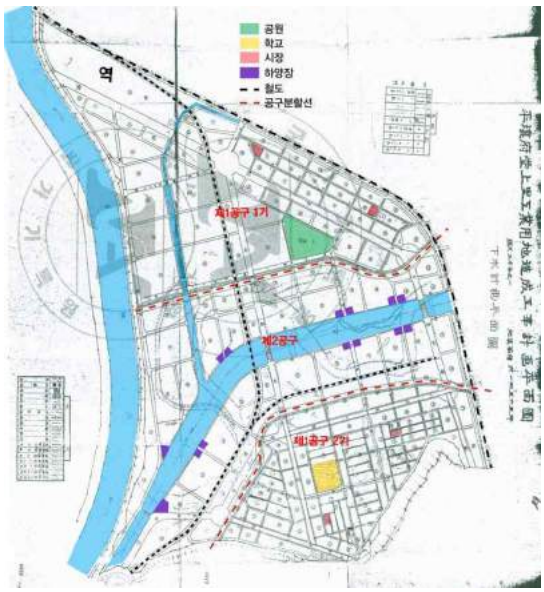


그림 12 평양부당상리공업용지조성공사계획평면도 분석도, 출처: 김하나(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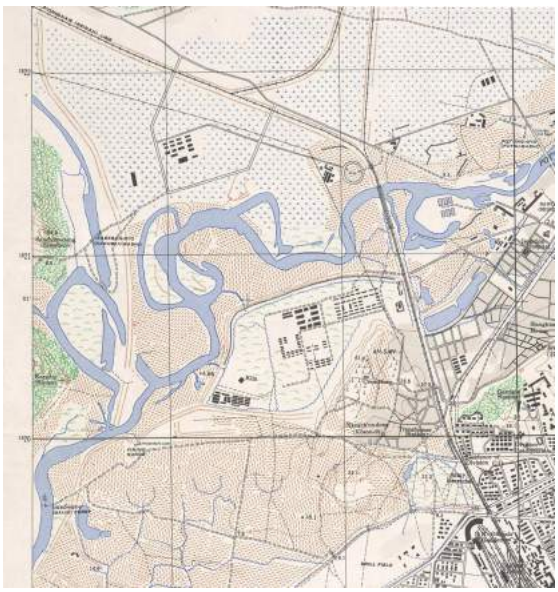


그림 13 평양 당상리공업지구 개수공사전, 출처: Library of Texas Austin University

에 개수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하며, 이후에 평양운하공사가 이어졌다는 기록으로 보아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일제강점기1945년에 시작된 당상리공업용지조성공사는 완료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해방 후 보통강변 개수공사와 운하조성사업은 평양의 사회주의 도시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5. 해방공간에서 평양의 변화, 1945.8.15. ~1948.9.9

1945년 8월 15일 한반도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었으나, 남과 북에는 38선을 경계로 각각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실시되었고, 1948년 8월 15일과 1948년 9월 9일에 남과 북에 각각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분단체제가 구축되었다

해방 직후 북에서는 '조선공산당 서북5도 당책임자 및 열성자 대회'를 통해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이 설치되었으나, 1945년 12월 17일 북조선분국 제3차 확대집행위원회에서 '분국'의 명칭을 거부하고 김일성이 위원장에 추대되었다. 이후 농지의 무상몰수와 무상 배분을 원칙으로 하는 토지개혁을 시행하면서 본격적인 사회주국가 건설의 행보가 시작되었다. 동시에 평양에는 각종 공공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보통강개수공사'와 평양신사 철거 후 건설한 '모란봉극장' 그리고 '5대 건설대상'으로 알려진 김일성종합대학, 내각청사, 중앙종합병원, 노동자아파트, 노동신문사청사 등이다.

1) 보통강개수공사

첫 프로젝트는 '보통강개수공사'였다. 보통강 개수공사는 일제강점기에 전시체제

하 공업화정책에 따라 공업지구조성을 위해 시작되었으나 2차 대전 종전 시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공사였다. 평양성 서측에 위치한 보통강은 구불구불한 사행천을 형성할 정도로 오랫동안 상습적으로 범람하는 지역이어서 시가지 형성이 늦었고, 이로 인해 일제강점기에는 한인 빈민층의 거주지가 형성된 열악한 도시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 중일전쟁이후 보통강 개수를 통해 제방을 쌓고 매립하여 마른땅을 만들고 운하를 개착하여 공업지대를 만드는 계획이 시행되었으나 마무리되지 못했던 공사가, 해방 후 북의 첫 공공프로젝트가 되었다. 1946년 5월 21일에 시작된 제방을 쌓는 1단계 공사가 6월 15일에 완공되었고, 이어서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방의 높이를 높이고 강폭을 넓히는 공사, 7월 1일부터 보통강물의 통수를 완성하는 공사를 시작하여 7월 15일에 보통강 개수공사가 마무리되었다.

그림 14 개수공사 후 보통강변풍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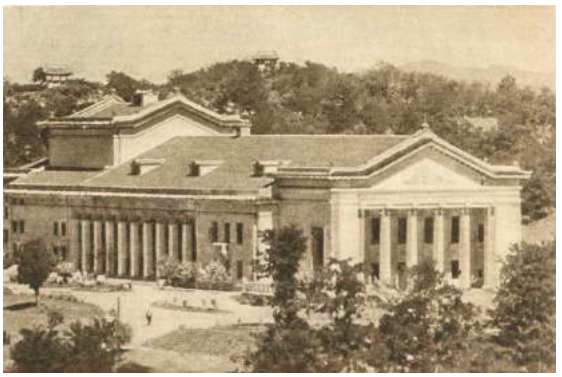


그림 15 모란봉극장

2) 평양신사 철거와 모란봉극장

일제강점기 식민지배의 대표적인 상징 시설인 평양신사가 철거되고, 신사 터에는 모란봉극장이 건설되고 주변은 공원으로 조성[7]되었다. 평양에 신사가 건립된 것은 1914년이었다. 금수산의 남측 구릉에 건설된 평양신사는 평양시가를 조망하는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방 직후 평양신사의 철거는 식민지에서 벗어났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이기도 했다. 평양신사 자리에 건설된 모란봉극장은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으로 지어졌다.

일제강점기에 한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한 대표적인 식민지 건축으로 평가받은 신사가 해방과 함께 철거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38선 이남에서는 미군정하에서 신사의 파괴가 시기를 놓쳤던데 비해, 38선 이북에서는 신사의 철거가 빠르게 진행되고 평양신사가 철거된 자리에 문화시설이 건축된 것은 식민잔재 청산과 문화향유의 중심에 인민을 두고 인민의 계몽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적 정책의 단면을 잘 보여준다.

7) 김정희, 도시건설, 39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53

그림 16 평양신사 출처: 19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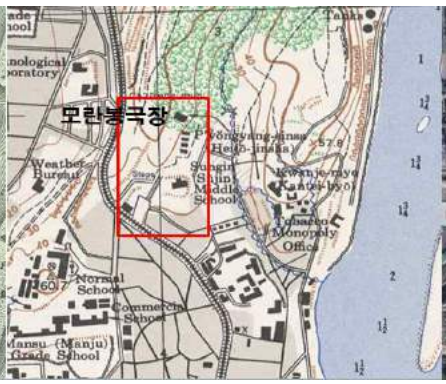


그림 17 모란봉극장 출처: 1946 미군제작지도

그림 18 모란봉극장
출처:2020 구글위성사진

3) 5대 공공건축

그림 19 평양종합병원, 출처: 조선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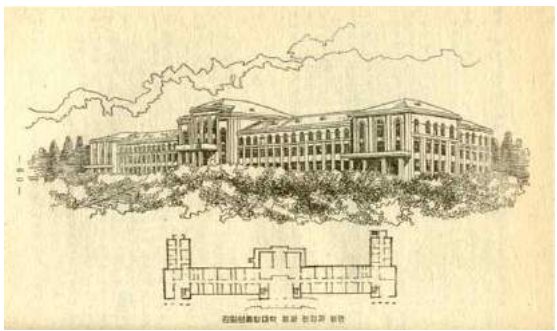


그림 20 김일성종합대학, 출처: 조선건축사

신축된 김일성종합대학, 내각청사, 중앙종합병원, 노동자아파트, 노동신문사청사 중 기능상 주목할 것은 김일성종합대학과 내각청사, 중앙종합병원이다. 일제강점기에 평양은 제2의 도시였던 까닭에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내각청사 건설과 대학 설립 등은 국가 건설을 위한 제1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 건축은 모두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으로 지어졌다. 해방 당시 고등건축교육을 받고 실무경험을 갖춘 한인 전문가가 없었기에 건축설계와 시공 및 재정을 모두 소련에 의존해야 했던 현실의 결과다. 당시 소련에는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보편화된 신고전주의건축양식이 지배적인 건축양식이었기에 그들의 원조로 지어지는 건축 역시 신고전주의 건축으로 지어졌다.

한편, 5대 건설대상의 입지가 도심에 집중되지 않은 점도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단면을 보여준다. 5개의 공공프로젝트 중 김일성종합대학은 평양의 북서부인 용흥리에, 내각청사는 서문 밖 신양리에 지었으며, 동평양에는 로동신문사와 국립중앙병원을 지었다. 이와 같은 주요 시설의 분산 배치는 도심으로의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 간 고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함이었다.

4) 인민주택현상모집과 살림집 건설

1947년 3월에는 <인민주택현상모집>이 시행되었다. '새로운 민족적 기풍을 표현한 인민주택양식의 표준형 제정'을 위해 도시형과 농촌형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계공모였다. 공모요강에서는 민족적 기풍을 살리고, 지역의 재료를 사용하며,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 등이 있어 해방공간에서의 현실을 반영한 주거 해법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설계공모의 결과가 실제 주택사업으로 연결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1949년에 평천구역의 간성동과 동평양에 저층살림집이 지어졌다. <그림19>의 간성동 살림집은 하나의 계단실을 3호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계획되었으며, 각 세대는 2개의 방과 부엌 그리고 화장실로 구성되었다. 동평양에 지어진 살림집은 2세대가 하나의 계단실을 공유하도록 지어졌다. 두 지역의 살림집은 모두 1층에는 온돌을 설치하였으나 2층 바닥은 목구조를 사용한 까닭에 온돌을 설치할 수 없었다.[8] 리화선의 <조선건축사>에 따르면, 간성동 살림집에서는 계단과 출입문 등에 부분적으로 현장 조립부재가 사용되었으며, 동평양살림집에는 굴착기, 소형기중기, 콘크리트 혼합기 등 기계장비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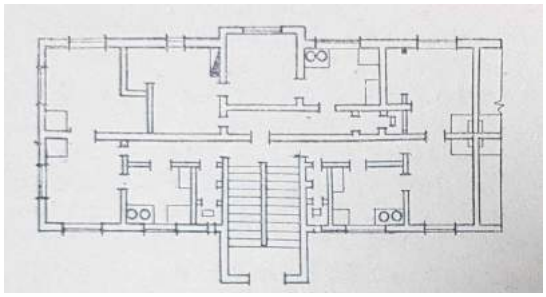


그림 21 평양시 평천구역 간성동 2층살림집

해방직후에서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 5년은 도시와 건축을 통해서 사회주의정권이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기에 충분하지는 않았지만, 인민의 삶을 전면에 내세우며 도심집중을 해소하여 지역간 균형있는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원칙이 보통강개수계획과 공공문화시설의 건설에서 잘 나타난다. 동시에 사회주의 국가체체를 갖추기 위한 기본적인 공공시설이 소련의 지원하에 건설되면서, 우리의 역사와는 거리가 있는 동유럽의 고전주의 건축양식이 평양에 이식되었다.

6. 전후 평양시 복구재건총계획, 1950~1956

평양에서는 사회주의 정치체제가 구축된 해방 직후에 신축된 공공시설이 한 곳에 집중시키기 보다는 도시 각 지역에 고르게 분포되었지만, 평양의 도시구조는 역사도시의 틀이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6.25전쟁은 평양의 도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김정희의 <도시건설>에 따르면, 북의 지상건물 파괴율은 74%였고, 그 중에서 평양은 87%에 달했다고 한다.

8) 리화선, 조선건축사2, 49~51쪽,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1953년 내각결정 제125호 <평양시 복구 재건에 관하여>가 채택[9]되었는데, 여기서

파괴된 평양시의 복구 재건에 있어서는 과거 일본제국주의 시대의 비문명적이며 착취와 억압과 특권계급의 향리와 이기적 목적을 기본으로 하여 건설한 퇴폐적인 내용을 일소하고 근로 인민들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위한 현대적인 새 민주도시를 창조하여야 할 것

이라고 밝히면서, 평양시 복구재건의 기본방향[10]을

평양시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도시의 기본을 보존하면서 주택, 산업 및 교통의 옳은 배치와 도시주민생활의 정상적 건강 조건을 보장하는 주택구역을 옳게 조직할 것이다.

그림 22 평양시 건설전망도, 출처: 평양, 1960

라고 밝히고, '도시규모를 크게 하고 도시에 인구를 집중시키는 것은 18-19세기에 하던 낡은 자본주의적 방법이기에, 도시의 규모를 절대로 크게 하지 말고 소도시 형태로 여러 곳에 건설'해야 하며, 그래야 '도시를 운영하는데도 편리하고 도시와 농촌을 골고루 발전'시켜나가는데도 좋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사회주의가 산업혁명으로 구조화된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생했고, 산업혁명이후 해체된 공동체와 농촌을 복원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기본 과제로 인식했다는 점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본주의 대도시는 모든 사회악의 온상'아라고 인식했던 사회주의자들이 산업혁명이후 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던 로버트 오웬(Robert Owen)의 인식과도 일치하는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대동강을 평양 도시의 축으로 설정하여 대동강을 따라 지형 조건에 어울리게 건축물을 배치하며, 김일성 광장을 남산 동쪽 기슭에 건설하며 대동강과 평행되면서 김일성광장에 면하여 승리거리를 내며 평양의 동쪽과 서쪽의 대동강, 보통강 하류에 공장과 기업소를 배치하며 위생, 교육, 문호, 편의시설을 균형적으로 배치하고, 주택지구를 녹화하고 도시 주변에 녹지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11] 그림24의 평양전망도는 공원문화도시를 지향하는 평양 도시계획의 지향점을 잘 보여준다.

---

9) 리화선, 조선건축사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104쪽
10) 리화선, 조선건축사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104쪽
11) 평양시 건설총계획에서는 '각 용도지역의 배치를 합리적으로 할 것', '도심부의 김일성광장을 중시할 것', '문화편의시설을 균등하게 배치할 것', '도시교통을 보장할 것' 등의 원칙과 함께 건축 밀도는 20-25%로 제한하고 1인당 거주면적은 6-9M2로 하는 등의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하였다. 시역 확대에 따라 순차건설계획을 명시하고 계획기간은 10-20년을 설정하였다.

김정희는 전후 도시복구 재건에서 소련의 도시계획이 가장 선진적이므로 소련 도시건설의 풍부한 실제적 경험에 의거해야 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도시 재건과 건축설계의 기본조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의 총 전망에 합리되도록 도시들의 장래 발전과 장성의 가능성을 보장할 것.
둘째, 현존 산업 기업소와 교통 시설들의 확장과 새 시설들의 발전을 위한 필요한 조건들을 창조할 것.
셋째, 주민들의 로동과 생활의 가장 편리한 조건들을 창조하도록 촉진할 것.
넷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경제 장래 발전의 총 행정에 합치되도록 인민 민주주의적 토대에서 생활의 계획적인 재건을 목적하여 사회-문화 및 생활 봉사 기관들의 건설을 위한 장소를 예견할 것.
다섯째, 전체 도시나 또한 그 개별적 부분(구회, 가로, 광장 등등)의 완전한 건축-예술적 구성의 전체를 창조할 것.
여섯째, 위생 조건을 개선할 목적으로 도시 내부 및 그 변방에 있어서 연결된 노화체계(문화 휴식공원, 유보도, 소공원 등등)와 보호지대의 창조를 계획할 것.
일곱째, 도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교외 농업 정리 지대를 조직할 것. 여덟째, 방화대책 실현을 보장할 것.

김정희의 이와 같은 주장은 소련이 사회주의국가로 출범한 이후 공업화에 기초한 도시건설의 성과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고 있다. 제시된 여덟 개의 조건중 7번째까지는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기본에 따른 것이지만, 마지막에 제시한 '방화대책'은 6.25전쟁중 겪은 공습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적 건축적 대응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평양 중심부의 도시계획에서 주요 시설 사이에 충분한 간격이 확보된 것은 유사시 공습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며, 이렇게 확보된 여유공간을 녹화(綠化)시킴으로써 공원문화도시화의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1) 평양 중심부 구성

평양의 전후복구 사업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중심부의 구성이다. 중심부 구성에 대해 '큰 광장 옆이나 번화한 거리에는 국가기관 보다 근로자를 위한 궁전, 극장, 영화관 같은 문화시설들을 건설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12]라는 지침이 있었는데, 이는 도시의 주인이 근로자임을 가시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사회주의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도시계획 원칙의 하나다. 서울의 세종로에 해당하는 김일성광장은

12) <김일성 저작집> 18권 89쪽/ 리화선, 19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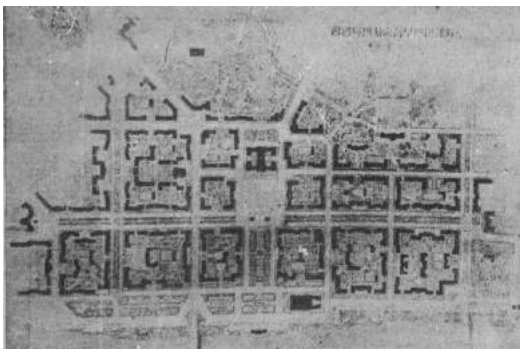


그림 23 평양 중심부 평면계획시안(김정희작), 출처: 도시건설(1953), '박동민, 평양의 전후 도시계획과 김정희'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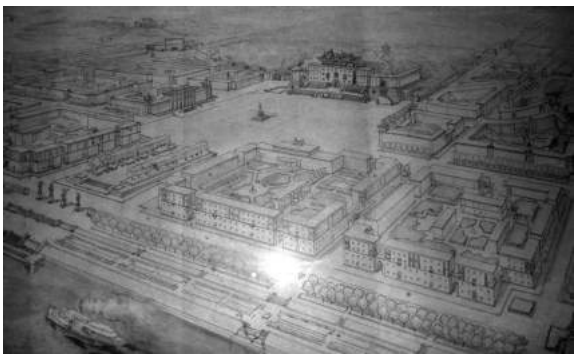


그림 24 김일성광장 조감도

정치, 문화행사가 진행되는 곳으로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인민의 영웅적 기상이 건축적으로 잘 형상'[13]화되도록 조성되었다. 이에 따라 1953년 광장 조성공사에서 광장 서측의 남산재 위에 인민을 위한 기념비적 건물을 앉힌다는 장기계획 하에 광장 좌우로 1, 2호 종합청사와 조선혁명박물관과 중앙미술박물관이 배치되었으며, 광장은 대동강변 유보도와 직접 연결되도록 계획되었다. 평양의 심장부를 광장을 중심으로 구성한 것은 서구의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형성된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기본 틀을 수용한 결과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광장을 에워싸고 있는 건축물의 기능이다.

그림 25 김일성광장 조성 후 1960

그림 26 대동강변 주거블럭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고도화되어 노동자가 스스로 각성하면 필연적으로 사회주의로 이행한다고 말했지만, 현실에서 사회주의는 유럽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러시아에서 실현되었다. 비록 사회주의국가가 탄생했지만, 마르크스가 사회주의 건설의 주축인 노동자층이 형성되지 않은 사회에서의 사회주의 국가 경영을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에 대한 교육이 필요했고, 자연스럽게 사회주의에서는 계몽적 성격의 공공문화시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평양의 심장부 도시계획은 자본주의가 고도화되지 않은 사회에서의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위해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공공문화시설의 역할이 중요했고, 사회의 주인이 된 노동자 농민을 위한 건축이 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것이다. 기념비적 건물을 위해 유보되었던 남산재 위에는 1982년 4

13) 리화선, 조선건축사2,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0쪽

월 도서관인 인민대학습당이 들어섰고, 동시에 대동강 건너편에 주체사상탑이 준공됨으로써 김일성광장 계획은 30여년 만에 완료되어 평양의 상징적 공간이자 대동강 양안을 연결하는 평양의 중심축이 완성되었다.

2) 유럽형 도시구조와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의 이식

그림 27 공업화건축으로 건축된 중정형 블록의 공동주택

북의 전재복구사업은 소련을 위한 동유럽국가외에도 중국과 몽고 등 전 사회주의 국가의 광범위한 후원 하에 진행되었다. 중국과 몽고가 생필품을 중심으로 전재복구를 지원한 반면,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은 도시의 인프라와 산업복구를 적극 지원했고, 이 과정에서 동유럽에서 보편적이었던 건축양식과 도시구조가 북에 이식되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신고전주의 양식의 공공건축과 중정형 블록(Perimeter Block)의 등장이었다. 전쟁 전에도 김일성대학과 해방호텔 등을 중심으로 신고전주의 건축이 도입되기는 하였지만, 당시는 몇 개의 건물에 국한되었었다. 그러나 전후 복구사업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국가의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도시 전체에 신고전주의 건축이 광범위하게 도입되었다. <그림29>은 로마풍의 신고전주의 건축으로 지어진 천문대의 모습이다. <그림30>은 평양역에서 바라본 시가지 모습이다. 신고전주의건축양식으로 지어진 평양역은 역전거리의 터미널비스터를 형성하는 지점에 지어졌으며, 거리 양편에는 중정형블럭으로 구성된 살림집이 위치해 있다. 중정형 블록에서는 가로에 주거가 면하고 가로 안쪽에 중정이 위치하게 된다. 이는 유럽에서는 보편적인 도시구조이지만 조선시대는 물론 일제강점기에도 이 땅에는 없었던 도시구조였다.

그림 28 평양역과 시가 전경

이 시기에 평양에 건축된 대표적인 건축물이 평양역사(1954), 대동문영화관(1955), 종합청사, 미술관 및 박물관, 평양학생소년궁전, 천문대 등이 있으며, 동시기에 건축되어 강연회와 연극공연장 등으로 사용된 각종 인민회당에도 동구 사회주의 국가에서 즐겨 사용되었던 고전주의 건축양식이 채택되었다. <그림29>의 천문대는 현대적 과학시설을 전형적인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으로 지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평양역사 중심에 설치된 8각형 시계탑과 대동문영화관에 사용된 8각형 기둥 그리고 종합청사 2호의 기둥 상부 장식이다. 북의 공공문화시설에는 8

각형의 건축어휘가 자주 사용되는데, 이는 고구려의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북에서 고구려의 쌍영총의 기둥이나 고구려 사찰의 탑지에서 발견되는 8각형의 건축어휘를 의식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동민은 '현대조선식 건축의 탄생'[14]에서 김일성광장에 건설된 종합청사2호 건물이 고전주의건축양식으로 지어졌지만 기둥 상부에 조선시대의 목조가구식구조에서 사용되던 단청 등의 장식기법이 소련의 상징적 의장과 함께 사용되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전후 복구기에 소련과 동유럽의 지원으로 지어진 공공건축에서 전통건축의 어휘와 장식이 사용된 것은 사회주의리얼리즘과 민족주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1949년 10월 15일 김일성위원장은 묘향산의 보현사에서 '대웅전의 여러 가지 색조를 조화시켜 화려하게 하여 고상한 건축미를 더욱 대웅전은 여러 가지 색조를 조화시켜 단청을 화려하게 하여 고상한 건축미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대웅전의 단청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자기의 고유한 색채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의 단청술이 대단히 발전하였으며 색소의 질도 높았다는 것을 말하여줍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대웅전 앞에 있는 8각13층의 석조건축술에 대해서도 극찬한 바 있다. 당시 최고지도자의 단청에 대한 극찬은 일제강점기 온돌과 단청이 조선의 문화가 정체되어 낙후된 증거라며, 전통건축의 특장점이 식민지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되어 식민사관을 형성하는 주요 논거로 사용되었던 점과 대비된다.

그림 29 천문대

그림 30 보현사 대웅전과 8각13층 탑, 필자촬영

그림 31 대동문영화관

그림 32 쌍영총 8각기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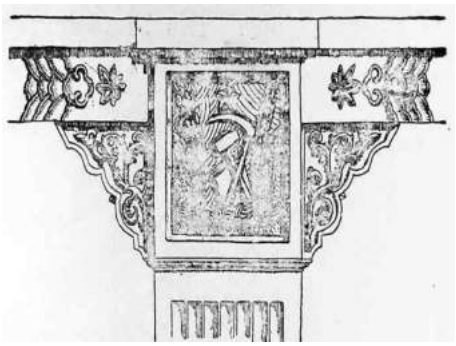


그림 33 종합청사 2호의 기둥상부,
출처: 박동민(2018)

14) 박동민, 현대 조선식 건축의 탄생, 121쪽,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18.10

7. 민족건축양식의 탄생, 1960년대

북의 전후복구3개년계획(1954-1956)이 연평균 42%의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마무리되었고, 이는 북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기반이 되었다. 1953년 8월 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모든 것을 전후 인민경제복구발전을 위하여'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에서 김일성은 "중공업 기업소들의 확장과 인민생활 안정을 위한 경공업을 급선무로 복구 건설하여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인민경제의 전반적 복구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본 공업시설부터 건설"할 것을 강조하여 중공업 우선정책의 실시를 강조하였다.[15] 이러한 김일성의 입장은 전후복구3개년계획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강화되었고, 김일성은 1956년 6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교조주의 수정주의와 종파주의를 반대하며 정적들을 숙청하고 권력기반을 확립했다. 이때 김일성은 '우리식대로'를 주장하며 중공업중심 정책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건축에서 공업화가 적극 추진되는 동시에 공공문화시설에 동유럽의 신고전주의 건축을 대신하여 민족건축양식이 등장했다.

1960년에 건축된 평양의 평양대극장과 옥류관 그리고 개성의 학생소년궁전이 대표적인 건축이다. '제1차 7개년계획(1961)에서는 '민족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부여'해야 한다는 지침이 마련되었다.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 시기에 개최된 '조선건축가동맹' 제2차 대회(1964)에서 '건설분야에서 교조주의,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그림 34 평양대극장 초기 디자인,
출처: 건축의화원1, 1990

그림 35 평양대극장 전경

주체를 확립함으로써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건설하기 위한 당의 방침을 관철하였다'는 보고는 해방과 전쟁이후 소련 사회주의 건축의 영향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가 관철되었음을 의미한다.

리화선에 따르면 평양대극장은 첫 현대 조선식 건물의 하나로 1960년대 대표적

15) 이신철, 전후복구삼개년계획,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 문화시설이다. 민족건축형식을 전면에 내세운 평양대극장의 건축에는 김일성이 적극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에서 건축설계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아야한다고 하는데, 1960년 8월에 준공된 평양대극장은 첫 현대조선식건축이다. 크고 작은 지붕을 대극장을 구성하는 기능별 단위 공간에 씌어 전통건축의 집합적 이미지를 연출하였으며, 각 부분별로 지붕과 몸체와의 비례감을 유지하기 위해 2층에 난간을 설치하고 매스를 분절하였다. 평양대극장은 마당을 중심으로 채의 분할이 배치상 특징인 전통건축으로 현대적 기능의 대 건축물을 짓기 위해, 기능 단위의 매스와 그에 상응하는 다양한 지붕구성으로 민족건축형식이 만들어졌다. 평양대극장이 신고전주의 양식에 기초한 동유럽의 사회주의리얼리즘을 대체하는 의 사회주의리얼리즘 건축의 등장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34>은 평양대극장의 모형인데, 극장 상부를 덮고 있는 지붕의 모습이 <그림35>의 현 모습과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는 김일성의 현지지도에 따라 바뀐 것으로, 김일성의 전통건축에 대한 관심이 민족건축양식의 배경이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주체를 확립해야한다’는 말은 스탈린이 메르니코프(K. Melnikov)가 설계한 장식미술박람회의 소련관과 같은 구성주의건축이 대중과 소통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소비에트노동자궁 설계공모 당선안에서 보여주듯 고전주의 건축양식으로 회귀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소련이 구성주의를 버리고 그들의 전통건축인 고전주의건축으로 회귀한 것은 북에서 고전주의건축을 버리고 전통건축를 수용한 것에 비견된다.

그림 36 소비에트 노동자궁 계획안(왼쪽)과 인민대학습당(오른쪽)

그 결과 ‘사회주의적 내용에 민족적 형식이 부여'되어 탄생한 것이 민족건축양식이다. 민족건축양식은 문화시설에 집중되었는데, 해방 15돐을 맞이해 건설된 평양대극장(1960)과 옥류관(1960)을 비롯하여 개성학생소년궁전(1961), 인민문화궁전(1974), 국제친선전람관(1978), 인민대학습당(1982) 등이 대표적인 예다. 소련에서

러시아구성주의를 버리고 신고전주의 건축으로 회귀한 것과 북에서 신고전주의 건축을 버리고 전통건축형식의 민족건축양식을 공공문화시설에서 채택한 것은 사회적 리얼리즘의 개념에서 보면 동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 관점에서 보면 소비에트노동자궁과 인민대학습당은 건축의 양식은 다르지만 사회주의 이념에 충실한 같은 건축이라고 할 수 있다.

8. 도심재개발사업과 국제도시화, 1970~90년대

그림 37 천리마거리 전경

전재복구기에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에 의해 이식된 중정형 블록의 도시구조와 경관은 1970년대 시작된 도심 재개발사업을 통해 달라졌다. 사회주의 국가의 도시는 자본주의 국가와 달리 고층살림집이 도시경관을 주도하는데, 평양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전재복구기에 평양에 건축된 공동주택은 블록의 모퉁이에 탑형 고층건물을 배치하고 중간에 저층을 혼합 배치하여 폐쇄적인 중정형 블록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러한 주거블럭의 구성방식은 1960년대에도 유지되었다. 1969년부터 건설을 시작해서 1970년대부터 순차적으로 완공되기 시작한 도심부 간선도로변에 재건축된 천리마거리를 비롯한 창광거리와 안상택거리 등의 풍경은 이전 시기의 폐쇄적인 가로경관에서 탈피했다.

사회주의 체제인 평양에서 도심재개발은 개별적인 건물단위가 아닌 가로 단위로 진행되어, 전체적인 경관의 조화에 기초한 경관계획이 진행되어 개별적인 건물단위로 진행되는 서울의 재개발사업의 만들어낸 도시경관과는 크게 다르다. 이는 토지가 사유화되지 않는 사회주의 사회의 도시개발 방식이 갖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38>의 창광거리 재개발사업 풍경은 일시에 진행되는 창광거리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림37>는 전후 복구기에 형성된 도시블럭과 1970~80년대에 도신재개발을 통해 달라진 도시경관이 혼합된 모습을 보여준다. 1970년대 이후 평양 도심의 재개발사업을 통해 평양의 가로경관이 중정형블럭이 연출하는 저층 고밀도 도시경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1970년대 시작된 도심재개발사업은 1980년대에 국제도시화, 문화도시화 혁명도시화를 내세운 평양 도시계획의과 궤를 같이 한다. 평양의 도시계획에서 내세운 혁명도시화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 자부심이 발로이며, 이러한 자부심은 사회주의 도시가 자본주의 도시가 따라올 수 없는 우월함을 보여주는 도

그림 38 1970년대 재개발중인 창광거리

그림 39 50년대 도시조직과 현대 도시경관이 복합된 전경

그림 40 대동강 양안의 평양시가 전경, 필자 촬영

시계획으로 나타난다. 사회주의도시가 자본주의 도시에 대해 갖는 절대적인 우월함은 토지공개념에 기초한 '공원문화도시화'다. 이러한 개념은 평양시 건설전망도에서도 나타나 있다. 전재복구를 마치고 평양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전망도는 오늘의 관점으로 보면 녹색도시에 대한 비전을 담고 있다. 이는 토지가 사유화되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시스템이 갖는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사익의 극대화가 낳는 도시경관의 피폐화를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강점을 과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지금까지 평양의 도시계획에 이어지고 있다.

그림 41 만경대학생소년궁전

평양의 도시경관에 결정적인 변화는 1982년에 건설된 인민대학습당과 주체사상탑의 건설이다. 인민대학습당은 금수산의 능선의 동측 사면에 위치하며, 주체사상탑은 대동강 동편에 지어졌다. 인민대학습당이 남산재에 지어지면서 1960년 김일성광장 조성시에 유예되었던 평양의 심장부가 완성되었고, 대동강 동편에 지어진 주체사상탑과 함께 평양의 새로운 상징경관축이 마련되었다. 인민대학습당과 주체사상탑은 김일성주석 탄생 70년을 기념한 헌정프로젝트지만, 인민대학습당은 민족건축양식의 완성 그리고 주체사상탑을 연결하는 새로운 경관축은 인민대학습당과 함께 대동강과 금수산에 기초한 역사도시의 물리적 도시구조와 경관을 사회주의도시의 도시경관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1988년 서울올림픽과 경쟁 관계 속에서 개최된 평양의 1989년 세계청년학생축전으로 조성된 광복거리와 만경대 학생소년은 사회주의리얼리즘에 기초한 민족정서의 반영을 중시한 민족건축

과 민족건축의 현대화를 넘어 국제적인 건축의 흐름을 적극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림41>의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보여지는 현대적인 감각은 추상적인 모습이 되어 1930년대 소련에서 러시아구성주의가 소련 인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과 유사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예상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북에서는 현대건축의 어휘를 적극 받아들여 국제적인 흐름에 동참하면서 동시에 전체 건물의 형태가 건물의 기능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가운데 마당을 품고 곡선의 펼쳐진 날개를 부모가 아이를 품에 안은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설명하고, 최근에 완공된 원산 갈마국제비행장의 건물의 초기 계획안이 현대적인 감각의 하이테크 이미지를 가지고 설계되었지만, 인민들에게는 전통악기인 북과 장고에서 디자인의 모티프를 가져왔다고 설명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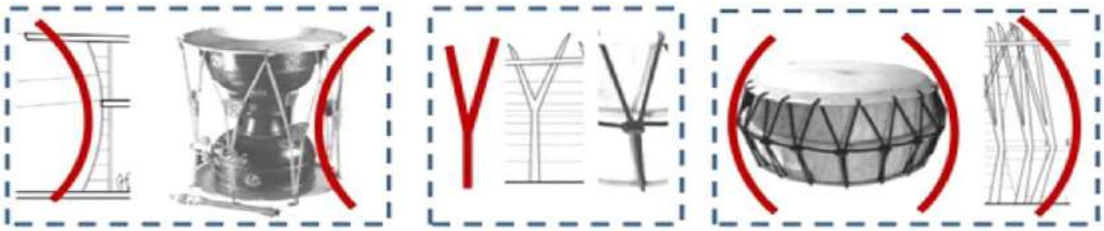


그림 42 원산갈마국제공항 형태디자인 요소

그림 43 원산 갈마국제공항 계획안,
설계: Karolis Kazlauskas and PLT Planning & Architect

이러한 변화는 세계화시대에 민족건축양식만을 고집할 수 없는 현실을 인지하고, 사회주의의 우월함을 유지하면서도 건축에서 세계적인 흐름과 궤를 나란히 하고자하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주체건축론에서는 '건축창조에서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을 옳게 결합시켜야한다'는 강령을 통해서 '민족의 구미에도 맞고 인민대중의 현대적 미감에도 맞는 건축'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무리없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9. 결론

수도로서 160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역사도시 평양이 사회주의체제 성립이후 불과 반세기만에 사회주의 체제를 표상하는 도시로 변모되었다. 역사도시 평양의 전시기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고, 평양의 근현대기에 관한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역사도시 평양이 사회주의 국가의 수도에 이르는 과정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변화의 시작은 대한제

국의 출발과 함께 지어진 풍경궁의 건설과 철도 부설과 함께 시작된 평양탄광의 개발이었고, 일제강점하에서 진행된 한반도의 병참기지화 속 공업화의 일환으로 전개된 평양성 밖의 공업지구 조성을 통한 시역의 확장 그리고 해방 후 사회주의 정권의 출범이었다. 해방 직후 실시된 소련의 군정 하에서 사회주의 도시계획과 건축이 부분적으로 이식되었지만, 결정적인 변화는 6.25전쟁으로 전파된 평양의 복구과정에서 적용된 사회주의 도시계획과 전쟁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한 도시계획이었다.

이 과정에 6.25전쟁전 소련과 동유럽에서 수학한 김정희를 비롯한 건축인들의 역할이 있었다. 그러나 전재복구과정에서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의 복구지원 과정에서 평양의 중심부와 이식된 유럽의 중정형블럭의 공동주택과 신고전주의건축양식의 문화시설에 전통건축 어휘와 장식이 일부 사용되기는 했지만, 본질적으로 북의 인민들에게는 이질적이었다. 북의 도시와 건축이 동유럽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것은 전재복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경제적 기반이 확보되고, 1956년 이후 김일성 체제가 확고해지고 '우리식대로'를 정책의 전면에 내세우면서다. 시작은 전통건축양식을 채택한 공공문화시설이었고, 전통건축형식에 인민들의 요구를 담은 현대조선식건축인 민족건축형식이 1960년에 등장해서, 소련과 동유럽에서 이식된 신고전주의 건축양식이 사회주의리얼리즘의 북한식 버전으로 대체되었다.

도시구조와 경관측면에서는 중정형 블록의 공동주택이 1970년대 본격화된 도심재개발사업으로 해체되고, 오늘날 초고층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하는 평양의 도시경관이 형성되었다. 마지막으로 1982년 대동강과 김일성광장을 사이에 두고 인민대학습당과 주체사상탑이 건설되면서 마지막까지 유지되었던 대동강과 금수산에 의한 자연의 질서는 새로운 상징적 경관축으로 대치되었다.

그림 44 1982년에 건설된 인민대학당과 주체사상탑으로 형성된 평양의 현 모습, 출처: Architectural and cultural Guide, Pyongyang, DOM publishers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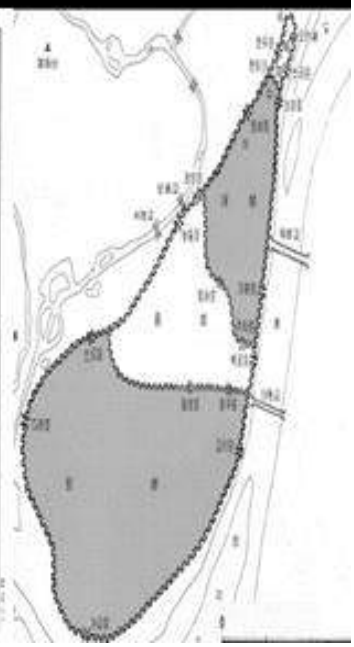
* 본 발표문은 '서울학연구' 2020. 8에 실린 '역사도시 평양의 사회주의 도시화 과정'을 편집한 글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학술회의_세미나_2021.05.28
평양의 역사와 건축
역사도시 평양의 사회주의 도시화 과정
The Socialist Urbanization of Historic City Pyongyang
안창모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평양구글지도
지상 60.00km
지상 0.88k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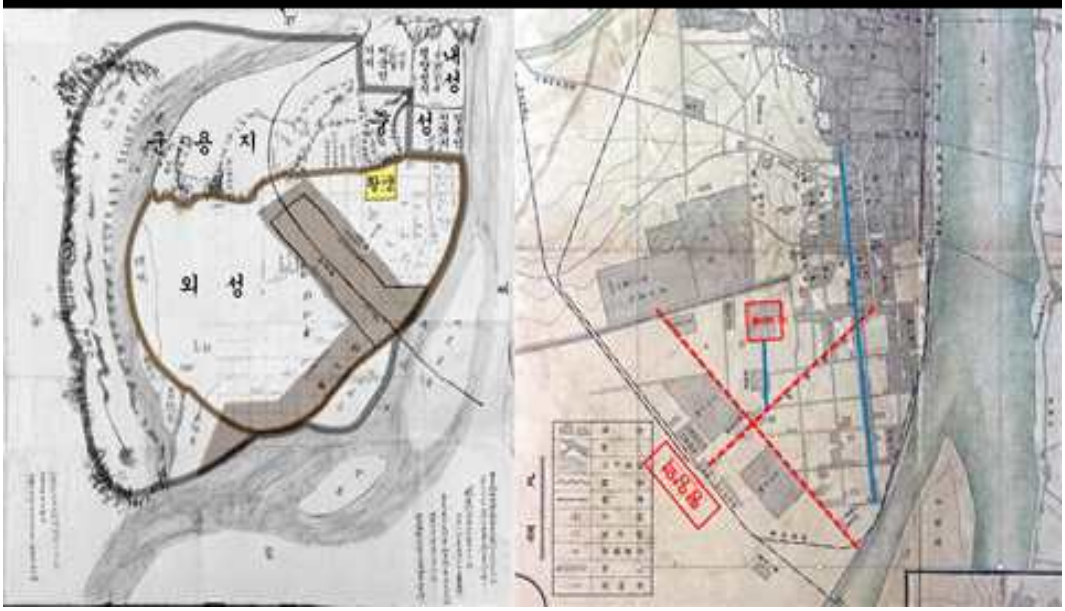
1. 역사도시 평양의 도시구조

- 금수산을 품에 안고 대동강+보통강으로 둘러싸인 도시
- 공간구성: 북성+내성+중성+외성



풍경궁 豊慶宮/1902

_대한제국: 황건문, 태극전, 지덕전, 중화전 건설
_일제강점기: 자혜의원
_현 김일성종합대학 부속 평양의학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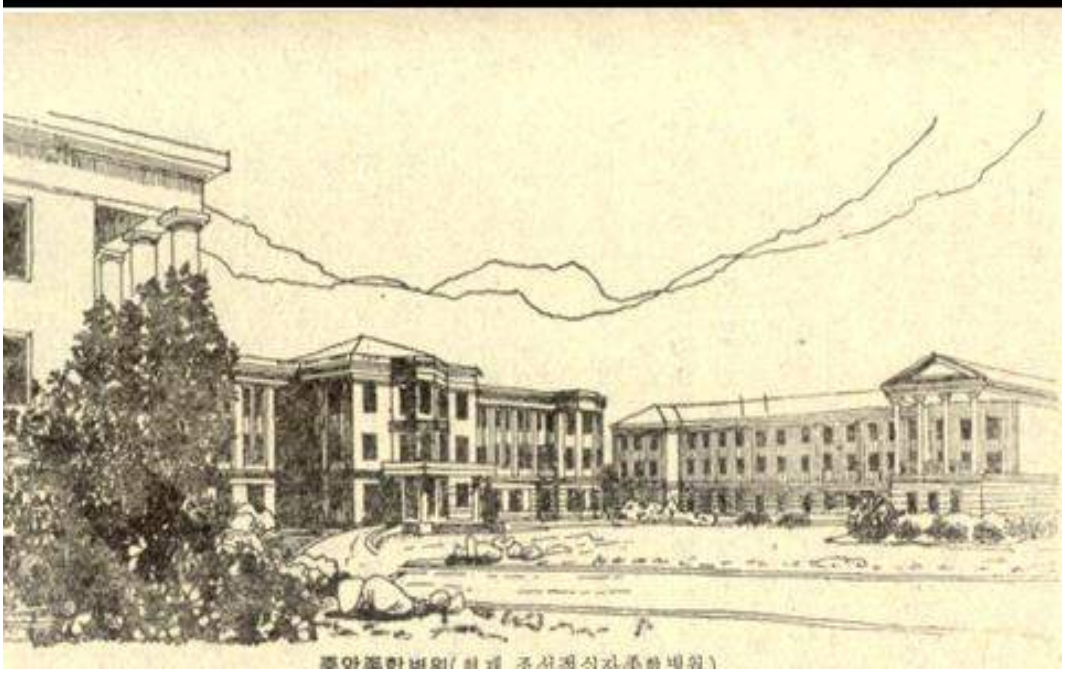
2. 해방공간의 평양 건축

평양당상리공업지구 개수공사후 | 평양당상리공업지구 개수공사전

2. 해방공간의 평양 건축

해방후 첫 공공프로젝트 _ 보통강개수공사

- 평양의 공공프로젝트 _ 입지 : 분산배치
  _ 건축양식: 신고전주의 건축양식



건축 노동자들에게 김일성 대학의 건축 도면을 보여주고 있는 예지니어

3. 평양, 전재복구

1953년 내각결정 제125호 : 평양시 복구 재건에 관하여

- 파괴된 평양시의 복구 재건에 있어서는
- 과거 일본제국주의 시대의 비문명적이며,
- 착취와 억압과 특권계급의 향리와 이기적 목적을 기본으로 하여 건설한 퇴폐적인 내용을 일소하고
- 근로 인민들의 생활안정과 복리를 위한 현대적인 새 민주도시를 창조하여야 할 것.

복구기본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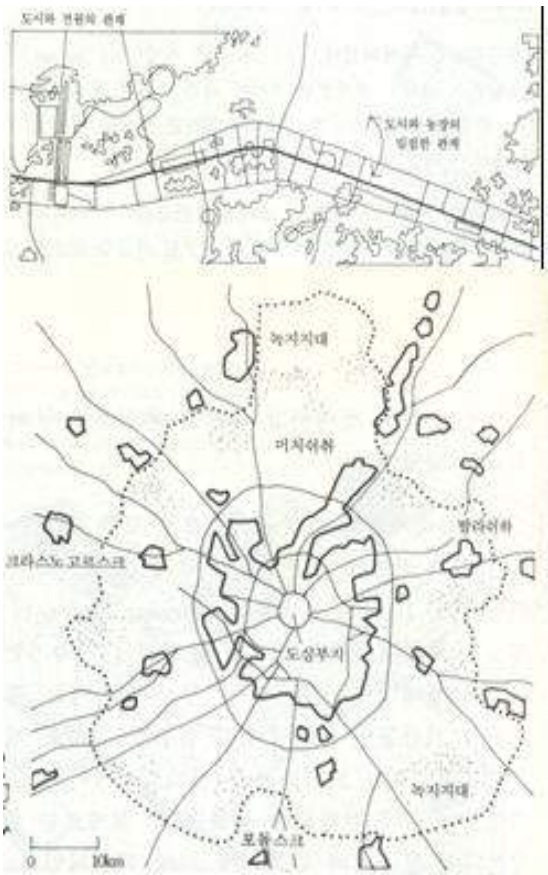
- 평양시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도시의 기본을 보존하면서,
- 주택, 산업 및 교통의 옳은 배치와
- 도시주민생활의 정상적 건강 조건을 보장하는 주택구역을 옳게 조직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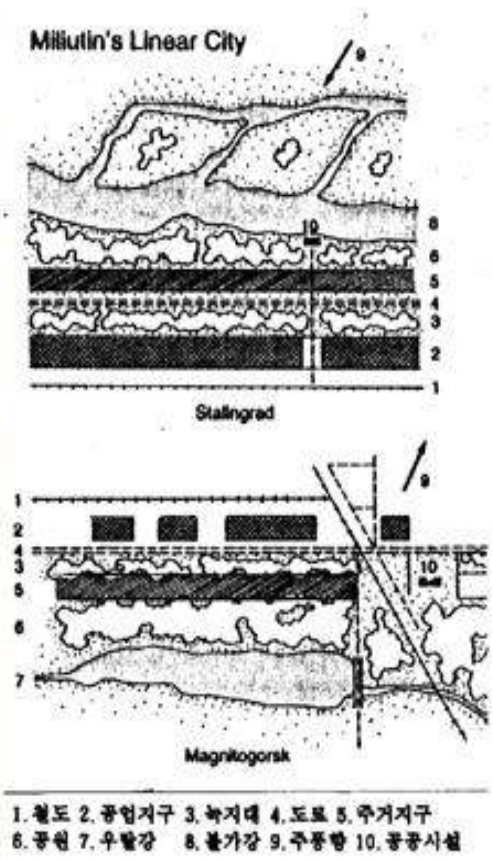
사회주의국가의 도시와 건축의 출발점

- 어디에서 **資本主義都市**와 달라지기 시작했는가?
- 사회주의의 출발점과 도시에 대한 생각

Lenin sa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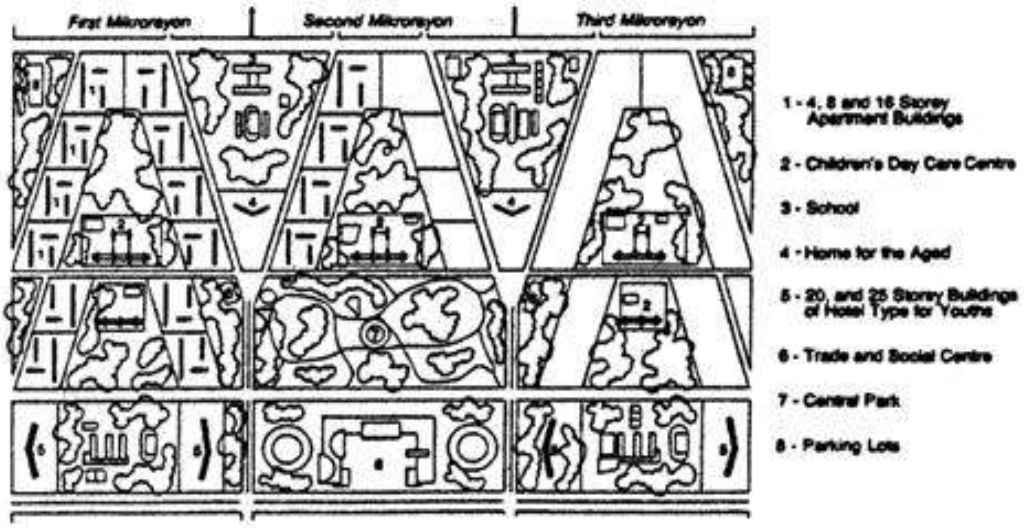
'Woman is crushed by her domestic work, and only socialism can save her from this situation. After a through examination of the problem involved in women building a new society, the Congress adopted a resolution which stated that: 'In the place of kitchen pots and wash troughs we must put, in town as in the country, communal kitchens, communal eating places, central laundries, workshops for mending clothes, collectives for the cleaning of linen and dwellings, etc. '





Mikrorayon(Neighbourhood Unit): 공동생활의 기본단위

자족적 집단주거단위: 공동주거, 공동취사, 여가, 탁아, 교육, 의료
·소구역(micro-district) : 10,000~ 12,000인/ 반경150~200m
·주거구역(residential district): 30,000~ 50,000인/ 반경1,000~1,2000m
·도시구역(urban district) : 1,000,000~300,000인
·도시지대(urban zone)



Narkomfin Building,1928~1932

Moisei Ginzbu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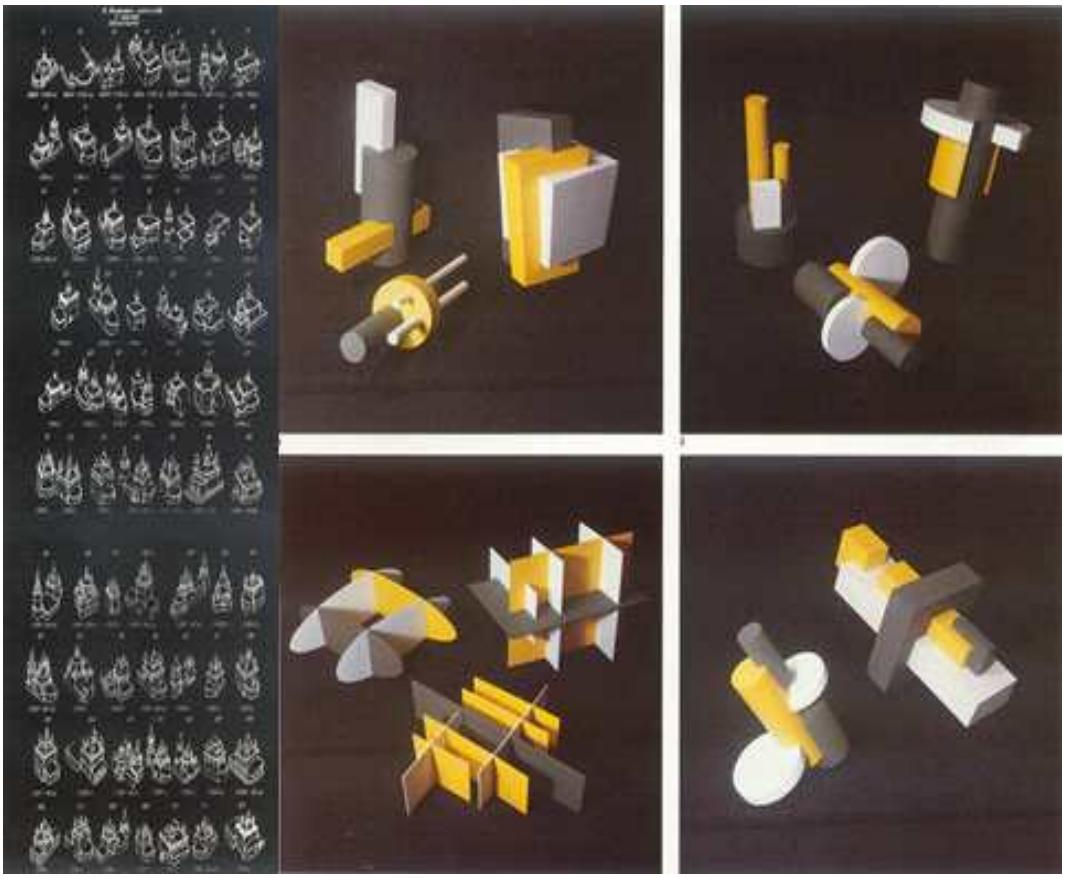
Soviet Pavilion, Konstantin Melnikov/1925파리장식미술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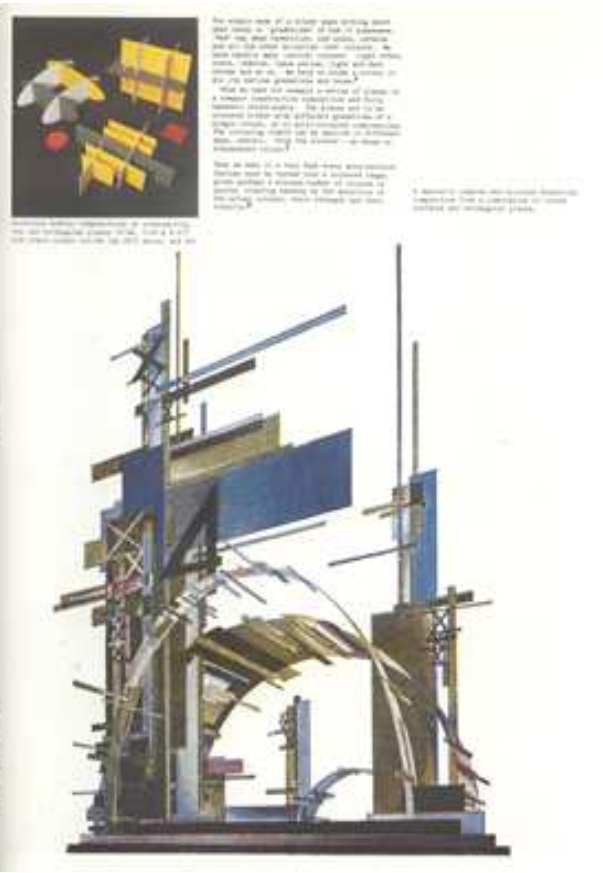
어떻게 이러한 건축이 가능했을까?

사회주의 사고의 근간?

건축도 과학처럼했다.

보일의 법칙, 아보가드로의 법칙, 분자, 원자, 진화론….





전재복구 방향

도시규모를 크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도시규모를 크게 하고 도시에 인구를 집중시키는 것은 18-19세기에 하던 낡은 자본주의적 방법입니다. 우리는 도시의 규모를 절대로 크게 하지 말고 **소도시 형태로 여러 곳에 건설**해야 합니다. 그래야 도시를 운영하는데도 편리하고 도시와 농촌을 골고루 발전시켜나가는데도 좋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있는 개발, 국토의 균형발전

도시에서는

- 각 용도지역을 합리적으로 배치할 것
- 도심부의 김일성 광장을 중시할 것
- 문화 편의시설을 균등하게 배치할 것
- 도시교통을 보장할 것

평양시가 역사적으로 형성된 도시의 기본을 보존하면서,
주택, 산업 및 교통의 옳은 배치와 도시주민생활의 정상적 건강 조건을 보장하는 주택구역을 옳게 조직할 것이다.

.**대동강을 평양 도시의 축**
으로 설정하여

.**대동강을 따라 지형조건**
에 어울리게 건물을 배치하며,

.**김일성 광장**
을 남산 동쪽 기슭에 건설하며

.**대동강과 평행되면서**
김일성광장에 면하여 승리거리를 내며

.**평양의 동쪽과 서쪽의 대동강, 보통강 하류에**
공장과 기업소를 배치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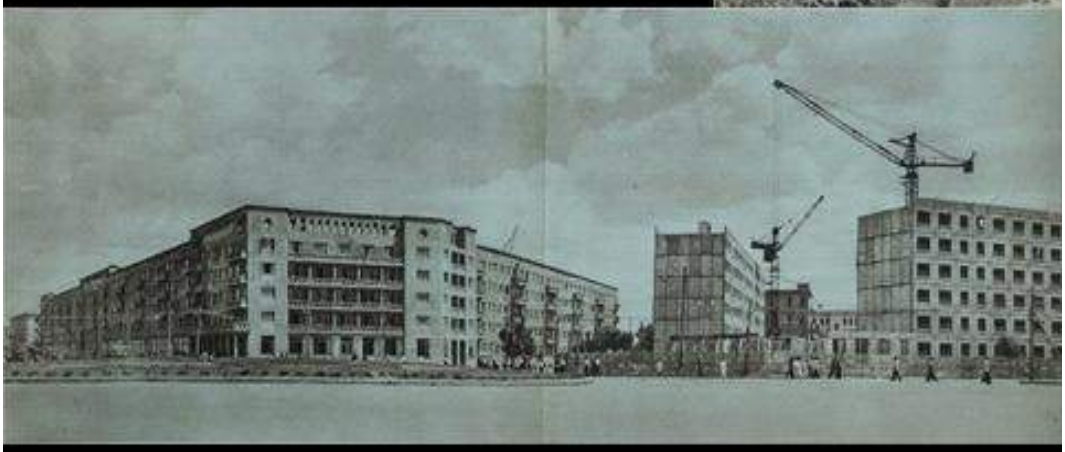
.**위생, 교육, 문화, 편의시설**
을 균형적으로 배치하고, 주택지구를 녹화하여

.**도시주변에 녹지대**를 형성해야한다.

계획 vs. 실천
1930s vs. 1952 vs. 2017

평양중심부계획 | 김일성광장 조감도

전재복구의 두 모습



평양역전거리 | 천문대, 신고전주의건축양식

4. 사회주의 이상도시, 평양전망도

5. 민족건축형식의 탄생과 진화

- 북한식 사회주의 건축양식
  - _ 1954년 3월 26일 전국 건축가 및 건설기술자 대회 – 민족적 건축 예술
  - _ 전후 복구기에 새로운 건축예술을 창조하는데 있어,…
  - _ 민족적 특성을 현대적 미감에 맞도록 해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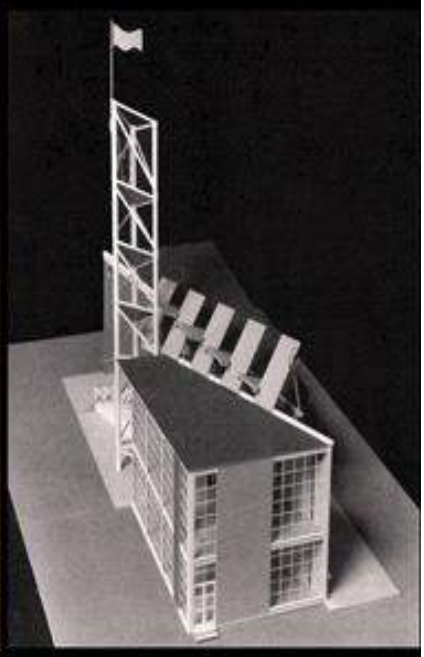
  건축설계 = 민족형식 + 사회주의적 내용
  민족형식=자기 민족이 좋아하고 구미에 맞는 건축형식
  사회주의적 내용=근로 인민의 요구에 적합할 것

- 1964년, 조선건축가동맹 제2차 대회
  - _ 건설분야에서 교조주의,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 _ 주체를 확립함으로써
  - _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건설하기 위한 당의 방침을 관철한다.

• 문화시설과 민족건축형식

_ 평양대극장, 1980
_ 인민문화궁전, 1972

소비에트 사회주의 건축설계 2제



1933 Palace of the Soviets vs. Soviet Pavilion 1925

Boris Iofan — Konstantin Melnikov

사회주의건축과 과학

1924, 스탈린의 집권과 소련 건축의 변화

Constructivism vs. Social realism

스탈린의 선택

러시아구성주의를
버리고
신고전주의양식의 선택!

스탈린 vs. 김일성 = 신고전주의건축양식 vs. 민족건축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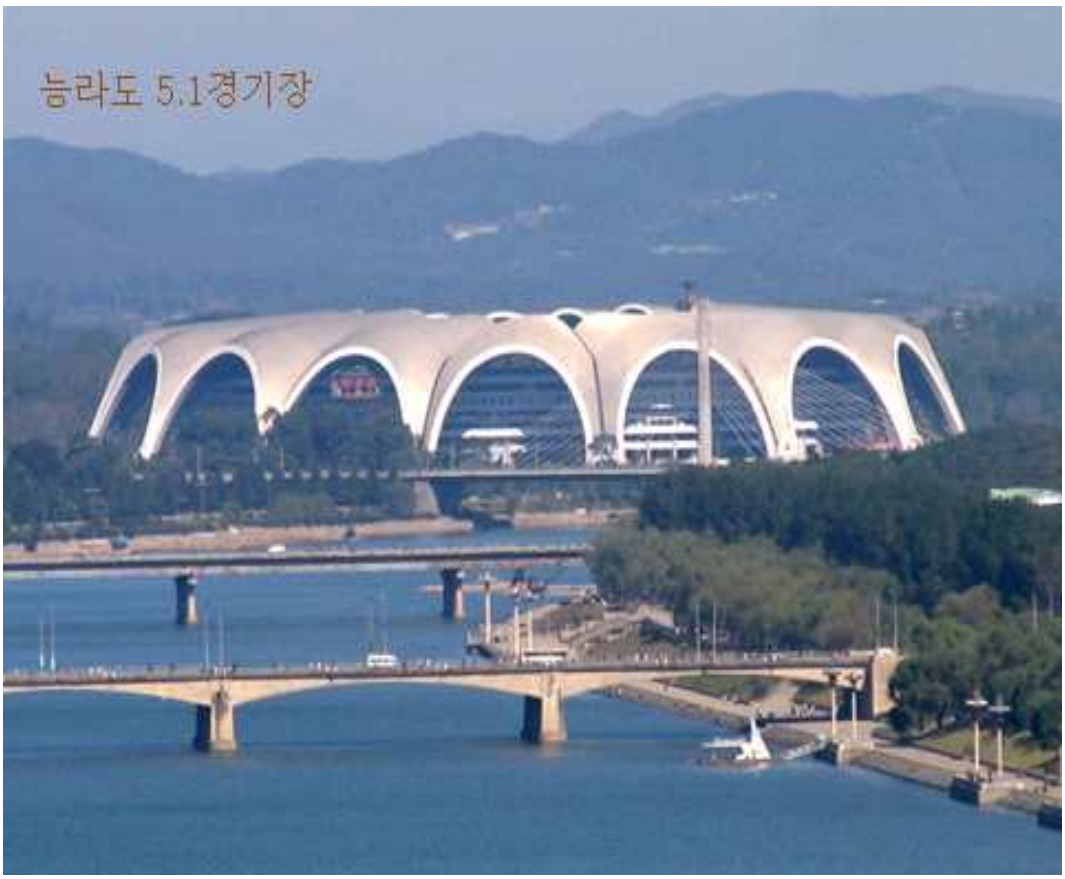
소비에트궁전 = 인민대학습당

만수대예술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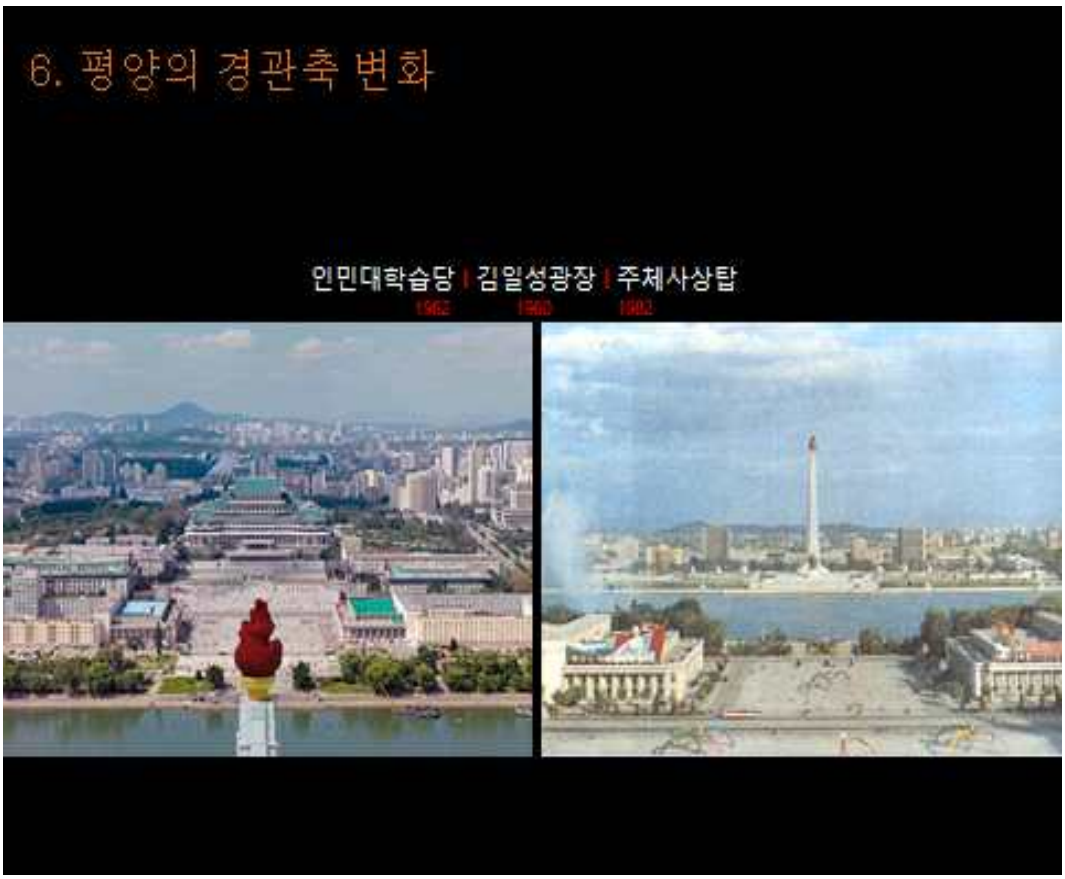
만수대의사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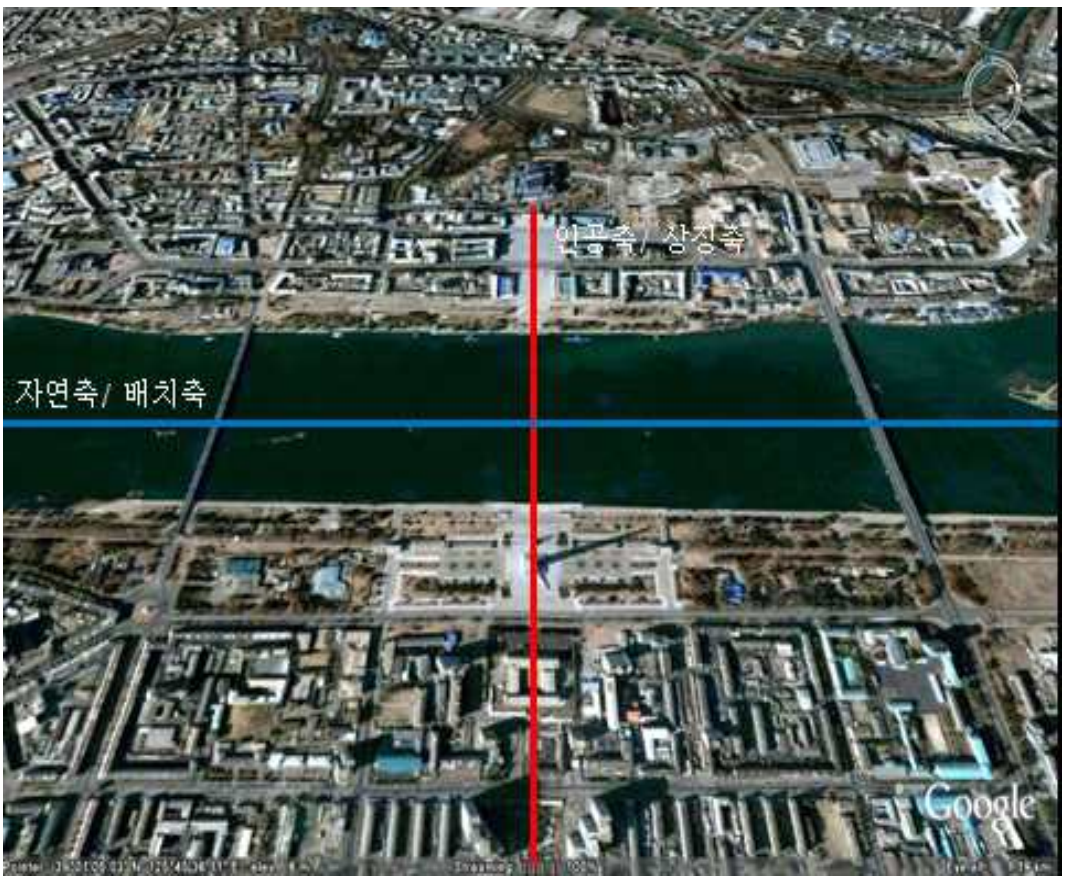
Ⅰ 개방화시대의 건축

현대건축양식 적극도입: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능라도 5.1경기장

세계청년축전-체육시설


6. 평양의 경관축 변화
인민대학습당 | 김일성광장 | 주체사상탑
1982 1960 1982


인공축/ 상징축
자연축/ 배치축
Google

오늘의 평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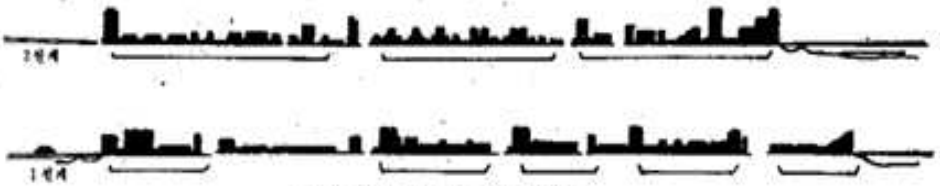
사진: 안광오

7. 시기별 평양 도시개발

- 1950년대: 전후복구기 , 유럽도시의 중정형 블록으로 재건
  - _사회주의국가의 총체적 지원
  - _헝가리: 평양/ 동독: 함흥/ 체코: 청진 등
  - _천리마거리: 건축양식은 신고전주의건축
- 1960년대: 고도성장기/ 민족건축양식의 추구
  - _평양대극장에서 인민대학습까지
- 1970년대: 남북한 체제경쟁기/ 도심재개발사업
  - _혁신거리, 낙원거리, 비파거리/ 지하철건설1973
- 1980년대: 국제도시화, 혁명도시화, 공원도시화추진,
  - _세계청년학생축전: 광복거리조성, 안골체육시설, 유경호텔
  - _평양과학기술대학
- 2010년대: 평양10만세대/3만 건설
  - _만수대아파트지구,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평양 5만세대/5년 건설

천리마거리 제2계단 건물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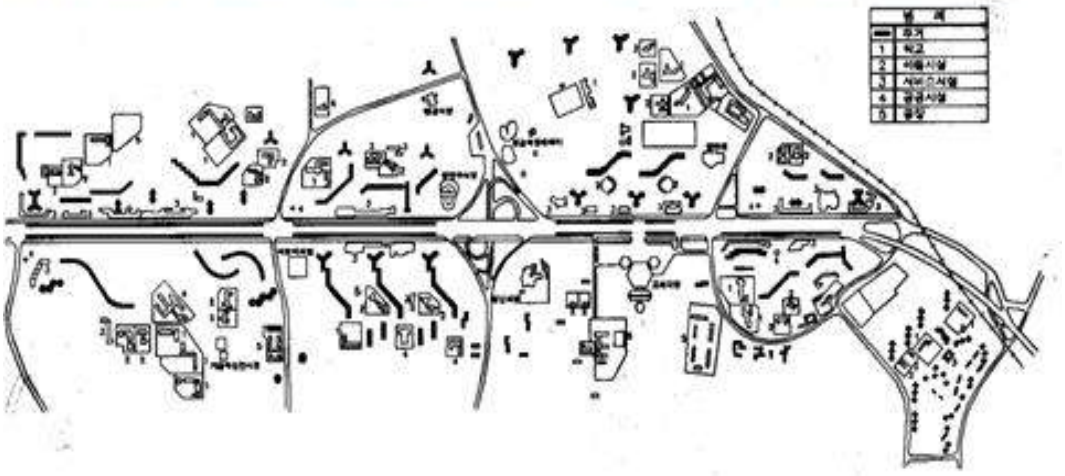


천리마거리 제2계단 거리블록구성

안상택자료

고려호텔 45층

세계청년축전과 광복거리 개발
길이: 5KM
년도: 1986~1989
규모: 2만세대
시설: 8-42층 아파트/청년호텔(31층), 평양교예극장,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창전거리 만수대지구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감사합니다.

발표 2

평양의 도시계획과 평양대도시권의 미래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

초 록

평양은 사회주의 공간계획의 이념에 충실하게 계획된 모델도시이다. 공간적 격차를 줄이고 자본주의 병폐를 일소하기 위하여 평등이념을 추구하여 계획되었다. 도농간 격차해소, 도시성장규모 억제, 자족적 생활단위의 설정 등이 그것이다.

이에 따라 평양은 방대한 도농통합형의 행정구역과 잘 짜여진 직주근접의 공간계획, 그리고 직장과 주거가 혼재하는 모델도시로 계획되고 조성되었다. 김일성광장과 인민대학습당, 주체사상탑으로 구성된 중심축과, 시각적 효과를 강조하는 중심가로 설계 등 평양의 도심부는 그야말로 사회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스테이지'로 보여진다.

베이징과 상하이, 호치민과 하노이가 변화해온 것처럼 평양도 이러한 변화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다. 소유권 혹은 이용권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도심부는 상업화되고, 주거는 외곽으로 빠져가는 변화가 예상된다. 광역교통의 확산과 승용차의 보급은 도시의 광역화를 가져올 것이다. 소유권, 지적 및 감평제도 등이 불명확한 개방의 초기단계에서는 주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개발이 어렵다. 따라서 외곽의 국영기업소의 종전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들로 평양은 1천만 대도시권으로 성장해갈 것이다. 1.1억 명의 징진지, 65백만명의 도쿄메가시티와 경쟁하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을 대도시권으로 연결하는 서울-평양 대도시권구상이 기대된다. 포스트 코로나 환경은 대도시권으로 플랫폼기업의 집중을 촉진하여 전세계가 메가시티 구축에 큰 관심을 가진다. 서울과 평양을 고속의 열차로 연결하고 중간도시들을 산업생태계로 연결하여, 특화해가는 구상은 베이징, 도쿄와 경쟁할 수 있고, 통합 한반도의 중심역할로 부각될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보여줄 것이다. 수도권의 인천공항, 판교, 삼성역, 분당과 일산에 해당하는 평양의 입지를 그려보자. 서울의 50년 경험을 통하여 평양 대도시권구상의 시행착오를 줄여줄 수 있는 교류와 협력의 기회를 기대해본다.

1. 들어가며	Introduction
2. 사회주의 도시계획 이론	Theories of Socialist Urban Planning
3 평양의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Urban Planning of Pyeongyang
4 평양의 변화	Changes of Pyeongyang
5 평양 대도시권의 미래	Future of Pyeongyang Metropolis

1. 들어가며 Introduction

사회주의 도시계획은 잘 사는 지역과 가난한 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주의 이념의 출발이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에 있었기에 이러한 이념의 공간적 투영이 지역간, 장소간의 격차를 줄이는 공간계획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지역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도시와 농촌, 대도시와 소도시간의 격차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도농복합형의 도시형태를 추구하며, 또 어느 한도시가 지나치게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고, 또 소도시나, 대도시내의 생활권이 자족성을 갖추도록 하는 무척이나 이상적인 계획수법들을 추구해 왔다.[1)]

계획(planning)이란 행위 자체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정부개입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국토계획, 도시계획의 출발 자체가 다분히 사회주의적 발상을 가진 것이다. 자유시장체제를 선택한 자본주의 도시는 거대하고 과밀하여 주택문제, 교통문제, 환경오염문제 등의 도시문제로 신음하고 있다. 이상적인 목표를 추구하였던 사회주의 도시들은 활기가 없고 주거의 질은 매우 낮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경제체제는 토지와 주택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가치와 가격의 형성방식, 교환과 배분의 방식, 토지이용과 교통망의 형태, 주택과 주거단지의 배치, 가로망과 건축물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도시와 자본주의 도시는 매우 다른 형태와 구조를 가지게 된다.

이 글에서는 사회주의 공간계획의 이념, 평양의 도시계획과 개발의 원칙과 주요 사례를 살펴본다. 개방개혁에 따라 평양대도시권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공간이 사유화되면, 이에 따라 서울대도시권과 마찬가지로 광역화되고, 메트로폴리스로 성장해가는 대도시권 과정을 전망해 본다.

2. 사회주의 도시계획 이론 Theories of Socialist Urban Planning

1)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원칙 Principles of Socialist Urban Planning

사회주의 건설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의 제거에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 이념 하에서 평등이란 직업적, 사회적, 인종적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공간적 차원에서도 추구되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의 공간적, 지리적 평등의

1) 김현수(2016), "사회주의 계획이념이 북한도시에 미친 영향", 『동아시아 도시공간의 형성과 사회주의 계획이론 - 북한과 중국 세미나』, 고려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세미나, 2016년 12월 2일

문제는 경제발전, 생활환경, 복지 등의 지역적 균등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다는 공산주의 기본원리에 의하여 모든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기회를 균등히 하는 것이다.[2] 혁명 이후 지난 70 년간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지역개발의 목표는 적어도 이념적으로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여 왔다. 마르크스주의의 전통에 따라 혁명의 초기부터 소련은 지역격차의 극복을 당의 주요과제로 설정하였다.[3] 사회주의 도시계획에서는 어떤 계층, 어떤 지역도 소외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격차해소와 균형개발을 위하여 인구이동을 통제하고 사회보장, 의무교육, 생활수준의 보장을 위하여 개인적 이익추구가 공동이익추구로 대체된다.

구소련 도시계획의 이념은 1935년과 1971년 두 차례에 걸친 모스크바종합계획(General Plan for Moscow) 그리고 1944년의 도시계획법(Code of Basic Principles in City Planning) 에 잘 나타나 있다. 도시계획의 3대 목표는 '도시규모 성장억제', '자족적이고 균형있는 코뮤니티의 형성' 그리고 '도농간 격차해소'로 요약할 수 있다.[4]

(1)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해소 Removal of Difference between City and Country

가진 자와 못가진 자간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사회주의 건설의 목표가 공간적으로는 잘사는 곳과 못사는 곳의 격차를 줄이는 것, 도시와 농촌간의 차별을 없애는 것으로 표출되었다. 사회주의 이상도시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선형도시(Linear City)도 주거와 직장간의 접근성을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소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장치라고 이해된다. 평양의 면적은 서울의 4배에 달하는데, 실제 도시화지역은 10% 남짓하여, 행정구역의 대부분을 농촌이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도시 내부에서도 도시와 농촌이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하여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사회주의 이념의 산물로 보인다.

(2) 도시성장규모의 억제 Control of City Size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가 대도시에서부터 출발한다는 마르크스의 견해에 따라, 도시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도시 주위로 위성도시를 건설해왔다. 이는 마치 에베네저 하워드(E. Howard)의 전원도시(Garden City)를 보는 듯한데, 하

---

2) 최병선(1989), '사회주의 국가의 도시계획', 도시문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89. 9, 10쪽

3) 1961 년 제 22차 당대회에서 채택된 제 3 차 강령에서 도시-농촌간의 격차와 지역문제의 해결을 공산주의 사회건설의 필수조건으로 삼아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해소하고 지역의 균등한 경제 발전을 성취하는 것을 지역정책의 기본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임석회, 소련의 지역개발정책과 지역격차, 공간과 사회 Ⅰ, 도서출판 풀빛, 1991, p.175)

4) Paul White, Urban Planning in Britain and the Soviet Union, Town Planning Review, Vol. 51, No.2, April, 1980, pp.216-217

워드가 로버트 오웬(R. Owen)이나 찰스 푸리에(C. Fourier)와 같은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걸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도시인구가 일정 규모이상으로 커지면, 익명성이 증가하여 공동체 형성이 어려우므로, 대도시의 외곽에 위성도시를 건설하여 모도시 인구를 통제한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평양 주위에도 위성도시 건설이 이루어졌다.

(3) 자족적 계획단위의 설정 Self-sufficient Planning Unit

지역 간의 격차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도시와 지역이 고루 잘 살아야 하는데, 그러자면 각 시군이 자족적이고 균형있게 성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971년 모스크바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시 전역을 8개의 생활권으로 구분하고, 각 생활권을 100만인 규모로 설정하여 그 내부에 주거, 생산, 교육, 위락 기능이 자족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각 지역의 중심에는 도심적 기능을 부여하여 구도심까지의 이동을 제한하였으며 각 지역사이에는 녹지대(green wedge)를 설치하여 위락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간의 이동을 억제함으로써 각 지역의 자족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평양에서도 주택소구역계획(micro-district)을 통하여 이와 같은 지역적 자족성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수법 Planning Tools

(1) 선형도시 (Linear City)

도시주의와 비도시주의 모두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여 보다 실현가능한 수정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바, 양 도시론을 수렴한 것이 선형도시(linear city)이다. 선형도시는 특히 비도시주의자의 정주지 연결체계를 수용하여 소련의 국토를 중소도시들의 네트워크로 연결함으로써, 이념적으로는 맑스와 엥겔스가 제기한 도시와 농촌의 통합이라는 테제의 현실적 실현수단이라 볼 수 있다.[5] 이러한 이념을 공간적으로 구현한 계획안이 밀류틴(N. Milyutin)의 선형도시(Linear City)로서, 도시의 대표적 공공재인 이동의 접근성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도시규모가 과도하게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회주의 도시의 모델로 정착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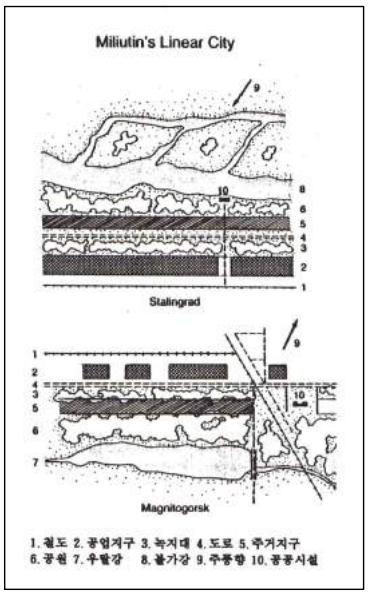


그림1 밀류틴의 선형도시(Linear City) 자료:J.H.Bater(1988), p.107

5) 김흥순(2007)

선형도시에서는 주택과 서비스 시설이 공업지대와 평행하게 배치되어 모든 근로자들이 직장까지 이동하는데에 동일한 시간이 소비되도록 배려되었다. 또 직주근접(職住近接)을 고려하되 공해로부터의 안전을 위하여 주택과 공장 사이에 위생녹지대를 배치하였으며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여 주거와 공장의 위치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구상은 실제로 1920년대 말 스탈린그라드계획에 적용된 바 있다.

(2) 자족적 생활권계획 (self-sufficient spatial plan)

이러한 실험적 논의를 거치면서 구체화된 사회주의 이상도시계획은 1935년 모스크바 기본계획(General Plan for Moscow)에 반영됨으로써, 제도적 틀을 갖추게되었고, 이는 이후로 소련내 타도시의 모범이 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되어 레닌그라드(Leningrad), 민스크(Minsk), 타쉬켄트(Tashkent), 키에프(Kiev) 등이 이에 따랐다. 이 計劃案에는 용도지역의 구분과 도시계획의 지침을 제시하였으며 도시를 노동, 주거, 휴양 및 관련기능으로 구분하고 있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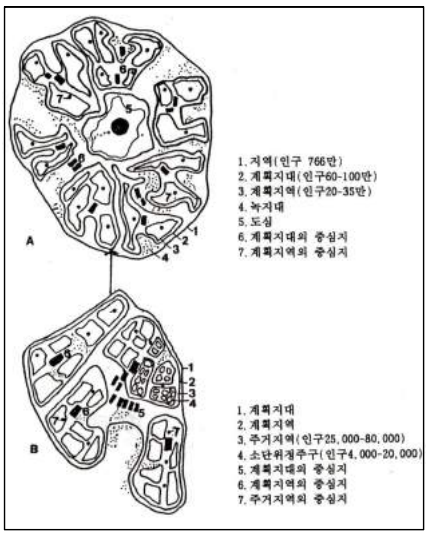


그림 2 모스크바 기본계획
자료 : 강경원(1990), p.101

1971 년의 모스크바 기본계획에서는 전체 市域을 8 개의 존으로 구분하여 각 존은 100 만인 규모로 설정하여 그 내부에 주거, 생산, 교육, 위락 등의 기능이 自足的으로 운용될 수 있는 코뮤니티로 계획되었다. 각 지역의 중심에는 도심기능을 부여하여 구도심까지의 이동을 방지하였으며 각 지역의 사이에는 녹지대(green wedge)를 설치하여 위락장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간의 이동을 억제하였다.[7]

(3) 주택소구역계획 (Mikrorayon)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공동생활을 사회생활의 기본유형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양식에 적합한 공동생활의 기초단위로 설정한 것이 소구역(micro-district)의 개념이다. 이는 지구내에 주택, 공동취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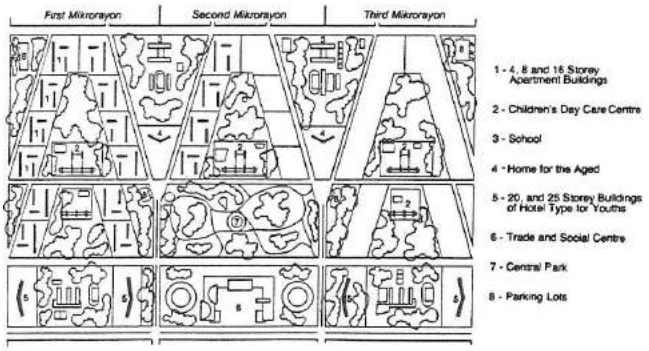


그림 3 소구역계획의 예
자료 : James H. Paterson, The Soviet City: Ideal and Reality, 1980, p.103

6) 강경원, 사회주의식 도시계획이 소련의 도시형태와 구조에 미친 영향, 서울학 제 41호, 1990.5, p.99
7) Paul White,(1980), pp.216-217

설, 여가시설, 탁아소, 학교, 의료시설 등을 가지는 자족적인 집단주거단위로서, 작업장과 주택을 린접배치하여 직주근접의 리상을 실현코자 하는 도시계획의 기본적인 방법이다.[8)]

하나의 소구역(micro-district)은 인구 10,000-12,000 인으로서 면적은 30-50 ha 이며 서비스반경은 150-200 M 가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소구역이 모여 주거구역 (residential district)을 이루며 이는 인구 30,000-50,000 인으로서 1,000-1,200 M 의 서비스반경을 가진다. 주거구역이 몇 개 모여 도시구역 (urban district)을 구성하며 이는 100,000-300,000 인 규모이다. 다시 도시구역이 모여 도시지대(urban zone)를 형성하는 계층구조로 이루어져 있다.[9)] 각 계층의 주거단위는 수용인구의 규모에 상응하여 계층화된 서비스기능을 갖게 되는데, 이는 자본주의 국가의 도시생활권체계, 혹은 중심지체계와 유사한 개념이라 하겠다.

3. 평양의 도시개발 Urban Development of Pyeongyang

1) 도농통합도시 평양 Urban Rural Integration City

맑스와 레닌의 유훈에 충실하였던 북한 당국자들은 당중앙위원회 1961년 전원회의에서 평양, 함흥, 청진 등의 대도시 주위의 순안, 성문리, 용성, 승호리, 강동 등지에 소규모 위성도시를 건설하여, 도시규모를 적절하게 관리할 것을 결정하였다. 인구 천만의 서울이 25개구 606㎢로 구성된 것에 비하여, 인구 300만인의 평양은 19개구역, 4개군, 2,300㎢의 방대한 규모로서, 이는 도시와 농촌간의 자족적 균형을 달성하기 위한 이념적 목표에 충실한 결과라 보인다. 도농통합형 도시를 추구하여 행정구역면적내 시가지 면적은 20%이하이며 농지면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체제유지와 국가배급제 실시를 위해 최소한 자급생산이 가능한 농산물이 평양시 내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행정구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평양시 행정구역면적은 서울의 4배, 인구는 30%수준이다. '도농간격차해소'라는 사회주의 이념에 충실한 결과이다.

8) 최병선, (1989), p.13
9) T. A. Reiner and R. H. Wilson, "Planning and Decision Making in the Soviet City", in R.A.French and F.E.I.Hamilton (ed.), 1979, p.61

2) 평양의 도심부와 가로 Town Centre and Street of Pyeongyang

평양의 도심부는 자본주의 도시 서울과의 차이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공간이다. 북한 당국은 평양의 중심부를 이념학습의 장으로서, 대외 선전의 수단으로서 196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개발해 왔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수차례 교시를 통하여 평양 도심부를 사상학습의 장으로 건설할 것을 강조하였고, 특히 김정일이 건축과 도시계획에 관심을 가지면서 평양 도심부의 중심축을 김일성광장-인민대학습당-주체사상탑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평양은 상징공간과 축을 구축하여 광장과 기념비적인 건축물로 꽉찬 도시이다. 사회주의 이념과 김일성부자와 관련된 주체사상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사상교육의 장소 및 전시적 상징공간을 연출하고 있다. 본 평양의 중심지역과 대동강의 동평양 일대까지 통합적인 도시설계기법을 적용하여 도시경관1축과 2축을 조성하여 사상교육의 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5 김일성광장에서 바라본 주체사상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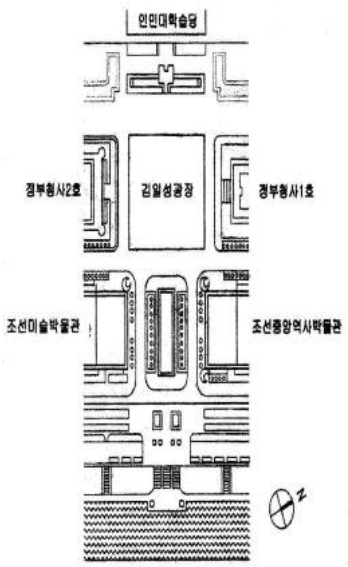


그림 6 평양도심부의 중심축 (자료:이왕기(2000))

서울플랜에는 광화문도심, 강남도심과 같은 도심, 부도심의 위계적 중심지가 있어 고층의 오피스빌딩이 집중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가장 높은 지가를 형성하고 있다. 도심부는 지가상승에 따라 상업업무기능으로 변화하고, 도심부의 주거기능은 외곽으로 확산하는 변화가 발생한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체제에 의한 경쟁의 결과로서, 뉴욕, 파리, 동경 등 서구대도시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회주의 도시에는 경쟁에 의하여 토지의 가격이나 용도가 결정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와 같은 중심지가 형성되기 어렵다. 평양의 도심부에는 주거와 행정기능이 혼재하며, 중심지체계에 따른 가격 형성이나 밀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도시의 밀도나 스카이라인은 행정가들의 정책적 선택의 산물이며, 이용의 편리성이나, 향과 조망 등 주민들의 선호가 반영되지 못한다.

평양은 한국전쟁의 폐허에서 전재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새롭게 만든 도시이다. 이 당시 평양시는 동유럽으로부터 재정적 기술적 원조를 받아 사회주의 이념에 의거하여 새롭게 건설되었다. 평양은 '공원속의 아름다운 도시'를 목표로 세워진 도시계획에 기반하여 관리된다.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노동자를 위한 휴식공간 확보 차원에서 넓은 공원 및 녹지공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평양의 1인당 공원면적은 40제곱미터 이상으로 OECD 도시평균의 약 2배에 이른다. 도시차원에서 녹지 축을 형성하고 있는 공원과 녹지들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대기질의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평양은 공장과 녹지에 의해 다핵화된 도시이다. 토지이용 구성비를 보면 도시내에 공업지역의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전후 도시성장과정에서 시가지에 입지한 공해유발 공장은 지방 및 주변도시로 대부분 이전되었다. 평양시내에 입지한 공장은 공해가 적은 경공업공장으로 평양시민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만드는 공장이 많다.[10)]

3) 주택소구역계획　　Neighborhood Plan

주거와 생산시설을 인접하여 배치하는 주택소구역(micro-district)은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가장 중요한 구성수법이다. 생산시설은 단순히 생산활동을 담당할 뿐 아니라 주민들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공간이다. 여기에는 교육시설, 보육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을 함께 두어 자족적 도시조직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주택소구역은 하위단위인 수개의 주택군으로 구성되며, 주택군은 다시 수개의 건물군의 집합으로 구성되도록 하여, 페리(A. Perry)의 근린주구이론(Neighborhood Unit)과 유사한 조직구성논리를 가지고 있다.

그림 7 남신의주 8호 주택소구역
자료 : 김 재건, (1990), 조선건축 제 13호, 1990

그러나, 소구역내에는 공장, 탁아소, 빵공장, 식료가공공장, 연료공급소, 전문식당, 종합식당 등 자본주의 도시의 근린주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시설들이 있는데, 이는 직주근접하고, 가족보다는 공동체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는 모두 사회환경의 조작을 통하여 인간활동을 통제하려는 사회공학적 인식에 기초하고 있어, 환경결정론적(environmental determinism) 시각의 일면을 보여준다.

10) 서울연구원(2016), 평양도시계획 이해하기

평양은 공동체를 위한 소단위 구역으로 형성된 도시이다. 이는 사회주의 도시에서 추구하는 자족단위로서 지역내에서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조직이다.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직주근접형 도시공간구조이기도 하다. 그러나 평양은 인구규모가 300만인의 대도시이며, 시가지전체를 소구역단위로 구성하는 일은 어렵다. 따라서 무궤도 전차와 버스 등 대중교통망을 축으로 도시 주요기능을 배치하여 직주근접형 도시를 추구하였다.

4. 개혁·개방과 평양의 변화 Future of Pyeongyang with the reform and opening

1) 개혁·개방에 따른 변화 Changes with System Transition

계획경제체제에 의하여 통치되는 북한의 국토와 도시, 토지와 주택시장에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는 경우,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예측해보고, 평양의 미래를 그려보는 일은 매우 흥미롭다. 토지와 주택시장이 형성되고 자유로운 거래가 일어나면 전에 없던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상하이와 베이징, 호치민과 하노이 등에서 보았듯이 도심부의 용도가 바뀌고, 스카이라인과 밀도에 변화가 생긴다. 주거는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광역교통과 승용차보급이 확대되면서 도시는 광역화된다. 체제전환을 경험한 중국과 베트남, 모스크바와 독일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평양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다. 서울과 평양은 오랜 역사를 거쳐 유사한 경로를 겪어왔다. 조선의 왕도로서, 또 고구려의 도읍으로서 서울과 평양은 유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분단 이후 70년간 두 도시는 가장 극명하게 다른 구조, 형태, 기능을 가진 도시로 발전해 왔다. 이처럼 북한도시의 장래변화상을 체제전환도시의 사례와 서울의 경험, 서울과 평양의 비교를 통하여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2) 이용권과 소유권의 사유화 Privatization of Use Right or Ownership

북한당국이 경험하게 될 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중국과 베트남처럼 사회주의 헌법을 유지하면서 점진적인 개방개혁을 해나가는 경우, 이용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을 상정해볼 수 있는데, 이는 이미 북한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기도 하다.

독일과 러시아처럼 체제전환을 겪으며 급진적인 변화를 겪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는데, 이 경우 국유자산의 사유화를 통하여 시장경제의 도입이 이루어지게 된다.

어떤 경우에라도,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토지와 주택에 대한 권리를 가진 개인은 이를 최유효 사용하려는 의지를 가지게 되고, 전과 다른 용도, 밀도, 수익을 추구함

에 따라 도시자산시장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3) 도시공간의 재구조화와 광역화 Reconfiguration of Spatial Structure and Suburbanization

서울이 지난 50여년간 경험해온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그리고 주택·교통·환경 등 도시문제의 경험은 평양의 미래를 그려보는데 유용한 시각을 제공해 줄 것이다. 한편으로 베이징과 상하이, 호치민과 하노이처럼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에서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전환을 경험한 도시들의 사례도 참조할 만하다. 이들 사례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도출이 가능하다.

첫째, 평양의 도심은 서울과 도쿄, 런던과 파리 등 세계 대도시와 극명하게 다른 모습이다. 상업업무시설이 아닌 인민대학습당과 인민문화궁전 등 공공시설과 기념비적 건축물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도심부의 주거비율이 매우 높다. 시장경제체제가 도입되면 이런 용도가 상업업무기능으로 전환되고, 주거시설의 교외화가 촉진될 것이다.

둘째, 외곽의 국영기업소나 군부대시설의 종전부지를 활용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이다. 기존 주민이 점유 중인 토지는 보상협의가 매우 어렵다. 개방초기, 소유권이나 이용권의 법적 근원, 지적과 감평제도의 미성숙 등으로 협의보상이 어려우므로 이런 리스크가 적은 공공시설의 종전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이 촉진될 것이다. 이는 도시의 확산과 교외화를 가져올 것이다.

셋째, 평양으로의 인구유입이 늘어나고, 증가하는 인구수용을 위한 대규모 기반시설투자가 이어질 것이다. 광역철도와 고속철도망 등 간선교통시설의 건설과 개인승용차의 공급확대는 도시의 광역화를 가져올 것이다.

넷째, 평양 등 사회주의 도시들은 토지이용의 분화가 미흡한데, 즉 토지이용이 혼재되는 특성을 가진다. 위와 같은 변화와 함께 도심의 상업공간화, 주거의 교외화 등으로 도시토지이용은 분화(differentiation)되고 확산된다. 또 고급주거지들이 간선교통의 접근성이 좋고, 공항이 가깝고 쾌적한 입지를 중심으로 등장하게 된다. 즉, 자본주의 도시처럼 도심부의 상업화, 주거의 교외화, 토지이용의 분화, 교외화 등 도시공간구조의 재구조화가 진행될 것이다.[11]

11) 김현수(2000), 개방·개혁에 따른 북한도시의 공간구조변화전망, 국토계획, 제35권 4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그림 8 사회주의 도시 평양의 기념비적 도심부

5. 평양 대도시권의 미래 Future of Pyeongyang Metropolis

1) 서울과 평양

그림 9 서울과 평양의 체육시설과 아파트
(자료:서울연구원 2016, 평양도시계획 이해하기)

서울시와 평양시는 남북한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행정, 교통, 교육, 문화의 중심지이다. 두 도시는 수도로서의 위상을 나타내는 '특별시'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특별법에 의하여 관리된다. 평양시와 서울시는 전후 도시성장과정에서 도시내에 입지하였던 공해 유발공장과 시설물 등을 외곽으로 이전시켰고, 경공업을 주로 발전시켰다.[12] 서울시와 평양시는 경쟁관계 속에서 도시와 건축물을 대규모로 건설하여왔다. 1988년 서울올림픽과 1989년 평양의 세계청년축전 당시 대규모 체육관련 시설 및 아파트 단지 등을 개발하고 경쟁하였던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비슷해 보이는 두 도시를 자세히 다가가보면 매우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서울의 도시계획 쟁점은 주택정비사업과 용적률완화, 종상향과 공공기여, 높이규제 등 개인의 재산권과 공공성간의 관계를 둘러싼 이슈들이다. 평양은 개인의 토지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공성과 재산권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적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의라는 개념도, 절차도 없어서, 도시계획의 성격이 물적 계획(physical plan)중심으로 구성된다. 서울의 도시계획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적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데에 비하여 평양의 도시계획은 물적 계

12) 서울연구원(2016), 평양 도시계획 이해하기

획의 성격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2) 서울평양 대도시권

중국과 베트남에서와 같은 개방개혁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평양도 이들 도시처럼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 평양으로의 인구집중과 성장산업의 평양대도시 집중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평양은 인구규모 300만인에 비하여 시가화구역의 면적이 매우 좁다. 이는 광역교통의 미발달로 시가지가 한정된 구역에만 형성된 때문이다.

개방개혁의 진전으로 인구이동이 자유로와지면 평양인구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외곽으로의 확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파리대도시권처럼 중심도시는 일정 규모로 제한하고, 그린벨트를 둘러야 한다. 그 외곽에 대규모 신도시건설을 통하여 인구를 분산, 수용하고, 이를 고속의 광역철도로 연결하는 대도시권 구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역사도시, 사회주의모델도시 평양의 도심부를 보전하고, 도심기능은 외곽으로 빼내어 과밀과 혼잡에 따른 도시문제를 사단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광역급행철도의 환승역세권에는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하고, 성장산업의 일자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자족용지를 건설해야 한다. 이는 이동거리를 줄이고, 대중교통이용을 늘이며, 코로나 판데믹 등의 재해에도 적응력이 강한(resilient) 다핵분산형 도시모형으로도 적절하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 판교와 강남 중심으로 혁신기업과 혁신인력들의 집중세가 눈부시다. 평양의 인천공항, 평양의 판교, 삼성역은 어디일까, 이를 사전에 계획하고 기반시설과 녹지를 사전에 확보해두는 것이 서울 도시개발의 경험일 것이다.

도쿄-나고야-오사카를 연결하는 도쿄 메가시티리전(Megacity Region)은 인구규모가 7천만명, 베이징과 텐진, 허베이를 연결하는 징진지(京津冀)는 1.1억명의 인구규모로 규모의 경제, 대도시권 경쟁력, 혁신잠재력의 배가를 꿈꾼다. 2.5백만명의 서울대도시권과 1천만인 규모의 평양대도시권을 고속철도로 연결하고 고양과 문산, 개성과 남포를 연결하는 35백 만명 규모의 대도시권은 통일한반도의 중심지이자 동북아의 새로운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Urban Planning of Pyeongyang and the Future of PY Metropolis

평양의 도시계획과 평양대도시권의 전망

김현수 단국대학교

1

목차

Contents

1 사회주의 도시계획 이론
Theories of Socialist Urban Planning
2 사회주의 도시 평양
Socialist City, Pyeongyang
3 평양의 변화
Changes of Pyeongyang
4 평양 대도시권의 미래
Future of Pyeongyang Metropolis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3대 목표

1도농간 격차해소

계층간 불평등의 제거　공간적 불평등의 제거

農工結構, 도농통합, 평양의 22개 구역, 1,800km2

2도시규모의 성장억제

규모의 경제성 vs. 환경의 쾌적성 : 소도시특성

평양인근의 위성도시와 노동자구,

중심도시권 – 준위성도시권 – 위성도시권

3자족적 계획구성단위

지역간 격차해소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족적

Mikro rayon, Micro district,

주택소구역계획, 근린주구계획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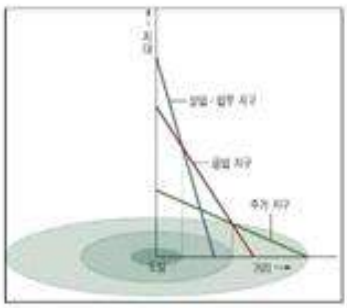
김현수1994, 북한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대분류	소분류	해당구역
도시 중심구역 (1-3등급)	도시중심부	중구역
	도시중심부지역	선교구역, 만경봉구역, 보통강구역, 동안구역, 형제봉구역, 대동강구역, 서성구역
	중심부지역 행정단계구역	대동구역, 만경대구역
위성 도시 구역 (4-5등급)	위성도시지역	낙랑구역, 형제산구역, 룡성구역, 사봉구역, 락르구역, 승호구역
	위성도시행정구역	강단구역, 강북구역, 강남군, 강동군, 중화군, 상원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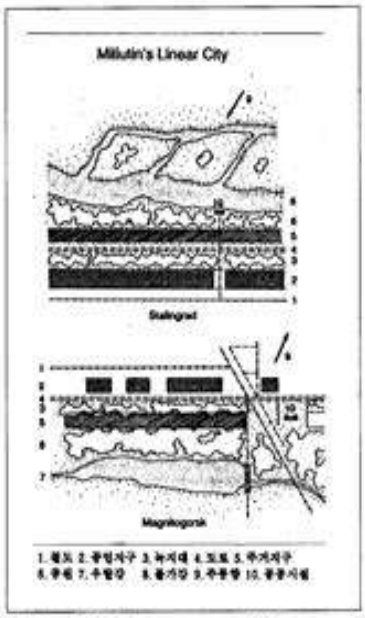
사회주의 도시계획이론

사회주의 이상도시, Linear City

- N. Milyutin, 1927, Stalingrad 계획
- 도농간 공간적 격차와 계층간 경제적 격차 해소
- **접근성이라는 공공재를 균등 배분**



자본주의 도시의 지대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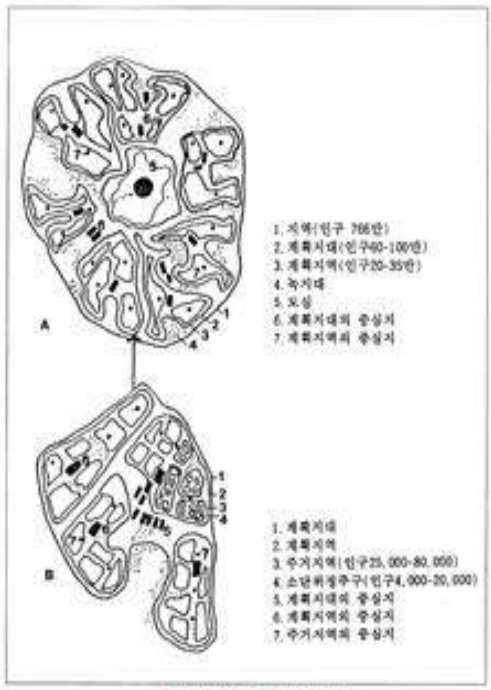
밀류틴의 스탈린그리드(Stalingrad) 계획
직주근접 이라는 공공재를 균등하게 배분한 사회주의 이상 도시를 실제로 구현 (김현수1994, 북한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사회주의 이상도시 Ideal Cities

모스크바의 사회주의적 개조

- 모스크바 기본계획, 1935
- 8개의 대생활권(100만인) 속에 위계적 주택소구역을 삽입
- 우리의 생활권계획과 유사
- 생활권간의 이동을 제한하여 완벽한 자족적 도시 구상
- 기계적, 위계적 사회구상, 도시구상
- 전형적인 환경결정론적 사고

김한수1994, 북한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모스크바 기본계획

자료 : 강정원(1990), p.101

사회주의 도시계획이론

사회주의 이상도시 Ideal C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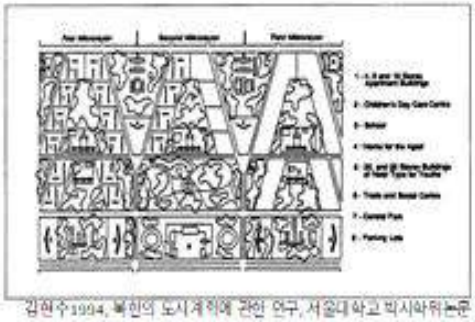
주택소구역계획 Mikrorayon,

공동생활의 기본단위가 가족이 아니라 소구역(micro-district)

자족적 집단주거단위

주거, 공동취사, 여가, 탁아, 교육을 공동체단위로 해결

소구역(micro-dsitrict)	10,000-12,000인	30-50ha	150-200미터 서비스반경
주거구역(residential district)	30,000-50,000인		1,000-1,200미터 서비스반경
도시구역(urban district)	100,000-300,000인		
도시지대(urban zone)			



김한수1994, 북한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환경결정론
(environmental determinism)

물리적 환경이 사람의 사고, 라이프스타일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조

목차

Contents

1 사회주의 도시계획 이론

Theories of Socialist Urban Planning

2 사회주의 도시 평양

Socialist City, Pyeongyang

3 평양의 변화

Changes of Pyeongyang

4 평양 대도시권의 미래

Future of Pyeongyang Metropol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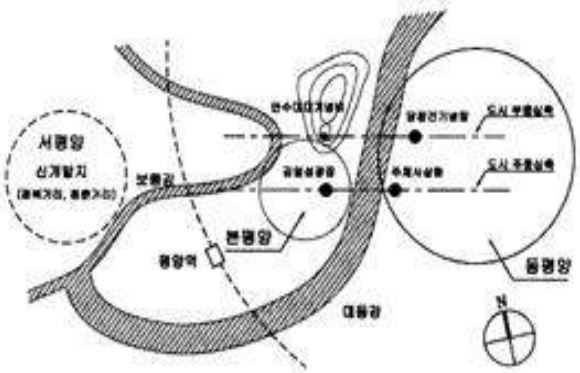
도시공간구조

① 본평양
대동강 서측과 보통강 사이,
구도심, 역사유적중심
중구역 등 6개 구역

② 동평양
대동강동측, 일제 및
해방이후 개발
대동강구역 등 4개 구역

③ 서평양
1970년대 이후 집중개발, 세계청년축전

④ 중심축
사회주의 상징성의 표현수단



평양의 도시공간구조

도심부 상징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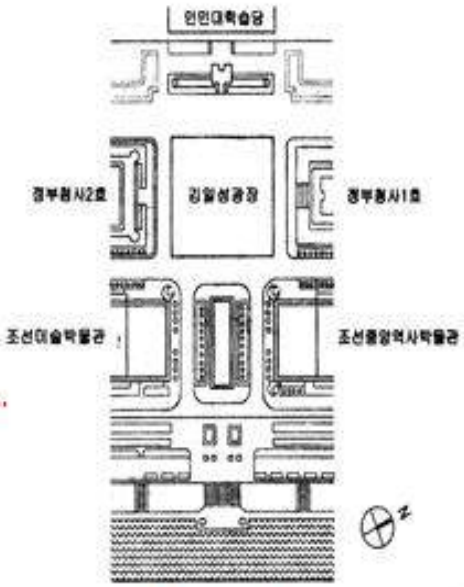
※ 자본주의도심과 명확한 비교

※ 사상교양학습의 장소, 사회주의체제우월성 홍보의 장소, 혁명기념의 장소

※ 평양도심부 : 김일성광장 – 인민대학습당 - 주체사상탑

김정일은, "평양을 혁명적 수령관으로 일관된 인민의 수도로 건설하려는 것이 나의 구상.... 중심축을 설정하여야..... 김일성광장-인민대학습당-평양의 중심축으로 설정하여야.....

※ 주요건축물,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부여하는 것, 인민대학습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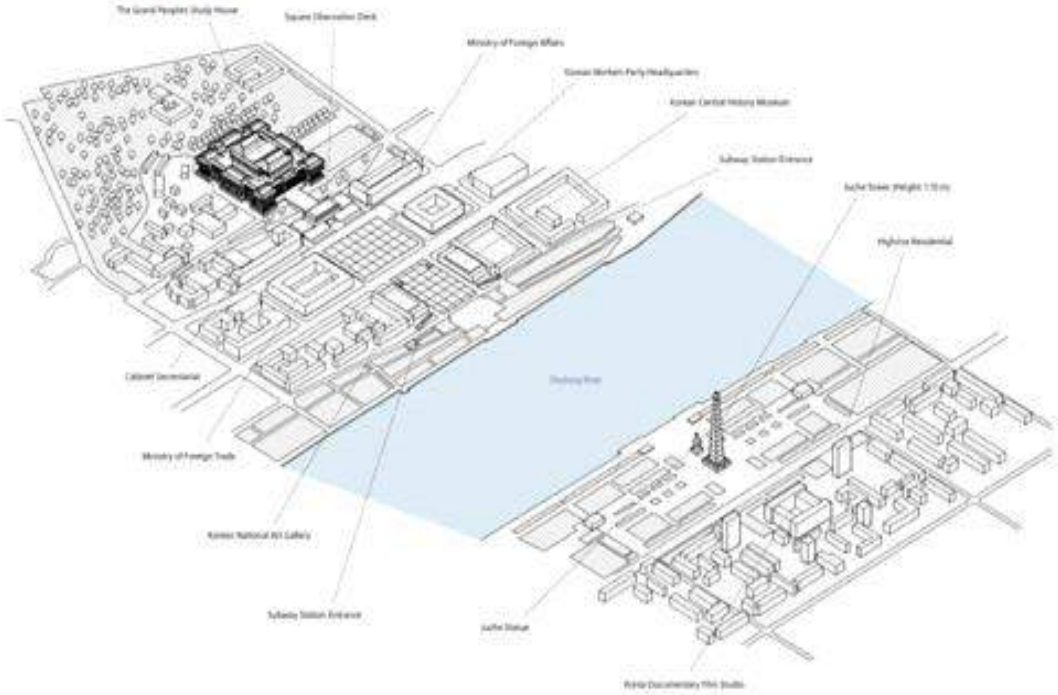


김일성 광장 및 주변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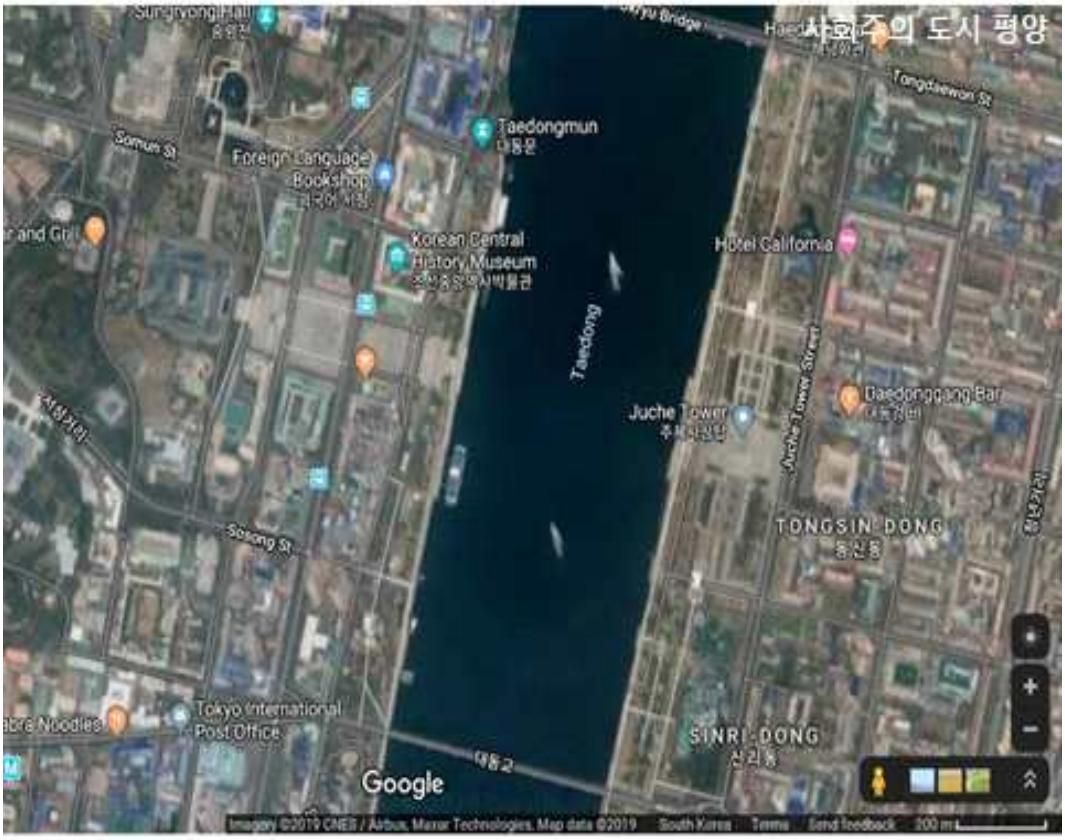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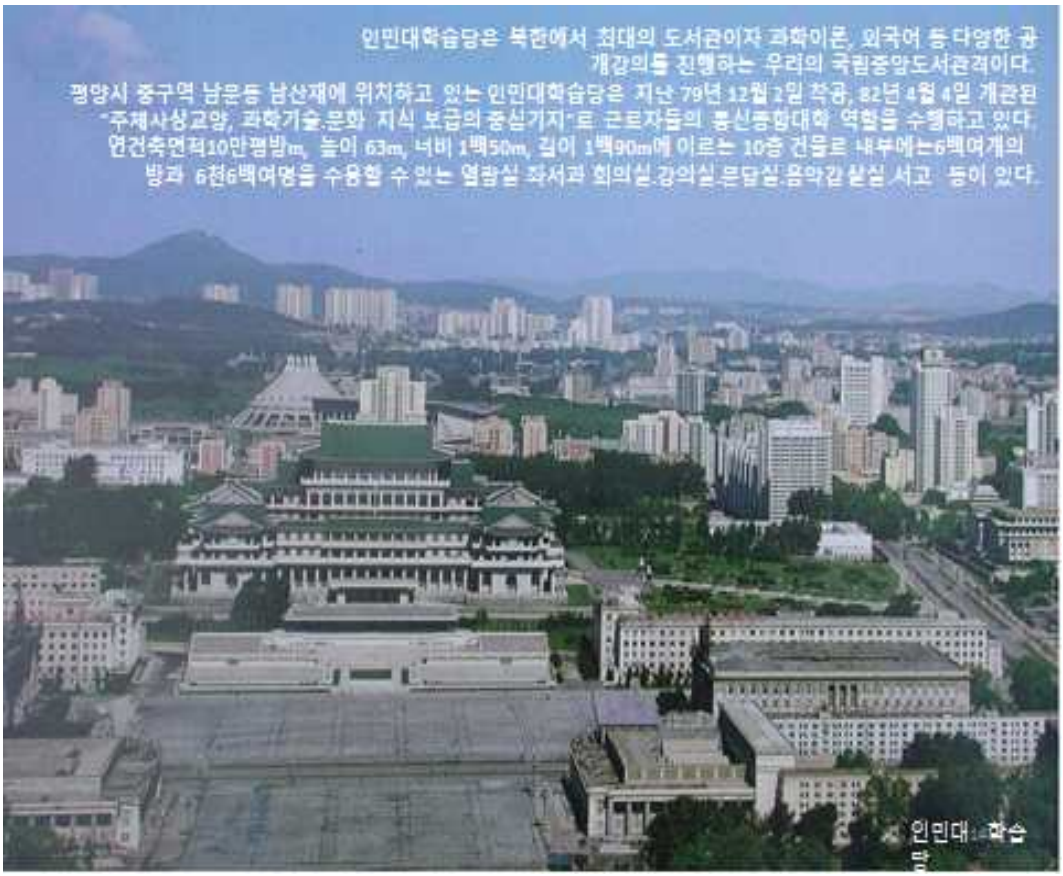
사회주의 도시 평양

도심부 상징축



12




인민대학습당은 북한에서 최대의 도서관이자 과학이론, 외국어 등 다양한 공개강의를 진행하는 우리의 국립중앙도서관격이다.
평양시 중구역 남문동 남산재에 위치하고 있는 인민대학습당은 지난 79년 12월 2일 착공, 82년 4월 4일 개관된 "주체사상교양, 과학기술.문화 지식 보급의 중심기지"로 근로자들의 통신종합대학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연건축면적10만평방m, 높이 63m, 너비 1백50m, 길이 1백90m에 이르는 10층 건물로 내부에는6백여개의 방과 6천6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열람실 좌서과 회의실.강의실.문답실.음악감상실.서고 등이 있다.

사회주의 도시 평양

사회주의 도시 평양

사회주의 도시 평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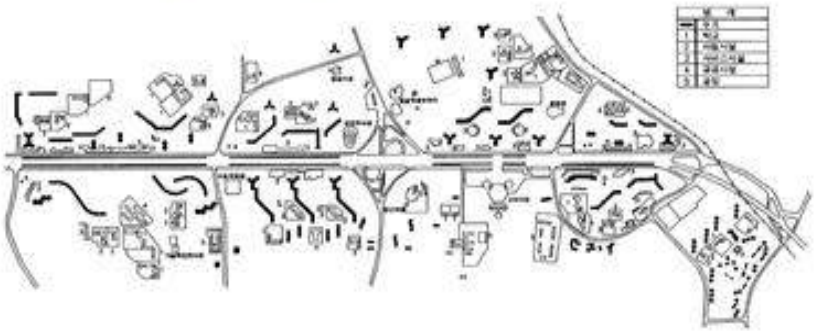
평양의 개선문

파리의 개선문

주요거리형성

평양 광복거리

- 팔골사거리-만경대 5.4km
- 1986 - 1989, 2만세대 아파트 건설
- 청년호텔(31층), 평양교예극장, 만경대학생소년궁전, 8-42층의 아파트
- 계단형, 다각형, 원형
- 구획내부가 들여다 보이는 '엇갈리는' 배치강조



광복거리배치도

김현수1994, 북한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

광복거리 원통형 아파트 20

광복거리, 건축물의 형태

광복거리 대로, 스케일감, 지적, 토지이용 (구글영상)

주거단지 Residential Development

주거와 생산시설을 인접하여 배치하는 주택소구역(micro-district)은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구성수법**

생산시설 + 교육, 보육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을 함께 두어 **자족적 도시조직**

주택소구역은 하위단위인 수개의 주택군으로 구성되며, 주택군은 다시 수개의 건물군의 집합으로 구성되도록 하여, 페리(A. Perry)의 **근린주구이론(Neighborhood Unit)과 유사한 구성**

소구역내에는 **공장, 탁아소, 빵공장, 식료가공공장, 연료공급소, 전문식당, 종합식당** 등
자본주의 도시와 차이점
가족보다는 **공동체단위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 생활양식**의 일면
이는 모두 사회환경의 조작을 통하여 인간활동을 통제하려는 사회공학적 인식에 기초
환경결정론적(environmental determinism) 시각의 일면

김현수 1994, 북한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3

사회주의 도시 평양

주거단지 Residential Development

반찬가게와 공동식당 Community Restaurant & Shop

- 북한은 각 가정마다 냉장고를 둘 수 없다. 음식이 여름에는 상하고, 겨울에는 어는 경우도 많다.
- 사회주의 공동생활의 일면을 볼 수 있는 주택소구역계획

24

주거단지 Residential Develop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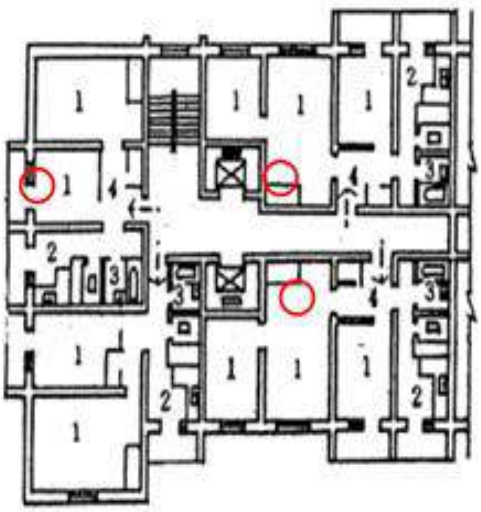
공동 육아, 주택소구역내의 탁아소

- 현재 북한의 0~14세의 비율은 26%이다. - 계획하는 주거단지 내 0~14세의 인구수는 334명이다.

사회주의 도시 평양

사회주의 공동생활양식, 전실

- 가족중심의 자본주의 생활양식 : 거실중심으로 방과 부엌 등이 배치
- 공동체중심의 사회주의 생활양식 : 거실없이 전실중심으로 실들이 연결
- 단지 공공시설로 탁아소 식당 세탁공장 배급소 등이 운영



- 거실이 없고, 방에서 방으로 들어가는 식의 불편한 내부구조를 이루고 있다.
- 1=방, 2=부엌, 3=화장실, 4=전실

평양주택 건설

그림 3. 당국 주도 살림집 사업

출처 연합뉴스, 노컷뉴스 등 신문보도자료 이미지 재인용

최상희2020 북한 주택 변화의 장주과제, 건설관리(한국건설관리학회지) , Vol.19 No.4(2018.08)

사회주의 도시 평양

평양주택 건설

은정지구 "은하 과학자단지"

- 중앙통신 등 언론보도 → 은하과학자 주택단지 조성 선전
- 특정계층 , 지하봉사망 조성, 놀이터 시설 등 현대적 시설 강조

은하 과학자단지

2014년 완공/ 21개 동 ,1000가구

평양주택 건설

미래과학자거리

- (위치) 평양직할시 대동강변
- (준공) 2010년 개발 시작, 2016년 준공
- (규모 등) 총부지면적 389,500여㎡, 연건축면적 876,750㎡
- [건축] 50층 이상 초고층(살림집 19개동 2,582세대,
  봉사망 17개 호동 153개 단위, 공공건물 11개,
  하부시설물 43개, 개건보수(살림집 16동, 공공건물 5동)
-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아파트, 대동강 아파트,
  미래과학자거리 레지던스 은하 타워, 미래과학자거리 트윈타워,
  미래과학자거리 초록타워, 미래과학자거리 파랑타워 등)
- 살림집 세대당 면적 : 110~120㎡(부엌과 위생실, 창고 등)
- [총 사업비] 북한돈 약 100억원 투입

사회주의 도시 평양

평양주택 건설

사업 다양화

- 시장·합영합작에 의한 공급 증가 추세 → 신규 건설 비중, 기여도 확인불가
- 도시: 도시외곽으로 확산 "Town-in town" + 기존 주택 리모델링·정비 증가

	당국주도	시장·민간중심	합영합작
개보수 정비	•청진 등 마을단위 환경개선 가로정비사업		
재건축 재개발	•농촌지역 주택 개건사업 •여명거리	•장마당 인근 재개발	
신축	•미래과학자거리 •은정구역 •탄광촌-발전소 합숙소 •농촌 문화주택·소층살림집 •협동농장 문화주택		•압록강변 주택신축 •남산 18호동

평양주택 건설

노동신문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착공식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착공식에 참석하시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중앙일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주택) 건설 착공식에 참석해 "새로운 5개년 경제 계획 첫해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라고 말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4일 1면에 보도했다. 뉴스1

사회주의 도시 평양

정은미2020, 북한의 도시와 주택, 중앙극토아카데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1번이 가장 고가 주택군이고 외곽으로 나갈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패턴을 나타냄 36

목차

Contents

1 사회주의 도시계획 이론

Theories of Socialist Urban Planning

2 사회주의 도시 평양

Socialist City, Pyeongyang

3 평양의 변화

Changes of Pyeongyang

4 평양 대도시권의 미래

Future of Pyeongyang Metropolis

통일/교류 란 ?

급진통일과 점진교류

어떤 통일을 전제하는가에 따라
토지소유권, 주택문제에 대한 이해, 준비가 달라짐

	급진 통일	점진 교류
상황	· 독일처럼 급속 붕괴하는 상황 ·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정부에 의하여 북한전역의 체제 전환 · 민주주의, 자본주의 지향	· 중국 베트남처럼 점진적 개방, 개혁 · [illegible] · 사회주의 헌법유지, 시장질서 도입
권리	· 소유권의 사유화 · Privatization of Ownership ·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이 사유화 · 국가전역에 새로운 체제 확산	· 이용권의 시장화 · Marketization of Use Right · 소유권과 분리된 이용권설정, 거래확산 · 점선면, 경제특구경제개발구중심 확산
평양	· 주택의 사유화 · 국영기업의 민영화 · 공공시설/용지의 빠른 사유화 · 급속한 도시확산	· 주택의 시장화 · 국영기업의 점진적 민영화 · 공공시설/용지의 점진적 사유화 · 점진적 도시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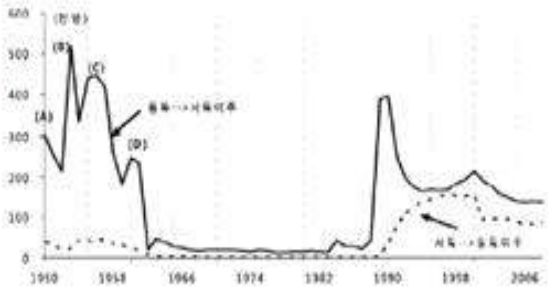
"북한에 할아버지 땅 있는데"...되찾을 수 있을까?

[the L 리포트] 재산권 입증할 北 서류 존재할지 미지수...현 거주민 점유권도 보호 필요

통일독일의 인구이동

-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수는 388만 명, 1989년부터 2008년간
-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주한 수는 212만 명으로 순이주자(유입-유출)는 176만 명
- 청년, 기술자, 기사, 교사 등 이주. 인접지역으로 이주, 동독내에서는 대도시로 이동 경향
- 특히 통일 초기 5년간 집중적으로 이동

- 인구유입지역에서는 사회간접자본이나 주택부족 문제.
- 전통적인 가족관계의 붕괴, 실업 사회적 불안정의 확대, 교육 및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 유출지역에서는 고소득 기술인력의 유출로 경제침체 악화



. (출처: 김창권. 2010. "독일 통일 이후 구 동독지역 인구이동 및 인구변화와 한반도 통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경상논총.제28권1호)

41

한반도신경제구상의 로드맵

어떤 방식의 통일을 전제하는가에 따라,
토지소유권, 주택문제에 대한 이해, 준비가 달라짐

통일

. 서독이 주도하는 통일독일정부가동독을 접수하는 방식
. 남북한의 경우, 현실적이지도 바람직 하지도 않음

교류

. 양국가체제가 지속되면서 평화적 교류를 통하여공동 번영하는것을 상정
. 남북교류재개시 개성공단.금강산특구.기반시설연결 등의사업 전망
. 토지소유권처분 문제는거론대상이 아님

1단계 2020	. 남북정상회담 . 개성공단·금강산특구 재개, 신규 특구 통일경제특구건설 . 서울평양 도시정책교류, 도시정책지원사업 추진	남 : 30,000불 북 : 1,000불
2단계 2030	. 철도 도로 에너지 기반시설의연결 . 평양도시재생, 북한경제특구에 대한본격적인지원을 통한 북한경제의 회생지원 . 북한도시대학원 북한국토도시연구원	남 : 50,000불 북 : 7,000불
3단계 2040	. 2국가 2체제, 경제공동체, 자유로운내왕 방문, 경제교류	남 : 70,000불 북 : 16,000불

42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초광역적 지역발전정책 추진중
광역 경제권을 중심으로 국가공간구조를 개편

인구분산 및 기능배분 | 도시 역량 강화 | 혁신산업생태계 구축

체제전환도시의 변화를 보면서 평양의 미래를 전망하다.

인구집중
인구이동이 자유로와 지면서 대도시 집중
개방개혁의 혼란으로 일자리 찾아서 대도시로 인동

광역화
도심부는 분쟁 혼란, 토지이용 분화, 상업공간화
분쟁이 없는 교외지역, 군부대, 국영기업소 부지등에 개발

도심부의 상업화
토지시장의 등장으로 도시중심상업업무공간이등장
주거지, 인구를 밀어내고 밀도경사형성

개인승용차
이동의 자유로움을 추구
직주근접 붕괴, 장거리 통근, 교외 난개발 문제 대두, 성장관리의 필요성대두

분화 (differentiation)
토지시장은 개인소유토지의 최유효사용을 추동
자본주의 도시화되어가는 변화를 관찰 할 수 있음.

목차

Contents

1 사회주의 도시계획 이론

Theories of Socialist Urban Planning

2 사회주의 도시 평양

Socialist City, Pyeongyang

3 평양의 변화

Changes of Pyeongyang

4 평양 대도시권의 미래

Future of Pyeongyang Metropolis

서울과 평양

인경택(2015), 유라시아 네트워크의 허브,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접점 서울-평양 메가시티, 수도권미래발전포럼 발제자료

서울과 평양
Pyongyang
평양
Seoul
Incheon
Bucheon
Gwangmyeong
Seongnam
Suwon
Yongin
Google

같은 스케일의
구글영상

평양 대도시권의 미래
서울과 평양
Reuters

한반도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북간 동반 발전의 공간적 기반으로

서울-평양 경제발전축 형성 및 발전 필요

우명제2020, 서울평양 메가리전 구상, 통일국토아키테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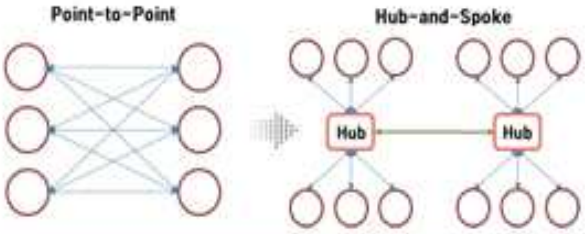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의 일환으로 2015년 말에는 한반도 코 앞인 단둥(신의주 인접)과 훈춘(나진, 선봉 인접) 까지 고속철도망이 완성되었음.
- 따라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으로 이루어지는 철도망은 TCR과 바로 연결이 가능할 것임.

김시곤(2018), 장래 남북한 통합경제권 형성을 위한 국제교통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실현전략, 서울연구원 워크샵 발제, 2018. 4. 11

모빌리티 Mobility 혁명 >> 고속교통의 환승역

이동의 속도가 빨라지고, 연계와 환승이 편리,
초연결 환승역에 고급서비스가 집중
국토공간이 수개의 대도시권과 거점으로 재편



Hub & Spoke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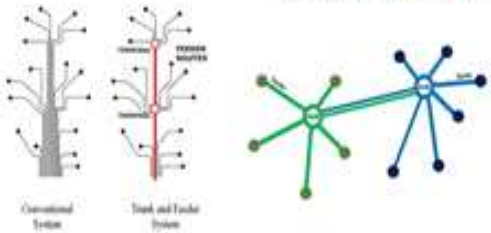
고속교통의 허브와 허브를 고속으로 연결해야

미래형 교통수단 '하이퍼루프' 2~3년후 아부다비서 달린다

51

모빌리티 혁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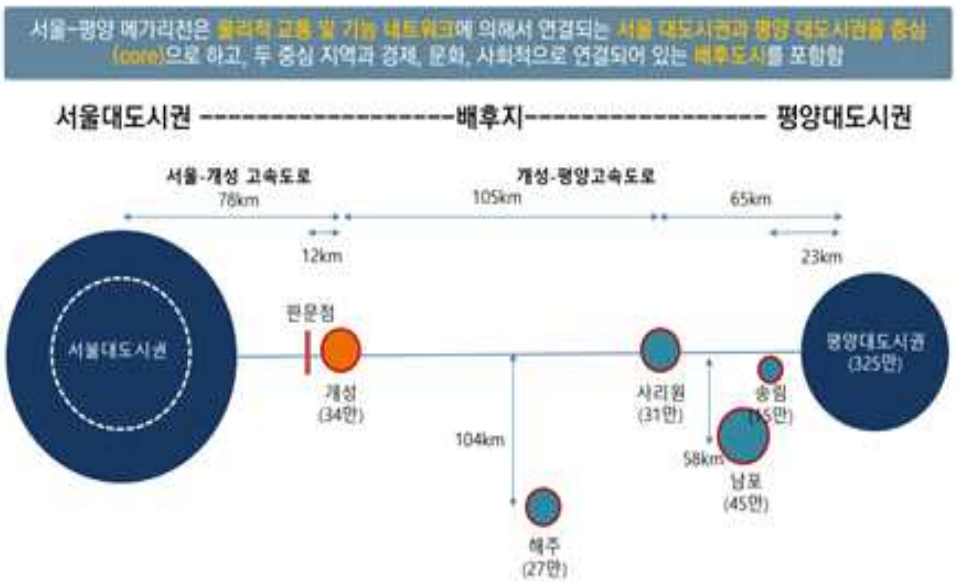
파주 연장 'GTX A노선' 확정, 사업단계별로 주변 집값 영향줄 듯



- 다음 표는 주요 지역 간 이동성(통행시간(분)) 수준을 현재 대중교통 이용시, 차량차 이용시, 그리고 GTX 이용시로 나누어 나타낸 것임

출발지	도착지	대중교통 (현재)	승용시 자동차	GTX 이용
대화역	수서역	95분	65분	30분
동탄역	삼성역	80분	70분	19분
킨텍스	서울역	75분	50분	13분
킨텍스	삼성역	95분	70분	17분
송도	서울역	110분	80분	27분
의정부	삼성역	75분	45분	13분

표. GTX 구축 후 이동성 변화(예상)



무명제2020, 서울평양 메가리전 구상, 통일국토아카데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평양 대도시권의 미래

서울과 평양간의 변화 잠재력

무명제2020, 서울평양 메가리전 구상, 통일국토아카데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서울과 평양간의 변화 잠재력

서울-평양 메가리전 여건

- 정의: 서울과 평양을 연결(직선거리 약 195km 거리)하는 경의선축과 인근 서해안 **거점도시를 상호 연계하는 경제권/대도시권**
- 주요도시: 서울(1,000만)>평양(305만), 인천(300만)>고양(103만)>남포(98만)>파주(43만)>김포(42만) >개성(34만)>사리원(31만)>해주(27만) 등
- 교통 인프라: 인천국제공항, 평안순안국제공항 / 인천항, 해주항, 남포항 / 평양-개성 고속도로
- 산업 인프라: 은정, 와우도, 송림, 진도 경제개발구

현재 서울-평양 경제발전축은 역사적 역락 외에 메가리전의 특성은 부재한 상황이나, 향후 남북 교류 진전에 따라 한반도의 주요 메가리전 형성 잠재력이 매우 높음

무명계2020, 서울평양 메가리전 구상, 통일국토아키데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평양 대도시권의 미래

교류·협력 초기	교류·협력 중기	서울-평양 통합경제협력권의 형성
평양 대도시권 개성시의 중심기능 강화와 평양-개성고속도로 중심으로**개성-평양축 확산** 서울 대도시권 북한과의 연결통로로서 파주시의 중심기능 강화 및 **개성관광** 등 개성시와의 연계 강화 파주시에서 개성시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확장 등 인프라 개선으로 **개성권 형성**	평양 대도시권 **사리원시**의 중심기능 강화로 평양 대도시권의 확장과 산업·기능 등 대도시권의 기능강화 교류 확대로 **경성시의 중심기능 강화와 파주, 평산, 사리원, 해주와 연계한 개성권 확장** 서울 대도시권 북한 및 주변국가와의 교류 확대로**강화군의 물류중심기능 강화 및 서울시와의 연계기능** 강화	2 Core 중심의 **메가시티리전** 형성 서울시와 개성시와 이어지는 서울-개성 고속도로 조성으로 북한내륙과 중국 남쪽으로는 세종시, 대전시와 연계한 대도시권 기능 확산 **아시안하이웨이** 조성으로 아시아와 유럽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가 간 경제·문화 등의 교류 활성화로 대외기능 확대

평양광역권 교통망 구상

- 남북으로 서울~평양, 평양~신의주 고속철도를 구축
- 평양역을 기점으로 6개축에 광역급행철도 건설, 2개축에 경전철 건설
- 평양외곽고속화도로 및 10개축 고속도로망과 이의 결절점에 복합환승센터 구축

김시곤(2018), 장래 남북한 통일경제권 형성을 위한 국제교통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실현 전략, 서울연구원 워크샵 발제, 2018. 4. 11

평양 대도시권의 미래

평양대도시권의 변화

광역 공간구조 구상도

광역 공간구조 구상

1도심 4광역중심 6지구중심

① 1도심
- 기존의 도심역할을 그대로 수행함
- 광역중심, 국제업무지구, 첨단산업단지 등의 중심에 입지하여 평양 대도시권 전체의 도심기능을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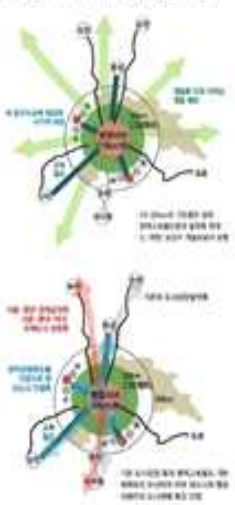
② 4광역중심
- 광역중심은 평양의 도심 기능을 보완하면서, 평양 대도시권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함
- 평양 도심으로부터 신의주, 남포, 개성, 원산으로의 발전축을 고려하여 광역중심을 지정함

③ 6지구중심
- 국철과 지하철이 만나는 지점, 지하철 환승역 등을 고려하여 6지구중심을 설정함

변화전망, 미래공간 핵심과제, 단계별 대응방안을 도출한 후 이를 종합하여
평양광역권 공간발전구상안을 제시

| 신도시 및 교통인프라 건설

| 환경녹지축 · 성장발전축



한반도신경제구상과 국토의 위상변화

1) 대륙확장형 국토비전

국토의 면적은 변하지 않으나 유라시아 대륙과 연결되는 새로운 국토관, 세계관 형성
국경 속의 국토(10만제곱킬로미터)에서 세계 대도시권 네트워크 인식,
징진지 상하이푸동 == 서울평양 == 도쿄.나고야.오사카

-청년들의 세계관- -기업인들의 시장- -새로운 국토비전-

2) 신균형(Network Balance)발전 국토비전

- 착장형 국토에서의 균형발전에 대한 냉철한 성찰이 필요
- 4차산업혁명 철도공동체 네트워크경제시대의 국토균형발전이란 무엇인가?
- 지리적 균형 >> 네트워크 균형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틀

3) 신국토축 비전

- 부산 서울 평양 베이징 울란바토르 모스크바 파리 런던으로 이어지는 축
- 철도공동체와 구현할 수 있는 서울-평양-베이징 철도축
- TCR TSR TMR 축상의 도시, 지역 성장

김현수2018. 대륙확장형 국토, 네트워크균형발전 국토를 지향하는 5차 국토종합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 세미나 50

2032 남북 하계 올림픽 공동 개최 추진

2018 남북 정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의 4조 2항을 살펴보자.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2032년 서울과 평양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서로 떨어진 두 도시가 아니라 통합된 도시 네트워크로 형성된 하나의 광역경제권, 즉 '서울-평양 메가시티'로 발전된 상태를 꿈꿔 보자. 신(新)경의선 고속철과 GTX 연장선은 서울을 출발해 개성과 해주를 지나 남포, 평양 등 북한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게 된다. 첨단 도시운영 인프라와 시스템에 의해 방문자들은 마치 잘 구성된 하나의 도시를 체험하는 듯 느끼게 될 것이다.

서울-평양 메가시티의 여러 도시는 올림픽 경기를 위한 스포츠 시설만이 아니라 컨벤션·관광·물류·문화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남북한 협력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다. 남북한 접경에 있는 개성은 올림픽 행사를 위한 남북공동준비위원회와 컨트롤센터를 설치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개성공단 2단계는 생산시설 위주의 기존 계획을 변경해 올림픽을 지원하는 회의장·호텔·공연장·데이터센터 등을 구축하고, 향후 판문점·DMZ와 연계해 MICE 산업 중심 평화도시를 육성하는 대안도 가능하다.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감사합니다

토론 1

북한의 도시 만화경 제1세션 평양과 도시계획 [토론문]

권영덕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1. 발표「평양의 역사와 건축」에 대한 토론

평양시에 대해 역사적 관점에서 도시의 발전사와 공간변화를 소상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주어 오늘날 평양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평양은 고대부터 유서깊은 도시로 고구려의 도읍이자,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한반도의 북측을 담당하는 중심도시로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 당시 역사적 사료에 의거하여 설득력있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특히 평양이 역사적으로 볼 때 도시공간의 기능과 구조 변화가 컸던 것은 대한제국기부터 일제 강점기와 1945년 해방이후 사회주의도시계획 추구와 주체사상 도입에 의한 영향이 컸던 것을 지적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평양이 중국 만주지역으로 뻗어나가는 군사적 병참기지로 건설됨에 따라 병영건설과 군사관련 공업지구 조성은 물론 경의선 개통 등으로 평양은 도시 공간구조와 기능배치에 있어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을 사료에 의거해 잘 정리했다. 여기에 필자가 좀더 부연하면 6.25전쟁당시 평양시내는 융단폭격으로 거의 폐허가 된후, 사회주의 도시계획에 의거해 전재복구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졌다. 그럼에도 일제강점기에 건설되었던 평양시 구시가지내 도로망은 현재까지도 많이 남아 있다.

또 1945년 해방후 전재복구사업을 거쳐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시기 구분을 해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이념과 주체사상 등의 영향을 받은 도시공간 변화와 주요 건축물 건립을 기존연구 고찰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잘 정리했다. 이는 일반인들도 평양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1945년 해방이후 사회주의와 주체사상의 영향을 받아 건립된 대표적인 건축물들은 오늘날까지 주요 건물로 사용 중에 있다.

평양시는 건립초기 인구100만명이하로 사회주의도시계획의 이념을 반영해 건설된 모범도시였다고 한다. 이는 6.25전쟁으로 인한 폐허로 부터 모두 새롭게 계획되고 건설되었기에 가능했다고 보여진다. 전재복구 당시 평양시 인구는 100만명이하로 사회주의도시계획의 이념을 반영해 새롭게 건설되었지만, 1990년대에 이르자 인구수는 약3배나 증가했다. 이러한 도시성장과정에서 신시가지 건설과 기존시가지 내에서 대단위 재개발사업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공간변화가 컸다. 평양시내에는 아직까지도 사회주의도시계획의 유산과 건조물들이 많아 남아 있다. 조속히 유네스코에 세계역사문화자원의 하나로 등재해, 사회주의 도시계획의 원형을 보존토록 해야 한다.

평양시는 옛도읍답게 북한의 어느도시보다도 평양시내와 그 주변에 역사적으로 귀중한 매장문화재가 많다. 평양시도 향후 개혁개방정책이 추진될 경우 이미 중국과 베트남 등의 대도시에서, 경험했듯이 경제성장과 더불어 대도시권이 형성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가지는 빠른 속도로 대규모 개발되어 확장되면서 귀중한 역사문화자원의 훼손이 우려된다. 그래서 평양시는 미리 이에 대한 역사문화재 발굴작업과 기초자료구축, 역사문화재 보존지구 설정 등을 위한 도시계획적 선행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논고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현 김정은 시대에 건립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평양시내 공간구조와 기능의 변화도 컸던 만큼, 향후연구에서 정리되었으면 한다.

2. 발표「평양의 도시계획과 평양대도시권의 미래」에 대한 토론

이 논고는 현 평양 도시계획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통념적인 사회주의도시계획의 이념과 원리를 파악한 후, 이것에 의거하여 건설된 평양시 도시계획을 재조명해 보았다. 사회주의 도시계획 이념과 원리에서는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해소와 도시성장규모의 억제, 자족적 계획단위의 설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평양시는 예외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평양시는 소도시가 아닌 대도시이며 다른 도시와는 경제적으로나 생활환경의 관점에서 보면 현저한 격차를 보인다.

사회주의 도시계획수법으로 선형도시, 자족적 생활권계획, 주택소구역을 제시했다. 평양시도 개발초기에는 이점을 고려해 직주근접형 도시건설을 했지만, 도시규모가 커지고 도시성장과정에서 다원화되고 세대가 분화되면서 이러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평양시는 보행자 및 대중교통 중심의 선형도시로 건설되어 대로변에는 주거용도의 고층아파트위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평양의 도시계획에서는 도농통합도시를 지향했다. 그래서 평양시 행정구역 범위는 서울시 보다 약3배나 넓다. 이는 자급자족형 도시를 지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양시는 도시규모가 커지고 북한의 수도로서 역할을 하다보니, 즉 정치 경제 문화의 영향권은 북한 전역에 절대적으로 미치고 있어, 엄밀히 말하면 평양시는 자족형 도시라고 보기는 어렵다.

주택소구역계획은 평양시 도시계획수립 초기에는 잘 반영되었지만, 2000년대이후 시장경제로 환경이 바뀌어 가면서 그 기능과 역할은 대폭 약화되었다.

그리고 장래 평양시도 개혁개방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도시계획적으로 미리 대응해야 할 것들을 지적했다. 특히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할 경우 북한의 국토와 도시, 토지시장에 있어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미 경험한 중국 베이징시와 베트남 호지민시 등의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제시한 점은 참조할 가치가 있다. 이 과정에서 지금보다 자유로운 인구이동과 급격한 차량증가로 대도권의 형성과 시가지의 확장, 도시구조과 도시기능의 급격한 변화에 미리 도시계획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도시성장과정에서 이 점을 소홀히 하거나 간과했던 중국과 베트남 등의 대도시에서는 현재 다양한 도시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경제 제체의 도입시 일어날 수 있는 도시공간의 재구조화와 광역화, 이용권과 소유권의 사유화에 따른 토지이용 및 용도 변화에 대해서도 예측해 잘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평양 대도시권의 미래대응 방향에 대해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서울과 평양에 대해 남북한수도로서의 특징과 차이를 비교헤서 제시했고, 미래 서울·평양이 대도시권 형성과 통합경제권 형성을 통해 동북아 중심도시로 동반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한 점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본다.

토론 2

북한의 도시 만화경 제1세션
평양과 도시계획 [토론문]

최대식
(토지주택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1. 발표「평양의 역사와 건축」에 대한 토론

이 발표는 평양 건축과 도시구조의 형성 과정을 다양하고 귀중한 자료를 통해 시각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평양이라는 북한 수위도시를 앉은 자리에서 시공간적으로 여행한 느낌이다.

평양의 도시건축은 전후 중정형 건축이 위주였는데, 이 발표에서는 이를 토지가 사유화되지 않는 사회주의 사회의 도시개발 방식의 특징이라고 하였다. 김현수 교수의 발표에서 주택단지를 보여주는 주택소구역계획의 측면에서도 적합한 형태로 해석될 수 있다. 1970년대 이후 중정형 건축에서 거리조성사업으로의 전환을 큰 변화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거리조성사업은 발표자의 해석 이외에, 좀더 비판적 시각으로 본다면, 북한 특유의 마뉴멘털한 도시경관 형성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평양시민, 평양을 방문하는 북한 주민 또는 외국의 방문객들은 주요 가로변을 지나면서 평양에 대한 이미지를 각인할 것인데, 이들에 대한 홍보적 성격이 클 것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 큰 가로의 인접 지역은 북한 수위도시인 평양에서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번듯함을 보여주기 유리한 장소이며, 거리조성사업을 통해 이를 달성하기 위함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평양의 도시와 건축의 경관 형성에 대한 북한 전문지, 학술지에서의 글들을 통해 보완적 논의를 해보겠다. 이것들은 자신들의 체제를 찬양하고 홍보하기 위한 목적이 주가 되지만, 이를 통해 현재 북한에서 중점을 두는 중요 건축, 도시설계의 방향을 엿볼 수 있다. 최근 몇 편의 글에서 '도시건축형성'에서 '예술적 호환성'을 주장하고 있다. '도시건축형성이란 도시를 이루는 요소들이 건축적으로 서로 조화롭게 배치되고 결합되어 일정한 사상예술성을 보여주는 꾸밈새, 모양새를 창조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호환성은 복수의 사물들이 서로 주고받거나 서로 맞출 수 있는 성질이나 특징'을 의미한다. 연결하면, '도시건축형성에서 예술적 호환성'은 도시의 구성요소, 구성단위들인 건축물이나 건축군들이 독자적으로가 아니라 주변 환경, 주변 건축공간들과 서로 연결·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예술적 호환성은 조형 예술성을 바탕으로 하고 통일성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살림집군이나 공공건축군, 구획, 구역, 지구들은 도시 생활단위체계, 도시기능에 따라 고유한 특징을 살리면서 통일성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건물들을 단조롭지 않게 배치하고 그 사이 공간에 녹지, 분수, 조형물 등을 배합하여 거리나 구획을 형성하되, 이러한 다양성은 통일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발표자가 개별 건축물에 대한 최근의 경향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더하여 단지나 도시 차원에서도 미적 감각과 질서, 기능 보장에 대한 방향과 노력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토지개발과 건축에서 경제성과 사업성이 우선시되는 남한에 비해, 북한에서는 건축물, 건축군, 도시의 외관에서 예술적 호환성을 강화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것이다. 만약, 향후 여건이 허락되어서 남한의 기업들이 북한에서의 건축, 단지개발, 도시개발에 참여한다면 북한에서 강조하는 예술적 호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산업단지와 그 배후주거지의 조성 등 경제적 측면이 중요한 지방의 건설사업 보다, 평양과 같은 큰 규모의 도시, 특히 기성시가지에서 사전의 개발구상, 토지이용계획, 단지계획 등에서 두드러지게 요구될 가능성이 크다.

2. 발표「평양의 도시계획과 평양대도시권의 미래」에 대한 토론

이 발표는 사회주의의 도시계획이론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면서, 이에 따른 도시공간구조 형성의 맥락을 잘 설명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따라 평양 또는 평양대도시권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를 논리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전제에 대해 짚어볼 점이 있다. 과연 평양의 대도시권 성장이 서울과 유사한 경로, 즉 자본주의 대도시의 성장 과정을 겪을 것인가? 북한의 대외개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경제적 교류, 물자와 인력의 이동, 기업의 입지가 자유롭게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발표자가 제시한 평양의 발달과정에 대한 예상이 매우 유효해 보인다, 이 토론에서는 발표자와는 조금 다른 전제에서 이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어쩌면 완전한 개방으로 가기 전 중간 단계의 논의라고도 볼 수 있겠다.

김정은은 김정일 집권시기에 비해 경제성장을 더욱 강조해왔다. 김정일 집권시기 선군정책에서, 핵개발, 경제개발 병진노선, 더 나아가 경제성장에 더욱 중점을 둔 정책을 제시하기도 했다. 물론 북미간 대화가 결렬된 이후에는 다시 군사적인 면을 강조하긴 했다. 그러나 이전 시기에 비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강하고 이를 위해 대외 개방에도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있다고 판단된다.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어떤 식으로든 북한의 체제보장이 최우선 조건이라는 점이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관철되어야 하는 것은 체제의 보장이라고 누차 강조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격한 대외개방은 북한 내적으로도, 국제정세의 측면에서도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체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대외개방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면서 경제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평양은 체제의 중심지여서 대외개방에 더욱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경제적 성장을 위해 과거 도

시성장을 지나치게 억제하려는 정책은 어느 정도 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성장을 이끌 수위도시로서 발전하고 국제사회와 경쟁하는 능력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자급자족, 도시의 지나친 성장 억제라는 북한의 공간정책 기조와 어떻게 줄타기를 하면서 도시성장을 관리해나갈 것인가가 관건이다.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선택적인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그 성장거점으로서 선택될만한 곳은 어떤 곳인가? 북한은 주로 접경지역에 지정한 초기의 경제특구와는 달리 김정은 집권 이후 평양 및 그 주변에도 외자유치를 위한 경제개발구를 지정하였다. 또한, 국영기업소, 시외버스터미널 등을 중심으로 도시형 산업 및 상업·유통·물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을 주로 개발·육성하되 그 이외 지역은 철저히 통제된 상황에서 필요할 때 계획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발표자가 서울과 평양을 비교하면서 서울의 도시계획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적 계획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 평양의 도시계획은 그 보다는 물적 계획의 성격이 강하다는 특성의 기저와도 상통하여, 이러한 통제적 성장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지 않다.

평양 대도시권의 성장패턴은 선택적 성장, 산업과 주거가 같이 가는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것은 물리적 도시계획의 측면에서는 각종 대도시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성장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해보이지만 평양의 폭발적 잠재력을 십분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2세션 강과 북한 도시

강이 흐르고 있다: 평양의 유동정치와 수역

북한에서 국경도시 접적의 형성은 신화인가, 현실인가?

발표 1 : 로벨트 윈스탠라 체스터 (호주국립대 박사) 111

발표 2: 엄빠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펠로우) 139

토론 1: 이찬우 (테이쿄대 교수) 173

토론 2: 마크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펠로우) 189

발표 1

강이 흐르고 있다: 평양의 유동정치(liquid politics)와 수역

로버트 윈스탠라 체스터
(호주국립대 박사)

초 록

본 연구는 현대 평양 및 북한 도시공간의 유동정치와 수역을 다룬다. 근대 혹은 현대 정치에서의 수역에 관하여 본 연구는 에릭 스윈기도우 교수의 수력(2015), 물과 물의 흐름, 그리고 “수력 근대성(hydro modernity)” 개념구조를 참고한다. 프랑크 빌레 교수 등의 학자들(빌레 등, 2020)이 물과 물 공간을 주권을 측정(volumetric sovereignty)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제시하는 방식의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북한에서 물의 존재 혹은 부재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며(권헌익 교수와 정병호 교수가 2012년에 설명했듯이) 극장국가인 북한의 카리스마 정치에 종속된다. 수공간은 정치적 에너지 및 카리스마의 공간으로서 북한에서는 “생명의 그물(Web of Life)”에 포함되며(무어, 2015), 이념적 및 역사적 상징성이 투영되고 부여될 수 있다. 이러한 서사(narrative), 투영(projection) 및 북한의 현재 시점에서 물 그 자체는 북한에서 잠재적인 행위자이자 “생동하는 물질(vibrant matter)”(베넷, 2012)이다.

1. 서 론

“보통강 개수공사는 평양 시민이 애국적인 노동으로 새로운 민주주의 조선을 건설하는 첫 번째 사업이자 해방된 인민들의 첫 번째 자연개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공함으로써 우리는 독립 주권 민주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는 자연개조 사업의 첫 횃불을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 역사는 평양을 흐르는 대동강 강변에서 김일성이 1946년 5월 21일 보통강 개수공사 착공식 격려사를 하며 첫 날이 끝났음을 기록한다. 전통적인 역사학 관점에서 이 시점은 한반도 분단이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으며, 북한이 국가 수립을 선언하고 김일성이 지도자가 되기까지는 2년 넘게 남은 시점이었다. 이는 일본의 식민지배 하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해방을 맞고 각각 소련과 미국에 충성적인 세력들이 한반도를 분리하며 북한이 신생국가로 설립된 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초기 시점을 고려하더라도 보통강 사업의 수공간 관리와 수문학은 오늘날에도 북한의 역사학, 발전 측면에서 핵심적인 순간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도시 수문학 및 물 흐름 접근법 심층조사를 통하여 인프라 등의 분야에서 순수하게 이념적 발전 목표나 홍수 위험 감소 목표가 아닌 다른 논의들도 상시 존재해왔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지형과 물질, 그리고 물과 대동강 강변의 흙은 새로운 주권•사회•레저 측면에서 시대적 및 공동생산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대부분

평양 엘리트층과 그 아이들의 여가수요를 충족해왔으나, 본 연구는 여가용 수역 지형이 북한의 정치적 생명의 넓은 그물에서도 깊은 연관성을 가질 수도 있음을 고려한다.

본 연구는 현대 평양 및 북한 도시공간의 유동정치와 수역을 다룬다. 근대 혹은 현대 정치에서의 수역에 관하여 본 연구는 에릭 스윈기도우 교수의 수력(2015), 물과 물의 흐름, 그리고 "수력 근대성" 개념구조를 참고한다. 프랑크 빌레 교수 등의 학자들이 물과 수공간을 주권을 측정(volumetric sovereignty)하는 요소 중 하나로 제시하는 방식의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빌레, 2020). 빌레 교수와 공동저자들은 신물질론(new materialist theory)을 기반으로 지형, 원소, 그리고 자원이 국가발전 및 주권개념의 연결성에서 일부를 차지한다고 주장한다. 국가는 위 재료를 활용하여 통제하는 지형에서 다차원적인 형태를 대규모로 만든다. 때로는 (북한 역사에서 자주 보이는) 연안 간척이나 (중국의 남중국해 건설 같은) 인공대지처럼 새로운 영토를 물리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국가적 서사, 신화 및 열망 측면에서 한때 부수적이었거나 덜 사용되었던 부분을 강화시키기도 한다. 본 연구는, 빌레 교수와 스윈기도우 교수의 주장의 연장선상에서, 정치적 흐름과 물의 용량이 수력 근대성을 형성하고, 평양 수공간 지형에 이념적•서사적으로 깊이 투영된 상황을 측정하는 기준을 추가로 제시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에서 물의 존재 혹은 부재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며 (권헉익 교수와 정병호 교수가 2012년에 설명했듯이) 극장국가인 북한의 카리스마 정치에 종속된다. 이러한 서사, 투영 및 북한의 현재 시점에서 물 그 자체는 북한에서 잠재적인 행위자이자 "생동하는 물질"(베넷, 2012)이다.

2. 대동강의 수상레저공간

평양 강변은 오랫동안 북한의 정치적 서사의 일부이자 (윈스탠리-체스터, 2012), 도시 생명의 그물로서 존재해왔다. 예로 1964년 보통강 개수공사는 해방 이후 수상 발전의 시초적인 사건이었다. 한때 경시 받았던 대동강은 카리스마 권력의 핵심적인 건축물로 재구성되며 (주아노, 2014), 현대 평양의 지형 연출에 참여하게 되었다. 대동강은 전시용 김일성광장과 이념적인 주체사상탑을 연결하며, 대동강 옆에는 화려한 아파트 단지와 고층건물까지 생겼다. 이것은 시민들이 김일성 주체사상을 과장되게 물리적으로 보여줘야 하는 정치적 조건의 결과라는 주장도 있지만 (권헌익•정병호, 2012), 최근에는 더 나아가서 대동강변의 레저, 엔터테인먼트 및 야외활동 인프라까지 발전했다.

북한의 기근이 끝나가던 1997년 당시 대동강의 사회적•세속적 역할은 다르게 인식되고 있었다. 1997년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의하면 대동강의 재구성은 김일성이 1992년 9월에 발표한 "함께 도시관리 개선으로 발전 상황 수요를 충족하자" 글 때

문에 발생했다. 김일성의 교시를 기반으로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5년간 국가의 도시관리에 큰 변화를 목격했다”고 보도했다. 글은 주로 하수도와 수자원 공급관리 등의 세부적인 분야에 집중하지만, 저자는 “거리와 마을에 새로운 모습이 보이며… 대동강과 보통강 같은 여가공간에 승선장도 생겼다”고 언급한다. 그 다음해에는 재개발된 통일거리에 새로 생긴 “대동강변까지 이어진 300미터 폭의 산책로” 같은 명소와 도시건축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다 (조선중앙통신, 1998).

2000년대에 들어서자 북한의 대동강 서사는 1946년의 상징적인 개공식과 1980년의 스포츠 시설에 형식적으로만 존경심을 보였으며, “다수의 남녀노소가 산책로와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고 묘사했다. 도시경관은 과거의 혁명적 서사에서 멀어졌으며, 갈등보다는 즐거움을 나타내는 풍경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강변에 전시된 푸에블로호가 미국의 패배를 재확인시키며 대결의 흔적으로 남아있지만 (노동신문, 2014), 현대 평양의 도시계획의 중심에는 폭력이 아닌 즐거움이 자리잡게 되었다.

2017년 당시 대동강 강변의 주요 수상레저 공간은 능라 물놀이장이었다. 형형색색의 화려한 물놀이장에서 뛰어 노는 평양의 아이들은 다수의 북한 국영방송의 배경화면으로 사용되었다. 능라 물놀이장, 그리고 기술과 자연을 융합한 레저시설 인프라는 평양의 생명의 그물 구조에서 능라 돌고래 수족관과도 연결되어 있다. 마치 미국 올랜도 씨월드처럼 능라 물놀이장은 카리스마 에너지를 강화시키며, 북한의 정치적 카리스마를 재투영한다. 훈련되고 길들여진 고래목 동물인 돌고래는 놀라운 점프와 묘기를 보여주는데, 돌고래는 단연코 인간이 아닌 동물 중에 가장 역동적인 생명체이다. 능라의 돌고래는 생명의 그물로 돌진하며, 이때 돌고래는 북한식 민족주의 및 특유의 경제•사회적 권위, 그리고 에너지가 넘치게 표출한다. 이 모습은 능라 물놀이장의 워터슬라이드와 여러 시설에서 즐겁게 물놀이를 하는 아이들에서도 볼 수 있다.

2017년은 여러모로 북한이 부정적인 주목을 받은 해이다. 하지만 북한 정치를 관찰하는 연구자들은 평양 아이들만이 능라 물놀이장을 즐기면서 돌고래 수족관에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 (지정학에서 상당히 역동적인 물질 같은) 북한의 생명의 그물과 수공간 같은 평양의 여러 요소들이 본질적으로 결합되었음을 보여주듯이, 능라와 평양의 주변공간은 북한의 군부 및 핵과학자를 위한 보상•휴식•쉼터 공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은 능라에서 평양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핵과학자 및 특혜를 받는 공직자들을 찾을 수 있다 (노동신문, 2017). 이는 북한의 혁명적 역사를 상징하는 백두산과 비슷하다. 원래 백두산은 엔터네인먼트 및 이념주입 수단으로서 과거의 정치적 에너지를 현재에 다시 일시적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해 다시 조정•실체화하는 도구였지만, 현재 백두산은 공무원과

기관 산하 노동자들이 견학하는 관료주의적 관광지가 되었다 (윈스탠리-체스터, 2019). 결과적으로 능라 및 대동강의 수상레저 공간은 북한의 생명의 그물에 더 깊게 뿌리내리게 되었다.

여기까지 본 연구는 북한 정치의 심장인 평양의 수자원 지형과 이념•주권 축의 지렛대(fulcrum)를 고려했다. 동시에 평양은 북한의 대다수 노동당, 관료 및 군부 엘리트층의 거주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강•수상 공간에 대한 레저 자원과 투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받고 있다. 역사적으로 평양 이외 지역의 수공간은 레저 측면이나 평양의 정치적 서사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북한 동해안의 원산은 중요한 정치적 의제이자 또다른 유동정치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원산은 물질적 혹은 주권을 측정(volumetric sovereignty)하는 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본 저자가 과거형으로 서술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내용이 코로나 이전 상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 여행객의 방북이 2020년 3월부터 전편 금지되었다는 측면에서 코로나는 원산 개발을 심각하게 방해했다. 2020년과 2021년에 북한 국적기 대부분은 이착륙이 금지되었으며, 심지어 어선도 바다로 출항할 수 없다 (박재윤 등, 2020). 그렇지만 수년동안 북한은 동해안의 새로운 연결망 가능성을 상상해왔다. 원산은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본토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핵심 물류 및 환적 항로 중 하나로 유명했다. 과거 러시아 제국은 블라디보스톡의 대체 항구로 원산을 식별하기도 했으며, 1887년에 영국 해군이 해밀턴항(거문도)에서 철수할 때 러시아는 영국의 영향력을 조선에서 상쇄시키기 위해 원산을 합병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도 했다. 이후 원산은 미국 해군이 1951년부터 1953년까지 폭격하며 초토화되었으며, 이는 현대 세계사에서 가장 길었던 해상봉쇄였다.

원산은 언제나 북한의 중요한 항구였으며, 2006년까지는 일본 니기타현으로 가는 유람선의 출항지였다. 원산은 오랫동안 송도원 해수욕장과 (북한 정치이념에 관심 있는 외국 아이들이 방문하는) 송도원 국제소년단 야영소로 유명했으며, 2014년에는 원산 특수 관광지구가 발표되었다. 수년 동안 관광특구는 주로 마식령 스키장과 대규모 골프장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여졌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원산 관광지구 초기단계에 대한 여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IFES, 2016). 그리고 이 사업은 2016년에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로 변경되었으며, 김정은도 방문하기 시작했다. 이 시점에 광범위한 출국 라운지 시설공사가 포함된 원산-갈마 공항 재개발이 시작되었다. 싱가포르 사진작가 아람 판의 사진으로 익숙한 원산-갈마 해안의 낮은 초록 나무들과 미개발 되었던 모습은 조만간 변할 것이다 (아람 판, 2013).

2017년, 2018년 및 2019년에 걸쳐서 김정은, 김재룡 총리, 박봉주 전 총리, 최

룡해 등의 주요 정치 지도자들은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를 계속 방문했다. 다양한 호텔시설과 레저수단의 광범위한 성장을 통해 현장의 개발현황은 명확하게 나타났다. 물론 고급 호텔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시설이 더 많으며, 가족용 단독 빌라도 일부 건설되었다 (노동신문, 2018). 김정은이 방문 당시 언급했던 기둥 위에 건설된 수상가옥도 있다 (노동신문, 2019). 일부는 원산과 공항 재개발이 한국 관광객이 금강산에 더 쉽게 올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했지만 (실버스타인, 2020), 다른 이들은 북한이 중국 관광객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북한 당국자들(institutional mind)이 미래에 더 많은 수상공간과 세속화(prosaic)를 예상하고 있다고 제시한다.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는 일반 대중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패키지 여행이나 초저가 여행 상품으로 주목 받을 수 있다. 이론적으로 북한은 방북이 쉬운 중국 시민들,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들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북한 여행의 가성비를 앞세워야 한다. 중국은 이미 하이난섬 등의 지역에 많은 리조트와 여행지를 갖추고 있지만 그곳의 가격은 나날이 상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원산-갈마는 중국 동북지방 노동자 계층 여행객들에게 저가형 여행지가 될 수도 있다.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북한은 해안지대와 인프라를 조정하며 일부 이념적인 색깔을 희석시켜야 했으며, 다른 형태의 유동정치를 만들면서, 평양식 북한정권의 정당성 축에서 거리를 두게 되었다. 하지만 이념적 측면이 순화되었더라도 여전히 북한이기 때문에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클리대 지리학자 프랑크 비예와 다른 학자들이 제시하는 주권을 측정(volumetric sovereignty)하는 기준을 유념해야 한다. 원산-갈마와 수상공간은 바다, 모래 및 레저용 건축물 풍경의 잠재력을 활용하며, 동아시아 레저 여행시장에서 입지를 세우려고 한다. 동시에 미래 북한에 인문지리학 및 문화지리학 관점에서 방향성을 제시할 수도 있다. 원산과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의 레저공간에서는 평양의 정치적 야망, 즉흥적 욕망 및 발전 열망이 서해안에 펼쳐진 신형 수상레저 현대식 비전으로 재구성된다. 북한은 여기에서만은 왕따(pariah) 국가가 아니라 초저가 동아시아 해양관광지가 된다.

3. 결 론

홍익대 벤자민 주아노 교수는 이념적 신화에 부합하기 위해 평양의 도시 축이 변형되었다는 이론을 제시하며 (주아노, 2014), 북한 정치•역사 에너지가 과거 백두대간, 산신 및 신선의 에너지와 유사하다고 묘사했다. 대동강 역시 북한 지형에서 또다른 축을 차지하는 에너지 통로이며, 여기에는 여러 형태의 물질성과 역동적인 물질들이 흐르고 있다. 북한의 엘리트층과 운좋은 방문자들에게는 이 축과 레저시설에 접근할 권한이 주어지지만 다른 지역의 북한 주민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다. 현대에서 북한의 대동강 축은 발전적 서사, 그리고 양식•어업 수확지 같은

효용성 현상(manifestations of utility)을 제시한다. 그러나 대동강과 수공간은 주로 유동권력을 강화시키며, 아마 스윈기도우 교수도 그렇게 인식할 것이다 (스윈기도우, 2014). 한때 미개발되고 자연의 모습이었던 수상공간이 양적•질적으로 개선된다는 점에서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도 결론적으로는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 정치는 수공간과 물놀이 공간이 교차하는 대동강 강둑과 원산-갈마에 레저 에너지를 집중시키면서 정치와 참여자들을 재창조(remake)한다. 북한 엘리트층 아이와 부모는 기존의 이념적 기계의 생산적인, 역동적인 부품에서 벗어나 즐거움이 충만한 시민으로 재창조된다. 마찬가지로 북한 핵과학자 및 중앙당 관료들은 기존의 위험하고, 치명적이고 위협적인 국가와 조직의 요원 역할에서 벗어나며, 진지하지 않은 모습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개인으로 변신한다. 중국 노동자 계층 시민은 독재체재인 중국에서 (북한의 희망대로) 갈마 공항으로 날아가서, 중국이 아닌 가까운 외국 해안가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여행을 누리면서 중국몽을 실현하게 된다. 프랑코 총독이 수상공간을 개선시키면서 자연과 기술의 융합으로 스페인의 현대적 변신을 추구했듯이, 북한도 역동적인 물질, 수자원 지형 및 수상공간을 확대하고 재구성하면서 카리스마 정치와의 상호작용을 추구한다.

A River Runs Through It: Liquid Politics and Watery Geographies in Pyongyang

Dr Robert Winstanley-Chesters

Abstract

This paper considers the liquid politics and watery geographies of contemporary Pyongyang and North Korean urban spaces. So far as the place of liquid or watery places in modern or contemporary politics, this paper holds in mind Erik Swyngedouw's work on Liquid Power(2015), water and the flow of water, and its framing of the construction of "hydro-modernities." It also is excited by the possibility provided by Billé and others to consider water and watery spaces as one of a number of volumetric elements to sovereignty (Billé et al, 2020). Water and its presence or absence in North Korea is inherently political and enmeshed in the charismatic politics of Pyongyang's theatre state (as described by Kwon and Chung, 2012). Watery spaces are therefore spaces of political energy and charisma, part of the "Web of Life" (Moore, 2015) in North Korea, able to have ideological and historical narratives of commemoration projected onto and embedded in them. Water itself is also therefore potentially also an actor, a "vibrant matter" (Bennett, 2012), in these narratives, their projections and in the North Korean present.[1)]

A River Runs Through It: Liquid Politics and Watery Geographies in Pyongyang

"The Potong River shoring-up work is the first project the Pyongyang citizens contribute to the building of a new, democratic Korea with their patriotic labour, and it is a great nature-remaking work our liberated people undertake for the first time. By finishing this project successfully we should make it the first beacon to the transformation of nature for the construction of an independent, sovereign democratic state, rich and strong."[2)]

1) Kim Il Sung, "Encouraging Address Delivered at the Ceremony for Starting the Potong River Improvement Project,"Works Vol. 2 (Pyongyang: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46), 203.

North Korean historical narrative holds that these words from Kim Il Sung marked the end of the first day, May 21 1946 of the construction of the Potong River Improvement Project on the banks of the River Taedong, which flows through Pyongyang. Conventional historiography of course also holds that by this point the division of the peninsula between north and south was not even yet a year old and the official declaration of North Korean statehood and Kim Il Sung's assumption of its leadership was still some two years away. This is North Korea in an infant state, emerging from the aftermath of unexpected liberation, Japanese colonial imperatives and the partition of the peninsula between forces loyal to the Soviet Union and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Yet even at this moment of infancy, water management and hydrology in the case of the Potong project, is today seen as a vital moment in North Korea's own historiography and developmental narratives.

A close examination of North Korea's approach to urban hydrology and water flow however suggests that as well as infrastructural matters there have always been narratives that exist outside of its purely ideological developmental agenda and concern to mitigate flood risks. Terrain and materiality, the water and earth of the banks of the Taedong play a role, their own part in the generation and co-production of new sovereign, social and leisure landscapes. These for the most part have served the entertainment needs of Pyongyang's elite and its children, but as this paper considers, these watery terrains of leisure can also be more deeply embedded in the wider web of political life in North Korea.

This paper considers the liquid politics and watery geographies of contemporary Pyongyang and North Korean urban spaces. So far as the place of liquid or watery places in modern or contemporary politics, this paper holds in mind Erik Swyngedouw's work on Liquid Power(2015), water and the flow of water, and its framing of the construction of "hydro-modernities." It also is excited by the possibility provided by Billé and others to consider water and watery spaces as one of a number of volumetric elements to sovereignty (Billé et al, 2020). Billé and fellow writers, building on new materialist theory, suggest that topography, natural elements and resources are part of the nexus of national development and conceptions of sovereignty. States uses such materials to add volume and extra dimensions to the terrains that they hold sway over. Sometimes this involves the physical creation of new territory such

as coastal reclamation (seen very much in North Korean history), or the creation of artificial land (contemporary development by China in the South China Sea for instance); sometimes this involves the harnessing of once peripheral or underused spaces in national narratives, mythologies and aspirations. This paper suggests, following Billé and Swyngedouw, that in Pyongyang political flows and water volumes construct both hydro-modernity and add a volumetric element to the ideological and narrative projections embedded in the watery geographies of Pyongyang. Water and its presence or absence in North Korea is inherently political and deeply enmeshed in the charismatic politics of Pyongyang's theatre state (as described by Kwon and Chung, 2012). Watery spaces are therefore spaces of political energy and charisma, very much volumetric parts of the "Web of Life" (Moore, 2015) in North Korea, able to have ideological and historical narratives of commemoration projected onto and embedded in them. Water itself is also therefore potentially also an actor, a "vibrant matter" (Bennett, 2012), in these narratives, their projections, in the volumes of new ideological territory and in the North Korean present.

Pyongyang's political and cultural repertoire has historically required and supported an extensive network of narrative, ideology, infrastructure and facilities focused on pleasure and entertainment it is capital city which embedded and enmeshed leisure and non-productive time at the heart of North Korea's acutely charismatic and theatric political form as well as its physical architecture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With Swyngedouw's articulation of liquid politics and its projections in mind, as well as previous writing from Denis Cosgrove(1984) and others on the symbolic power of constructed spaces, such as parkland and the terrains of perambulation and relaxation, this paper alongside its consideration of the watery developments of the past, considers Pyongyang's spaces of leisure and activity of the present, near or on its riverbanks, its waterparks and riverine terrains. In tandem with Pyongyang's axes of revolutionary, commemorative and memorial urban architectures these watery spaces serve to more deeply enmesh ideological energies within the structures of familial and non-political life, vibrant and lively matters in the web of life. Beyond Pyongyang, the author of

this paper in conceptual terms, for comparison, moves to Wonsan and the leisure spaces of the Wonsan-Kalma Coastal Tourist Area. Here Pyongyang's

political ambitions, ludic desires and developmental aspirations are reconstructing a stretch of its of its western coast with a new hydro-leisure modernist vision, in which North Korea becomes not a pariah state, but a destination for East Asian seaside budget tourism.

Watery Leisure Spaces of the Taedong

The riverbanks of Pyongyang have long been part of North Korea's political narrative (Winstanley-Chesters, 2012), long active in the city's web of life. For instance, the Potong River Improvement Project of 1946 that began this paper, served as the foundational event for post-liberation hydrological development. Once neglected, the Taedong River was reconfigured by charismatic axes of power and architecture (Joinau 2014), becoming a participant in the topographic theatrics of modern Pyongyang. The river connects the demonstration space of Kim Il-sung Square to the ideological monolith of the Juché tower, and now is flanked by recent and spectacular apartment blocks and complexes. However beyond asserting the political requirement that the citizenry perform theatrical and physical supplication to Kimism (Kwon and Chung 2012), the recent past has seen the development of further infrastructures of leisure, entertainment and physical activity on the banks of the Taedong.

As far back as 1997, at the end of the acute phase of the North Korean famine, social and temporal relations on the Taedong were being conceived of alternately. According to KCNA reports (KCNA 1997), this reconfiguration was due to Kim Jong Il's publication in September 1992 of the text "Let Us Improve City Management to Meet the Demand of the Developing Situation." In the light of Kim's theoretical directions the KCNA reported, "The past five years witnessed great changes in the nation's city management." Intriguingly, while the text focuses primarily on technical issues of sewerage and water supply management, its author also notes that "streets and villages take on a new appearance… [and] boating sites have been built on the River Taedong and River Potong pleasure grounds." The following year, the urban architecture of the recently redeveloped Tongil Street was discussed by KCNA (KCNA 1998), including the fact that among the local attractions was"a 300-metre-wide promenade" that "stretches out to the riverside of the

Taedong."

By the turn of the millennium, North Korea's narrative focused on the topography of the Taedong only paid momentary homage to either the foundational infrastructural events of 1946, or the sporting infrastructures of the 1980s, instead noting that: "Many people of all ages and both sexes are having a pleasant time on promenades and parks." This appeared an urban topography now unfamiliar to the urgent revolutionary narratives of previous years; a topography of pleasure rather than conflict. While the river bank still saw vestiges of contest, such as the hulk of the USS Pueblo and its commemoration of American defeat (Rodong Sinmun 2014), pleasure rather than violence would now be key to Pyongyang's contemporary urban planning.

In 2017 the primary watery leisure space on the banks of the Taedong was the Rungna Water Park. This brightly lit and brashly coloured space has featured in many government produced media narratives often as a back drop for the energetic entertainment of Pyongyang's children. The Water Park and its techno-natural infrastructure of leisure facilities are connected to another element in this very particular element of Pyongyang's web of life, the Rungna Dolphinarium. Similar perhaps to facilities found in the United States and elsewhere such as SeaWorld, Rungna harnesses the energy of charismatic species for the reprojection of North Korean political charisma. Its dolphins of course perform dramatic and extraordinary leaps and tricks in the way that trained and domesticated cetaceans do across the globe, the liveliest of matters the most vibrant of non-human actors. However Rungna's dolphins splash their way into a web of life, shot through with the authority and energy of North Korea's own brand of nationalism, its own distinct strain of economic and social organisation. This is just as true of the children and others who splash and frolic on Rungna Water Park's slides and other facilities.

2017 will be famous when it comes to North Korean matters for many things of course, very few of them positive. However as followers of North Korean political narrative will no doubt surely know it is not only the children of Pyongyang who enjoy Rungna's facilities nor marvel at the spectacle of the dolphinarium. As if to drive home the deep connectedness of these watery spaces within other elements of Pyongyang and North Korea's web of life (and even other extremely lively materials in geo-politics), Rungna and other spaces

around Pyongyang were used as spaces of reward, relaxation and rest for those engaged in North Korea's military and nuclear capabilities. Thus along with the children of Pyongyang readers can also see scientists responsible for North Korea's nuclear industry and favoured civil servants at Rungna (Rodong Sinmun, 2017). This is similar to the spaces around Mt Paektu which feature in North Korea's revolutionary historiography, but are now terrains of bureaucratic tourism visited by civil servants and institutionally embedded workers on study tours which are supposed to serve as entertainment, ideological inculcation and an opportunity for the temporal rescaling and rematerialisation of the politics energies of the past in the present (Winstanley-Chesters, 2019). Rungna and other watery leisure spaces on the Taedong are thus further enmeshed within the wider web of North Korean life.

So far this paper has considered the watery geographies of Pyongyang, the heart of North Korean politics and the fulcrum of its axes of ideology and sovereignty. Pyongyang is also of course home to the vast bulk of North Korea's Party, bureaucratic and military elites and so in comparison to the rest of the nation extremely well served by leisure resources and investment in its waterscapes and river spaces. Historically little focus and attention has been given on watery spaces elsewhere in North Korea and what they might mean in terms of either leisure or intersection with the political narratives of Pyongyang. However Wonsan on North Korea's East Sea coastline looked to be becoming a place of great importance to its political agenda and worthy of consideration as another place of liquid politics, but a different aspect of material or volumetric sovereignty.

When the author of the paper writes here in the past tense, that is because for the most part they are describing a pre-pandemic moment. Covid-19 has put paid to much of the impetus for development at Wonsan, certainly when it comes to travel and foreign visitors North Korea has been entirely closed since March 2020. In 2020 and 2021 North Korea's own airline has been for the most part grounded and not even its fishing fleets have set out to sea (Park et al, 2020). However for several years before North Korea imagined new connective possibilities on the East Sea coast. Wonsan was famous during the colonial era for being one of the major logistics and trans-shipment routes between mainland Japan and its territory on the Korean peninsula. It had been previously identified as an alternative port for Vladivostok by the Russian

Empire and during the Port Hamilton (Geoman) Incident of 1887, Russia had even considered annexing Wonsan to offset the British influence on pre-colonial Korea. Wonsan was almost entirely destroyed between 1951 and 1953 by US Naval bombardment in what became known as the longest running naval blockade in modern global history.

Wonsan has always been an important coastal port to North Korea, and in fact was the destination for a ferry to Niigata in Japan until 2006. While it had long been famous for its Songdowon beach and the connected Songdowon International Children's Union Camp (to which children inclined towards North Korean politics and ideology from across the globe travelled), in 2014 the Wonsan Special Tourist Zone was announced. The zone for several years appeared to comprise primarily of the famous Masikryong Ski Resort and an extensive golf club. IFES at Kyungnam University has of course produced a number of reports on the early stages of the Tourist Zone (IFES Kyungnam, 2016), however by 2016 the ambitions for the project had morphed into the Wonsan-Kalma Coastal Tourist Area and Kim Jong Un had begun to make on the spot visits. By this point Wonsan-Kalma airport had been redeveloped, with extensive departure lounge facilities. The Wonsan-Kalma beach familiar from the photographs of Aram Pan (Singaporean North Korea enthusiast), fringed with low green trees and undeveloped would soon disappear (Aram Pan, 2013).

Kim Jong Un, North Korean Premier Kim Jae Ryong, former Premier Pak Pong Ju, Choe Ryong Hae, and many other important political figures continued to make repeated visits to the Wonsan-Kalma Coastal Tourist Area throughout 2017, 2018 and 2019, and development at the site was very clear, growing extensively and including a wide variety of hotel accommodation and leisure options. While there were certainly high-end hotels, it appears that there were also more down market, potentially cheaper options, and some individual family villas constructed (Rodong Sinmun, 2018). There were even waterfront villas on stilts constructed which Kim Jong Un in particular mentioned in one visit. (Rodong Sinmun, 2019) While some have speculated that Wonsan and its airport redevelopment was focused on enabling South Korean tourists to more easily reach Mt Kumgang (Silberstein, 2020), others have suggested that actually it was Chinese tourists that North Korea was seeking with this development. This paper suggests that a more watery and

prosaic future awaits the area in North Korean institutional mind.

Wonsan-Kalma Coastal Tourist Area should perhaps better considered at the mass market, package holiday or budget tour end of the business, and that North Korea is envisaging a cheaper option for theoretically mobile Chinese citizens, for whom entry into the country is much easier and cheaper than for Japanese or tourists from other nations. China proper of course has many beach resorts and holiday areas, especially around Hainan island, but these are becoming increasingly expensive. Thus might North Korea have Wonsan-Kalma in mind as a watery, coastal budget option for working class tourists from China's northeast. To engage such markets Pyongyang has had to adapt its coastal geographies and infrastructures, extracting some of the ideological heat, to generate a different form of liquid politics, some distance from the axes of North Korean regime legitimacy in Pyongyang. However as much as the ideology may be toned down, as this is North Korea it surely is not removed, and so Franck Bille and others notions of volumetric sovereignty to should still be held in mind here. Wonsan-Kalma and its watery spaces essentially utilise the volumetric potential of sea, sand and the built and landscaped leisure architecture to capture and appropriate a potential leisure market from elsewhere in East Asia, as well as make claims about the human and cultural geographies that might be possible in a North Korea of the future. Wonsan and the leisure spaces of the Wonsan-Kalma Coastal Tourist Area. Here at Wonsan Pyongyang's political ambitions, ludic desires and developmental aspirations have reconstructed water scapes and watery geographies through a hydro-leisure modernist vision, in which North Korea becomes not a pariah state, but a destination for East Asian seaside budget tourism.

Conclusion

Benjamin Joinau of course theorised the transformation of Pyongyang's urban axes to fit the needs of its ideological mythos (Joinau 2014), capturing the energy of North Korea's political history in a similar manner to the energies transmitted in Korea's past along its mountain ranges by the paektu-taegan and its many sanshin and sinson. The Taedong river itself is another axis in North Korea's topography, an energy route through which

different forms of materiality, other lively matters flow. North Korea's elite citizens and lucky visitors are granted along this axis, access to a leisure present and future perhaps inconceivable to residents from elsewhere in the country. The Taedong's axis of course provides in contemporary North Korean developmental narrative, other manifestations of utility; a site for the harvesting of aquaculture and fishing enterprise for instance. However the Taedong and its watery spaces primarily allows for the harnessing of a liquid power, perhaps even as Swyngedouw would recognise it (Swyngedouw, 2014). The same ultimately might be said to be true of the Wonsan-Kalma Coastal Tourist Area, along whose coasts, North Korea is adding volume and heft to a water front that was once undeveloped and organic. Through the capture of leisure energies on the banks of the Taedong and in Wonsan-Kalma, as they

intersect with waterspace and waterplace, North Korea's politics both potentially remakes itself and remakes those who interact with it. The children of North Korea's elite and their parents are thus remade from productive, energetic cogs in the ideological machine, to become entertained citizens. Likewise its nuclear scientists and central party bureaucrats transform from operatives of a dangerous, deadly and threatening state and its enterprises to

individuals capable of fun and frivolity. Working class citizen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lso fly in (in North Korea's aspiration), to Kalma airport from their own autocracy to engage in cut price, time efficient beach side holidays, living the Chinese dream, just not actually in China. Just as Franco would harness water to transform Spain into a technonatural modernity, North Korea reconfigures and adds volume to the lively matters of its watery terrains, spaces where watery geographies and flows of charismatic politics can flow alongside each other.

References

Bennett, Jane. 2010. Vibrant Matter: A Political Ecology of Things.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Billé, Franck, et al. 2020. Voluminous States: Sovereignty, Materiality and the Territorial Imagination.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Castree, Noel. 2001. Social Nature.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Cosgrove, Denis. 1984. Social Formation and Symbolic Landscape. Madison, WI: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Gelézeau, Valérie. 2015. "Problems in Landscape Interpretation: The Fieldwork Paradox in North Korea", Conference Paper delivered at the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in Europe annual conference, July 2015, Bochum, Germany.

IFES, Kyungnam. 2016. "Financial Complex and Upscale Hotel Construction Presses ahead in Wonsan," http://ifes.kyungnam.ac.kr/eng/FRM/FRM_0101V.aspx?code=FRM160907_0001

Joinau, Benjamin. 2014. "The Arrow and the Sun: A Topo-mythanalysis of Pyongyang." Syunkyunkwa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14, 1: 65-92

KCNA. 1997. "Korea's City Management," KCNA, September 5, 1997, accessed January 22, 2015, http://www.kcna.co.jp/item/1997/9709/news9/05.htm#12

KCNA. 1998. "Thongil Street," KCNA, February 11, 1998, accessed January 22, 2015, http://www.kcna.co.jp/item/1998/9802/news02/11.htm#9

KCNA. 2003. "Rungna Islet," KCNA, May 21, 2003, accessed January 22, 2015, http://www.kcna.co.jp/item/2003/200305/news05/22.htm#7

KCNA. 2007. "Pleasure Ground Newly Built in Mangyongdae," KCNA, April 17, 2007, accessed January 22, 2015, http://www.kcna.co.jp/item/2007/200704/news04/18.htm#10

KCNA. 2012. “Rungna People’s Pleasure Ground Opens in the Presence of Marshall Kim Jong Un,” KCNA, July 25, 2012, accessed January 22, 2015, http://www.kcna.co.jp/item/2012/201207/news25/20120725-34ee.html

Kim Il Sung. 1951. “On Some Questions of Our Literature and Art.” Selected Works Vol. 1. Pyongyang: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Kim Il Sung. 1958. “On the Immediate Tasks of City and Country People’s Committees.” Selected Works Vol. 2. Pyongyang: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Kim Il Sung. 1961. “A Happy and Cheerful Life for the Working People.” Selected Works Vol. 3. Pyongyang: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Kim Il Sung. 1964. “On Creating Revolutionary Literature and Art.” Works. Vol 18. Pyongyang: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1964.

Kim Il Sung. 1966. “Let us Produce More Films Which are Profound and Rich in Content.” Works. Vol 20. Pyongyang: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Kim Il Sung. 1972. “On Developing Physical Culture.” Works Vol 27 .Pyongyang: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Kwon, Heonik and Byung-ho Chung. 2012. North Korea: Beyond Charismatic Politics. Lanham: Rowman and Littlefield.

Lefevbre, Henri. 1991. The Production of Space. Oxford: Blackwell.

Lorimer, Jamie. 2007. “(Non) Human Charisma.” Environment and Planning D: Society and Space, Vol 25, No. 5: 911-932.

Moore, Jason. 2015. Capitalism in the Web of Life: Ecology and the Accumulation of Capital. London: Verso.

Pan, Aram. 2013. “Wonsan Kalma Beach 2013,” DPRK360, August 2nd 2013, accessed May 1, 2021, https://dprk360.com/inside-north-korea/wonsan-kalma-beach-2013/501/.

Park, Jaeyoon et al. 2020. “Illuminating Dark Fishing Fleets in North Korea.” Science Advances 6, no.30, eabb1197, https://advances.sciencemag.org/content/6/30/eabb1197

Rodong Sinmun. 2014. “Truth and Lesson,” Rodong Sinmun, January 22, 2014, accessed January 22, 2015, http://www.rodong.rep.kp/en/index.php?strPageID=SF01_02_01&newsID=2014-01-22-0007&chAction=S

Rodong Sinmun. 2014. “Tour of Revolutionary Battlesites in Are of Mt Paektu Goes On”, Rodong Sinmun, August 18, 2014, accessed January 20, 2015, http://www.rodong.rep.kp/en/index.php?strPageID=SF01_02_01&newsID=2014-08-18-0010&chAction=S.

Rodong Sinmun. 2017. “Sojourn of Contributors to Successful ICBM-ready H-Bomb Test”, Rodong Sinmun, September 12th, 2017, accessed October 2017, http://rodong.rep.kp/en/index.php?strPageID=SF01_02_01&newsID=2017-09-12-0005.

Rodong Sinmun. 2018. “Supreme Leader Kim Jong Un Inspects Construction Site of Wonsan-Kalma Coastal Tourist Area Again,” Rodong Sinmun, November 1st, 2018, accessed May 2nd, 2021, http://rodong.rep.kp/en/index.php?strPageID=SF01_02_01&newsID=2018-11-01-0014

Rodong Sinmun. 2019. “Supreme Leader Kim Jong Un Inspects Wonsan-Kalma Coastal Tourist Area under Construction,” Rodong Sinmun, April 6th, 2019, accessed May 2nd, 2021, http://rodong.rep.kp/en/index.php?strPageID=SF01_02_01&newsID=2019-04-06-0002

Silberstein, Benjamin. 2020. “North Korea Promoting Mt Kumgang Tourism,” NK Economy Watch, http://www.nkeconwatch.com/2020/07/16/north-korea-promoting-mt-kumgang-tourism/

Swyngedouw, Erik. 1997. “Excluding the Other: the Production of Scale and Scaled Politics/” 167-176 in Lee, R and Wills, J ed. Geographies of Economies. London: Arnold.

Swyngedouw. Erik. 2015. Liquid Power: Contested Hydro-Modernities in Twentieth Century Spain. Cambridge, MASS: MIT Press.

Whatmore Sarah and Braun, Bruce, 2010. Political Matter: Technoscience, Democracy and Public Life. Minneapolis,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Winstanley-Chesters, Robert. 2012. “Hydrological Engineering, Coastal Land Reclamation and the Multi-functional Paradigm in the DPRK,” Sino-NK, May 6, 2012, accessed January 20, 2015, http://sinonk.com/2012/05/06/taegyedo-tidal-reclamation-multifunction/Winstanley-Chesters, Robert. 2014. Environment, Politics and Ideology in North Korea: L.andscape as Political Project. Lanham: Lexington Books.

Winstanley-Chesters, Robert. 2014. “Spaces of Leisure: A North Korean (Pre)History,” Sino-NK, September 13, 2014, accessed January 22, 2015, http://sinonk.com/2014/09/13/spaces-of-leisure-north-korean-pre-history/.

Winstanley-Chesters, Robert, 2019. “Spatialising Imagined Moments of Korean Unification: Arboreal and Topographic Charisma on Apri l27,2018”,S/N Korean Humanities, Vol 5, No 2,3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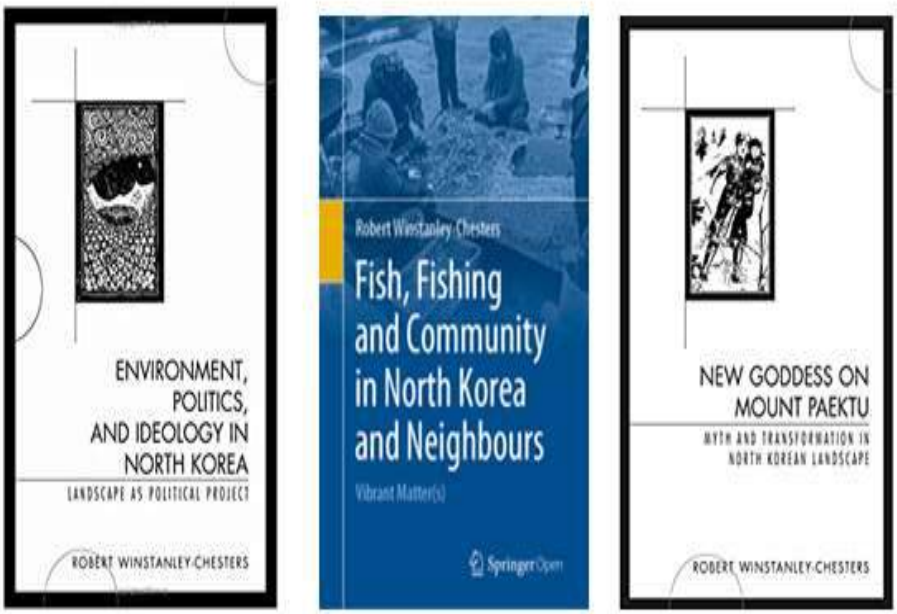
A River Runs Through It: Liquid Politics and Watery Geographies in Pyongyang

Urban Kaleidoscope of North Korea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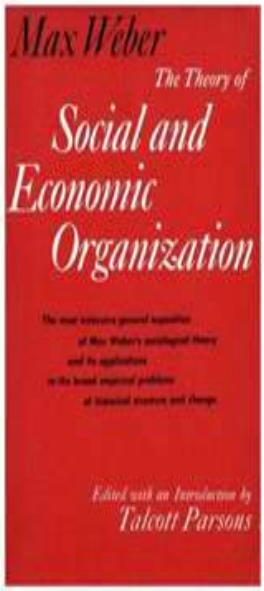
April 26th,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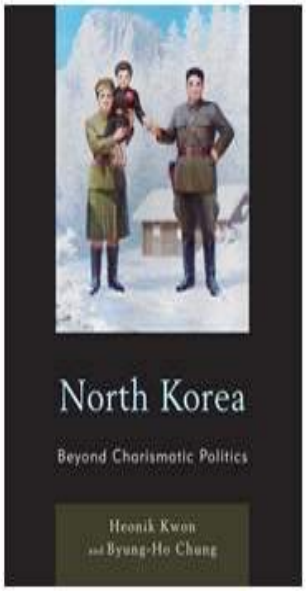
Dr Robert Winstanley-Chesters, University of Leeds, Bath Spa University, Wolfson College, Oxf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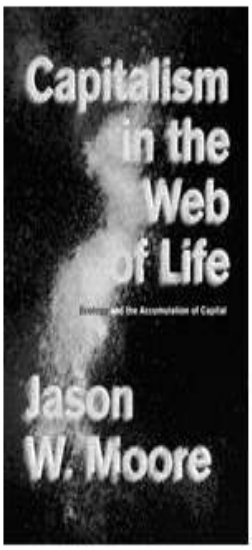
Robert Winstanley-Chesters, BD (Edinburgh), MTh (Edinburgh), MA (Leeds), PhD (Lee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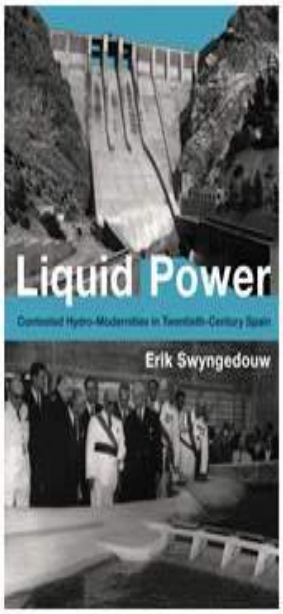
Charismatic Politics and Watery Theatric Space





Water as Vibrant Matter in the Web of Life





Watery Spaces as Symbolic, Hydro-Modernity, Volumetric

Watery Leisure Spaces

Taedong as axis of leisure

Watery Spaces for Children

Watery Spaces for Scientists and Bureaucrats

Pothong Riverside Futures

Wonsan-Kalma: Watery Pasts (2013)

Wonsan-Kalma: Watery Futures

Coastal Leisure Spaces: Wonsan-Kalma

Volumetric Watery Regional Politics at Wonsan-Kalma:
North Korea as Leisure Destination

발표 2

북한에서 국경도시 집적(agglomeration)의 형성은 신화인가, 현실인가?

엄빠벨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펠로우)

1. 개 요

북한은 융통성 없고 전체주의적이라는 비난을 자주 받는다. 북한의 공고한 국경 수비는 소련의 “철의 장막”에 자주 비교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웃국가를 마주하는 국경지역마다 최소 하나씩은 존재하는 도시 인구밀집지역은 북한과 외부 세상을 연결한다. 그 중 신의주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세계를 바라보는 중요한 “창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저자는 본 연구에서 신의주가 초국경(trans-border) 집적(agglomeration)의 핵심부분이 되었다는 가설을 도시학적인 시각에서 검증하고자 하며, 그 역할이 북한이라는 “불가사의한” 국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단서”가 될 수 있는지를 조사한다.

2. 이론 및 방법론

도시집적의 이론적 개념은 영국의 에버니저 하워드가 제시한 전원도시(garden city) 개념에서 출발했으며 (에버니저, 1902), 미국의 조지 킹슬리 지프(1949) 및 독일의 발터 크리스탈러(1966)처럼 뛰어난 학자들의 이론 구조를 거쳐서 현대의 해석수준까지 발전했다. 이 주제에 관한 학계의 관심 증가는 늘어나는 관련 논문 수에서도 나타나며,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인구 100만명 이상 규모의 도시집적 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2017년 세계 인구 중 20%에 달했다 (UNPD, 2019). 둘째, 글로벌 도시개발에서 도시집적이 핵심 동력이 되었다. 세계 각지의 도시집적은 고유의 특성을 가지지만 모두 유사한 성질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통합도시의 공간적 형태로 짧게 표현할 수 있다.

두 도시간의 사회경제학 비교는 가능한 모든 시각에서 기울기(gradient)를 분석하며 실시했다. 이 접근법의 장점은 러시아과학원의 조토바 등의 학자들이 제시한 바 있다 (2018). 도시개발의 형태론적(morphological) 패턴을 조사하고 그 경계선을 식별하는 세 가지 주요방법 (몬테로 등, 2021) 중에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이번 사례에 적용했다.

수학자 만델브로트가 창시한 프랙탈(fractal) 기하학은 (1982) 오늘날 고차원적인 도시구조 분석에서 필수 과정이 되었다. 도시 거주지의 형태론적 경계를 구분하는 프랙탈 적용법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우선 다차원적인 공간 조직이 존재함을 기억해야 한다. 예비 벡터 지도는 단계적 확장을 위해 생겼으며, 건물들을 합치면서 단지(cluster) 형성에 기여했다. 단 하나의 단지가 남을 때까지 지도 상의 이미지를 확대했다. 로그-로그 그래프 상의 지점, 즉 일직선과 확대된 곡선 간의 거리가 가장 먼 지점까지 형성된 단지의 수가 바로 도시지적의 형태론적 경계에 해당하는 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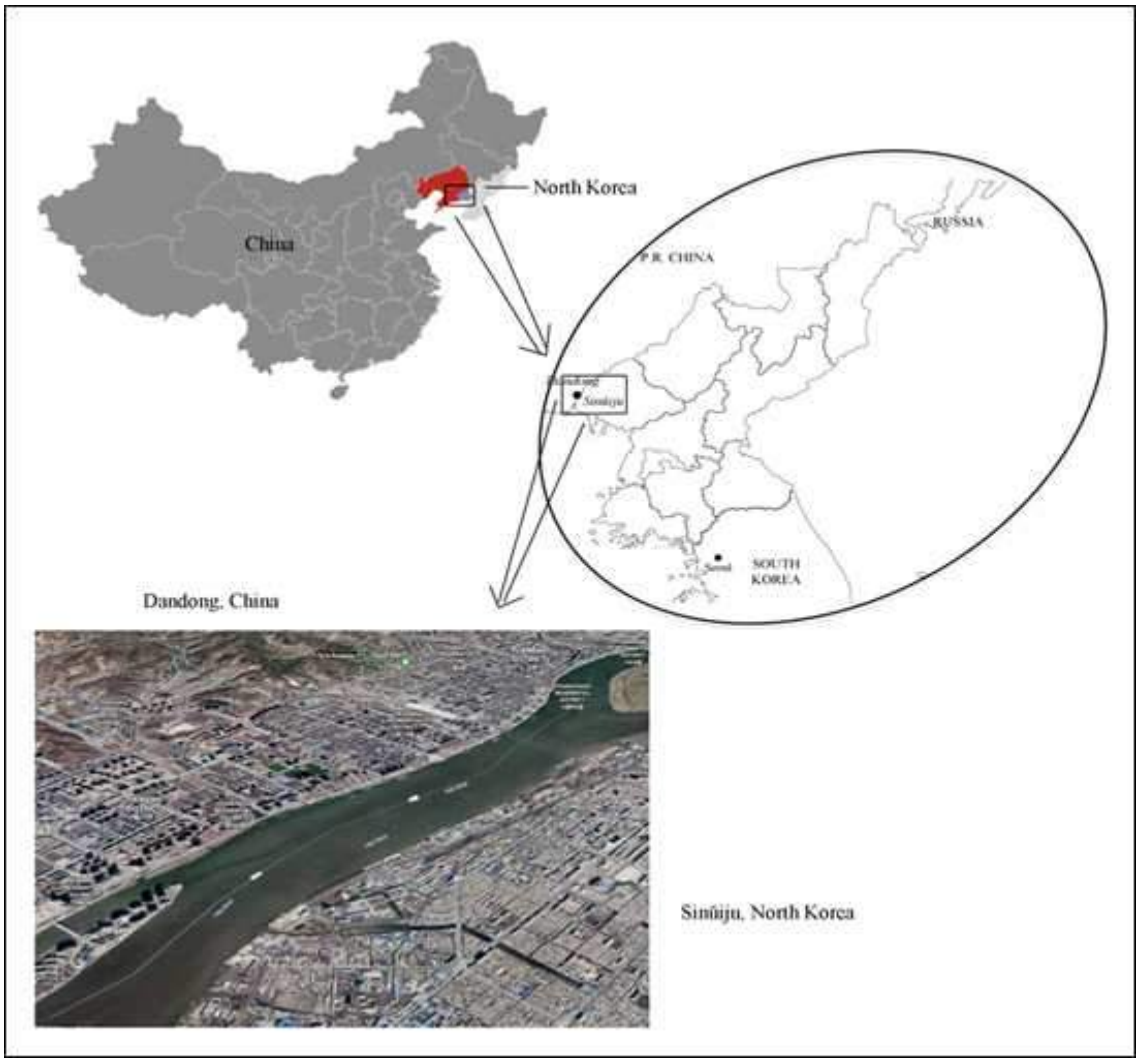
리이며 (테니어 등, 2011, 213), 소위 도시봉투(urban envelope)로 불리기도 한다 (프랭크하우저 & 테니어, 2005). 분석 시에는 프랙탈리스(Fractalyse) 및 모르포림 (MorphoLim)이라는 특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

3. 결 과

중국 단동과 북한 신의주라는 두 도시가 연구대상이었다. 2008년 기준 두 도시 모두 북중 접경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큰 밀집지역이었지만, 단동은 랴오닝성의 중형 도시였고, 신의주는 평안북도의 핵심도시였다. 단동 인구의 연령구조는 신의주와 비교했을 때 불균형이 나타난다. 단동 인구 중 아동 비율은 11.1%이며, 신의주는 23%로 2배의 격차가 존재한다. 신의주의 도시화율은 93%로서 66% 수준의 단동보다 높으며, 심지어 특혜를 받는 평양보다도 도시화 수준이 높다. 압록강 조중우의교와 연결된 북중 지역 도시들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신의주청년역 인근의 인구밀도는 15,000명/km2였으며, 단동 전싱 구는 3분의 1 수준인 5000명/km2였다. 위 같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신의주 인구 대부분이 주요 철도역 주변에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단동의 인구 분포도가 지역마다 동일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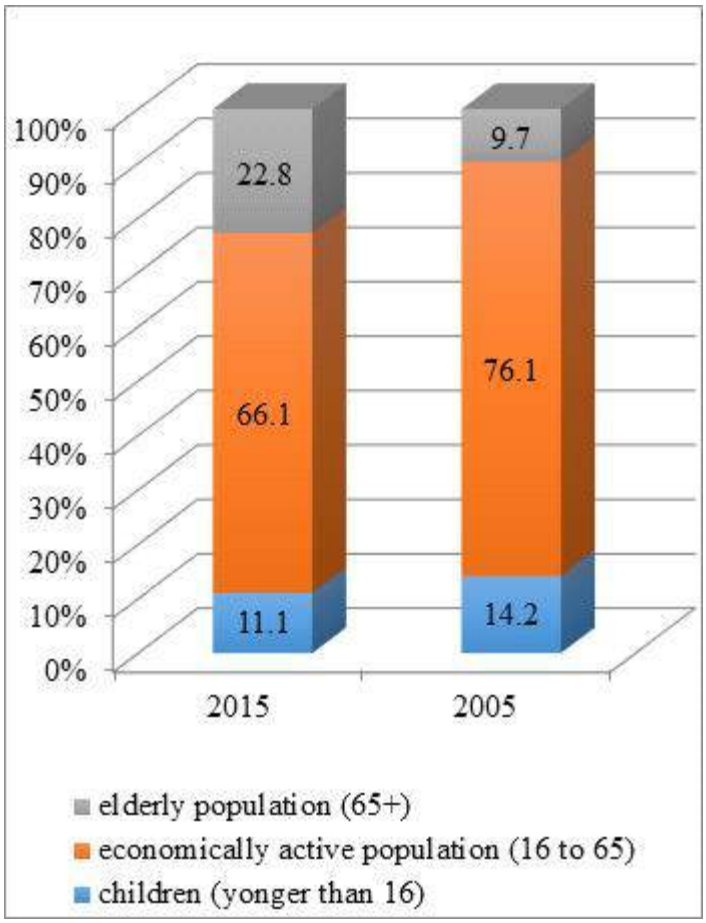
지역연구에서 조중 경제협력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두 도시는 각자 수도에서 멀리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초국경 협력은 두 도시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추진력이었다. 2019년 말까지의 상황만 대략적으로 고려되었으며, 아직 코로나로 인해 초국경 협력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는 불확실하다. 압록강 주변의 중국·북한 주민들은 초국경 무역에 크게 의존하며, 가혹한 제재가 도입되기 전에는 북중 무역량 전체의 70%가 이곳에서 발생했다 (가오, 2019). 중국의 대북 수출이 북한의 대중수출의 3배 규모였지만, 북한이 필요로 하는 필수소비재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북한에게도 도움이 된다. 북중 접경무역은 랴오닝성의 대외무역에서 2%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단동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단동시 경제·사회개발 통계보고서, 2019).

그림 1. 단동과 신의주의 위치 (구글 어스를 기반으로 저자가 만듦)



북한과 중국의 중앙·지방정부는 대표적으로 신의주특별행정구 및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같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초국경 협력을 강화하려 노력해왔으며, 여기에 북한의 황금평섬과 위화도, 중국의 단동 궈먼완(Guomenwan) 무역지구도 포함된다 (아브라미안 & 멜빈, 2015). 중국 기업들은 두 도시가 경공업에 특화된 점을 활용했다. 노동자 부족 문제가 커지는 상황에서 중국은 낮은 임금으로도 열심히 일하는 신의주 노동자들을 선호했다. 첫째,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다. 표2가 보여주듯이 랴오닝성의 16-65세 인구비율은 2005년 76.1%에서 2015년에는 66.1%로 급감했다. 두 번째는 순수하게 경제적인 이유이다. 북한 노동자 임금은 중국 현지인 임금보다 현저하게 낮으며, 공식적으로 일하는 북한노동자 수가 단동에서만 2만 명이 넘는다 (칠코트, 2018, 438). 이 협력모델은 선양 산업벨트의 일부분으로서 첨단장비제조와 첨단기술섬유산업 협력에서도 큰 잠재력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현주 등, 2016).

그림 2. 2005-2015년 랴오닝성의 인구연령 구조 변화



출처: 단동시 경제·사회개발 통계보고서, 2005, 2015).

북한은 현금을 유입시키는 이 협력 모델로 이득을 보았다. 중국 내 공식적으로 일하는 북한 노동자 임금의 상당수는 북한정부가 전용한다. 추정할 수 없는 밀수와 중국 내 불법 북한 노동자 등을 포함하는 그림자(shadow) 경제 역시 잊어서는 안 된다 (가오, 2019). 더 나아가 단동의 지리적 위치는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관광객에게 환승지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여행 관련 서비스의 부차적인 (secondary) 시장에서도 수익을 창출했다. 이러한 사실은 두 도시간의 경제관계가 "공생" 관계임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두 도시의 주민들은 이웃도시 방문을 즐기게 되었다. 2016년 도입된 당일여행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단동과 신의주 간의 여행객 방문을 촉진시키는 뛰어난 방안이었다. 단동 주민들에게 방북은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구할 수 없었던 물품과 서비스를 접하며 수요를 충족시키는 기회였으며, 북한사람들에게는 더 좋은 품질을 구할 수 있는 기회였다 (파르도, 2013). 제재 도입 이후에도 단동과 신의주의 시장들이 상호 확장되고 겹치면서 마치 도시들간에 단일시장이 형성된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초국경 지역에서 접촉이 활성화된 주요 원인은 단지 두 도시가 사회경제적으로 변화해서가 아니며, 양국 주민 간의 일상 생활도 큰 영향을 받았다.

신의주의 도시구조는 불균형한 상황이다. 철도 주변의 관련 공간은 전체면적의 8% 이하이며, 나머지 면적은 농지나 산으로 형성되어 있다. 계획대로라면 미개발 지역을 제외하면 단동의 대부분은 거주지역이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신의주에는 소수의 고층건물만 있다. 건물층수가 12층을 넘는 예외적 경우는 거의 없다. 일반적인 단동 거주단지는 대부분 저층건물이며, 고층건물은 주로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추정에 기반한 도시봉투(urban envelope)는 적어도 주요 철도역 주변공간을 포함하는 신의주 도시부분의 경계선이 압록강 이북까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단동과 통합되었다고 본다.

4. 토 의

버싱크(2002)는 초국경 지역에 형성된 도시거주지의 다양한 정의를 연구했다. 단동-신의주 사례는 두 국가에 속하는 도시(bi-national city), 초국경 도시, 월경(border-crossing) 도시, 혹은 단일 도시 같은 표현들로는 정의할 수 없다. 단동과 신의주는 하나의 도시형태로 합쳐졌지만 자연적 경계이자 국경 역할을 하는 강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 저자는 연구대상이 초국경 도시 집적이라는 가설을 긴밀한 경제통합, 통합된 시장의 발생, 및 형태론적 통일성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증명한다고 생각한다.

집적이 손꼽을 만큼 철저한 국경에 의해 분리되었다는 점, 그리고 사실상 자본주의 중국 도시와 북한 물품의 마케팅이 융합(conflate)된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의 양면성은 독특하다. 따라서 저자는 시장화라는 “바이러스”로 북한을 “감염”시키는 곳은 평양이 아닌 신의주라고 가정(assume)한다. 신의주가 위에서 언급된 특별행정구역의 일부로서 많은 행정적 문제에서 자율성을 누렸으며, 평양과 다른 북한 도시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수준의 자유를 가졌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주는 경제만이 아니라 정치적 변화의 중심지가 될 수도 있다.

압록강은 매우 논란이 많은 역할을 맡고 있다. 한쪽에서 압록강은 상호공간을 “왜곡(distort)”시키는 자연적 경계이자 국경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 국가간의 사회경제적 기울기(gradient) 때문에 초국경 도시 집적이 형성될 수 있었다. 강이 한반도(Korean) 도시성을 분리시키면서 동시에 역설적으로 통합시킨다는 점은 특이

하다. 남북의 수도인 서울과 평양은 모두 강으로 나누어진다. 한강이나 대동강을 지나가는 국경은 없지만, 이 비유는 의심할 여지 없이 흥미롭다. 한가지 더 주목할 점은 두 수도의 남쪽 지역들이 북쪽 지역들보다 덜 개발되었으며, 연구된 집적에서도 이 현상을 찾을 수 있다. 국경선과 강이 교차하는 현상은 조사한 도시 집적의 추가적인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이 교차점이 없었다면 단동과 신의주는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다. 초국경 협력의 변화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그 변화는 양측 도시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한 예시는 북한이 상호이익이 되는 국제협력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며, 오히려 신의주가 이미 완전히 형성된 초국경 도시의 일부가 되었음을 증명한다. 어쩌면 이런 종류의 협력은 다른 초국경 지역들이 경제개발을 달성하기 위해 참고하는 예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가를 시장화로 “감염”시키는 진입점도 분명히 증가할 것이다.

Formation of a trans-border urban agglomeration in North Korea: myth or reality?

Dr Pavel P. Em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Seoul, South Korea)
Institute of Geography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Moscow, Russia)

Introduction

The DPRK is usually vilified as being rigid or even totalitarian, while its heavily defended border is often compared to the Soviet "Iron Curtain." However, at least one urban population center is located on the border with each neighboring country, and indeed they connect the country with the outside world. The city of Sinŭiju is unique among the others for fulfilling the function of the main "window" not only to neighboring China, but to the whole globe as well.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examine the assumption that this city has become an essential part of a trans-border agglomeration through the lens of urban studies, and investigate if this role could be a useful "clue" for better understanding this "mysterious" country.

Theory and Methodology

The theoretical concept of urban agglomeration has evolved from the idea of a garden city (Ebenezer, 1902) through the brilliant structures of Zipf (1949) and Christaller (1966) to contemporary interpretations. The increasing academic interest in this subject, as evidenced by the ever growing number of relevant articles, is attributable to two main factors. First, the share of world population residing in urban agglomerations with a population of more than 1mln surpassed 20% in 2017 (UNPD, 2019). Second, urban agglomerations have become the main driver in the development of global urbanization. Although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agglomerations vary depending the part of the world they are located in, all of them share similar natures, and thus could be briefly described as a spatial form of integrated cities.

The socio-economic comparison between two cities was made through an analysis of the gradients between them in all possible projections. The benefits

of such an approach were properly discussed by Zotova et al (2018). Among the three main methods of examining the morphological patterns of urban development and identifying their boundaries (Montero et al, 2021), the most applicable was applied to the present case.

Fractal geometry was introduced by Mandelbrot (1982) and nowadays it has become a necessary part of analyzing urban structures at an advanced level. To briefly explain the application of fractals to delimitate morphological boundaries of urban settlements, it should be noted that they have a multiscale spatial organization. A preliminary vector map was devised for step-be-step dilatation, helping to form clusters by merging the buildings. The image on the map ₩was dilated until only one cluster was rendered. The place on the log-log plot, counting the number of formed clusters where the dilation curve deviates most from a straight line, is the distance corresponding to the morphological boundary of the urban agglomeration (Tannier et al, 2011, 213) or the so-called urban envelope (Frankhauser & Tannier, 2005). Special software, Fractalyse and MorphoLim, were used for this analysis.

Results

The studied object consists of the two cities, Chinese Dandong and North Korean Sinŭiju. Both are the largest population centers along their respective national frontier zones, but Dandong is a mid-sized population center in Liaoning Province, while Sinŭiju is the primary city for North Phyongan Province as of 2008. The age structure of the Dandong population seems misbalanced in comparison with Sinŭiju due to the more than twice lower share of children within the population (11.1% and 23% accordingly). The urban rate of Sinŭiju (93%), the most urbanized city in the whole DPRK even in comparison to the privileged Pyongyang, was higher than the same for Dandong (66%). The districts connected by the China-North Korean Friendship Bridge have the highest population density in both cities. At the same time, it should be mentioned that the population density of Sinŭiju around Cheongnyeon station was about 15,000 persons/km2,while the analogous index for the most densely populated Zhenxing district of Dandong was 3 times less (only about 5,000 persons/km2).However, that significant difference is explained by the fact that most of the Sinŭiju population is clustered compactly in the area around the main railway station, while the level of population diffusion in

Dandong is higher, although still far from being spatially homogeno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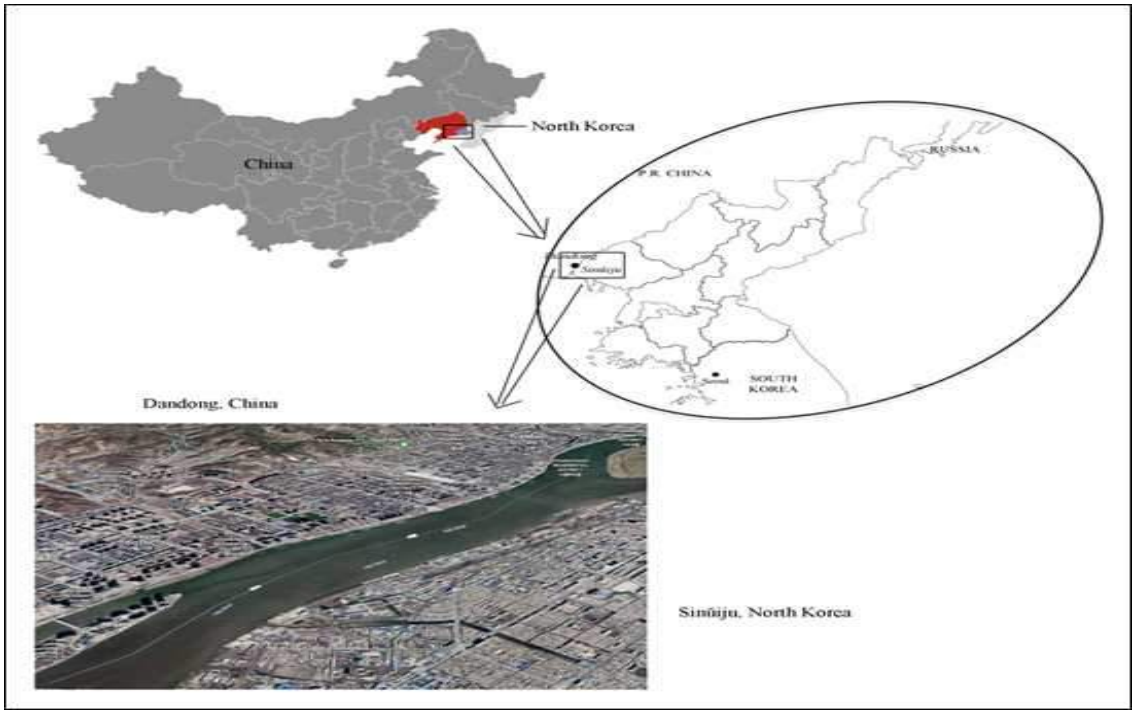


Figure 1. Location of Dandong and Sinŭiju (produced by the author using Google Earth)

The Sino-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studied area has a long history. As the two cities are located in the periphery of their national capitals, this trans-border cooperation has always been the main impetus not only for their development, but also for their survival. Since it is still unclear as to what extent the COVID-19 pandemic has hurt this trans-national cooperation, only the broad picture up to the end of 2019 was taken into consideration. People on either side of the Amnok river are highly dependent on trans-border trade, the volume of which before harsh sanctions were imposed consisting of up to 70% of the entire turnover between the two countries (Gao, 2019). Even though the Chinese export volume to North Korea was 3 times higher than that in the opposite direction, it still helps to support the DPRK with vitally needed consumer goods. These trade operations, amounting to little more than 2% of the provincial foreign trade, are not very significant for Liaoning, but are of crucial importance for Dandong (Statistical Report on Regional Economic…, 2019).

The national and regional governments of the both countries have tried to strengthen trans-border cooperation by carrying out a variety of projects, the

most famous of these being the Sinŭij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and Sinŭiju International Economic Zone, including those located on Hwanggumphyong and Wihwa islands, as well as the Guomenwan Trade Zone in Dandong (Abrahamian & Melvin, 2015). Chinese businesses also took advantage of the fact that both cities specialize in light industry. The employment of the cheap and hardworking Sinŭiju workforce was favored due to the growing labor shortage in China, first of all, as a result of the shrinking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there. As seen in Fig. 2, the share of the population between the ages of 16 and 65 in Liaoning Province has significantly decreased from 76.1% in 2005 to only 66.1% in 2015. The second reason is purely economic. North Korean labor costs are exceptionally low in comparison with the local Chinese, which is why the number of officially employed North Koreans only in Dandong exceeds 20,000 (Chilcote, 2018, 438). This model, being a part of the industrial belt involving Shenyang, was considered as having great potential to develop cooperation focused on the manufacture of advanced equipment, as well as on industrial cooperation in high-tech textiles (Lee et al,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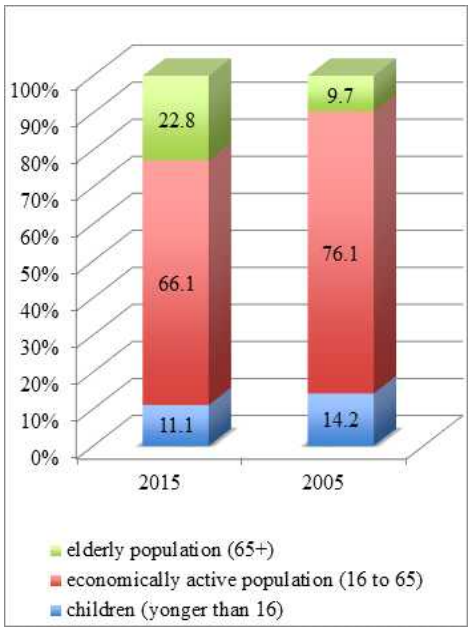


Figure 2. Dynamics of the population age structure of the Liaoning Province in China from 2005 to 2015 (Statistical Report on Regional Economics, 2005 and 2015)

The DPRK itself has also benefited from this model, providing it with a hard currency inflow into the country, as a large part of the income officially earned by North Koreans in China, is subject to government appropriation. The shadow economy, including mass illegal trade and North Korean labor employed within China (Gao, 2019), the amount of which is impossible to estimate, also should not be forgotten. Moreover, the geographical location has helped Dandong not only to be a transit point for foreign tourists travelling to and from North Korea, but it has also spurred a lucrative secondary market offering them related services. This factuality demonstrates that the economic ties between the two cities are nothing less than a "symbiosis."

Furthermore, the residents of both cities enjoy visiting the neighboring side. The visa-wave program for day trips, implemented in 2016, was a brilliant idea to intensify tourist flows between Dandong and Sinŭiju. While being a "time machine" for the Dandong residents, the trip was a chance to satisfy the needs not only for unavailable goods and services, but also to find something of better quality for North Koreans (Pardo, 2013). Even after the imposition of sanctions, it seems that the cities have formed single market, because that of Dandong extends into Sinŭiju area, and vice versa. Moreover, it appears that the socio-economic gradients between the two cities were not only the main reasons for the intensification of the trans-border contacts, but they also influenced the everyday life of each of the residents.

The structure of Sinŭiju is misbalanced, as the urban fabric, the location of which generally reflects the railways, covers no more than 8% of the total area, while the rest of the area is occupied by farmland and mountains. Excluding undeveloped areas, then Dandong should be mainly composed of residential areas according to the Master plan, but in fact it is not. Sinŭiju has only a few high-storey blocks, while the number of storeys rarely exceeds twelve, albeit with some exceptions. The typical residential block of Dandong is also predominantly of the low-rise variety, while the high-rise buildings are mainly located in the border area.

The estimated urban envelope shows that at least the urban part of Sinŭiju, located around the main railway station, is integrated with Dandong, as the urban boundary of this formation crosses the Amnok river.

Discussion

Buursink (2002) has studied many variations of the definition of urban settlements formed in trans-border areas. The case of Dandong-Sinŭiju cannot be defined either as a bi-national city or a trans-border city, neither as border-crossing city, nor as one city, but the two are united into one urban formation separated by a river playing the role of both natural boundary and national border. My opinion is that close economic integration, the occurrence of an integrated market and morphological unity at least partially prove the hypothesis that the studied object is a trans-border urban agglomeration.

Its dual nature is unique not only because the agglomeration is divided by one of the strictest borders, but also because it conflates de-facto capitalist Chinese city and the marketizing of the North Korean parts. Hence, I assume that not Pyongyang, but rather Sinŭiju is the point which is mostly "infecting" the DPRK with the marketization "virus." It should be highlighted that Sinŭiju, being part of above-mentioned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was autonomous in many administrative matters, and had a level of freedom which no other city in the DPRK, including Pyongyang, could even contemplate. Therefore, it may become the center not only for economic, but also for political change as well.

The Amnok river plays a very controversial role. On the one side it is both a natural barrier and a national border, "distorting" the mutual space, but on the other it is precisely because of the socio-economic gradients between the two parts that the trans-border urban agglomeration has formed. It is curious that river plays both separating and paradoxically, uniting function in Korean urbanity, as both capitals, Seoul and Pyongyang, are dimidiated by rivers. Although there is no national border passing through Hangan, nor through Daedongan, this analogy is undoubtedly intriguing. One more association of note is that the southern parts of both capitals, as well as in the studied agglomeration, were still less developed than the northern ones.

That the border line coincides with the river is a crucial factor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examined urban agglomeration. Without it, neither Dandong nor Sinŭiju would be the same. Any changes in trans-border

cooperation, either positive or negative, will influence the urban structure of both parts. The studied example breaks the stereotype that the DPRK is not open to mutually beneficial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ontrast, it proves that Sinŭiju is already a part of a fully formed trans-border urban entity. Perhaps this kind of cooperation can become an example to other trans-border areas on how to achieve economic development. However, in doing so, the number of the entry points "infecting" the country with marketization will certainly increase.

References

Abrahamian, A., Melvin, C. 2015. North Korea's Special Economic Zones: Plans vs. Progress. 38North.

Buursink, J. 2002. The bi-national reality of border-crossing cities. GeoJournal 54: 7-19.

Chilcote, C. 2018. Bridges of Ambition to North Korea: Economy of Anticipation and Materiality of Aspiration in Dandong, China. Critical Sociology 44(3): 437-453.

Christaller, W. 1966. Central place in Southern Germany. NJ: Englewood Cliffs.

Ebenezer, H. 1902. Garden cities of To-Morrow. London: Swan Sonnenschein & Co.

Frankhauser, P., Tannier, C. 2005. A Multiscale Morphological Approach for Delimiting Urban Areas. The Ninth Conference on Computers in Urban Planning and Urban Management. London.

Gao, Bo. 2019. China's Economic Engagement in North Korea. Singapore: Palgrave Macmillan.

Jiang, B., Miao, Y. 2012. Scaling of geographic space from the perspective of city and field blocks and using volunteered geographical inform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Geographical Information Science 26(2): 215-229.

Jiang, B., Miao, Y. 2015. The evolution of natural cities from the perspective of location-based social media. The Professional Geographer 67: 295-306.

Lee, H., Lee, S., Lee. P. 2016. A Study of Cross-border Industrial Belt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Northern Asia. Anyang: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in Korean).

Mandelbrot, B. (1982). The Fractal Geometry of Nature. San Francisco: Freeman.

Montero, G., Tannier, C., Thomas, I. 2021. Delineation of cities based on scaling properties of urban patterns: a comparison of three methods. International Journal of Geographical Information Science 35(5): 919-947.

Pardo, R.P. 2013. Dandong and Sinuiju: The Sino-North Korean Border Shadow Economy. In Talani, L.S., Clarkson, A., Pardo, R.P. (Eds.) Dirty Cities.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Series (89-109). London: Palgrave Machmillan.

Statistical Report on Reg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Dandong City in 2005, 2015 and 2019 (in Chinese).

Tannier, C., Thomas, I., Vuidel, G., Frankhauser, P. 2011. A Fractal Approach to Identifying Urban Boundaries. Geographical Analysis 43(2): 211–227.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UNPD). 2019.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he 2018 Revision. URL: population.un.org/wup/ (accessed on 03.05.2021).

Zipf, G. 1949. Human behavior and the principle of least efforts. Cambridge: MIT Press.

Zotova, M.V., Kolosov, V.A., Gritsenko, A.A., Sebentsev, A.B., Karpenko, M.S. 2018. Territorial gradients in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Izvestiya Rossiiskoi Akademii Nauk. Seriya Geographicheskaya 5: 7–21.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rban Studies

Formation of a trans-border urban agglomeration in North Korea: myth or reality?

Pavel P. Em

Institute of Geography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Research Fellow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Visiting Fellow

Seoul
May 26, 2021

North Korea is "demonized" land of mystery

The image of North Korea is usually connected with its military,

nuclear bombs, famine and other negative issues.

North Korean "windows" to the world

Google Ear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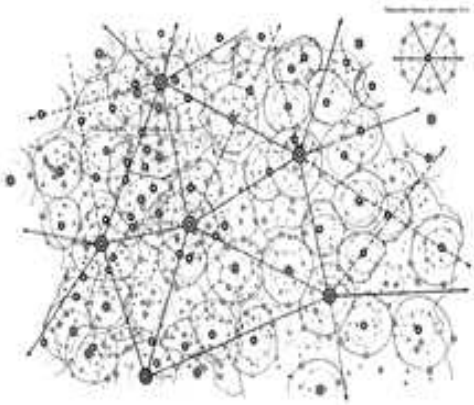
The city of Sinŭiju has become a part of a trans-border urban agglomeration with Chinese City of Dandong

Is it poss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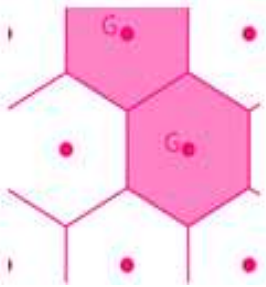
If this fact could be a useful "clue" for our better understanding of the DPRK?

Development of the theoretical base

Garden city (Ebenezer, 18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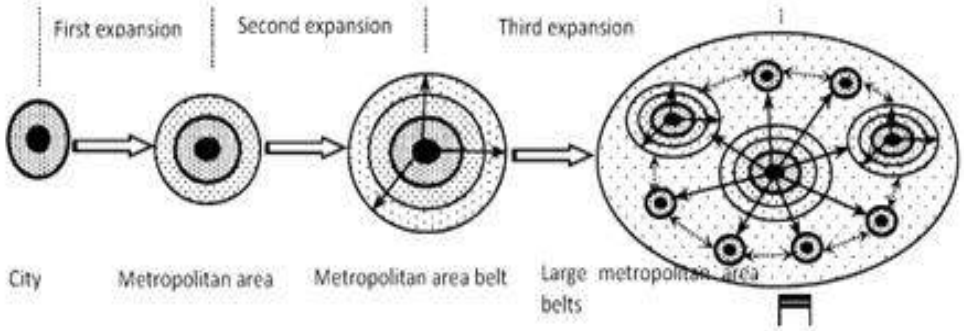


Central place theory (Christaller, 1933)



Theoretical framework: The concept of urban agglomeration

Urban agglomeration is a highly developed spatial form of integrated cities (Fang & Yu,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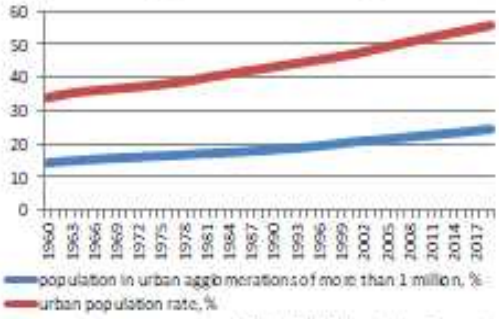


The external increasing returns exist, also known as agglomeration economies.

*Fang C., & Yu, D. 2017. Urban agglomeration: An evolving concept of an emerging phenomenon.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62, 126-136.

Urban agglomerations have become the main driver in the development of the world urbanization

Dynamics of population in urban agglom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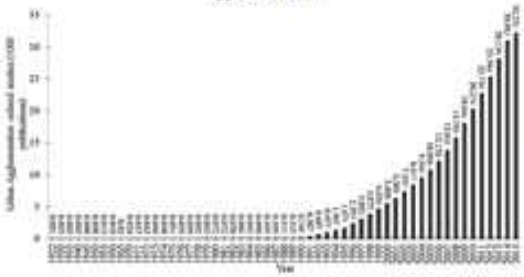
*The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Top-10 Urban agglomerations in the world

	Urban agglomeration	Country of location	Population, 2018 (mln)
1	Main Tokyo	Japan	37.8
2	Jakarta	Indonesia	30.5
3	Delhi	India	25
4	Manila	Philippines	24.1
5	Seoul-Incheon	South Korea	23.5
6	Shanghai	China	23.4
7	Karachi	India	22.1
8	Beijing	China	21
9	New York	USA	20.6
10	Guangzhou-Foshan	China	20.59

*The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Number of academic publications studying urban agglome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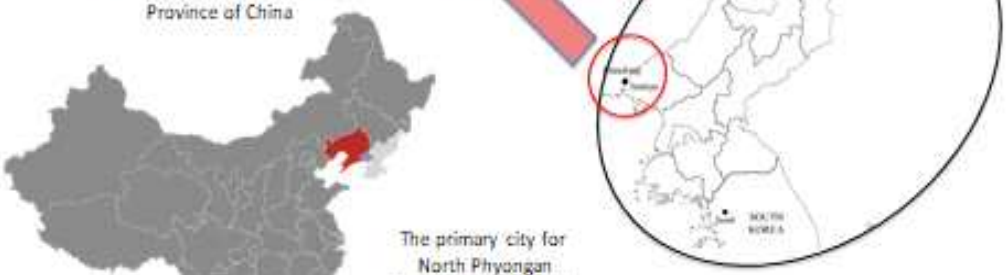


*Fang C., & Yu, D. 2017. Urban agglomeration: An evolving concept of an emerging phenomenon. *Landscape and Urban Planning*, 162, 126-136.

*Google Maps

Sinŭiju and Dandong: ***integrated*** or ***separated***?

Both are largest population centers along their national fronti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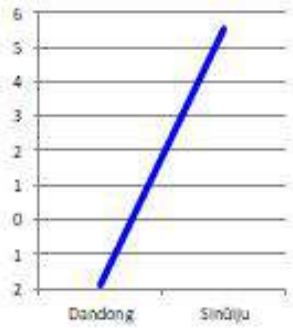


Only mid-sized city in Liaoning Province of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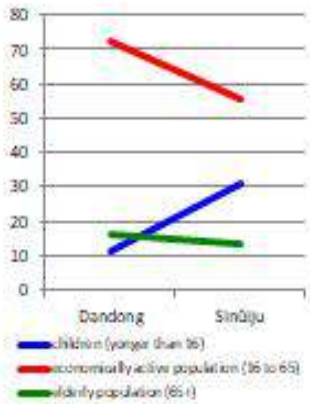
The primary city for North Phyongan Province of the DPRK

Socio-economic gradients between Sinŭiju and Dandong. Demography in 2019

Natural increase rate, ‰



Age structure, %



Sources: Statistical Report on Reg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Dandong City in 2019. Data for the City of Sinŭiju was forecasted using the *Cohort Component Method* on the basis of 1) Schweikendick, D. 2009. The Data Atlas of North Korea: Demography, Society, Economy. Seoul: IPUS; 2) DPR Korea 2008 Population Consus. 2009. Pyongyang: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Gradients in spatial homogeny of population distribution between Dandong and Sinŭi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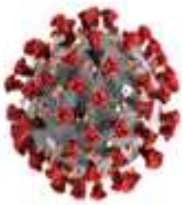
Population destiny of *Zhènxīng* district was about 5,000 people per 1 km², while only 162.6 per 1 km² in the City of Dandong

Population density in the area around the main railway station is more than 15,000 persons per 1 km²

There is no spatial homogeny nor in Dandong, either in Sinŭiju. The population of Sinŭiju is clustered around the main railway stati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Dandong and Sinŭiju

- The Sino-Korean economic cooperation in the studied area has a long history;
- As both cities located in the periphery of their national capitals, the trans-border cooperation has always been the main impetus not only for their development, but also for their survival.



How COVID-19 affected the economic cooperation?

Economic gradient between Dandong and Sinŭiju

Per capita GRP in Dandong was 4,638 USD in 2019

(more than 25,000 USD in Beijing)

Per capita GRP in North Korea was about 1,300-1,700 USD in 2015

Sources: Statistical Report on Reg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Dandong City in 2019; CIA Estimations

Trade between Dandong and Sinŭiju

Total trade volume between two countries

Trade volume was about 3.1 billion USD in 2019, where the NK export was only 220 mln USD (KOTRA)

Dandong operates only about 2% of the Liaoning foreign trade volume

This trade is not that important for Liaoning Province, but is of crucial importance for Dandong

Export from Dandong side is 3 times more than in the opposite direction

In attempt to strengthen trans-borde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wo cities: failed drea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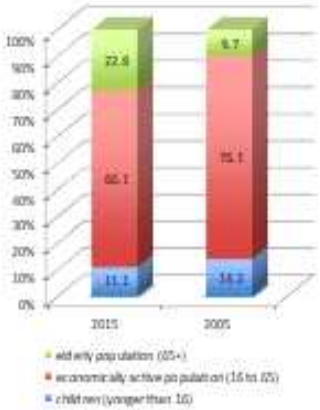
1. Sinŭiju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2002);
2. Sinŭiju International Economic Zone (2013);

3. Wihwa and Hwanggumpyong island SEZ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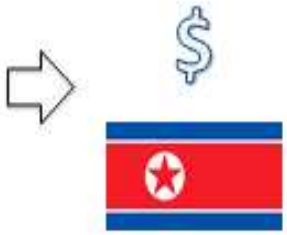
Guomenwan Trade Zone (2015)

Labor cooperation: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s

Dynamics of the population age structure of Dandong City



Cheap and hardworking workforce in Sinŭiju



BOTH CITIES SPECIALIZE IN LIGHT (GARMENT) INDUSTRY

Dandong City is one of the transit points for international tourists on their way to/from North Korea

General scheme of auto and railroads in North Korea and air routes available from/to Pyongyang

Lucrative secondary market offering tourism related services

Source of pictures: Beijing Visitor

Visa-wave program for day trips between Dandong and Sinŭiju was implemented in 2016

"Time-machine" for Dandong residents

Chance to satisfy needs for unavailable goods and services and also find something of better quality

**Pictures made by Presenter*

The socio-economic gradients between two cities were factors of intensification of the trans-border contacts, influencing the everyday life for most of the residents

Even after imposition of the harsh economic sanctions

⇩

Dandong "extends" into Sinŭiju area and vice versa

⇩

Cities have formed something similar to single or at least highly integrated market

Comparison of land-use structure in Dandong and Sinŭiju

Google Earth image of Sinŭiju

- Land-use structure is highly misbalanced;
- Urban fabric reflects the railway stations;
- The share of developed area is not exceed 8% of total;
- City has only a few high-storey blocks. Their number rarely exceed 12.

Master plan of the central part of Dandong, 2017

Dangond should be mainly covered by residential areas,

But it is not!

Most of developed area is covered by low-rise buildings

Fract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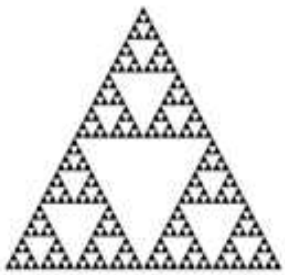
"Fractal is more than just a pretty picture"- G.Kakalious, 1996

"Euclidean geometry is just a particular case of fractal geometry" - P. Frankhauser ,1998

Fractal is self similar geometric configuration with the inner heterogene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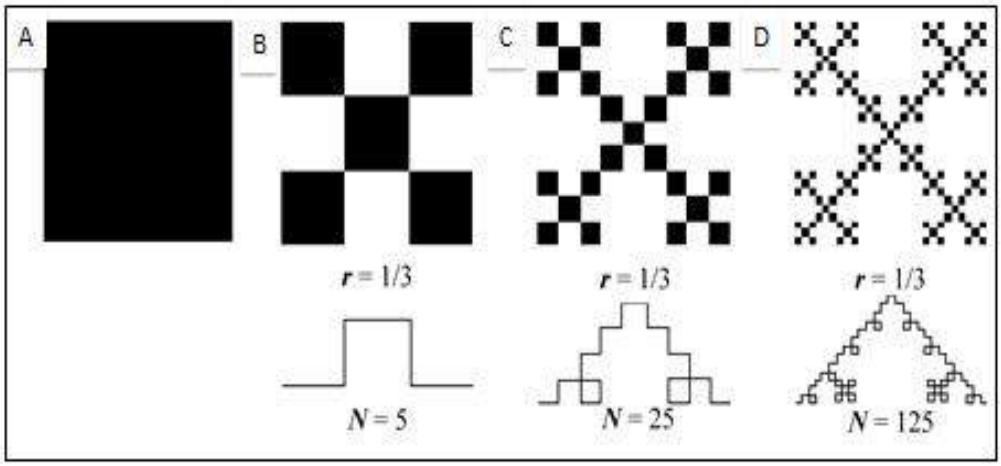
In nature:

In geometry:



In algebra:

Fractals



$$D = \frac{logN}{\log(1/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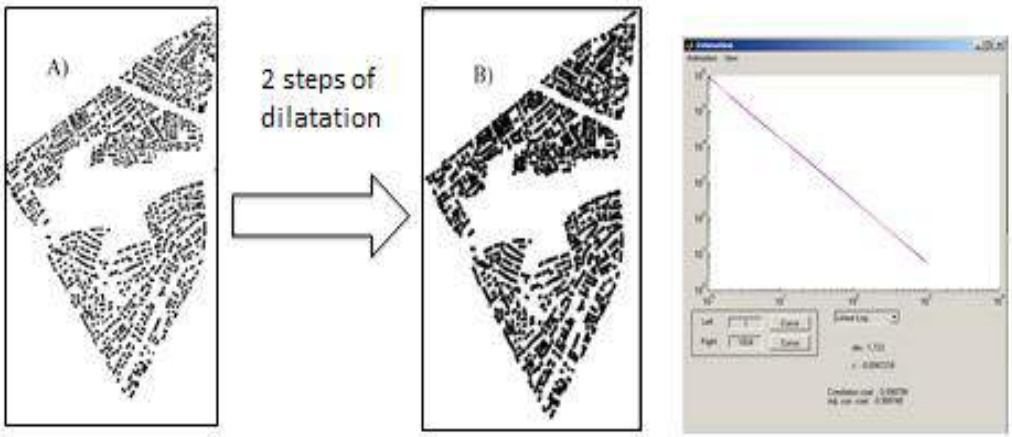
D – is fractal dimension;
1 < *D* < 2;
D=2 for absolutely uniform distribution.

**B. Mandelbrot. The fractal geometry of nature, 19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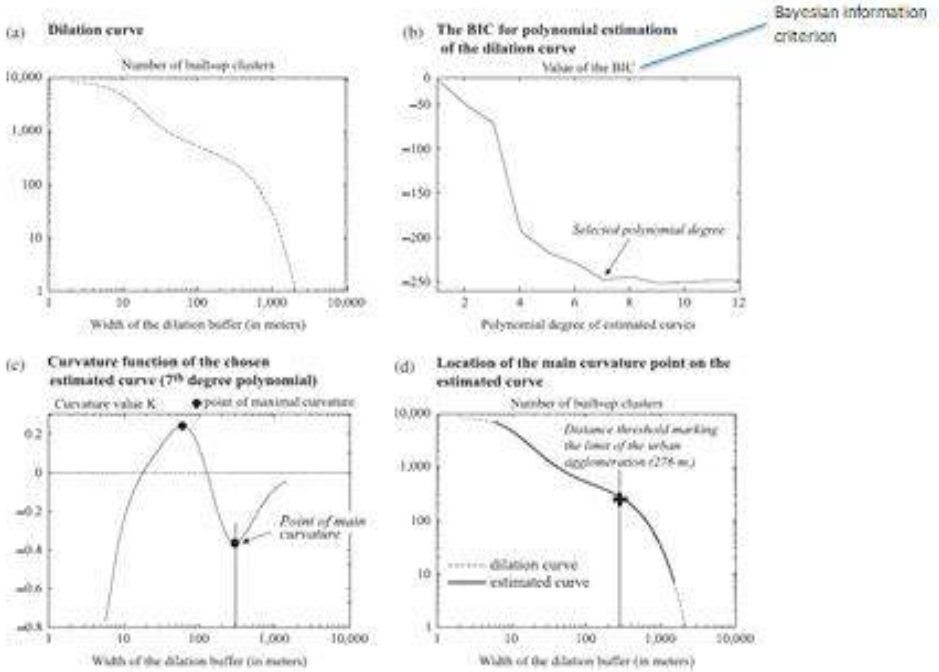
Fractal analysis: methodology

Step-by step double dilatation method

Step-by-step dilatation method used for identifying the morphological boundaries of urban agglomeration without introducing predefined distance threshol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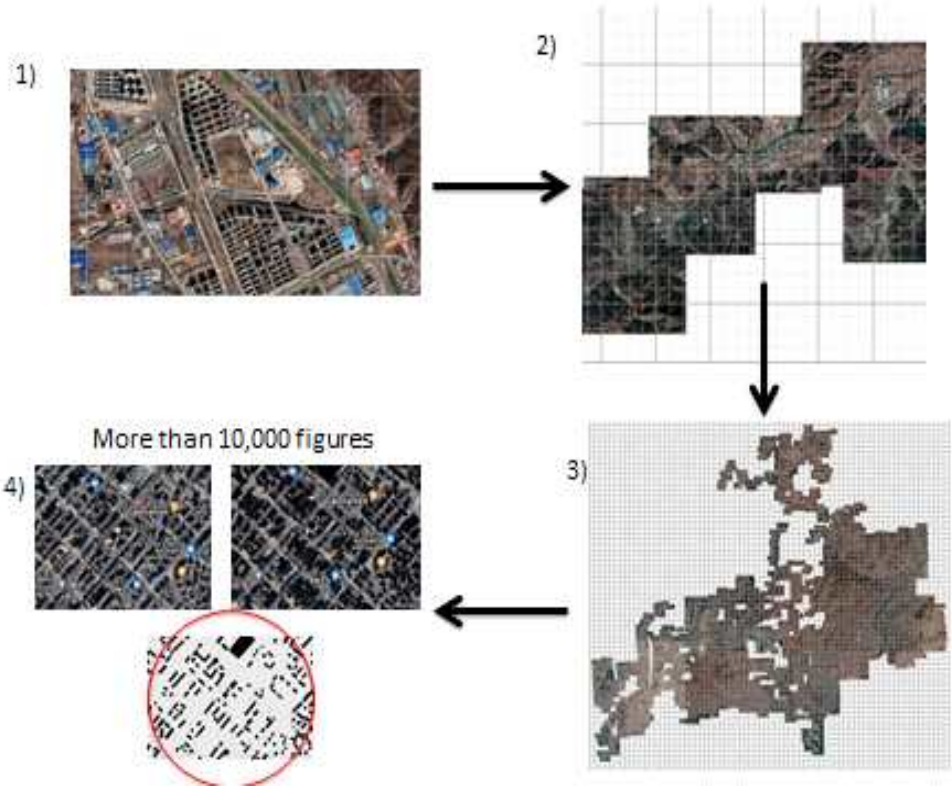


Fractal analysis. Methodology: Identification of a significant threshold on the dilatation cur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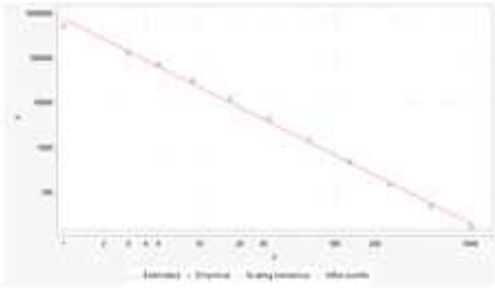


Tannier, C., Thomas, I., Vuidel, G., Frankhauser, P. 2011. A Fractal Approach to Identifying Urban Boundaries. *Geographical Analysis* 43: 211 2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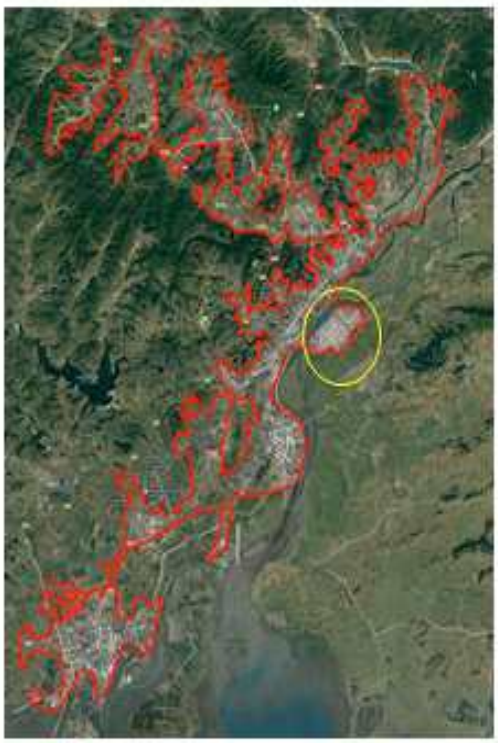
Fractal analysis: data



Identifying Urban Boundaries using Fractal analysis: the results



D = 1.522
R^2=0.997



Urban agglomeration includes:
- downtown Dandong (Yuánbǎo and Zhènxīng districts);
- part of Dōnggǎng city;
- Northern part of Sinŭiju;

-Fèngchéng City is not a part of this agglomeration.

A part of Sinŭiju, located around Chŏngnŏn station, is **morphologically integrated with Dandong**

Dandong and Sinŭiju (a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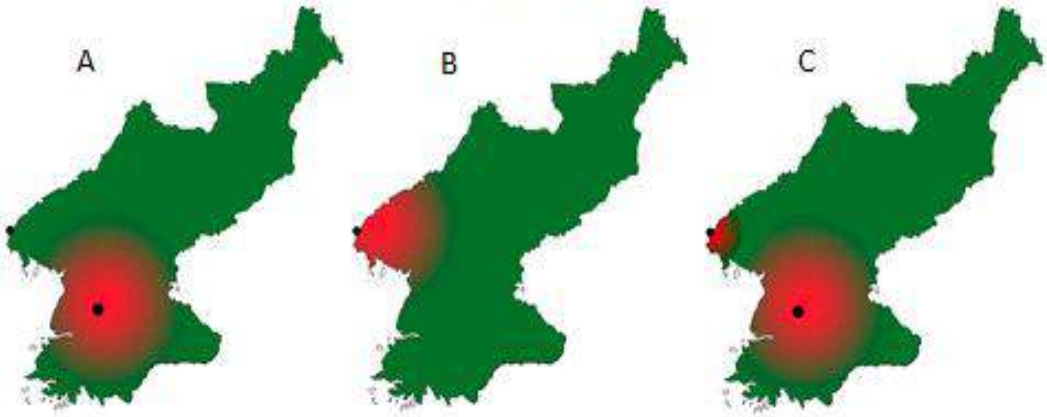
1. Economically integrated;
2. Sharing the one market;
3. Have morphological unity.

Studied two cities formed trans-border urban agglomeration

- *Double city?*
- *Sister cities?*
- *Neighboring cities?*
- *Companion cities?*
- *Transborder cities?*
- *Border-crossing cities?*
- *Binational city?**

Buursink, J. 2001. The binational reality of border-crossing cities. *GeoJournal* 54: 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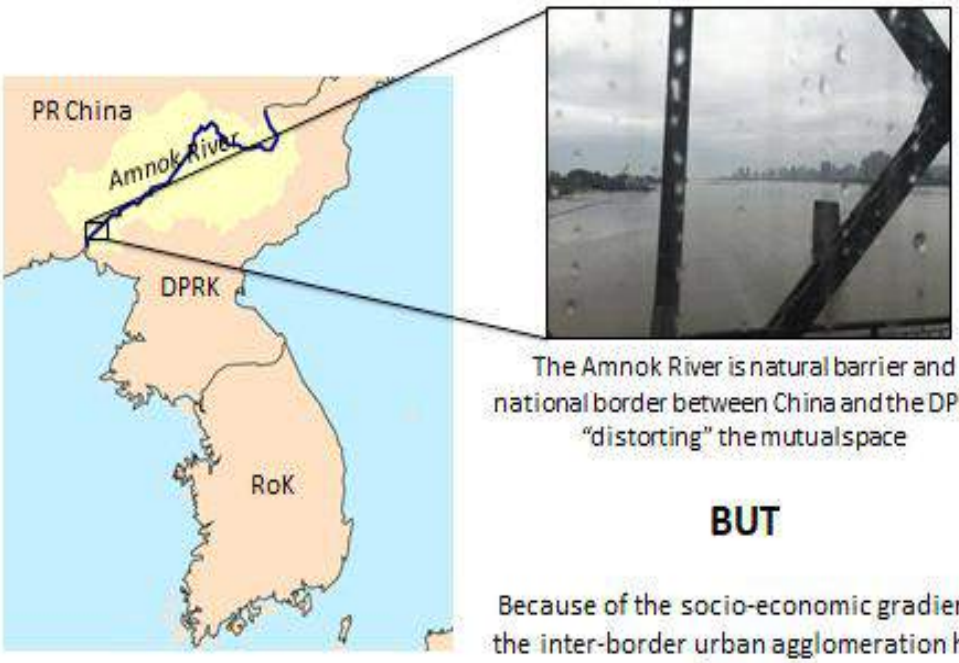
Discussion: Points "infecting" DPRK with the "virus" of marketization



Being SAR Sinŭiju was autonomous in many administrative matters, and had a level of freedom which no other city in the DPRK, including Pyongyang, could even contemplate.

Sinŭiju may become the center not only for economical, but also for political change

Discussion: The controversial role of the Amnok (Yalu) River



The Amnok River is natural barrier and national border between China and the DPRK, "distorting" the mutual space

BUT

Because of the socio-economic gradients the inter-border urban agglomeration has formed

**Picture made by Presenter*

Discussion: River and Korean City

River plays both separating and uniting function in Korean urbanity.

Seoul, ROK

dimidiated by rivers

Pyongyang, DPRK

Dandong (PRC) – Sinŭiju (DPRK)

Dandong-Sinŭiju is also dimidiated by river

Part located on the southern parts less developed than the northern ones

Border coincides with the river is a crucial factor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Dandong-Sinŭiju urban agglomeration

Any changes will influence urban structure of both sides

DPRK is open for mutually beneficial international cooperation

It should be example on how to achieve economic development

THANK YOU!

토론 1

북한의 도시 만화경 제2세션 강과 북한 도시 [토론문]

이찬우
(테이쿄대 교수)

1. 발표 「강이 흐르고 있다: 평양의 유동정치와 수역」에 대한 토론

1) 평양의 치수(治水) : “인민이 건설하는 사회주의 조선”의 문명과시, 수도 평양의 안전, 산업용수, 문화유희의 상징

- 대동강 치수: 일정한 강흐름 확보(여름철 집중강우문제, 서해 조수간만차 문제)
- 목적:

– 경제 사회적 목적: 홍수와 가뭄대비, 수상운수, 도시급수, 관개용수, 공업용수, 전기생산, 양어 등 다목적 (1918년, 1942년 평양대홍수 경험)

– 정치적 목적: 인민민주주의국가 건설(사회주의 건설)을 인민의 힘으로 완성하는 정치 행위 “평양은 민주주의의 서울(수도)”

- 보통강 치수: 대동강 지류로서 평양 치수의 시작 (1946년 5월 21일 착공)
  (보통강 지역: 일제시대에 주민은 대부분 조선인 빈곤층이 거주)
- 경제 사회적 의미: 노동신문 ‘보통강 개수공사 착공식’ 보도

– “평양은 동평양일대에 연한 청류의 대동강물이 흐르는 반면에－서평양일대 경작지 1만8천여정보를 싸고도는 탁류의 보통강이 꿈틀거리고있다. 이 보통강은 시뻘건 황토물이어서 보기에도 흉할뿐만아니라 각금 가다가 대홍수가 일어 연안일대에 침수가 범람하여 경작지에 유실 농작물의 피해 가옥 도로급 공작물의 파괴 교통두절 인축사상 등 서평양일대의 홍수의 피해는 해마다 말할수 없이 크니 완전이 보통강은 이 도시에 대한 장애물인것이다.…… 과거 왜정시대의 보통강개수공사는 약 3활의 공사미완성으로 인하야 금년 임우기를 앞두고 전평양시민에게 일대 위협을 주고있다. 이 공사는 평양시민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는 중요성과 긴급성을 가진 당면과업이기때문에 이 사업의 완수는 반드시 우리 시민의 힘으로 해결하여야 할것이다.” (주: 표기는 원문 그대로, 노동신문 1946년 5월 23일자)

- 정치적 의미 : 보통강 개수공사 착공식에서 김일성위원장 격려사
  “우리들은 허리띠를 졸러매고라도 민주주의국가건설을 위해서 이 적은 공사로부터 먼저 완성시키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이 공사를 먼저 우리들의 손으로 완성시킴으로써 우리들의 민주주의적역량은 실지에 있어 발휘되는것이며 동시에 김구 이승만 등 반동분자를 영원히 매장해버리는것이 되는것이다. 평양은 민주주의적 서울이며 우리의 서울을 모범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야 평양시민은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이 애국제방준공에 위대한 힘을 발휘할것을 믿고서 이만 끄치려 한다. (주: 표기는 원문 그대로, 노동신문 1946년 5월 23일자)

- 보통강개수공사 완공 :1946년 7월 15일 (55일간)
  (공산당원, 평양시민 지방인민 동원연인원 60만명 8km제방 건설)
  경축표어 1,보통강을 개수하야 민주주의 북조선의 서울 평양을 보위한 평양시민에게 영예를 드리자! 1,보통강개수공사를 돌격적으로 완수한 그 의기로 로동법령과 농업현물세를 철저히 실시하자! 1,민주건설을 방해하는 김구, 리승만, 조만식 등과 기타 일체 반동분자를 타도함으로서 보통강개수공사의 승리를 확대공고히하자! 1,보통강개수공사에 열성적으로 참가한 평양시민과 지방인민들의 단결만세! 1,개수공사에서 모범이 되었고 그 핵심작용을 한 공산당원들에게 경의를 표하자! 1,보통강개수공사 완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후방녀성들에게 감사를 드리자! 1,보통강개수공사를 적극 원조하여준 붉은군대 만세! 1,인민의 정권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만세! 1,보통강개수공사를 승리적으로 지도하신 김일성위원장 만세! 1,민주주의조선독립 만세! 1,세계피압박민족의 해방자 쓰딸린대원수 만세!

- 갑문설치: 1980년대에 완성
  중류 갑문 (미림1980, 봉화1983, 순천1986,성천1987)
  하구갑문 (남포 서해갑문1986)

- 대동강 흐름 안정화, 유량 확보로 경제적 목적 달성

- 대동강물을 평안도와 황해도지역에 수로를 건설해 농업용수로 공급

- 대동강과 재령강이 수상운수로 연결되어 내륙도시 사리원시가 항구도시로 변화

- 문화시설 정비: 사회주의 인민문화 선전
  만경대 물놀이장, 능라인민유원지 완공(2012), 문수물놀이장(1994준공, 2013개건)

2) 원산의 해양 치수 : 제국일본이 건설하고 미군이 파괴한 항만도시를 복구 – 해양문화도시

- 동해의 해양물류 중심 : 일제시대 철도망 (평양–원산, 서울–원산)

- 해상교통 (원산–일본)

- 원산항 복구: 1970년대 이후 북–일간의 무역 및 왕래 창구 (일본의 제재조치로 2006년부터 중단)

- 원산 송도원 : 19세기말부터 유명한 해수욕장, 국제소년단야영소 운영

- 원산 갈마반도: 명사십리 해수욕장으로 유명, 6.25이후 군부대 비행장 구역으로 출입금지, 김정은 시대 갈마공항으로 민간 겸용으로 변화되고,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 건설

• 원산 해양 치수의 현재적 의미

- 원산~갈마반도~금강산을 연결하는 동해안 해양관광을 통해 국내외 관광 수요 촉진 (내국인, 중국, 러시아 등)

- 동해안 축의 지방도시 활성화 - 해양문화도시로 발전 배려 (국제화를 전제)

2. 발표「북한에서 국경도시 집적의 형성은 신화인가, 현실인가?」에 대한 토론

1) 접경지역간 도시 연계의 사례로서 단동-신의주 (압록강 대안 지역 연계와 집적)

• 접경지역 개발 이론을 단동-신의주 사례에 적용할 때 고려해야할 요인

- 개발 주체의 역사적(시대적) 변화

(1) 1904년-1945년

→ 신의주 건설: 제국일본이 러일전쟁을 전후로 압록강 하구지역에 새로 건설 (중국 진출을 전제로 한 도시 건설)- 신의주역, 압록강 철교
1930년대 조선총독부가 신의주-다사도 개발계획 추진

→ 단동(구 안동) 건설 : 구래의 한촌을 러일전쟁이후 일본이 접경도시로 개발
1930년대 만주국 정부가 대동항-단동 대개발계획 추진

→ 압록강 양측으로 국가가 다르나 개발주체는 사실상 일본이었음, 즉, 접경지역 도시 연계의 이론은 다른 두 국가의 개발주체를 설정하나, 단동-신의주는 첫 개발과 토대형성이 일본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2) 1945년 이후 1980년대 까지

→ 중국과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로서 무역 통로가 된 정도로 도시 개발의 상호 연계성이 고려되지 않음.

① 신의주: 압록강 연안의 신의주지역 홍수 문제, 남신의주 고지대로 주택지역 및 공업지대 개발

② 단동: 개발 지체, 신의주 지역보다 낙후

(3) 1990년대 이후

→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이후 동북진흥정책 실시, 단동은 국경관광도시로 발전, 단동시의 항구인 대동항이 대련항의 보조항으로 성장

→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라 노동력 고임금화 및 인력부족 현상이 나타나면서 북한 (신의주)에서 위탁가공 또는 노동력을 조달하는 경제연계 현상이 가속화됨.

→ 북한은 신의주특구 게획 등 세워 북-중협력을 통한 개발, 또는 자주개발 (신의주-대계도 개발) 추진

- 중국과 북한의 개발방식 차이

→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로서 국제협력은 기업주도 시장원리에 따르고 국가가 지원, 통제하는 형태

→ 북한은 북한식 사회주의경제로서 국제협력은 국가주도 시장보조의 방식을 취함.

→ 북한이 개발의 수동적 존재이고 시장원리가 받아들여진다면 단동-신의주 연계는 시장화 확산과 도시 집적이 나타날 수 있음.

→ 그러나 북한은 중국주도의 협력 방식에 부응하지 않고 자주개발 방식을 유지하고 있음 (황금평 등 중조공동개발 방식은 좌초)

• 신의주의 도시 집적 가능성

- 북한의 도시개발 기본은 중규모 도농 복합의 균형 도시 형성

- 신의주 개발의 기본은 구신의주 지역- 상업, 금융 등 북중연계, 남신의주- 생활, 생산, 대계도-농업, 물류 등으로 나뉘어 있는데 단동이 주도하는 연계 방식과는 차이가 남, 중국자본, 시장자본의 투자로 부동산개발 집적이 진행되다가 재원조달의 한계로 주춤

- 단동의 도시집적은 신의주-평양으로 경제연계라는 미래가치를 내다본 현재 투자 + 중국국내 관광수요 + 단동 지역 재개발 정책(단동신구)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임 (부동산 개발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다가 주춤)

- 단동-신의주의 도시 연계와 집적은 북한의 시장화 가능성과 결부되어 있음.

북한의 도시 만화경
제2세션 강과 북한 도시

토론

2021년 5월 26일

일본 테이쿄 대학 이찬우

보통강개수공사 (1946.5.21-1946.7.15)

(1) 경제사회적 목적 : 홍수 대비 (1918년, 1942년 평양대홍수 경험)

(2) 정치적 목적 : 인민민주주의국가 건설(사회주의 건설)을 인민의 힘으로 완성하는 정치 행위 "평양은 민주주의의 서울(수도)"

(3) 55일만에 완성 - 평양 속도전의 효시

* 보통강 지역 : 일제시대에 주민은 대부분 조선인 빈곤층이 거주

➡ 보통강치수사업은 북한의 군중노선, 주체사상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효시적 상징으로 전설화, 신화화함

(一) 第九十四號 (日曜日) 一九四八年五月二十三日 (木曜日) 正路

北朝鮮臨時人民委員會의 二十個政綱을 絶對支持하자!

普通江改修工事 첫날의 作業光景

民主力量을 實踐에 普通江改修工事着工

北朝鮮首都建設에 驀進!

百萬市民動員

金日成將軍激勵辭 要旨

普通江改修工事着工式에서

노동당 곽 <정로> 1946년 5월 23일

(一) 第五百號 (日曜日) 一九四六年六月六日 (木曜日) 正路

市民의 熱誠날로 高潮 排水路는 急速度로 展開

普通江改修工事의 成績括目

特出한 堂上二里隊!

崇仁中學·西門女中로 優秀

愉快한 作業

普通江改修工事에 參加하고

鄭熙文

建國隊出動感想

金昌天

노동당 곽 <정로> 1946년 6월 6일

正路

社說

平壤市民의民主力量의勝利
普通江改修慶祝大會

解放一週年을맞이하는朝鮮 (下)

學校夜遊會
報告、演藝等盛況

노동당 과지 <정로> 1946년 7월 16일

[사진] 1946년 개수공사전의 보통강일대
(노동신문 1986년 5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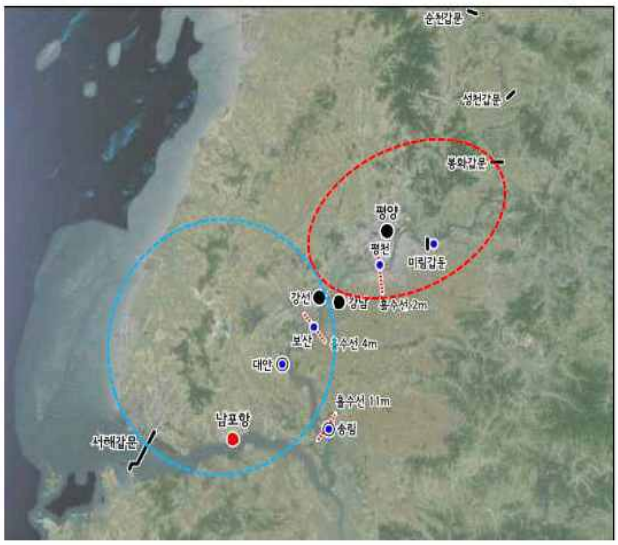
[사진] 1980년대 보통강일대 모습
(노동신문 1987년 5월17일)

대동강 수운 개발에 대한 김일성의 지시

- 1954년 4월 :대동강과 룡흥강을 연결하여 동해에서 서해로 통하는 운하의 건설 연구 지시
- 1967년 8월 :평양시내 수해피해를 입자 강선-미림 구간 준설을 통해 양각도 여객부두, 평천 화물부두 등의 수운시설 개발 지시
- 1968년 11월 : 당중앙위원회 제4기 18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대동강 및 재령강을 개발하여 평양-남포, 평양-송화, 평양-사리원, 평양-강동 구간 수운을 개척 지시

➡ 1980년대 대동강 갑문 설치
중류 갑문 (미림1980, 봉화1983, 순천1986,성천1987)
하구갑문 (남포 서해갑문1986)

대동강의 주요 갑문과 부두



남포갑문(서해갑문) 준공식
(노동신문 1986년 6월 25일)

[지도] 서해갑문과 대동강 물길
(붉은 점선) 황해도의 파란선은
산맥 (필자 작성)

[사진] 대동강물을 양수기로 태성호에 퍼올리는 기양(강서)지구
관개관리소 (노동신문 1989년 3월 6일)

[사진] 대동강물로 모내기하는 신천군 벌판
(노동신문 1987년 5월 24일)

대동강과 사리원시

- 어지돈 관개수로가 정비(1957-61년)되고, 1986년에 대동강 하구에 서해갑문이 완공되면서 대동강과 재령강의 수위가 5-6m 상승하여 대동강물이 사리원까지 흘러들게 되었다. 이에 수상운송이 본격화되면서 길성포가 내륙하천 중요 항구로 개발되어 1988년 9월에 화물부두와 창고, 여객부두와 대합실, 상점, 전망대를 갖춘 여객역사, 그리고 갑문으로 구성된 길성포항이 완공되었다.
- 주요한 운송화물로는 평안남도 석탄과 황해남도의 모래, 남흥청년화학의 비료, 황해제철의 철강재, 서해안 제염소들의 소금 등이었다.
- 화물 운송 뿐아니라 여객선과 유람선으로 평양, 남포, 송림, 순천, 덕천 등을 오가는 수상 교통의 요충이 되었다.
- 사리원시는 길성포로 인해 "항구문화 도시"로 불리웠다.

사리원시 운하건설
노동신문 (1958년 8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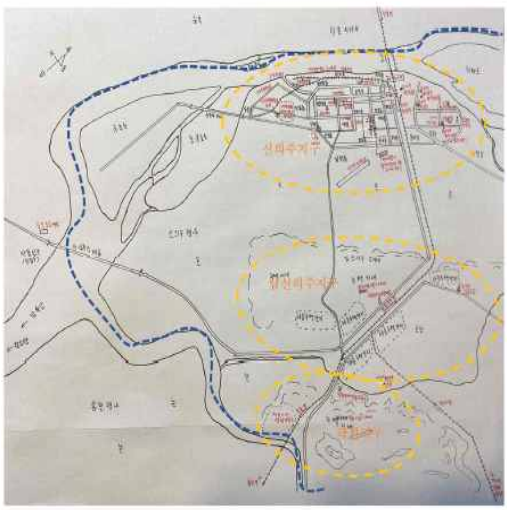
사리원시 길성포항
노동신문 (1988년 9월 7일)

사리원시 지도와 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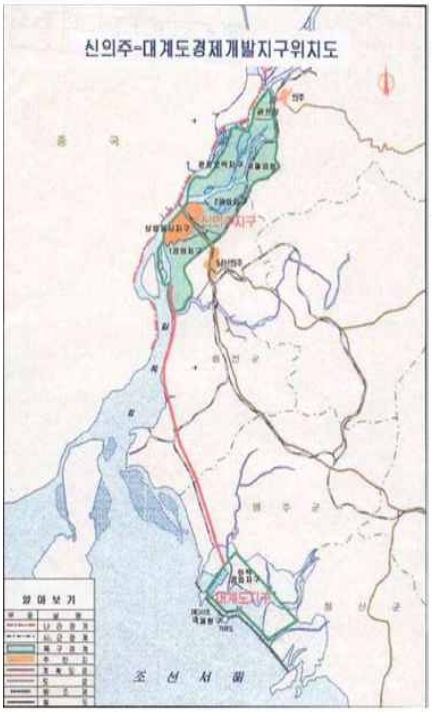
일제시대 신의주-안동(단동) 개발 계획

1929년 작성
(자료) 조선총독부 내무국

신의주 지역



[사진] 남신의주 건설과 관련하여 현지지도하는 김일성 주석 (노동신문 1985년 5월 1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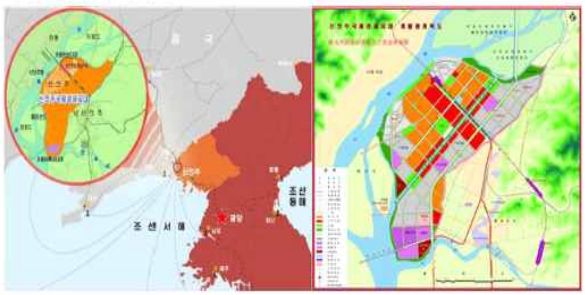


2000년대이후의 신의주 개발 계획

신의주특별행정구

신의주-대계도경제개발지구

신의주국제경제지대



김정은과 신의주 개발모형 (노동신문 2018년 11월 16일)

토론 2

북한의 도시 만화경 제2세션
강과 북한 도시 [토론문]

마크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펠로우)

1. 발표 「강이 흐르고 있다: 평양의 유동정치와 수역」에 대한 토론

1) 역사적으로 물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은 국가를 운영하는데 유용한 정치적 도구이었음.

- 보통강 개수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침으로 당시 북한이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는 계기. (김성보, 기광서, 이신철 2014. “북한현대사”)
- 물의 과학적 관리와 이용을 위한 연구를 발전시키기 위해 물관리학과를 개설
- “농사는 물이고 물은 농사이다” (로동신문, 2002년 8월 31일)
- “물은 귀중한 자원이며, 생활에 중요하기에 물보호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함” (로동신문, 2005년 7월 12일)

2) 대동강변에 이어지는 발전과 변화

- 평양을 흐르는 대동강이 가지는 상징성: 조선 민족의 기원 (대동강 문화론)
- 제너럴 쉐먼호 사건과 현재 대동강에 전시된 푸에블로호를 통해 보듯이 대동강은 근대들어 갈등과 대결의 현장이었음.
- 역사적 현장 위에 세워지는 고층 빌딩과 각종 편의 시설

3)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 금강산, 해금강, 명사십리 해변 등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한 “동해의 진주”
- 동해에 위치한 원산이 가지는 무역 중심지와 국제 상업지구로서의 가능성

2. 발표「북한에서 국경도시 집적의 형성은 신화인가, 현실인가?」에 대한 토론

1) 국경도시: 신의주-단동

- 북중 무역의 중심지로서 평양-심양-북경을 오가는 축에 위치함.
- “쌍둥이 도시” (이경수 2019 ‘단동-신의주의 초국경적 장소 형성과 확대’)
- 압록강, 두만강으로 나누어진 국경 1,400KM
- 중국 동북3성의 현실과 이어지는 인구 감소: “동북3성 지역의 인구 감소는 자연, 지리, 출산 수준 및 경제 사회적 발전” 등의 영향이 있다고 분석함.

- 신의주-단동은 경제 협력, 무역, 관광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하며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2) 통계 부족과 제한된 접근으로 인한 도시 연구에 어려움 있지만 어떤 관점에서 이 도시들을 연구를 할 것인가가 중요함.

제3세션

도시국가 평양: 과거에서 미래로

도시 유형보고: 북한의 이상적인 사회의 꿈

김정은 시대의 건축물

화해 후의 평양을 상상하며

발표 1 : 필리프 메우세르 (독일BDA 교수) 193

발표 2: 제레나 프로코피레비치 (스페인카탈루냐 국제대 박사) 225

발표 3: 애니 패드렛 (서울대 미술대학 교수) 261

토론 1: 정인하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 341

토론 2: 히라이 히사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펠로우) 345

토론 3: 임동우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 349

발표 1

도시 유형보고
-북한의 이상적인 사회의 꿈-

필리프 메우세르
(독일 BDA 교수)

38선 이북의 고립된 지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희귀하며, 북한을 보도할 때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과 만연한 추측은 일상적인 모습이다. 동아시아의 지진 관측소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를 보유한 국가가 미사일 시험을 할 때마다 정기적으로 대지의 진동을 포착한다. 중국·러시아·한국과 국경을 접하는 작은 국가에 입국 허가를 성공적으로 받은 소수의 운 좋은 관광객과 방문객들은 북한에서의 황당한 경험을 서로 경쟁하듯이 나눈다. 이 건축학적 안내글 역시 필연적으로 추정과 해석에 크게 의존한다. 북한에서 탐색적 연구를 할 방법은 없으며, 일상을 포착하는 것은 더 어렵다. 북한이라는 냉전의 마지막 요새보다 스스로를 세계에서 완전히 고립시키는 나라는 없다.

하지만 평양은 세계화를 불굴의 정신으로 저항하고 정치적 지도자들이 정한 공동생활 특별규칙을 따랐던 고대 갈리아와는 다르다. 눈에 띄는 인권과 사회적 자기결정권을 제쳐둔다면, 평양은 틀림없이 세계에서 사회주의 건축이 야외에서도 가장 잘 보존된 박물관이다. 평양은 표준화된 대규모 주택개발, 넓은 도로, 야심차게 설계된 공동체 건물, 그리고 기념비적인 공공건축물이 지배적이다. 광고판이나 화려하게 장식된 매점은 단 하나도 찾을 수 없다 – 어디에서나 쉽게 보이는 선전 포스터에서만 유일하게 색깔을 찾을 수 있다. 개인들의 차량이 없는 상황에서 거리는 마치 버려진 아스팔트 공터 같다. 단조로운 대규모 주택 개발은 “영원한 지도자” 김일성, 그리고 김정숙·김정일 대형 조각물·기념물과 함께 주기적으로 반복된다. 철저하게 개인을 숨기는 것이 도시의 리듬이며, 교차로와 신중하게 설계된 갈림길에 전시된 국가적 선전 구호가 이를 보여준다.

약 300만 인구의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수도 평양은 비교할 수 없는 건축적 호기심의 옷장 같다. 초기 러시아 구성주의(constructivist) 도시 건축 아이디어 정도나 비교될 수 있을 정도다. 평양은 모든 생명이 잉태된 순간부터 기능별로 깔끔하게 구분된 단위로 철저하게 감시를 받는 시험관 도시 같다. 평양은 유토피아적 이념의 이미지로서, 지나간 시대의 유물이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남아있는 사회적 실험의 현실판이다. 처음 방문하는 사람에게 평양은 넓은 거리와 광장이 압도적인 현대적 도시라는 인상을 준다. 번화가는 회색·파스텔로 장식된 파사드(façade) 외관의 다층 높이의 거주단지가 즐비하다. 화창한 날에는 건물들이 화려하게 보일 정도이다.

두 번째 볼 때에, 평양은 비록 사회주의 도시일지라도 현대의 도시처럼 보인다. 대동강 중심의 평양은 구조를 이해하기 쉽다. 도시 중심부는 역사적으로 서부에 있었으며, 구 공항이 있었던 동부는 오늘날 거주지역과 경계가 삼엄한 외교단지로 빽빽하다. 대동강 남쪽의 통일거리를 따라서 지어진 대규모 주거개발지는 마치 루드비히 힐버자이머 독일 건축가 혹은 르 코르뷔지에 스위스 건축가의 대도시 설계 판

타지를 현실로 구현한 것 같다: 현실에서는 결코 친근함을 느낄 수 없고, 살 수도 없는 칠판 상의 아름다움 풍경 같다. 하지만 이 모습을 단순히 북한의 정치체제를 표현한 것이라고 결론 내리는 것은 너무 쉽게 포장하는 말이다. 결국에는 전체주의 국가도 국민들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비판적인 서방식 도시개발·건축 접근법으로 평양을 본다면 많은 의문이 생길 것이며, 질문 그 자체에서 듣고 싶은 답이 느껴지는 경우도 많다. 거리는 왜 앞에 잘 관리된 주거용 건물을 내세우며 뒷마당에는 원시적인 단층 오두막을 숨기는 것인가? 해가 지면 공공건물과 기념비는 완벽하게 설계된 조명 시스템으로 비추는데, 왜 개인 주택에서는 빛이 거의 보이지도 않는 것인가? 공공건물은 채석장에서 캔 돌로 만들어진 호화로운 파사드 외관을 자랑하는데, 왜 도로의 콘크리트 벽돌은 균열로 가득 차 있는가? 강제적인 집단주의, 영구적인 경제비상사태, 그리고 사회적 초대형-행사와 유명한 건물에 대한 집착(focus)은 예외 없이 국가가 지은 건물들의 운영·유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이 현상은 재산 소유권이 논의 되지 않는 사회 시스템의 증상이다. 평양은 극단적인 형태의 부동산 국유화 정책에 대한 매우 인상적인 사례연구를 제시한다. 평양의 도시 앙상블, 스카이라인, 그리고 교차로는 민주주의 체제였다면 거의 무서울 정도의 수준의 완벽함을 보여주고 있다. 만약 건축의 질, 선택된 재료, 그리고 현대·근대 건축에서 파생된 미적 즐거움 같은 기준을 순간적으로 배제시키고 본다면, 평양 도시설계자들의 노력에 만점을 줄 수 밖에 없다. 도시에서 쉬운 길 찾기, 확연하게 상징적인 공공건물의 도상학(iconography), 그리고 넓은 광장으로 펴지도록 섬세하게 계획된 비율의 교차로와 풍경 - 이 모든 척도는 그 어떤 도시계획 교과서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 기준들을 철저하게 적용한 모습은 유럽인의 시각에서는 불편하기만(irritation) 할 뿐이다.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토지법이 서구식 재산권 개념과 완전히 상충되는 것은 놀랍지 않다. 1977년에 통과된 토지법은 우리에 시각에서 볼 때 본질적으로 경제적 자산을 이념적 자산으로 바꾼 것이다. 토지법의 본문을 보면, 한국전쟁의 사상자는 땅을 “혁명가의 피”로 적셨으며, 이들은 조국과 토지를 자율적으로 경작할 집단농장 권리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다. 따라서 농업·산업·건설을 위한 토지사용은 전투적인 추진력을 받는다. 토지는 국가와 산업조합·주택개발단체 같은 국가의 대리인들에게 완전히 맡겨졌다. 동시에 토지법은 대규모 토지소유의 봉건적 원칙과는 정반대라고 볼 수 있다. 공산주의의 아버지인 칼 카르크스는 이 원칙을 “노동계급 착취”의 근본적 원인으로 보았다. 상급 행정위원회, 도시계획당국, 그리고 계획연구소·건물조합 등의 국가기관은 토지법 52조에 의거하여 도시·마을을 도시와 농촌의 생활수준이 같도록 설계할 것을 의무화했다. 반면 국가는 모든 건물을 포함하여 가용한 재산을 상시 징발(requisition)할 수 있다.

건축이 북한처럼 국가적 이념과 불가분의 관계인 곳은 세계에서 거의 없다. 시작일을 알려주는 명판은 모든 공공건물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날짜는 항상 다음과 같다: 지도자들의 생일, 당·국가의 창립일, 그리고 바람직한 공산주의 국가의 다른 휴일들이다. 국가 정체성의 고정요소 역할을 하는 건축은 북한에서는 흔하지만, 이를 달성하기 위해 독일에서는 건축 공공재단이 수년동안 투쟁했으며 무관심 속에 승리했다. 물론 북한에서는 이 정체성을 하향식으로 강요한다. 이념은 나라의 우표에서도 모티브(motif)로 나타난다. 이는 우표가 전세계를 이동하면서 한 나라의 대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놀라운 점은 선정된 건물들을 손톱크기로 재현한 것이다. 예로 김일성 생가, 학교, 유배지, 그리고 인민대학당, 개선문, 체육 시설 등의 대형 공공건물이 있다. 그러나 – 주목할만한 점은 – 우표가 다른 나라에서는 일간지에도 언급되지 않을 정도의 평범한 건물까지도 반복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예로 통일·문수·모란봉·천리마·광복거리의 주택단지를 담은 우표들이 있다. 이런 모티브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로에 집중된다.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건물들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은 집단적 사회통념의 배경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일상 건축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다 – 아파트(flat)는 전체적인 도시·국가의 통일성에서 가장 작고 하찮은 단위이다.

건물의 모양은 건축 당시의 국제적 추세를 따랐으며 – 이 점 역시 국가적 특징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 그러나 건축 언어는 비거주용 건물 디자인에서 느껴지는 조선의 전통과 조금도 일치하지 않았다. 높게 솟은 타워와 높낮이가 다른 단지들, 그리고 팔각형과 원통형은 전후 현대적 산물이며, 오늘날 소련식 해석인 르 코르뷔지에의 “살기 위한 기계”로 특징된다. 그러나 북한 건축을 책임지는 자들은 이 사실을 아마 모를 것이다. 따라서 평양 주거지역은 노후화되고 열악한 건설의 질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러시아 교외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소수 독립적 정신의 작은 혁명을 감추는 것은 불가능하다. 구소련 조립식 개발단지에 사는 수백만명처럼 평양 주민들도 생활공간·창고·임시온실을 확장하기 위해 발코니 확장(enclose) 공사를 하며, 그 목적은 – 아마 확장공사의 유일한 목적은 – 개량 온실을 추가하며 단열을 개선하는 것이다. 콘크리트로 균일되게 만들어진 조립식 건물은 아마 러시아·중국·구동구권의 조립식 건물처럼 동일한 단열 효율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다. 냉기가 느껴지는 거주지에 혹독한 동아시아 겨울이 오면 난방 파이프의 온기는 건물 최상층에 미미하게 도달하며, 여름이 오면 몇 달간은 녹아 내릴 정도로 실내가 뜨거워진다. 르 코르뷔지에의 이론상으로는 미적으로 순수하고 완벽했던 작고 화려한 색상의 우표 디자인은 현실에서는 오히려 불편했다. 첫 공사 이후 페인트 칠이나 실링(sealing)은 보완된 적이 없기 때문에 20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창문은 절실하게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상승하는 습기는 지면에 자국을 남겼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이 수돗물, 목욕실·화장실, 그리고 창문 밑에 가용한 최소한의 라디에이터가 구비 되었다는 조건만 충족된다면 이 거주지는 북한 주민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이다.

왜냐하면 비교대상인 거리 뒤의 찰흙 오두막은 현대식 위생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콘크리트 사막을 직접 걸어가본다면 건물이 사람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한다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유일한 한가지 장점이 있다면 건물의 특색 없는 분위기에도 불구하고도 1층의 창문에는 도둑들을 막기 위한 쇠창살이 없다는 것이다. 맨 벽에는 낙서의 흔적이 없으며, 실외 공간은 병원에서 보일만한 수준의 청결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건물 사이에는 잔디가 없고, 발코니에도 녹지가 없다. 선전 포스터와 정보게시판은 칙칙한 환경을 포장할 뿐이다.

한 주거단지 앞에 있는 콘크리트 받침대는 서양인들의 시각에서 특히 불편할 수 있다. 조각 같은 설치물은 “사회주의 교육의 근본사상. 만세!”라는 제목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 비문 하단의 4색 패널에는 영웅적인 글씨체로 4개의 슬로건이 적혀있다: “충실한 충성; 충성정신; 최고 계급의 승리; 태양일”. 태양일은 4월 15일 김일성의 생일을 의미하며, 영웅의 생일처럼 거대한 대중 댄스 페스티벌로 축하를 한다. 이런 행사는 국제미술전시회에서 창의적인 예술적 도발 부문으로 아마 수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북한에서 이념의 구체화는 그저 씁쓸한 현실에 불과하다.

김일성의 세계관·지침을 남근처럼 구현해낸 주체사상탑은 평양의 도시경관에서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동강 동쪽 강변의 전략적 지점에 위치한 주체사상탑은 인민대학당에서 시작해 동쪽의 김일성 광장과 대동강을 가로지르는 축을 형성한다. 도심에서 가장 중요한 장소인 주체사상탑에서는 뻥 뚫린 경치를 볼 수 있으며, 좌표상 평양의 중심은 아니지만 고정적인 랜드마크로써 가히 최고라고 할 수 있는 파노라마를 볼 수 있다(22-39문단 참조).

바닥의 받침대에서 꼭대기의 붉은 횃불까지 170m 높이의 화강암 탑은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의 지혜를 찬양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거의 독일 쾰른 대성당만큼 높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석조 건축물로 알려져 있다. 탑과 교회 건축물을 비교하는 것은 결코 부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체사상은 공식적으로 인구의 3분의 2가 무신론자인 북한주민들에게 일종의 종교 대용품(ersatz) 역할을 한다. 1977년에 주체사상은 국제적이었던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체하는 국가의 새로운 세계관이 되었다. 주체사상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달력이 2003년에 도입되었고, (김일성이 태어난) 1912년을 새시대의 1년으로 표기했다. 그러나 주체사상은 2009년 북한 헌법에서 선군정책에 의해 부차적인 지위로 밀려났다.

굳건하게 세워진 주체사상탑처럼 당창건기념탑도 특유의 방식으로 서있다. 평양 동쪽에 위치한 당창건기념탑은 (거대한 김일성 동상이 있는) 만수대언덕에서 시작해서 동쪽으로 향하는 축의 끝지점을 표시한다. 높이 5m, 직경 50m 크기의 거대한 화강암 벨트 위에 거대한 손 3개가 솟아있다. 망치·낫·붓으로 하늘을 찌르는 손

은 노동자·농민을 상징하며, 여기에 독특하게 지식인 계급을 추가하며 전세계 공산주의 정당들 중에서 북한 공산당만의 차별성을 보여준다.

평양 전역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기념물 외에도, 공공건물도 눈길을 사로잡도록 설계되었다. 길이 6km, 폭 100m로 도심과 만경대구역의 김일성 생가 사이에 위치한 광복거리 안의 평양학생소년궁전은 1989년 제 13회 세계청년학생축전에 맞춰 완공된 도시 앙상블의 남쪽 끝자락을 나타내는 후기 사회주의 거리의 예시이다.

굴곡진 두 날개를 가진 궁전의 모양은 아이들을 맞이하는 엄마의 열린 팔을 떠올린다. 그 중심에는 2000명까지 수용하는 대강당과 전문적인 극장 무대가 있다. 대강당 옆에는 수많은 교실, 음악실, 그리고 체육관이 있다. 궁전의 총면적은 10만 평방미터를 조금 넘으며, 약 30 헥타르의 부지에 세워졌다. 건축에 사용된 채석된 돌 50만 제곱미터와 유리 20만 제곱미터를 계산하면 건물의 총비용을 설명할 수 있으며, 공식 안내 책자에는 1억 달러로 나와있다. 이 액수는 북한의 전체 노동 인구의 월소득 총합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정문 앞, 넓은 계단의 기념비적인 행렬의 꼭대기에서 청동 조각상은 방문객들을 환영한다. 11명의 아이들은 두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에 타고 있다. 아이들은 북한의 11년 교육과정을 상징하며, 여기에는 특수무기 훈련, 비행수업, 통신훈련이 있다. 단, 일반적 교육보다는 5년간의 군복무 전에 젊은이들을 미리 대비시키는 방향에 집중하고 있다.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제공되는 “과외” 활동은 결코 아이들이 수업 이후에 쉴 수 있도록 계획된 것이 아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은 개성거리의 개선문 아래를 지나가는 운전자들처럼 자신들이 국가적 주입식 교육에 노출된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60m 높이의 개선문은 파리의 개선문을 연상시킬 수 밖에 없다. 차이점은 파리·모스크바·로마·독일의 개선문은 차량통제가 금지되고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양의 개선문은 북쪽의 공항에서 도심으로 오는 길에 필수적으로 밑으로 지나와야만 하는 랜드마크다. 수많은 일본 관광객 등 외국인 방문객들은 이 개선문을 우회할 수 없다.

만약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직후에 개선문이 세워졌다면 그 결정을 이상하게 여기는 방문객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1만개가 넘는 개별 돌덩어리로 이루어진 화강암 구조물은 1982년에서야 지어졌고, 김일성의 70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건축물은 김일성이 영웅 역할을 하는 포스트 식민지적인 복수의 수단이다. 파사드의 두 날짜는 김일성이 20년동안 일본군과 전투한 것을 상징한다. 그러나 실제 역사적 사건들은 김일성의 전설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

1925년 당시 13살이었던 김일성은 중국으로 도망쳤고, 후에 소련 붉은 군대에서 대위로 복무했으며, 최종적으로는 블라디보스톡 인근 연해주의 제2극동군 제88보병여단의 대대장까지 올라갔다. 김일성의 군경험과 소련 시절 덕분에 그는 1945년에 소련군사령관의 참모로서 평양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이다. 그가 조국으로 득의양양하게 귀국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는 지역에 익숙하지 않은 소련군사령관의 부관으로서 돌아왔다. 하지만 개선문 화강암에 예술적으로 박힌 영웅적인 청동상은 북한의 공통적인 기억에 편집된 버전으로 새겨졌다. 건축물은 신화적 매개체로 등장하며, 그 신화는 나라의 잠재의식을 철저하게 통제한다.

모든 화려한 건축 전시품 중에서도 한 초호화 건물이 돋보인다. 바로 도심 북쪽 대동강의 릉라도 5월 1일 경기장이다. 경기장은 제13회 세계청년학생축전이 있었던 1989년에 개장했다. 너비가 100m인 알루미늄 지붕 16개 아래에 15만명의 관중이 앉을 수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경기장이다.

매년 8월 중순에서 10월 초 사이에 릉라도 경기장에서 집단체조 아리랑 공연이 열린다 (136-159문단 참조). 이 행사만을 보기 위해 북한으로 여행할만한 가치가 있다. 수천명의 체조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가서 전투부대의 훈련을 연상시키는 정밀함으로 동시에 똑같은 체조를 한다. 대부분의 공연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로, 이 엄청난 행사를 위해 수개월 동안 준비한다. 2시간도 안 되는 공연의 외국인용 가격은 2010년에 80~300 유로였다. 수천명의 공연자 수를 고려하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다. 반대쪽 관중석에서 거의 3000명이 일정한 리듬으로 수 kg의 패널을 돌리며, 모자이크 배경사진을 조합하며, 일정한 리듬에 따라 변하려고 노력한다. 하나의 이벤트에 수백개가 넘는 이미지가 보여지기도 한다. 정치적 선동은 제쳐두더라도,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 이후 희소해진 이런 형태의 연극과 무용 공연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거대한 배경사진과 스크린, 그리고 레이저 조명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독립적 예술 분야로 인정 받기에 충분하다.

아리랑축제는 민족의 연대, 공동체 정신, 그리고 전투준비태세를 고취시키는 목적의 선동 예술 장르의 일부분이다. 거리와 교차로에 줄지어 있는 수많은 선전 포스터처럼, 이런 종류의 예술은 인민들의 삶 속에서 국가가 모든 것을 포용하며, 지속적인 존재에도 기여한다. 그러나 안무가, 작가, 그리고 예술가들이 익명성에 싸여 있는 한, 대중적 광경과 포스터 예술은 세계관을 표출하는 수단일 뿐이며, 침묵한 노동자들은 보상으로 주입식 국가적 자부심만 받는다. 그리고 거대 피라미드를 창조하는 개미처럼 일한다.

피라미드 중 하나는 하늘을 찌르는 삼각형 류경호텔이다. 원래는 평양의 다른 250여개 주요 건설 프로젝트와 함께 1989년까지 완공 예정이었다. 백두산 건축 아

카데미는 제13회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준비하기 위해 평양 개조에 지출된 45억 달러가 그저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330m 구조물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지 북한식으로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기술적 관점에서 콘크리트로 105층 건물을 짓는 것은 현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강철 기반의 건설이 구조적으로는 안전하지만, 그 비용은 3배나 더 들었을 것이다.

마케도니아 스코페의 지진공학기술지진학연구소(IZIIS)가 실시한 내진성능 평가 결과에서도 공사현장을 다시 살릴 수는 없었다. 불운의 조짐처럼 우뚝 솟은 이 건물을 매일 볼 때마다 성경 속의 바벨탑이 떠오른다. 건설중단의 원인을 물을 때마다 북한사람들은 미국의 대북제재 때문이라며 퉁명스럽게 넘어가려고 한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재정적인 문제였을 것이다. 철의 장막이 무너진 후, 북한은 사회주의 형제국가들의 원조 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나라였다.

2005년 여름, 이탈리아의 DOMUN 건축 잡지는 류경호텔을 완공하기 위한 국제적 경쟁입찰을 광고했으며, 미완성 마천루를 “아이디어의 안테나”로 변신시키기 위해 전세계 건축가들을 초대했다. 이 응답기능(transponder)의 목적은 고립된 나라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현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었다. 이 제안에 당황했던 북한 건축가들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었다. 북한 정세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은 맥락에서 입찰 광고를 발표한 DOMUS 때문에 유럽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발생했다. 건축가들은 외국언론이 논평 없이 북한의 국가선전을 게재하고, 자명한 사진·인용문만 사용한 것이 정당했는지를 토론했다. 같은 방식의 비판이 2010년 여름 비엔나 응용예술박물관에서도 쏟아졌다. 김일성을 위한 전시용 꽃이 국영예술스튜디오의 유화 및 백두산 건축학원 기록관의 사진들과 또 설명 없이 전시되었다. 오늘날 북한 내부에서 비판적인 대화를 하기가 상상하기 어려운 것처럼, 반대로 유럽에서도 이런 비판적 생각을 포기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류경호텔 건설은 2009년 재개되었다. 우연의 일치인지, 그 파사드를 위한 돈은 피라미드의 땅에서 나왔다. 이집트 통신·건설 회사 오라스콤 그룹이 현재 사업을 맡고 있다. 호텔 객실 6천실에 투자된 수백만 달러와 북한 내 3G 네트워크 허가승인 간의 연관성은 독재정권이 종식되고 기록에 접근이 가능해진 때에서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20만 가입자 대상의 휴대전화 서비스 사업이 예약률이 낮은 호텔운영보다는 수익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북한이 동아시아의 라스베이거스로 변신하고 부유한 관광객들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면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평양 지하철도의 연장 계획은 발표되는 역사적인 날이 오기 전까지는 확인하기는 어렵다. 현재 대동강 동쪽에는 2개의 지하노선이 존재한다: 천리마선은 남쪽의

부흥역에서 8개 정거장을 지나서 북쪽의 도심 붉은별역으로 향한다. 초록색 혁신선은 서쪽의 광복역에서 8개 정거장을 지나서 동쪽의 락원역으로 향한다. 일본 그래픽 디자이너 사카자키 모토히코는 새로 계획된 지하 정류장을 나타내는 지도를 2007년에 만들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현재 17개 역에서 추후 두 배까지 정류장이 늘어날 것이다. 환승역도 추가로 건설되고, 강 건너편 둑의 도시지역까지 지하시설이 확대될 것이다.

베를린 방문객들은 평양 지하시설에서 익숙한 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998년 베를린교통공사(BVG)는 D-레인지 더블 모터코치 차량 108대 및 GI 레인지 차량 60대를 폐기하며 이를 비스마르항에서 북한으로 보냈다. 이 지하철 차량들이 현재 북한 지하 120m 깊이에서 달리고 있다. 충격파와 방사선으로부터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 지하선 통로에 문이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과거 동구권의 모든 도시들처럼 평양도 핵벙커라는 이중용도를 목적으로 지하철도를 설계했다. 오늘날 대중들이 모르는 것은 도시 아래에 수많은 비밀 역과 심지어 완공된 지하노선도 있다는 풍문이다. 30개 이상의 정착역을 포함하는 새로운 노선 확장계획 중, 적어도 계획된 네트워크의 일부가 이미 존재하며, 이는 당 간부들과 엘리트층을 위한 비밀역 혹은 탈출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부흥역·영광역은 모두 천리마선에 있다. 두 역 모두 대리석으로 화려하게 디자인 되었으며, 천장에는 정교하게 장식된 벽 모자이크와 화려한 샹들리에가 있다. 이는 레닌그라드, 모스크바, 타슈켄트의 사회주의 철도역의 교과서적인 건축 예시이다. 소문에 의하면 친애하는 지도자의 궁전과 연결된 철로가 락원역 뒷편에 있다고 한다.

Reporting on Urban Typologies: North Korea's Dream of an Ideal Society

Dr Philipp Meuser, Berlin

Reliable information from within the isolated zone to the north of the 38th parallel is a rare commodity, and unanswered questions and rife speculation are the order of the day when reporting about North Korea. Earth tremors in East Asia regularly registered by seismographic monitoring stations point to the missile testing activities of the country with the largest army in the world. The few lucky tourists and visitors who succeed in receiving permission to enter the small country that borders on China, Russia, and South Korea vie with each other in relating absurd experiences. Inevitably, then, this architectural guide is heavy on surmises and interpretations; there is simply no way to perform investigative research in North Korea, much less capture everyday situations. No other country isolates itself more completely from the rest of the world than this last bastion of the cold war.

Nevertheless, there is more to Pyongyang than a Gaulish village indomitably resisting globalization and following a special set of rules for communal life that were drawn up by its political leaders. Setting aside the glaring issues of human rights and social self-determination, Pyongyang is arguably the world's best preserved open-air museum of socialist architecture. It is dominated by standardized mass housing developments, broad thoroughfares, ambitiously designed community buildings, and monumental public buildings. Not a billboard or garishly decorated kiosk anywhere in sight – the only splashes of colour are the ubiquitous propaganda posters. Devoid of private individual traffic, the streets are deserted expanses of asphalt. The monotonous succession of mass housing developments is punctuated at regular intervals by large sculptures and monuments showing the "eternal president" Kim Il-sung with his wife and son. The total obscuring of the individual defines the rhythm of the city, which is driven by the state propaganda slogans on display at intersections and carefully designed road forks.

With an estimated three million residents, the capital city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s a cabinet of architectural

curiosities that defies comparison – except, perhaps, with the urban design ideas of the early Russian constructivists. It is a test-tube city in which all life, from the moment of its conception, is under strict surveillance in neatly compartmentalized functional units. Pyongyang is the image of a utopian ideology, the materialization of a sociological experiment that remains preserved to this day as the relic of a bygone era. To a first-time visitor, the capital gives the impression of being a modern city dominated by wide streets and vast squares. The main streets are lined by multi-storey residential developments with façades decorated in grey and pastel. On sunny days, the buildings look almost colourful.

At second glance, too, Pyongyang looks like a city of the modern age, even if its modern age is a socialist one. Its general layout is easy to read, defined by the Taedong river. The city centre was historically in western Pyongyang while eastern Pyongyang, the site of the old airport, is today dominated by residential areas and the heavily guarded diplomatic compound. South of the river, the gargantuan residential developments along Thongil Street look like the brick-and-mortar realization of the megalomaniac urban design fantasies of Ludwig Hilberseimer or Le Corbusier: a lovely sight on the drawing board that is anything but friendly and liveable in reality. But it would be too glib to conclude that this is simply a reflection of the political system of North Korea; after all, even a state under totalitarian rule must provide for the basic needs of its people. A western-style critical approach to urban development and to the architecture of Pyongyang raises a number of questions, many of which contain the seeds of their own answers. Why are the streets lined by seemingly well-kept residential buildings that conceal primitive, single-storey huts in their back yards? Why are public buildings and monuments illuminated by perfectly designed lighting systems after dark while private dwellings show barely a light? Why do public buildings flaunt lavish façades of quarried stone while the precast concrete of the pavements is riddled with cracks? The imposed collectivism, the permanent state of economic emergency, and the focus on social mega-events and prestigious buildings in which to hold them determine the order of priorities according to which the buildings – which were all, without exception, built by the state – are operated and maintained.

This phenomenon is symptomatic of social systems in which property

ownership is not an issue. Pyongyang presents a particularly impressive case study of this extreme form of nationalized real estate policy. Its urban ensembles, skylines, and intersections attain a degree of perfection that in a democratic system would be almost frightening. If one disregards for a moment such criteria as construction quality, choice of materials, and the aesthetic pleasure to be derived from contemporary and modern architecture, one would have to give the urban designers of Pyongyang full marks for their efforts. The ease of navigation in the city, the clear iconography of its public buildings, and the carefully thought-out proportions of the intersections and vistas that open out into spacious squares – all these parameters can be found in any urban planning textbook. And yet their rigorous application proves to be a source of irritation for our European gaze.

It comes as no surprise that the land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is completely at odds with western ideas about property ownership. Passed in 1977, it demonstrates how to turn what in our eyes is essentially an economic asset into an ideological one. According to its wording, the casualties of the Korean War steeped the land in the "blood of the revolutionaries" who sacrificed themselves for the fatherland and for the right of farmers' collectives to cultivate the land autonomously. The use of land for agriculture, industry, and construction is thus given a militant thrust, the land itself placed completely at the disposal of the state and its agents, such as industrial combines and housing development organizations. At the same time, the land law can be seen as the antithesis of the feudal principle of large-scale land ownership, which Karl Marx, the father of communism, viewed as the root cause for the "exploitation of the working class". Superordinate administrative committees, town planning authorities, and other state organizations like planning institutes and building combines are required by Section 52 of the law to design towns and villages in such a way that living conditions in urban and rural areas are the same. On the other hand, the state can requisition the use of the properties it makes available, including any buildings on them, at any time.

There are very few places in the world where architecture is as inextricably linked to state ideology as in North Korea. Plaques giving the date of inauguration can be found on every public building, and the dates are always the same ones: leaders' birthdays, the foundation dates of the party and the

state, and other holidays of the model communist state. In Germany, a public foundation for architecture has fought for years, and with indifferent success, for something that is commonplace in North Korea: architecture as a fixed element of national identity. Of course, in Korea, this identity is rigorously imposed from the top down. Ideology also informs the motifs on the country's postage stamps, since stamps function in a very real sense as a country's ambassadors to the world at large. What is remarkable here is the selection of buildings reproduced in thumbnail size. In addition to Kim Il-sung's birth house, school, and residence in exile, these include large public buildings such as the Grand People's Study House, the Arch of Triumph, and sports facilities. However – and this is what is worthy of special note – the stamps also repeatedly feature mundane buildings that in other countries would barely rate a mention in the local pages of the daily paper. There are, for example, stamps bearing images of the residential developments in Thongil, Munsu, Moranbong, Chollima, and Kwangbok Streets. The main focus of these motifs, however, is on the strategically important thoroughfares. The buildings are there largely because they happen to flank the streets. Thus the architecture seems to be serving as the backdrop for a collective social idea. This ultimately reflects North Korea's perception of everyday architecture – flats represent the smallest and least significant unit in the overarching unity of city and state.

The shapes of the buildings follow the international trends that were current at the time of their construction, but – and this too must be regarded as a national peculiarity – the architectural language in no way corresponds to the Korean traditions that make themselves felt in the design of the non-residential buildings. The soaring towers and undulating blocks, the octagons and cylinders are the products of post-war modernity and are characterized to this day by the Soviet interpretation of Le Corbusier's "machine for living" – although those responsible for North Korea's architecture are quite probably unaware of this fact. Thus the residential areas of Pyongyang are reminiscent of Russian suburbs on which time has taken its toll, ruthlessly exposing the poor construction quality. Yet the small revolution of a few independent spirits is impossible to conceal. Like millions of people living in prefabricated developments in the former Soviet Union, residents of Pyongyang, too, have begun to enclose their balconies as best they can to gain extra living space, a storeroom, or a makeshift greenhouse – or possibly

the only purpose of the clapped-up enclosures is to improve insulation by adding an improvised conservatory. For the prefabricated buildings, uniformly made of concrete, presumably have the same thermal insulation efficiency as the prefabricated housing developments of Russia, China, and the former eastern bloc. In these icy dwellings, the warmth in the heating pipes barely reaches the topmost storeys in the harsh East Asian winters, while the hot summer months make for sweltering conditions behind the windows. Designs that appear aesthetically pure and perfect in the theories of Le Corbusier and within the small, brightly coloured confines of a postage stamp provide little comfort when put into practice. After less than twenty years the windows are badly in need of repair, since neither their paint nor their sealing compound was ever renewed since they were first installed. The rising damp has left its mark on the ground level. But as long as the new developments provide running water, a bathroom and toilet, and at least the visible presence of radiators below the windows, these dwellings are more attractive to hopeful North Korean families than the clay huts round the back, which do not offer the amenities of modern popular hygiene. Nevertheless, as one walks through this concrete desert, one is confronted by the bitter truth that architecture can sicken mind and body alike. But one positive aspect – and very likely the only one – can be gleaned from all this: despite the air of anonymity that these buildings project, the windows of the ground-floor flats are not barred against burglars. The bare walls reveal no trace of graffiti, and the outdoor spaces display a degree of cleanliness more usually seen in a hospital. Nor are there any lawns between the buildings, however, nor any trace of greenery on the balconies. Propaganda posters and information boards are all that adorns the drab setting.

A concrete pedestal in front of one of the residential blocks supports an object that is especially irritating to western eyes. The sculpture-like installation is graced with the following title: “The fundamental ideas of socialist education. Hooray!” On four coloured panels beneath this inscription, four slogans are picked out in heroic letters: “Fidelity Through Loyalty; Spirit of Fidelity; Victory of the Best Class; Day of the Sun”. The latter refers to 15 April, the birthday of Kim Il-sung, which is celebrated like that of a hero with vast public dance events. At an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a piece like this would probably receive a prize for clever artistic provocation. But in North Korea, the materialization of ideology is simply a bitter reality.

The Juche Tower, a phallus-like petrification of Kim Il-sung's worldview and the lodestar of North Korea, occupies a special place in the cityscape of Pyongyang. Prominently situated in a strategic spot on the eastern bank of the Taedong, it defines the axis that points eastward from the Grand People's Study House across Kim Il-sung Square and the river. The most important places in the inner city offer an unobstructed view of the tower which, although not in the centre of the inner city, serves as an anchoring landmark and offers what is probably the best panoramic view of Pyongyang (see pp. 22-39). Standing 170 metres tall from the base of its pedestal to the red torch at its top, the granite tower, built to glorify the wisdom of the "great leader", Kim Il-sung, is almost as high as Cologne Cathedral and is said to be the highest masonry structure in the world. The comparison between the tower and church architecture is by no means inappropriate; the Juche doctrine represents a kind of ersatz religion for North Koreans, two thirds of whom are officially claimed to be atheists. In 1977, the Juche ideology replaced the more international Marxism-Leninism as the country's world-view. A new calendar based on the Juche ideology was introduced in 2003, counting from the year 1912 (the year of Kim Il-sung's birth) as Year 1 of the new era. However, the Juche ideology was relegated to secondary status in the North Korean constitution in 2009 by the Songung Policy (Korean for "The army first!").

Like the rigidly upright Juche Tower, the monument commemorating the foundation of the party stands in its own carefully staged setting. Located in eastern Pyongyang, it marks the end of an axis running from Mansu Hill (which bears a colossal bronze statue of Kim Il-sung) to the eastern part of the city. Three enormous hands rise above a massive granite belt five metres high and fifty metres in diameter. The hands, thrusting skyward a hammer, a sickle, and a calligraphy brush, symbolize the workers, the peasantry, and – in a twist that makes the North Korean communist party unique among its sister parties anywhere in the world – the intellectual class among the people.

In addition to the numerous monuments that can be found throughout Pyongyang, the public buildings, too, were designed to catch the eye. In Kwangbok Street, which is six kilometres long and one hundred metres wide and runs between the inner city and the nearby birthplace of Kim Il-sung in

the Mangyongdae district, the Schoolchildren's Palace marks the southern end of an urban ensemble that was completed in time for the 13th World Festival of Youth and Students in 1989 and can be read as an example of a late socialist boulevard.

With its two curved wings, the shape of the palace recalls the open arms of a mother receiving her children. At its heart there is an auditorium with seating for 2,000 people and a professional theatre stage. The auditorium is flanked by numerous classrooms, music rooms, and sports halls. The complex has a total floor space of just over 100,000 square metres and stands on a site measuring approximately 30 hectares. The 50,000 square metres of quarried stone and 20,000 square metres of glass that went into its construction may go some way towards explaining the total cost of the building, which the official information brochure gives as 100 million US dollars – a sum that exceeds the total monthly income of the entire working population of North Korea.

In front of the main entrance, at the top of a monumental sequence of wide steps, visitors are welcomed by a bronze sculpture. It shows eleven children in a chariot drawn by two winged horses. The children symbolize the eleven years of schooling in North Korea, which involves special weapons training, flying lessons, and communications training and is more geared towards preparing young people for the five-year term of military service than to providing a general education – just like the "extracurricular" activities offered here in the Schoolchildren's Palace are not entirely designed to help children relax after classroom lessons, either.

The children spending their leisure time in the Mangyongdae Palace are just as oblivious of being exposed to a state indoctrination and education programme as the few motorists in the streets of Pyongyang who pass beneath the Arch of Triumph in Kaesong Street. The sixty-metre structure is undeniably somewhat reminiscent of the Arc de Triomphe in Paris. The difference, however is that other monumental arches, such as those in Paris, Moscow, and Rome, as well as the Brandenburg Gate in Berlin, are closed to traffic and motorists are obliged to give them a wide berth. Not so in Pyongyang, where the arch spanning the street is an obligatory landmark on the way from the airport in the north to the inner city. Foreign visitors, including numerous Japanese tourists, simply do not have the

option of making a detour around the arch.

Had the Arch of Triumph been built immediately after the country's independence from Japan in 1945, few visitors would probably find this decision strange. But the granite structure, consisting of over 10,000 individual blocks of stone, was not built until 1982 and served to commemorate the 70th birthday of Kim Il-sung. Architecture thus serves as a postcolonial instrument of revenge to allow Kim Il-sung to play the hero for his own people. The two dates on the façade symbolize Kim Il-sung's battle against the Japanese forces of occupation, which is alleged to have taken twenty years. But the actual historical events do not fully agree with the legends about the North Korean hero. In 1925, at the age of thirteen, Kim fled to China and from there to the Soviet Union, where he served as a captain in the Red Army and eventually rose to the rank of battalion commander in the 88th Rifle Brigade of the Second Far Eastern Army in the Primorye region near Vladivostok. It was probably his military experience and his time in the Soviet Union that made it possible for him to return to Pyongyang in 1945 as a member of the military commander's staff. There is no question of a triumphant return to his home country – rather, he returned as aide to a military governor unfamiliar with the territory. However, the heroic bronze figures that have been artfully embedded in the granite façade of the Arch of Triumph have engraved an edited version of history into North Korea's collective memory. Architecture emerges as a mythopoeic medium, its myths holding the country's subconscious firmly in their grasp.

Among all these spectacular architectural displays, one building stands out from the mass of superlatives. This is the May Day Stadium (also known as Rungrado May Day Stadium) on Rungna island in the Taedong river north of the inner city. The stadium was inaugurated in 1989, the year of the 13th World Youth Games. With seating for 150,000 spectators under 16 aluminium roofs, each of which is approximately 100 metres wide, this is the largest stadium in the world.

As a rule, the Arirang mass gymnastics displays are held in the May Day Stadium between mid-August and early October (see pp. 136 – 159). This event alone is worth making a trip to North Korea. Thousands of gymnasts enter the arena in lockstep and perform synchronous gymnastic exercises with

a military precision that is sometimes reminiscent of the training programme of a combat troop. Most of the performers are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spend many months preparing for the great event. For a performance lasting just under two hours, ticket prices for foreigners ranged between 80 and 300 euros in 2010. Not a very high price given the sheer number of performers – on the opposite grandstand alone, almost 3,000 people wielding panels that weigh several kilograms are hard at work putting together the mosaic-like backdrop pictures, which change in a steady rhythm and which may involve over a hundred different images at a single event. Political agitation aside, this form of theatre and dance performance, which has become a rarity after the collapse of the socialist states, deserves recognition as an independent artistic discipline with its constantly changing, gigantic background pictures, gargantuan screens, and laser lighting.

The Arirang Festival is part of a genre of agitation art that aims to promote the solidarity, communal spirit, and battle-readiness of the people. Along with the innumerable propaganda posters that line the streets and intersections, this kind of art contributes to the all-encompassing, continual presence of the state in the lives of the people. However, as long as the choreographers, authors, and artists remain shrouded in anonymity, mass spectacle and poster art alike are simply the effluence of a worldview in which mute workers, whose only recompense is the national pride inculcated in them by the state, labour like ants to create gigantic pyramids.

One of these pyramids is the triangular, skyward-thrusting Ryugyong Hotel, which was originally scheduled for completion in 1989 along with over 250 other major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capital city. In typically North Korean fashion, the Paektusan Academy of Architecture remains silent about the question whether the 4.5 billion US dollars that were spent on the renovation of Pyongyang in preparation for the 13th World Youth Festival were simply not enough or whether the 330-metre edifice suffers from structural deficiencies. From a technical perspective, it may have been unwise to construct the 105-storey building out of concrete. However, while a steel construction would have made better structural sense, it would also have cost three times as much.

An assessment of the building's earthquake resistance performed in 1992

by the Institute of Earthquake Engineering and Engineering Seismology (IZIIS) in Skopje, Macedonia, did not bring the construction site back to life. Looming over the city like a portent of doom, it is a daily reminder of the biblical Tower of Babel. Anyone inquiring into the reasons for the construction freeze was fobbed off with the curt answer that the United States had prevented further construction work when it imposed sanctions against the country. The real reason, however, was probably financial trouble. After the fall of the iron curtain, North Korea was the country that was hardest hit by the abrupt cessation of fraternal aid from other socialist countries.

In the summer of 2005, the Italian architecture magazine DOMUS advertised an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the completion of the Ryugyong hotel, inviting architects from all over the world to transform the unfinished skyscraper into an "antenna for ideas". This transponder function had the purpose of helping to obtain more information about the isolated country and engaging in dialogue with the people who lived there. It is no surprise that this idea embarrassed the building's architects in Pyongyang, who responded with disapproval. In Europe, too, the announcement of the competition and the edition of DOMUS in which it was advertised in the context of an uncritical report about the situation in North Korea sparked a heated controversy. Architects debated about the extent to which foreign media were justified in publishing North Korean state propaganda without commentary and allowing photographs and quotations to speak for themselves. The same criticism was levelled at the curators of the Vienna Museum of Applied Art (MAK) in the summer of 2010, when the exhibition Flowers for Kim Il-sung went on display with oil paintings from state-run art studios and photographs from the archives of the Paektusan Academy of Architecture – once again without comment. As unimaginable as any form of critical engagement remains in North Korea today, it is equally unthinkable to abandon it in Europe.

Nevertheless, construction work on the Ryugyong Hotel was resumed in 2009. Perhaps by coincidence, the money for the façade came from the land of the pyramids. The Orascom Group, an Egyptian telecommunications and construction company, is now in charge of the work. Until the dictatorship comes to an end and the archives become accessible, it will be impossible to establish whether there is a link between the millions invested in the 6,000-bed hotel and the awarding of the first licence for a 3G mobile phone network in North Korea. What is certain, however,

is that even operating a mobile phone service for 200,000 subscribers is more lucrative than running a hotel that is unlikely ever to be booked to capacity unless Pyongyang transforms itself into East Asia's answer to Las Vegas and wealthy tourists from the region can enter the country without a visa.

Confirmation of the planned extension of the city's underground railway is equally unlikely to be forthcoming until that historic day. At present there are two underground lines east of the Taedong river: the red Chollima line, with eight stops from Puhung station in the south to Pulgunbyol station north of the city centre, and the green Hyoksin line, which runs from Kwangbok station in the west through eight further stops to Ragwon station in the east. The Japanese graphic designer Motohiko Sakazaki created a map in 2007 showing the planned new underground stops. According to his research, the present underground network of seventeen stations is set to be extended by double the number of existing stops. Additional interchange stations will be built and the underground service will be extended to the urban areas on the opposite bank of the river.

Visitors from Berlin will find the Pyongyang underground a very familiar sight. In 1998, the Berlin Transport Authority (BVG) discarded 108 double motor coaches of the D range and 60 of the GI range and shipped them from the port of Wismar to North Korea. These coaches now run in the Pyongyang underground network, which reaches a depth of up to 120 metres. It is no secret that the shafts of the underground line have gates to protect the interior from shock waves and radiation; like all other cities of the former eastern bloc, Pyongyang, too, designed its underground railway to serve a dual purpose as a nuclear bunker. What the public remains unaware of to this day, however, is that there are said to be numerous secret stations and even complete underground lines underneath the city. The projected new extensions, involving over thirty additional stops, suggest that at least part of the planned network already exists and is being used as secret stations or escape tunnels for the party cadres and the leadership elite.

The two stations that are accessible to foreigners, Puhung and Yonggwang, are on the Chollima line. Both stations are sumptuously designed in marble, with artfully decorated wall mosaics and splendid chandeliers on the ceilings – a textbook implementation of socialist railway station architecture from Leningrad to Moscow and Tashkent. Rumour has it that there is a rail link to one of the Dear Leader's palaces concealed behind Rakwon station.

Reporting on Urban Typologies:
North Korea's Dream of an Ideal Society

Prof. h.c. Dr. Philipp Meuser, Berlin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rban Studies
Seoul, 26 May 2021

Reporting on Urban Typologies:
North Korea's Dream of an Ideal Society
Prof. h.c. Dr. Philipp Meuser, Berlin

A very warm welcome to all silent listeners in Pyongyang 🇰🇵😎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International Conference on Urban Studies
Seoul, 26 May 2021

What you need to report on North Korea

Notebook

What you need to report on North Korea

What you need to report on North Korea

What you need to report on North Korea

What you need to report on North Korea

Identification and collectivisation
through Architecture

Symbolism to divert attention
From poverty

Public wealth to bring the people into
a state of happiness

Architecture

and

Symbolism

guarantees

Happiness

Architecture

and

Symbolism

guarantees

Happiness

Seven Steps to Understand North Korea

1 Birth of a Lord

2 Sacred temple

3 New measurement of time

4 Defeat nature

5 Compulsive urban planning

6 Writing a new book on religion

7 Overscaling the leader

1 Birth of a Lord

Bethlehem, NK: model of Kim Il-sung's birthplace at a flower show.

Christian nativity scene: folk depiction of the birthplace of Jesus in Bethlehem.

2 Sacred temple

Most sacred temple of Juche: Kim Il-sung is venerated like a deity at the Kumsusan mausoleum.

Most sacred site of Islam: the Kaaba in Mekka is the goal of Islamic pilgrimage.

3 New measurement of time

When it all began: the year in which Kim Il-sung was born is Year One in North Korea's Juche era.

The Common Era: the Gregorian calendar used in the rest of the world was first introduced in 1582.

4 Defeat nature

Kiwifruit with orange peel: dominion over nature is a contentious issue in free societies.

Dominion over nature: the kimilsungia hybrid was developed in honour of the "First and Eternal President".

5 Compulsive urban planning

Overhead construction in Ashgabat: Neutrality Arch with gilded Turkmenbashi statue.

Overhead construction in Pyongyang: Monument to the Immortality of President Kim Il-sung.

6 Writing a new book on religion

Turkmen coran: Turkmenbashi's world view is set out in the Ruhnama.

Tower of the Juche Idea: Kim Il-sung developed his ideology to serve as a surrogate religion.

7 Overscaling the leader

The president's hand: Nursultan Nazarbayev lets the Kazakh people feel his power.

The president's feet: North Koreans bow to a larger-than-life statue of Kim Il-sung.

Seven Steps to Understand North Korea

1 Birth of a Lord
2 Sacred temple
3 New measurement of time
4 Defeat nature
5 Compulsive urban planning
6 Writing a new book on religion
7 Overscaling the leader

발표 2

김정은 시대의 건축물의 대립성(Contradictory)

제레나 프로코피레비치
(스페인카탈루냐 국제대 박사)

초 록

이번 학술회의에서 공개하는 발표문은 김정은 통치 초기 10년 동안 발전해온 평양의 새로운 건축물을 분석한다. 지난 10년은 다양한 요소로 규정될 수 있다. 일부 건축물은 과거 계획의 결과물이었으며, 다른 건축물은 김정일이 정의한 '주체적" 건축사상 및 사회주의 도시계획과 대립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버트 벤츄리의 저서 "건축의 복합성과 대립성"이 동서양에서 포스트모더니즘 건축 디자인을 규정했듯이, 대립성과 복합성은 다양한 이해방식과 도시건축 공간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최근 평양에 건설되거나 계획된 프로젝트를 도시공간의 질, 도시에서의 위치, 좋은 연결성, 상징적 공간과의 근접성, 좋은 경치, 그리고 기능성 개념을 확장하는 신호로서 사용되는 건축양식 등의 특징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2013년에 김정은은 국제적 트렌드와 기술발전에 부합하며, 실험에도 공식적으로 개방적인 21세기 건축에 관한 지침을 내렸다. 이 지침은 평양을 발전하는 동남아 수도 중 하나로 내세우며 새로운 건축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했지만, 동시에 도시의 사회주의적 성격을 간과하지도 않았다. 새롭게 건설된 (그리고 계획된) 고급 주택가, 그리고 문화·교육·놀이 시설은 경제적 역경을 반박하며 도전한다. 비록 평양의 건축 이미지와 조선의 국가적 특징 간의 연관성은 거의 없지만, 이들의 위치와 방향은 김정일의 도시 설계자들이 설정한 지향점(referent)을 향하고 있으며, 다른 도시 공간의 의미에 지속성을 부여하며 재평가한다.

키워드: 평양 건축물, 도시설계, 포스트모더니즘, 김정은 시대, 공공장소, 주거단지

0. 개요

본 발표문의 제목은 로버트 벤츄리의 저서 "건축의 복합성과 대립성"을 연상시킨다. 50여년 전에 쓰인 이 책은 도시적 맥락에서 건축을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켰으며, 필수품, 물리적, 감성적 및 상징적인 요소와도 연관성을 보여준다. 저자는 건축을 접근할 때 순수하고, 확실하거나 분명한 부분이 아닌 타협적이며 모호한, 심지어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집중했다. 역사적 도시와 고전적 건축의 복잡함을 언급하는 이 책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본적인 저서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건축물에 내재된 모호함과 다중의미에 대한 문맥적 및 정치적 편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말기와 포스트-사회주의 시기의 건축에서도 마찬가지로 영향력이 있었다. 건축의 이미지, 상징, 및 사회적 의미를 강화하는 건축의 신자유주의적 해석으로서, 실증주의적 형식적 레퍼토리로 돌아온 포스트모더니즘은 사회주의-모더니즘의 산업화 비인격성에서 멀어진 것으로 이해되었으며, 사회·경제적 전환을 알리는 것으로 보여졌다.

북한의 건축 흐름은 “국가적 형식, 사회주의 내용” 같은 사회주의 현실주의 공식에서 자연적으로 발전한 신전통주의적(neo-traditional) 요소를 포함시키면서, 1980년대부터 이미 포스트모더니즘 양식을 지향하고 있었다. 포스트모던 방식으로서 새롭게 정의된 주체사상 건축은 새로운 건축기술과 전통적 건축요소의 재해석을 융합했다. 김정일의 “건축예술론” 논문은 당시 중요한 사업의 의도와 핵심요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체사상 건축의 방향성을 제시했으며, 오늘날까지도 김정은의 건축 교시에 나타난다.

1. 김정은의 건축 지침

국가 지도자가 된지 2년 후인 2013년 12월, 김정은은 건축부문 관료용 단기과정에 “당의 주체사상을 건축에 철저히 적용하며 건설의 황금기를 이끌자”라는 제목의 서신을 전달했다. 이후에 출판된 이 서신은 건축분야, 도시계획 및 건축에 대한 향후 가이드라인 해석방법을 제시한다. 김정일의 저서와는 달리 김정은의 서신은 특정한 건축양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명시하지 않으며, 국제적 트렌드와 현지상황에 부합하면서 혁신하는 기능적 및 현대적 디자인을 선호함을 보여준다. 기술발전과 전통양식 간의 관계는 모호함으로 표현할 수 있다: 특정 조선식 건축요소들은 추상적인 디테일, 혹은 확실한 기능이나 의미가 없는 부가물 수준으로 제한된다. 김정은에게 있어서 디자인 접근법은 과학적이어야 하며, 신기술과 재료가 디자인, 형상화, 그리고 건설 과정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래건축의 사실적 시각화(rendering)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대중과 언론에 홍보하는 표준이 되었다. 화려한 이미지가 건축보다 앞서서 보여지며, 건축의 해석은 진보 및 전통을 모두 모호하게 지향하고 있다.

새로운 건설공사에서 필수적인 부분은 구조적 솔루션, 그리고 무엇보다 마감단계의 산업용 생산자재를 혁신하는 것이다. 김정은은 대동강타일공장과 평양건설자재공장 건설에서 돌격전을 독려했다. 이는 수입 의존도를 낮춘다는 점에서 코로나 시대에 상당히 합리적인 조치였다. 과거처럼 건축은 규모, 형태 및 장식 측면에서 기념비처럼 인식된다. 속도전 건설의 필요성은 –새로운 이미지와 도시경관 변화를 빨리 만들어내는 것은– 필수적이며, 1950년대부터 사용된 “평양속도”는 오늘날 새로운 건설에서도 적용된다. 자연적 조경설계와 지능형 기술은 높아지는 “인민의 미적 기준”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선호된다. 마지막으로 현대 주체사상 건축은 생태학적이며 에너지 효율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태양광패널 같은 친환경 자재를 포함하면서 자연과 연결되며, 건강한 생활·작업 공간을 제공한다.

2. 김정은 시대의 10대 핵심 프로젝트

김정은 통치 10년 동안 이 원칙들이 공공장소와 놀이공원, 문화과학센터 및 대규모 주거단지 등의 다양한 건물 유형에 적용되어 왔다. 건물 유형은 도시위치를 고려하여 강변 혹은 번화가 접근성을 우선시하는 프로젝트, 기념비적인 공간을 재해석하고 재평가하는 프로젝트, 그리고 공공장소와 공공시설 목적의 프로젝트 등으로 체계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프로젝트는 도시공간을 이해하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기능적 및 상징적 가치보다는 실내공간 및 물리적 환경에서의 편안함의 가치가 더 중요해졌으며, 편안함의 가치가 건설·위치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 시작했다.

1) 수공간(waterfront) 정의

2012년에 완공된 창전거리는 2000채 이상의 아파트와 공공시설이 들어선 중요한 프로젝트였으며, 대동강 강변에 위치한 거리의 한쪽에는 김일성·김정일 동상이 세워진 만수대언덕이, 다른 한쪽에는 김일성광장이 있다. 창전거리는 김정일 통치시대의 마지막 프로젝트였으며, 재개발 1년 직후이자 주체 100주년 시점에서 김정은 시대를 선언한 첫 프로젝트였다. 건물 18동 중 가장 높은 3동은 48층 높이이며, 원통형 건물 외부의 LED 조명은 평양의 야경을 밝힌다. 건물단지는 현대화 파도의 시작을 의미한다: 호텔과 공공시설용으로만 사용되었던 유리 파사드(facade)가 이제는 아파트 타워, 가게와 식당이 있는 지상층, 그리고 잘 설계된 공공장소에도 사용되었으며, 가로시설물·녹색화단·자전거도로까지 구비되어 있다.

단지는 미완성의 류경호텔 밖에 보이지 않았던 평양의 스카이라인을 매력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면적과 다른 높이의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동시에 단지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 공간들과 대동강 강변을 확실하게 연결시킨다. 40층이 넘는 고층건물 3채는 옥류교와 가장 가까우며 승리거리의 중심지와도 교차한다.

이 곳에서 강변의 문화시설과 당창건기념탑 광장 등의 강 반대편 경치를 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평양종합병원 신축건물과 주체사상탑 산책로가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단지는 거문거리의 높은 지점에서 끝난다. 기념비적인 이 곳의 산책로는 인민대학습당에서 시작해서 만수대예술극장, 만경대 학생청소년궁전, 만수대의사당, 조선혁명박물관과 만수대대기념비의 산책로까지 이어지며 과거와 현재의 중요한 명소들을 연결한다. 혁신적인 단지는 도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나타내며, 위치와 경치의 가치, 그리고 도시의 상징적인 중심부와 밀접하게 연결된 가치를 새롭게 평가한다. 서방언론은 창전거리에서 시작해서 평양 중심부 정비·개선에 집중된 이 화려한 프로젝트를 “평해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국보인 보통문까지 이어진 만수대거리는 최근에 발표된 800세대 규모의 테라스 아파트 단지를 접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다양한 면적과 높이의 건물 50채가 계획되어 있으며, 3-4층의 소형빌딩부터 단지 모퉁이마다 랜드마크처럼 위치하게 될 15층 높이의 건물들도 있다. 강변지대는 기념비적인 1970년대 주거지 중 가장 먼저 지어진 역사적인 천리마거리까지 이어진다. 테라스 하우스가 위치한 만수대언덕의 경사면을 기능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매우 효과적인 공적자원(formal resource)이 강변에 투입되었으며, 이 자원은 과거에 주택 프로젝트보다는 호텔이나 공공건물에 사용됐었다. 계단식(다락식) 큐브(recessed cube) 형태의 디자인은 흰색/갈색 석고와 세라믹 타일로 완성되며, 단지의 용적(volume)과 기하학(geometry) 부분 모두 이와 같이 적용된다. 루프탑에 위치하는 파고라(pergola) 정자와 그늘막 장치는 신선한 요소이며, 이는 거주민 공용 혹은 부동산 가치 상승을 위한 부속시설의 잠재력을 나타낸다. 테라스 하우스는 평양 중심지에서도 대동강, 보통강, 그리고 평양역 철로를 각 변으로 하는 “기념비 삼각지대”에서 얼마 남지 않은 계약체결 비율이 낮은(undersigned) 지역이다. 새로 설계된 강변지역은 천리마대로의 기념비적인 공공시설과도 인접하며, 조선 건설의 첫 승리를 기억하는 아이스링크장, 경기장 및 인민문화궁전이 있다. 여기서 첫 승리란 1946년 보통강 개수공사를 통해 빈번했던 홍수로부터 도시 대부분 지역을 지켜낸 승리를 의미한다.

2015년 11월 초에 있었던 미래과학자거리 개장은 조선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의 일부였다. 대동강 강변, 양각도 앞, 그리고 양각교와 충성의 다리 사이에 아파트 2500여채의 고급 주택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단지는 건물 30채로 구성되며, 대다수 주택단지에는 상업·문화·체육시설도 함께 있다. 거리에는 두 개의 시각적인 요소가 돋보인다: 김책공대 교수 및 연구원에게 공급될 예정인 40층 쌍둥이 빌딩의 외벽은 테라코타 타일로 마감되어 있으며, 또다른 53층짜리 건물의 평면도는 원자구조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꼭대기에는 과학을 상징하는 기둥이 왕관처럼 올라가 있다. 미래과학자거리는 다양한 형태와 높이로 평양 스카이라인을 변화시키면서 다른 동아시아 대도시를 상상하게 한다. 이 거리는 위치와 경치를 중시하면서 동시에 기차역, 평양-개성 고속도로, 그리고 통일거리 같은 주요 도시 지점들을 시각적으로 연결시킨다. 쑥섬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는 2015년에 완공된 원자모양의 마천루 역시 과학기술에 대한 열망을 공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2) 유적지의 재평가

(조선노동당 대회를 세 차례나 개최한) 4.25문화회관과 김일성 일가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연결하는 또다른 엄청난 주택 프로젝트가 2017년 4월 15일 려명거리에서 개장했다. 이 두 역사적 지점 사이에 위치한 단지는 김일성대학 부지와 조국해방전쟁 이후에 세워진 총장실을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시설과 공공장

소의 범위 내에 위치한다. 이 새로운 동네의 입구에는 기념비 중에서 가장 높은 김일성영생탑이 세워져 있다. 김정은이 여러 번 홍보하고 방문하면서 7차 노동당대회 이후에 여명거리는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되었으며, 불과 1년 만에 완공되었다.

근처에서 가장 유명한 명소는 바로 평양에서 두 번째로 높은 70층 녹색 타워이다. 그 마천루의 거리는 미래과학자거리보다 넓으며, 국제적 경제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경제발전을 하고 있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크고 빠른 개발의 목적은 사람들이 변화를 느끼고 감사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이다. 량강도 출신의 58세 공장장 림덕재는 기념식 직후 NK 뉴스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5년이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자고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것이 보입니다. 조선사람들은 강한 힘으로 빠르게 일했으며 우리는 현대적 건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이 것이 바로 대북 경제제재가 거세지는 가운데 북한정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실제로 북한 총리는 준공식에서 려명거리 건설이 오랫동안 지속된 제재로 인해 대외 경제교류가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의도한 효과를 받지 않지 않았으며, 북한은 더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려명거리 그 자체가 평양의 건설 호황을 증명하며, 다수 건물에는 태양광패널도 있다. 많은 평양 주민들이 최근 몇 년간 에너지 수요를 공급하기 위해 태양광발전패널을 개인적으로 사용해왔지만, 태양광패널이 공공건물, 공동주택, 그리고 가로등에도 사용되는 모습은 정부가 지속가능 에너지를 더 촉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0년 3월 김정은은 모란봉구역의 비파동과 민흥동 지역에 김정숙 거리 건설을 지시했다. 이 지역은 1945년 김일성이 자유와 독립을 선포했던 개선문과 김일성경기장 옆에 있는 역사적인 곳이다. 이곳은 지도자의 혁명적인 할머니 김정숙에게 경의를 표하기에 상징적으로도 완벽한 곳이며, 김정일 역시 이곳을 고려했었다. 이 지역은 최근 10년간 고위관료의 개인주택 건설로 인해 밀집화가 진행되었으며, 심지어 대가족용 저택도 있다. 홍익대 임동우 교수는 이 현상을 평양의 포스트 사회주의 도시가 변화하는 한 가지 예시로서 연구한 바 있다. 입지의 중요성, 그리고 좋은 접근성과 공급은 이 지역을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었으며, 지역에 확정된 도시계획이 없었던 점도 이 현상을 촉진시켰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때로는 이해상충도 발생했으며, 평양건축종합대학 전문가들이 이 프로젝트를 연구하고 있지만 계획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평양 중심부는 대동강의 두 강둑에 있는 공공장소들을 통합하는 두 개의 상징적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축은 김일성광장–주체사상탑이며, 두 번째 축은 만수대대기념비–당창건기념탑이다. 두 번째 축은 최근에 평양종합병원을 포함하면서 수정되었다. 5층 높이의 평양종합병원 건물은 당창건기념탑의 앞면 전체를 차지하며, 병원의 양 끝에 위치한 두 타워는 20층 높이이다. 전세계가 코로나로 인해 봉

쇄를 하던 2020년 3월에 병원 착공식이 있었으며, 당 창건 75주년인 10월 10일을 목표로 200일 안에 완공하겠다는 목표가 세워졌다. 코로나 때문에 북한이 국경을 봉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형 기기, 헬기장, 그리고 루프탑 정원을 갖춘 현대적인 고급 병원이 코로나 대응 센터로 새롭게 세워졌다.

새 병원의 두 타워는 여전히 상징적 축의 방향을 유지하고 있으나, 당창건기념탑에서 대동강 방향을 바라볼 때 배경에 깃발 모양의 평양종합병원이 나오면서 전망이 가려지게 되었다. 이렇게 병원은 김정은 시대의 교통·관광·여가·문화·교육 등 모든 공공시설을 개선시키는 상징물로 격상되었다. 평양종합병원은 인근의 평양산원에 유방암센터가 2012년에 추가된 이후 열악한 보건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최근에 실행한 노력이기도 하다.

3) 성문(city gate)의 정의

서울올림픽과 평양세계청년학생축전이 있었던 1980년대 말의 건설 분위기는 전후 도시계획의 한계를 넘어서며 새로운 주거지 건설을 촉진시켰다. 광복거리는 서쪽 남포에서 청년영웅도로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오는 입구였다. 1990년대 당시 통일거리는 대동강 남쪽 강둑에 건설되며 평양–개성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오는 여행객들을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서 환영했다. 2021년 3월 23일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 직후 중요한 새로운 건설 계획이 발표되었다: 노동당 창건 80주년인 2025년을 목표로 아파트 50,000 채가 앞으로 5년 동안 건설될 것이다. 첫 번째 단지의 아파트 10,000채 기공식은 통일거리 인근인 평양 동남쪽의 송신·송화 지역에서 열렸다. 엄청난 새 동네가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2022년은 주체 110년이자 김정은 통치 10주년이기도 하다. 물론 성공하려면 최신 “평양속도”에 맞춰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프로젝트의 중심 축인 새살림거리는 동쪽에서 평양으로 들어오는 입구로서 원산 고속도로와 평양 중심부를 연결한다. 언론은 송신역까지 이어진 철로와 대동강 맥주공장 등 프로젝트의 부분적으로 공개된 세부내용만 이미지로 보여준다. 약 30채 빌딩이 단지 일부를 형성하며, 20–30층은 거주용 단지로, 그리고 8층 이하는 공공시설로 사용된다. 랜드마크인 50층 높이의 탑은 삼각형 평면도에 기반하며, 옥상에는 꽃잎처럼 곡선미(curvilinear)가 있는 루프탑이 설계되었다. 파사드(façade) 면에서 기하학적인 흰색 콘크리트/석고와 반사유리 조합이 두드러지며, 갈색 테라코타 세라믹 타일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모습이 형성된다. 공공장소의 조경은 풍부하며, 녹색공간은 공공시설의 루프탑까지도 확장된다. 이때 녹색공간은 이웃 주거단지들 사이를 연결하는 공간이자 거리의 교차로 역할을 한다. 프로젝트는 새롭고 화려한 거리이기도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평양 동부 주변지역의 재설계를 나타내기도 한

다. 동부 지역 대부분은 한 층 높이의 가정집 혹은 인구밀도가 높고 녹색공간·공공장소가 부족한 5층짜리 공동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모든 프로젝트는 강철과 유리 파사드의 이미지, 밝은 파스텔 색상, 그리고 70층 마천루를 통해 화려한 북한 수도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프로젝트는 도시공간을 이해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며 포스트모더니즘과 심지어 포스트사회주의 요소까지 도입하며, 특정 위치를 평가할 때 좋은 경치와 공원·강변·번화가 접근성도 고려한다. 프로젝트는 거리구간의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에 거리 앞에 자전거 도로와 조경 디자인 같은 부차적(tertiary) 요소를 포함시키면서 공공장소의 디자인과 활용을 개선시킨다. 주거공간을 사업·문화·오락·스포츠 공간과 융합하는 활용법은 평양 중심지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질적인 변화이다. 제한적인 변경 범위와 반복적인 모듈식 시스템을 반영하듯이, 새로운 단지들의 공식적 명칭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며, 오히려 다양한 형태, 규모, 그리고 색상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거리는 포인트를 강조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원자모양인 미래과학자거리 마천루의 공적인 모습, 려명거리 마천루의 고도와 녹색유리 같은 재료, 그리고 새살림거리에 지어질 삼각형 마천루는 도시와 각기 다른 경치 및 이미지 사이에서 다중적(multiple) 관계를 형성한다.

3. 결론: 현재 상황의 복합성

김정은 집권 초기 10년간의 프로젝트는 공공장소와 공공시설을 과거와는 다르게 접근했으며, 도시공간을 다르게 이해하고 평가하는 방법을 도입하며 평양의 이미지를 점진적으로 변화시켰다. 집권 초기 프로젝트는 만경대유희장, 릉라인민유원지, 및 조선중앙동물원을 개보수하며 낡은 놀이공원을 현대식 레저시설로 변화시켰으며, 현대식 기술과 자재를 활용하여 문수물놀이장 같은 새로운 시설도 만들었다. 이 프로젝트들은 “인민우선정책”의 첫 적용사례였으며, 나중에는 새로운 거리, 공공시설, 그리고 주거단지를 보완하는 무료공간에도 적용되었다.

새 프로젝트는 도시공간과 주거공간의 질을 개선하기도 하지만, 프로젝트의 핵심목표는 화려한 이미지로서 과거 1980년대에 인상적이었던 대규모 건설을 넘어서는 것이다. 새로운 주거 거리를 선정할 때는 도시 파노라마의 특정 랜드마크나 경치를 재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역사적, 기념비적인 명소에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한다. 동시에 프로젝트는 특정 지역을 고치고 개선하는 기능 역할을 하며, 새롭게 계획된 김정숙 거리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소규모 민간 주거투자 흐름과 대립이 나타나기도 한다. 평양 동쪽의 새살림거리에 집중된 새로운 건설현장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새 프로젝트의 공적인 특징은 국제적 현대화의 한 부분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며, 국민성을 상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김정은의 지침에 의하면 프로젝트는 주체사상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점을 확인해야만 하지만, 그런 특징은 꽃잎모양과 곡선형 같은 세부적인 곳에서만 나타난다. 미래과학자거리 마천루의 원자형 설계 혹은 쑥섬의 과학기술전당은 정치적 담론(discourse)을 나타내며 국제사회의 반대를 무시하고 있다.

21세기 북한 건축은 전통적 조선 요소를 포함시켰던 김정일 시대의 건축과는 다르며, 역사와 상대적으로 더 미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새로운 단지들은 역사적 명소를 강조하거나 연결하는 위치에 있다: 창전거리는 만수대언덕 및 김일성광장과 연결되며, 려명거리는 금수산태양궁전 및 김일성대학과 연결된다. 새로운 테라스 하우스 프로젝트는 보통문 및 만수대언덕과 연결된다. 프로젝트의 새로운 요소들은 이러한 물리적·시각적 관계를 통해 평양 도시·정치 역사에서 소속감을 형성해간다. 최근에 완공된 평양종합병원의 경우는 만수대대기념비-당창건기념탑이라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도시 축의 중앙에 새로운 시설로서 위치하게 되면서, 도시에서 새로운 관계와 해석을 만들어냈다. 평양종합병원은 속도전 건설의 승리 사례이며, 동시에 코로나 시대에서 핵심적인 보건의료 센터 역할을 수행한다. 북한의 현재 에너지 상황과 글로벌 트렌드는 에너지 효율과 지속가능한 디자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은 김정은의 건축 디자인 개선 지침에도 내재되어 있다. 하지만 신형 주거단지에서 압도적으로 사용되는 반사유리 및 강화콘크리트가 환경오염이 심각한 산업자재와 건설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자연적 디자인은 부분적으로만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 건물들 내부에서 쾌적함을 유지하려면 상당한 에너지 소비가 필요하며, 일반적으로 태양광패널에 국한된 에너지 생산량은 대부분 난방에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평양 프로젝트의 화려함은 수입 자재·기술, 그리고 건설사업에 동원되는 군대에 크게 의존하는 북한의 생산능력과 대조됨을 보여준다. 최근 폭풍·홍수·전염병 등의 자연재해는 이미 국제적 경제제재로 복잡한 상황에서 북한에게 더 큰 짐을 얹었다. 예정된 프로젝트 실행은 그 동안 보류되었다.

최근에 김정은은 북한이 지난 2년간 겪어온 심각한 경제적 상황에 대해 발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국방 투자가 예정되어 있으며, 엄청난 건설사업들도 계획되고 있다. 지난 수십년간 보여주었듯이 건설 프로젝트는 정권이 그 어떠한 역경도 이겨내겠다는 의지, 북한 노동력을 통제할 수 있다는 역량, 그리고 건축으로서 아시아 수도 지도 상에 평양을 올리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기념비이다.

Contradictory architecture of the Kim Jong Un decade. Reflections on the recent projects in Pyongyang.

Dr Jelena Prokopljević

Abstract

The text and the intervention at the conference analyse the new Pyongyang architecture developed during the first decade of the Kim Jong Un's rule, a period marked by a variety of factors, in some cases consequent with the plans of previous decades and in another contradictory both to the socialist city planning as to the "Juche" architecture as defined by Kim Jong Il. Nevertheless, contradictions and complexities open the possibilities for different understanding and use of the urban and architectural space, as have been explored in texts by Robert Ventury that marked the architectural turn towards postmodernity, both in the west and in the east. The features like quality of urban space, position in the city, good connections, proximity of monumental spaces and nice views as well as the use of architectural form as a sign that extends the notion of functionality, will be the focus of analysis of the recent projects built or planned in Pyongyang. In 2013 Kim Jong Un issued his own guidelines for the architecture in the new century, open to formal experimentation in line with international trends and technological advances. Apparently they promote a renewed architectural image, capable of placing Pyongyang among the growing capitals of South-East Asia, but at the same time, without overlooking city's socialist character. The newly built (and planned) high class residential avenues, cultural, educational and amusement facilities contradict and challenge the economic adversities. Although their architectural image can hardly be related to the national Korean features, their location and orientation point to the city's referents defined by Kim Jong Il's planners, introduce the continuity and revalorization of meanings of different urban spaces.

Key words: Pyongyang architecture, urban planning, post-modernism, Kim Jong Un era, public spaces, residential avenues

0. Introduction

The title of the intervention recalls the Robert Ventury's book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3]e," written more than 50 years ago that marked a change in understanding architecture within its urban context and related to a range of necessities, physical, emotional and symbolic. The author focused on architecture that is compromising, ambiguous, even inconsistent rather than pure, clear or articulated. With references to the complexities of the historic city and classical architecture, this book is widely recognized as one of the foundational texts of postmodernism, equally influential for the late socialist and post-socialist architecture, although with a contextual and political bias regarding ambiguities and multiple meanings imbedded in an architectural work. As a neo-liberal interpretation of architecture that enhances its value as an image, a sign, a social meaning, the post-modernist return of the historicist formal repertoire was understood as a step away from the socialist-modernist industrialized impersonality and seemed to announce a social and economic transition.

The North Korean construction waves of 1980s already pointed towards a post-modern form through the inclusion of neo-traditional elements naturally evolving from the socialist realist formula "national in form, socialist in conten t[4]" . In a post-modern way, the newly defined Juche architecture mixed new building technologies with adapted interpretations of traditional architectural elements. The treatise "The Art of Architecture[5]" by Kim Jong Il detailed the intentions and the key points of the important projects of this epoch, marking the course of the Juche architecture, still present in Kim Jong Un's instructions on architecture.

1. Kim Jong Un's guidelines for architecture

Two years after assuming the state direction, in December of 2013, Kim

3) Ventury, R. (1966),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in Architecture, New York: Museum of Modern Art

4) Prokopljević, J., Armstrong, C. (2015). "Socialist Postmodernism. Conceptual and comparative analysis of recent representative architecture in in Pyongyang, Astana and Ashgabat, 1989-2014". Tiempo

5) Kim J. I. (2006), The Art of Architecture, Selected Works vol. 11, Spanish edition, Pyongyang: Ediciones en lenguas Extranjeras pp. 114-275

Jong Un delivered a letter to the assistants to the Short course for officials in the construction sector, titled: “Let us usher in a great golden age of construction by thoroughly applying the party’s Juche oriented idea on architecture[6]” . This text, later published and translated configures the guidelines for the field of architecture, city planning and construction for the years to come. Unlike Kim Jong Il’s book, it doesn’t specify a style that buildings should adopt, stating a preference for functional and modern design, that would innovate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tendencies and local context. The relation between the representation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traditional form is expressed with ambiguity: specific Korean architectural elements are limited to abstract details or additions stripped of concrete function or significance. For Kim Jong Un, the approach to design should be scientific, incorporating new technologies and materials in the design process, in representation and in construction. As a result, realistic renderings of future constructions have become a standard in the public and media promotion of the new projects. Architecture is preceded by a spectacular image, while its interpretation is ambiguously oriented both to the progress and tradition.

An essential part in the new construction works is the innovation in structural solutions and in the use of industrially produced materials, especially those for the finishing. Kim Jong Un encourages a fast development of the local industries like Taedonggang Tile factory or Pyongyang Building Materials Factory that would reduce the dependence on the importation, a feature especially sensible in the years of pandemics. As in the past, the architecture is approached as monumental, in its dimension, form and decoration. The necessity for fast construction –and fast generation of new images and changes of the cityscape– is vital, so the metaphor of the “Speed of Pyongyang” from 1950s still applies to the new construction. Green and landscape design, as well as intelligent technologies are preferred to provide a response to the constant rise of the “people’s aesthetic standards”. Finally, the contemporary Juche architecture should be ecological and energy efficient, therefore including eco-friendly materials, solar panels, maintain contact with nature and provide healthy living and working space.

6) Kim, J. U. (2016), Let us usher in a great golden age of construction by thoroughly applying the party’s Juche oriented idea on architecture, Pyongyang: Foreign Languages Publishing House.

2. Star Projects of the Kim Jong Un's Decade

These principles have been applied to different building typologies, during the decade of Kim Jong Un's rule: to public spaces and amusement parks, to cultural and scientific centres, and of course to large scale housing complexes. In relation with their urban position, they can be systematized as projects that define the waterfronts or accesses to the city centre, those that reinterpret and revalorize monumental sites, and those dedicated to public spaces and facilities. They all offer a renewed understanding of the urban space: over the functional and symbolic value is superposed the value of comfort –of the interior space and of the physical context– that begins to be decisive for the economic value of constructions and locations.

1) Defining the waterfronts

In 2012 opened Changjon Street, an important project for over 2.000 apartments and public facilities located near the Taedong waterfront and framing on one side the monument of the two Leaders on Mansu hill, and on the other, the Kim Il Sung Square. It was the last project of Kim Jong Il's rule and first to inaugurate Kim Jong Un on the Juche centennial, after only a year of construction. Eighteen buildings, the highest three of 48 floors, with dominant cylindrical form were the first to include exterior LED illumination and animate the night panorama of Pyongyang. The complex starts the wave of modernization: glass façades previously reserved for hotels and public facilities are applied to apartment towers, ground floors with shops and restaurants and well-designed public spaces with street furniture, green parterres and biking lanes. The composition consists of varied volumes and different heights, disposed in order to create new referential points in the skyline, until then dominated by the unfinished pyramid of Ryonggang hotel. At the same time it articulates the connection between the most important symbolic spaces and the Taedonggang waterfront. The three tallest skyscrapers of 40 floors are closest to the Okryu Bridge and mark the crossing with the central Sungri Street.

From here, the view opens to the other side of the river on the cultural facilities along the river bank, the square in front of the Monument of the Party Foundation, now accentuated by the new complex of General Hospital

and the Juche Tower esplanade. The complex ends at the height of Somun St., a landscaped monumental promenade that starts at the Great People's Study House and connects important sights as old and new Mansudae theatres, Palace of Youth and Students, Supreme People's Assembly Hall and the esplanade with Museum of Korean Revolution and the Great Monument. The complex is innovative and at the same time context related, revealing a new attitude towards the urban space: it outlines the value of the position, of the views and the close connection to the city's symbolic core. The spectacular projects that start with the Changjon Street and concentrate on refurbishment and improvement of the central Pyongyang have been named "Pyonghattan" by the western media.[7)]

The continuation of Mansudae Street towards the ancient Pothong Gate is the border of the recently announced project for 800 apartments in terraced houses.[8)] The project contains around 50 buildings of unusual variety of volumes and heights, from 3–4 stories small buildings to 15 stories blocks located at the corners of the area as landmarks.[9)] The river front continues the historic Chollima Street, built in 1970s as the first among series of monumental residential avenues. The architecture of the terraced houses is used to functionally resolve the slope of the Mansu hill, a very effective formal resource along the waterfront, previously applied more in hotels or public buildings than in residential projects. The design based on accumulation of recessed cubes finished in a combination of white/brown plaster and ceramic tiles is extended to all elements of the complex either as volume or as geometry. The novelty are the rooftop pergolas and shading devices that announce the possibility of communal use of these spaces or of their attachment to apartments below in order to increase their real-estate value. Terraced houses occupy one of the very few undersigned areas in the "monumental triangle" of central Pyongyang delimited by the two rivers and the direction of the train tracks. The newly designed waterfront continues the monumental public facilities along Chollima Avenue: Ice Rink, the sports hall

7) Wainwrigt, O. "The Pyonghattan project: how North Korea's capital is transforming into a 'socialist fairyland'", The Guardian, Sptember the 11th,2015.
8) "Construction of Residential District of Modern Apartment Buildings on Bank of River Pothong Starts", Rodong Sinmun, April, 1st,2021. www.rodong.rep.kp/en/index.php?strPageID=SF01_02_01&newsID=2021-04-01-0003
9) Williams, M. "Pyongyang Development Projects off to a Strong Start", 38 North, April 15th2021.https://www.38north.org/2021/04/pyongyang-development-projects-off-to-a-strong-start/

and the People's Palace of Culture that remember the first victory of the Korean Construction: the channelization of Pothong river in 1946 that secured large city areas from frequent floods.[10)]

The opening of the Mirae Scientists' Street in early November of 2015 was part of celebrations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 Workers' Party foundation. The high standard housing complex for over 2.500 apartments is located on the Taedong waterfront, in front of the Yanggak Island, between the Yanggak and Chungsong Bridges. The complex consists of 30 buildings, the majority housing blocks accompanied by commercial, cultural and sports facilities. Two important visual references frame the avenue: the twin towers of 40 floors destined for the professors and researchers of Kim Chaek University of Technology, finished in terracotta coloured tiles and the great tower of 53 floors with floor plan shape inspired by the atomic orbits and crowned with a pole with this symbol of science. Mirae Street redefines the Pyongyang skyline and introduces a variety of forms and heights, pointing to imaginary of other east-Asian big cities; it values the position and the views, but at the same time provides a visual connection between significant city points: the train station and the Pyongyang-Kaesong highway and Tong Il Avenue. The atomic shaped skyscraper, close to the point of the Suk Island shares the formal inspiration of the Sci-tech complex built simultaneously in 2015.[11)]

2) Revalorization of historic sites

Another spectacular housing project opened on April the 15th 2017 in Ryomyong Street connecting the April 15th House of Culture (location of the past three congresses of the WPK) and the Kumsusan palace, the Kim family mausoleum. Located between these two historic points, the complex incorporates the premises and rectorate of the Kim Il Sung University built after the Liberation War, within the range of public facilities and open spaces. The entrance to the new neighbourhood is marked by the tower of Eternal life- the tallest among the obelisks built after Kim Il Sung's death. Ryomyong Street was the star project after the 7th Workers' Party Congress, much publicized and visited by Kim Jong Un on different occasions and built in a

10) Mateos Miret, R., Prokopljević, J. (2012): Corea del Norte, Utopía de Hormigón. Arquitectura y urbanismo al servicio de una ideología. Brenes, Sevilla: Muñoz Moya Editores.

11) Wainwright, O. (2018). Inside North Korea, Köln: Taschen

record time of one year.

The most prominent landmark of the neighbourhood is the second tallest skyscraper of the city, the 70-floor green tower. The street is much wider than Mirae Street and is a sign of the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despite the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The idea behind these huge and fast developments is that the people can appreciate the change as expressed by one of the participants in the construction: "In five years you can witness the change," Rim Duk Jae – a 58-year-old factory section chief from Ryanggang Province – told NK News following the ceremony. "When you wake up you see different things and when you go to sleep you see different things, the Korean people have worked fast with strong energy and we have built many modernized buildings."[12] This was a message the government was keen to convey in the face of mounting economic sanctions against the country. In fact, the Prime Minister's speech at that the opening stated that this construction was a demonstration that the limited external economic exchange due to the long lasting sanctions, were not having their desired effect, and that the DPRK was growing stronger.[13] The street itself also contains evidence of emerging trends in the city's construction boom with solar panels featuring on many of the buildings. While many of Pyongyang's residents have used privately owned photovoltaic solar panels in recent years to supply the energy needs, the appearance of solar panels on public buildings, communal housing and solar powered street lights point to the government's increasing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14]

In March of 2020 Kim Jong Un ordered the construction of the new Kim Jong Suk Avenue in the area of Pipa-dong and Minhung-dong in the Moranbong district[15], a historic area next to the Arch of Triumph and Kim Il Sung Stadium, the place where freedom and independency were proclaimed

12) Macdonald, H., Hotam, O. "North Korea opens Ryomyong Street in Pyongyang", NK News, April 13th2017.https://www.nknews.org/2017/04/north-korea-opens-ryomyong-street-in-pyongyang/

13) Feron, H., "Pyongyang's Construction Boom: Is North Korea Beating Sanctions?" 38 North, July 18th2017.https://www.38north.org/2017/07/hferon071817/

14) "Green Architectural Technologies Applied to Construction of Ryomyong Street", KCNA, March 14th2017.http://www.kcna.kp/kcna.user.article.retrieveNewsViewInfoList.kcmsf#this

15) Jeong Tae Joo, "Kim Jong Un orders construction of "Kim Jong Suk Street" in Pyongyang", Daily NK, March 6th2020.https://www.dailynk.com/english/kim-jong-un-orders-construction-of-kim-jong-suk-street-pyongyang/

by the new leader in 1945. Symbolically it is the ideal area to pay homage to the leaders' revolutionary grandmother and has already been considered by Kim Jong Il. The area has been densified over the last decades with construction of private residences of the high-ranking officials, even plurifamiliar private buildings, and has been researched by Dongwoo Yim as one of the examples of the post socialist urban tendencies in Pyongyang.[16] The importance of the location, good connections and supplies made it attractive for investment, facilitated by the lack of a definite urban plan for the area. The situation has generated a certain conflict of interests and although the project is being studied by the experts at the Pyongyang University of Architecture and Construction and the Building Materials Institute, the plan has not been revealed yet.

The central Pyongyang has been organized around two symbolic axis that unite public spaces on two banks of Taedong River: the axis Kim Il Sung square – tower of the Juche Idea and the axis Great Monument on Mansu Hill – monument to the Foundation of the WPK. The second axis has been recently modified to include the huge volume of the new General Hospital of Pyongyang. The five-story-high base of the building occupies the whole block in front of the Monument and two towers rise up to 20 floors on both sides of the central axis. The ground-breaking ceremony took place in March 2020, when the whole world went under lock-down due to COVID pandemics. The construction was announced as a 200 days campaign, getting this mayor healthcare centre ready for the celebration of the 75th anniversary of the KWP Foundation[17]. Despite the global pandemic that maintained North Korea with all the borders closed, new hospital was built as a referential centre for COVID struggle and a modern high standard hospital with the new equipment, a helipad and a roof-garden.

The towers of the new hospital still maintain the direction of the symbolic axis, whereas the new volume blocks the view on the Party Foundation Monument with the flag-shaped housing blocks designed as its background.

16) Yim, D., Luna R. and Prokopljević, J. eds. (2016) Unprecedented Pyongyang, Barcelona: Actar

17) Zwirko, C. "Kim Jong Un orders large new Pyongyang General Hospital to be b uilt by October", March 17th,2020.https://www.nknews.org/2020/03/kim-jong-un-orders-large-new-pyongyang-general-hospital-to-be-built-by-october/?t=1587164372307

This way the hospital is elevated to a level of symbol of the Kim Jong Un's era improvement of all kind of public facilities, starting from transport, tourist and leisure time, to cultural and educational. The General Hospital is the latest in a row of efforts to improve the bad healthcare situation since 2012 when a breast-cancer wing was added to the nearby Maternity Hospital.[18)]

3) Defining the city gates

The construction wave in late 1980s in times of the Seoul Olympic Games and the International Youth Games of Pyongyang impulse the construction of new residential neighbourhoods outside the limits of the Post-War city plan. Kwangbok Street marked the entrance to the capital from the west, from Nampho by the Youth Hero Highway. During the 1990s Tong Il Street was built on the south bank of the Taedong, featuring the Reunification Arch that welcomed the travellers coming by the Kaesong Highway. On the 23rd of March 2021, following the 8th Congress of the WPK, important announcements for new construction have been made: 50.000 thousand new apartments to be built in the course of the five-year plan, whose completion in 2025 will be part of the celebration of the 80th anniversary of the WPK foundation[19)]. The ground-breaking ceremony for the first complex of 10.000 units took place in Songsin and Songhwa areas in southeast Pyongyang[20)], near Tong Il Avenue, a spectacular new neigbourhood to be finished in only a year to celebrate 110 years of Juche, but also the first decade of Kim Jong Un's rule. Again, the implementation of the updated "Pyongyang Speed" will be crucial for the success.

The Saesalim Street, the main axes of the project marks the entrance to Pyongyang from the east, connecting the Wonsan Highway with the city centre. The images published in the media partially reveal the details of the project that extends between the train tracks leading to the Songsin Station to the Taedonggang Beer Factory. Around 30 buildings form part of the complex,

---

18) "Construction Begins on New Pyongyang General Hospital", 38 North, March 26th2020.https://www.38north.org/2020/03/pyhospital032620/

19) "Let Us Renovate Our Capital City Splendidly Once Again by Building 50 000 Flats", Rodong Sinmun, March 24th,2021http://rodong.rep.kp/en/index.php?strPageID=SF01_02_01&newsID=2021-03-24-0002

20) "Ground-Breaking Ceremony of Project for Building 10 000 Flats Held in Pyongyang", Rodong Sinmun, March, 24th,2021.http://rodong.rep.kp/en/index.php?strPageID=SF01_02_01&newsID=2021-03-24-0001

with heights between 20 and 30 floors for residential blocks and up to 8 floors for public facilities. The landmark is the tower over 50 stories high with triangular floorplan and curvilinear petal-like rooftop design. The combination of white concrete/plaster geometric elements and reflective glass dominates the façades, altered with brown-terracotta ceramic tiling. The public space is richly landscaped and the green spaces extend to the rooftops of the public facilities, designed as connecting elements between the neighbouring residential blocks or as corridors crossing the avenue. Apart from another new spectacular avenue, the project announces the redesign of the surrounding areas of the eastern Pyongyang where extended areas are still dominated by the one floor family houses or the 5-stories collective blocks, with high density of occupation that reveals the lack of green and public spaces.

All these projects generate a spectacular image of the North Korean capital, an image created through steel and glass façades, bright pastel colours and skyscrapers up to 70 floors. They also denote a change of understanding of urban space, and introduce postmodern and even post-socialist features, such as evaluation of specific locations as function of nice view, proximity of parks, waterfront or in the city centre . They also improve the design and use of public spaces by decreasing the scale of the street section and including tertiary activities, biking lanes and landscape design on the street front. The mixed use: housing with commerce, culture, amusement and sports is the most important qualitative change in the central areas of Pyongyang. The formal language of the new complexes is not anymore uniform, a reflection of the repeated modular system with a limited range of variations, but rather generates a diversity of forms, volumes and colours. The new avenues are composed as a system of accents: formal as in the atom-shaped skyscraper in Mirae St., height or materials as in the green glass skyscrapers in the Ryomyong Avenue, as well as the triangular skyscraper to be built in the Saesalim Street generating multiple relations with the city, different views, and different images.

3. Conclusion: Complexities of the present context

The projects of the first decade of the Kim Jong Un's rule have changed gradually the image of Pyongyang by introducing different understanding and evaluation of the urban space, by treating differently the public spaces and

public facilities. The early projects of the decade transformed the old amusement parks into modern leisure time facilities –Mangjongdae or Rungra parks, Pyongyang Zoo were renovated– and also new centres were created using modern technology and materials, like Munsu waterpark. They were the first examples of the application of the "People first policy" that has also been applied to the new avenues, public facilities and free spaces that complement residential complexes.

Nevertheless, apart from improving the qualities of the urban and residential space, the spectacular image of the new projects lies among the main objectives of their construction, overcoming the imposing image of the large constructions from the 1980s. The locations of new residential avenues are selected to reframe specific landmarks or views in the urban panorama and convey a different meaning to the historic and monumental sights. At the same time their function is to correct and improve the development of the specific areas that in case of the newly planned Kim Jong Suk Street contradicts the growing tendency of private small-scale investment in housing. The similar tendency seems to guide the construction in the Eastern part of Pyongyang concentrated around the new Saesalim Avenue.

The formal characteristics of the new projects reflect the ambition to form part of the international modernity, more than to represent the national character. Although, according to the Kim Jong Un's guidelines, they are expected to be identified as Juche inspired, this feature is only recognized through specific details of curved and floral shapes. The forms of atom-like plans of Mirae Stree skyscraper or of the Suk Island Schi-Tech centre refer to political discourse of the nuclear technology and defy the international opposition on this matter.

Unlike the Kim Jong Il's insistence of inclusion of elements of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the architecture of the 21st century maintains a more subtle relation with history. New complexes are positioned to underline or connect historical sites: Changjon St. is related bot to Mansu Hill and Kim Il Sung Square, Ryomyong with Kumsusan Palace, Kim Il Sung University, new project of terraced houses is also linked with the Pothong Gate and Mansu hill, etc. It is through these set of physical and visual relations that these new elements develop their sense of belonging to the urban and political history of

Pyongyang. In case of the recently finished General Hospital, the new facility is placed in a centre of an important historical urban axis, generating a new set of urban relations and interpretations. It exemplifies a victory in the high-speed construction at the same time as it provides a crucial healthcare centre[21] in times of COVID pandemics.

The present energetic situation of North Korea as well as the global trends call for energy efficient and environmentally responsible design. These directives are also included in the Kim Jong Un's guidelines for improving the architectural design. However, the green design features are only partially present in the new residential complexes where the dominance of reflective glass and reinforced concrete involve highly polluting material industries and construction techniques. The interior comfort of these buildings depend on considerable energetic consumption and generally the production of energy is restricted to solar panels, mostly for the heating systems.

Finally, the spectacularity of the new Pyongyang projects reveal the contradiction with the productive capacities of North Korea, highly dependent on the importation of materials and technologies and on the employment of the armed forces in construction works. The recent natural disasters: storms, floods and pandemics, have put additional weight on the complex situation already loaded with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The execution of come the projects was put on hold meanwhile.

Kim Jong Un has recently announced the severe economic situation that the country is going through over the last two years[22] , and nevertheless enormous investment is destined to the military development and enormous construction works are being planned. Similar to previous decades, they are the monument to the regime's resistance to all kinds of adversities, its capacity to control the nation's workforce and its will to insert Pyonyang, through its architecture, on the map of developed Asian capitals.

---

21) Yim, D., Luna R. and Prokopljević, J. eds. (2016) Unprecedented Pyongyang, Barcelona: Actar

22) "Kim Jong-un warns of North Korea crisis similar to deadly 90s famine", BBC, April 9th2021.https://www.bbc.com/news/world-asia-56685356

Contradictory architecture of the Kim Jong Un decade
Reflections on the recent projects in Pyongyang

Jelena Prokopljević, dr.arch.
Barcelona School of Architecture,
International University of Cataloina UIC

Kim Il Sung: Architecture as necessity

Reonstruction after the Korean War, prefabricated construction,
Chollima movement

Kim Jong Il: Architecture as propaganda

Changgwang Avenue (1985), Great People's Study House (1982), Mayday Stadium (1989). "The Art of Architecture" (1991)

WORKING PEOPLE OF THE WHOLE WORLD, UNITE!

KIM JONG 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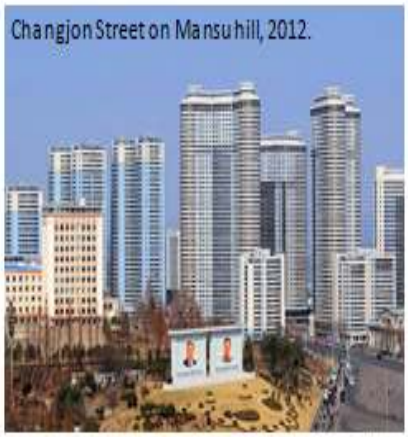
LET US USHER IN A GREAT GOLDEN AGE OF CONSTRUCTION BY THOROUGHLY APPLYING THE PARTY'S JUCHE-ORIENTED IDEA ON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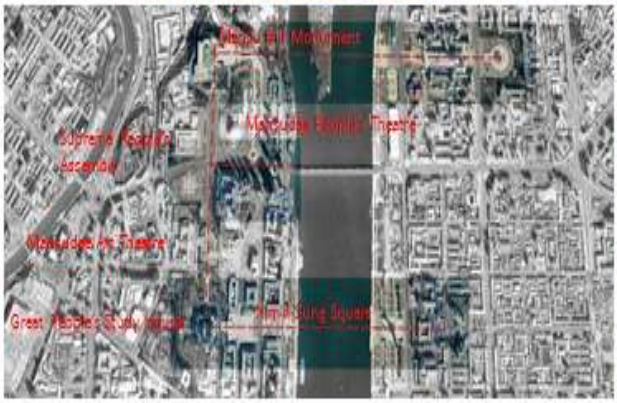
Letter to Those Attending the Grand Short Course of Officials in the Construction Sector
December 8, Juche 102 (2013)

- Scientific approach to design
- Application of new technologies
- Innovative form, in line with international trends
- Juche character: combine the national identity with modernity
- Distinctive design
- Comfort and functionality of buildings
- Green design – energetic efficiency, environmentally responsible
- Landscape design
- Research and innovation in building materials
- Innovation in structural solutions
- Cost-efficient design
- Improvement of local production of building materi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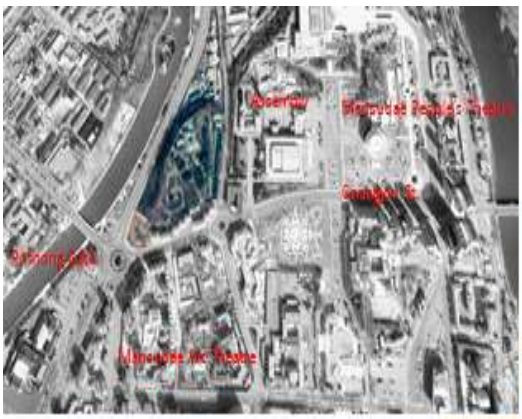
Utopian Tours: projects by Paektusan Academy of Architecture, Pyongyang (Koryo tours, 2014)
exhibition "Crow's Eye View", Venice Biennale of Architecture 2014

Changjon Street on Mansu hill, 2012.





Changjon Street LED illumination



Terraced Apartments Project, 2021.

Terraced Apartments Project, 2021.

Mirae Scientists' Street, 2015.

Mirae Scientists' Street,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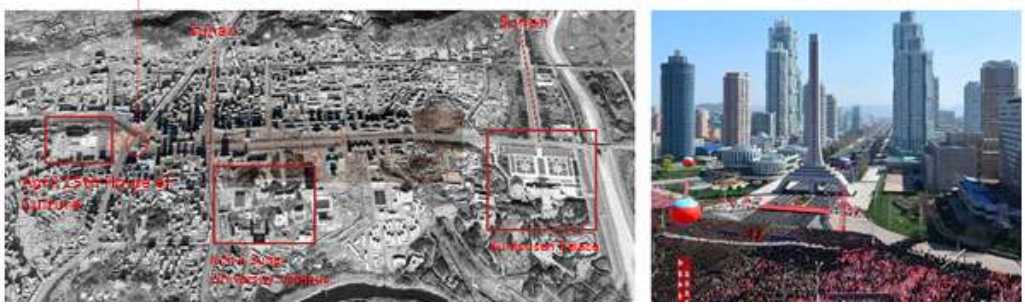
Urban referents, divesity of forms, public facilities

created urban denisty, variety of views, design of the public spaces

Revalorization of historic sites

Ryomyong Street, 2017.

Ryomyong Street,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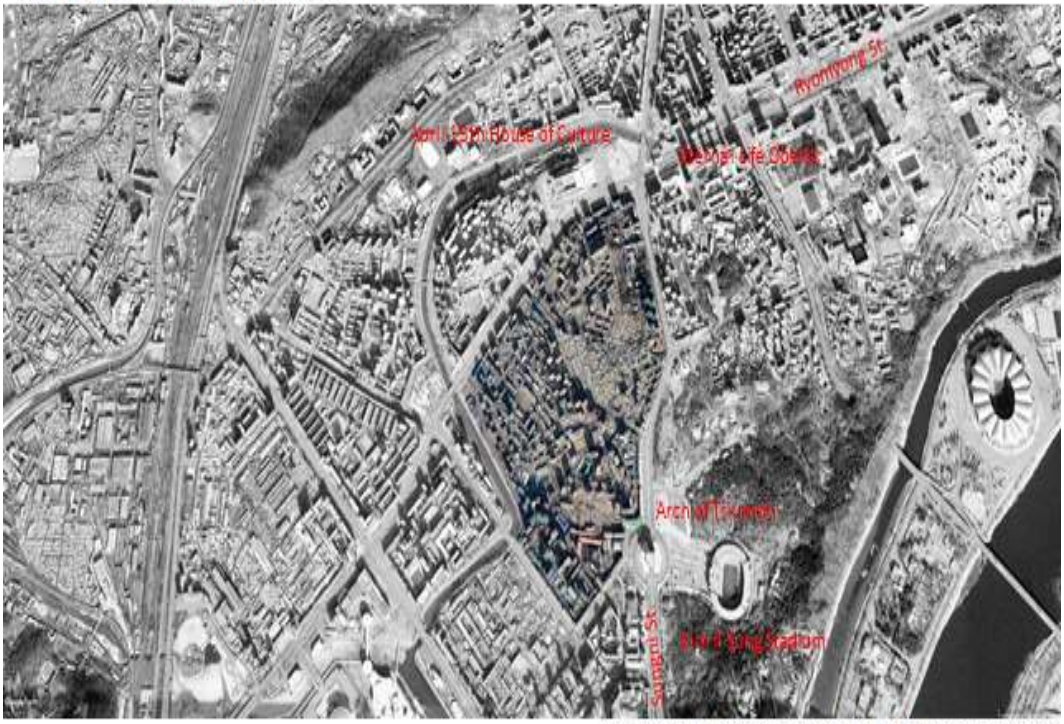


Urban referents, public facilities, landscape design, green design

Ryomyong Street, 2017.

Ryomyong St. design of public spaces, paving, street furniture, solar energy

Kim Jong Suk Avenue Project,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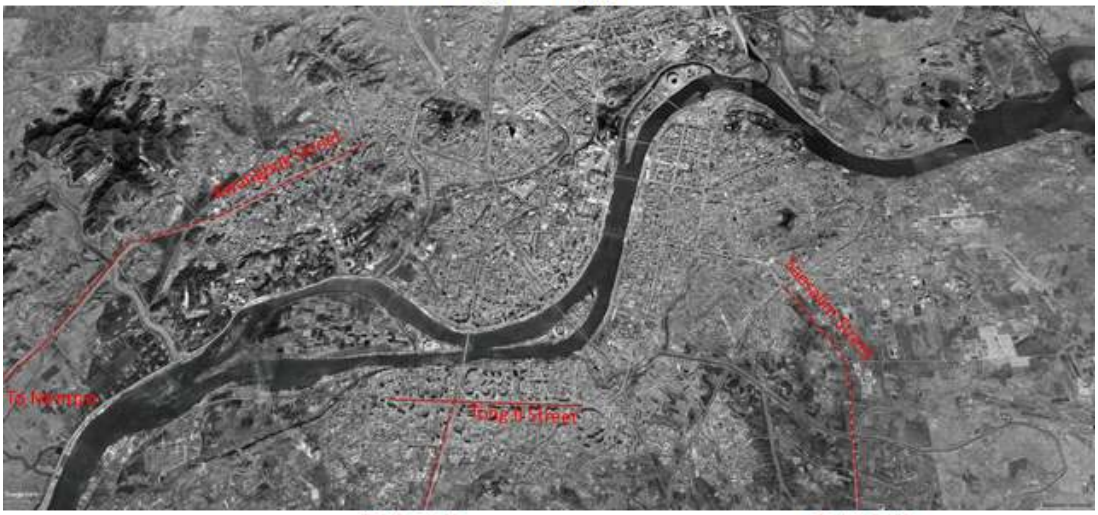
Pipa-dong and Minhung-dong in the Moranbong district

Housing construction in Pipa-dong and Minhung-dong. Urban densification between 2000 and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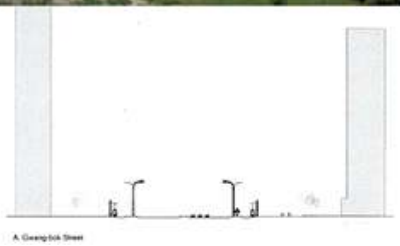
General Hospital of Pyongyang 2020-2021

General Hospital of Pyongyang 2020-2021

Defining the city gates



Kwangbok Street, 1989.



Tong-Il Street, 1992

Saesalim Street project, March 2021.

Saesalim Street project, 2021.

Changing panorama of central Pyongyang: mural painting at the Paektusan Academy of Architecture

2009. (J. Prokopljević)

2018. (O. Wainwright)

Thank you!

발표 3

화해 후의 평양을 상상하며

애니 패드렛
(서울대 미술대학 교수)

1. 연구 범위

미래를 학술적 연구대상으로 선정하는 과정에는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 미래는 흔히 공상과학 소설 같다고 여겨진다. 미래 예측은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단일 경로를 설명한다. 지금까지 예측이 틀려왔던 역사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회의감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미래예측은 “와일드카드” 사건들까지 예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예측이란 미래를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다. 미래 예측은 실패해온 예측의 역사를 고려했을 때 회의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정당(warranted)하다.

연구대상으로서 평양은 본질적으로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 평양은 반영구적으로 멈춰진 국가이다. 도시의 미래는 화해 형태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화해 역시 미래의 “와일드카드” 사건처럼 놀라운 사건들의 역사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를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한과 평양의 데이터는 일관성이 없으며, 문서가 만약 존재하더라도 이를 접근하기가 어렵다. 평양으로의 직접적인 접근은 “가시성(visibilities) 정권”이 통제하며, 방문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왔는지에 따라서 접근이 통제된다. 간접적으로만 알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인식론적(epistemological) 질문들이 생겨나며, 평양이라는 도시의 미래를 진지하게 연구 주제로 선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저자는 직접적으로 알 수 없는 대상일지라도 미래를 조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단 알 수 있는 것들을 아는 점에 대해 전통적 인식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며, 평양의 미래처럼 알 수 없는 일들을 조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상상력 및 가상(fiction)을 기반으로 하는 대안적 인식론을 수용해야 한다.

과거를 통해서 북한 건축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려면 북경에 거주하는 탈북자의 그림 같은 상상력이 필요하다 (2014). 이것들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건축가를 지향하는 시골의 전원(idyll), 역사적 전원, 콘크리트라는 현대적 물질의 역사적 형태 등의 이미지이며, 과거 1960년대 텔레비전 만화였던 젯슨 가족을 보면서 미래를 내다볼 수도 있다.

2. 상상력

상상력이란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 아니며, 환상도 아니며, 현재 상황을 정교하게 비판하는 것도 아니다. 상상력은 창의력이 아니다. 물론 창의력에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상상이란 단순이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며, 논리를 절제 없이 약화시키는(counter-faculty)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술가들만이 가질 수 있는 역량도 아니다. 상

상력은 창의력을 자극하는 참신함을 만들어 내는 선에서 멈추지 않는다. 상상을 하는 것은 머리 속 구석 한편에서만 하거나 특별할 때만 하는 활동이 아니다. 상상력이란 우리 머리 속의 이미지를 만드는 인지(cognitive) 과정이다. 상상력이란 인간이 대상·상황에 대한 내적인 시각화 혹은 청각적 심상을 형성하는 힘이자 역량이다. 상상력은 모든 인간의 인지 과정의 중심에 각기 다른 수준의 인지·논리·추측·실험·자율활동으로 존재한다. 상상력은 예술가들만 가질 수 있는 인지 능력이 아니며, 이성 및 "과학"에 상반되는 것도 아니다. 상상력이란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거나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생각하는 역량이다. 즉 특별한 형태의 인지(knowing)이다. 상상력은 생소하고, 새롭고, 아직 존재하지 않는 주제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상력은 사실과 가상을 연결하고, 과거·현재·미래를 연결한다. 다른 형태의 상상력은 데이터 분석, 시나리오 도출, 소설 및 디자인 과정에서도 활용된다.

상상력은 인식과 추론하는 분별력(sense-making), 그리고 추측·실험·자율활동 부분에서 틀을 깨는(sense-breaking) 역량 같은 인지기능과 광범위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일관성 있는 종합적 "이미지 형성" 및 알려진 현상에 대한 "분별력"에 있어서 상상력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프로젝트 추진 시 "틀을 깨는" 파괴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상상력이란 우리가 무언가를 처음 봤을 때 이해하는 방식이며, 세상을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무질서한 세상의 이질적인 요소들을 인지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이다. 상상력은 우리의 전략과 행동에 방향성을 제시한다. 인간이 머리 속에서 이미지를 만드는 이 역량은 인간이 놀라운 세상과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창조해버린다.

상상력은 인지적 분별력 기능에서 필수적이다. 상상력은 세상을 생리학적으로(physiologically) 안정적·일관적으로 만든다. 우리의 시각적 인지기관인 눈은 우리가 무언가를 따라갈 때만 눈과 머리가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며, 정지된 물체를 응시할 때도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예로 감각적 정보 유입이 중단되면, 눈은 무의식적으로 20-200 밀리초(1000분의 1초) 동안 안구운동(saccadic)을 하거나 더 빠르게 움직인다.

인지적 연속성 혹은 세상의 이미지를 안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심리를 달성하려면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 '해결(resolving) 활동'이 필요하다: 생물학적(직접 경로), 문화적 중재(간접적 경로) 및 개인의 상상력(빈틈을 채움)이 있다. 대상(사건 혹은 현존하는 물건)과 (자신을) 연결하는 직접 경로는 생물학적 감각을 통해 발생한다. 동시에 물체/사건 같은 대상과 간접적 경로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개인의 역사·문화와 연관된 느낌·기억 "이미지"로 중재된다. 구체적으로는 "이미지", 느낌, 기억, 존재론(ontology) 행동 절차, 개인의 인식론 등이 있다. 직접·간접 경로의 입력 간의 간격

이 존재하며 – 우리의 경험과 그 경험을 문화적·존재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사이의 간격 – 그 간격을 인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우리가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모든 순간마다 일정한 새로움이 생겨나며”, 그 수준은 미지의 영역이다. 상상력은 감각이 매 순간 입력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일치 간격을 채우며, 우리가 세상을 안정된 이미지로 경험하게 만든다. 현상이나 설정이 낯설수록 간격은 더 커지며, 상상력은 이들이 보는 것을 이해하고, 세상의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들이 실시간으로 행동·생각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정상적인 추론으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간격이 큰 상황에서, 상상력은 다르면서도 때로는 참신한 가능성과 대안을 제시하며 추측·실험·자율활동 같은 간격을 해결해야 한다.

연역법(deduction), 귀납법(induction) 및 귀추법(abduction)의 논리적 과정은 모두 다양한 형태·기능의 상상력에 의존한다. 연역적·귀납적 추론은 증거 기반의 결론을 찾으나, 직접적으로 결론에서 시작하지는 않으며(follow from), 관찰·논리적 추론·상상력 일부에 의존하여 공백을 채운다. 귀추적 추론은, “최선의 설명” 가설의 추론으로도 불리며, 관찰결과·가설·실험을 토대로 현상의 원인으로 회귀(recursive)하며 추론하는 과정이며, 타당성과 의미를 찾아서 새로운 가설을 수립한다. 이 과정은 상상력에 달렸지만, 추론 과정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귀추적 상상력이 앞서 나가면, 뒤에서 추론이 정리하며 따라온다. 디자이너도 귀추적 추론으로 복잡한 상황에 대처한다. 귀추적 추론의 최극단 선에서 상상력은 인지·추론으로 세상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며, 더 나아가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않거나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해내는 작용제(agent)로 활동한다.

상상력은 인지적 기능에서의 추측·실험·자율활동에서 틀을 깨고(sense-breaking) 새로운 것을 만들 때 필수적이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이미 알고 있으며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급진적인 새로움”과 이상함을 쫓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간격은 계속 커져간다. 틀을 깨는 역량으로 알 수 없었던 것(unknowable)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역량은 사실에 덜 의존하며, 상상력에 더 의존한다.

추측(speculative)에 입각한 상상력은 공상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배우도록 틀을 깨주는 인지능력이다. 추측은 사실에 입각한 인지기능이며, 미래를 상상력으로 추측한 것을 바탕으로 현재 가능한 경우의 수를 창의적으로 검토한다. 추측은 종합적·생성적인 기능을 하며, 문제해결 수단이기도 하다.

실험적 상상력은 인지, 추론, 그리고 추측을 상상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경우의 수(field of play)를 요구한다. 실험적 상상력은 핵심기능 버튼을 꺼버리고, 새롭고 이질적인 것들을 시도하며, 대신 즉흥적인 핵심역량에 의존하여 행동·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자율활동(free-play)이란 인지적 스펙트럼에서 가장 생성적인 성향의 기능이다. 자율활동은 감각을 통합하기 보다는 새로움을 만들어내며, 계획에 없었고 예상하지 못한 이미지를 만든다. 에너지와 놀라움이 생성된다. 자율활동은 무의식, 감정, 우연한 발견, 그리고 직관에 더 관련되어 있다. 자율활동은 추론·추측처럼 융합되기 보다는 갈라지는(divergent) 활동이다. 자율활동은 경계선을 밀어서 확장하기 보다는 그 선을 넘고 깨뜨리는 것에 집중한다. 실험보다는 혼란을 일으키며, 창조적 역사와 결별하며, 자신의 한계를 정하지 않는다.

3. 방법론: 알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되는 방법

공간전략연구소가 개발한 방법은 다른 종류의 사고방식을 다룬다: 분석(데이터), 분석 담화(시나리오 방법), 가상(소설), 실험, 추측, 자율활동, 그리고 투영적 사고(기술 및 디자인). 각 단계는 비전의 다른 측면을 생성한다: 시나리오 방법은 미래의 맥락을 만들고, 가상 소설은 미래의 사회적 행동을 위한 근거를 준비하며, 그리고 디자인은 도시의 미래모습을 구체화한다.

1) 시나리오

시나리오 방법은 단일 경로 예측에 의존하지 않는 미래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시나리오는 미래에 대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이미지를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가능한 경우 및 심지어 타당하고 동등하게 타당한 대안적 미래를 제시한다. 시나리오는 무엇이 가능한지는 탐구하는 수단이다. 시나리오는 물리적 세계가 생겨날 수 있는 가능한 미래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맥락을 생성할 수 있다. 예측과 달리 시나리오에는 혁신, 우발상황,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결과의 가능성들이 포함되며, 가능한 것, 그럴듯한 것, 있을 것 같은 것들도 고려한다. 시나리오는 “미래에 대한 체계적인 성찰보다는 예측에 더 가깝다.” 시나리오의 목표는 “훨씬 더 넓고, 깊은 가능성을, 심지어 그럴듯한 미래 시나리오들”을 생각해서 미래로 나아갈 전략적 결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나리오 프로세스는 “만약에(what if?)”라는 질문에서 시작한다. 일단 시각화되면 “우리가 사는 미래를 향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고민한다. 어떤 가능성이 나타나는가? 바람직하지 않은 미래를 피하기 위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만약”의 상황에 기반한 시나리오 방법은 사고구조를 자율적·비판적 행동으로부터 투영적(projective)인 행동으로 전환된다.

여기에 사용된 시나리오 방법은 5단계 회귀(recursive) 프로세스였다. 첫 번째 단

계는 미래 평양이 도시 형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주요 요인과 하위 요인을 식별하고, 변증법(dialectic) 담론으로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두 가지 주요 요소를 판단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과거·현재의 데이터 흐름을 수집·분석하고, 이를 미래 추세의 다양한 궤적에 투영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두 가지 핵심요소를 기반으로 시나리오 대안을 발전시키고, 핵심요소 및 연관된 하위요소를 찾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시나리오의 초기 이야기 혹은 미래의 역사를 작성한다. 네 번째 단계는 변증법 담론 및 가상의 이야기로 시나리오의 통일성·일관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때 미래 시나리오에는 줄거리와 가상의 인물이 설정된다.

2) 가상의 이야기(narrative)

가상의 이야기는 미래 현실의 타당성을 실험하고, 추상적인 데이터와 추세를 바탕으로 미래사회의 합성 이미지를 제공하는 도구 역할을 수행한다. 가상의 이야기는 추상적인 정량적 데이터 및 일상에서 데이터가 줄 수 있는 영향력이 느껴지도록 촉감을 부여한다. 이야기는 경험·감정·사회적 절차, 그리고 미래 시나리오 속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일상생활 환경에 대한 “급진적 공감” 도구이다. 소설은 시나리오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도구 그 이상의 존재이며, 추측과 놀이에 필요한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한다. 소설을 통해 우리는 현재 세계와 시뮬레이션 된 미래를 교차할 수 있다. 소설은 미래의 대안적 비전을 탐구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빈 이상향(dystopian)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내는 심리적 어려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격리하게 해주는 “영화 같은(diegetic) 완충” 역할을 한다. 가상의 이야기는 미셸 드 세르토가 주장하듯이 아직 다가오지 않은 사회적 행동의 실현에 앞서서 “발견”하고 “현장을 창조”하는 “공간적 이야기” 기능을 한다. 가상 이야기는 우리가 점진적인 변화를 넘어서게 한다. 공간에 대한 담론은 예상되는 미래의 건축도면도 있으며, 가상의 이야기이자 공간에 대한 담론이다.

3) 디자인

디자인은 상상력 소재를 만든다. 디자인 픽션(fiction)은 가상의 미래의 맥락에서 가상의 물건·사건을 표현해내는 디자인 방식이다. 디자인 픽션은 가상의 이야기처럼 상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일종의 유희적인 사고방식이다. 디자인 픽션은 자유로운 추측을 허용하는 일종의 놀이이다. 디자인 픽션은 사물을 만드는 방법이자 이해하는 방법이며, 다른 의지·가치의 결과를 탐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디자인 픽션은 가상의 이야기로 쓰여진 형상화 이전의 모습(pre-figuration)이며, 형태가 주어짐으로써 실현될 가능성이 더 가까워진다. 디자이너는 현실과 가상 세계를 쉽게 이동할 수 있다. 디자이너가 일하는 잠정적 방식, 귀추적 추론법, 그리고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투영 역량은 미래가 “마치(as if)”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미래를 구체화시키는

방식을 최적화시킨다.

4. 프로젝트: 알 수 없는 내용(unknowable)의 시각화

2050년 평양의 공간적 미래 프로젝트는 우리 삶에 남은 30-25년 기간의 중기적 미래를 전망하며, 현재 결정을 내리는 현실·기관들을 채찍질한다. 평양 프로젝트의 미래에 관한 유일한 전제조건은 한반도의 화해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이어지는 승자-패자 시나리오의 형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통일은 양측이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하는 일종의 화해의 형태를 취해야만 한다. 많은 집단들은 북한의 경제·정치 체제를 2050년 평양의 도시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으로 선정했다. 총 4개의 미래 시나리오를 통해 기념비와 기념비적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었다.

1) 선형(Linear) 도시

선형도시 프로젝트는 평양과 서울의 미래 발전이 상호연결된다는 전제에서 진행된다. 시간이 지나며 평양은 남쪽으로 확장하고, 서울은 북쪽으로 확장하며, 두 도시 사이의 기존·신규 철도노선을 따라서 도시개발이 연결된다. 철도로 두 수도 및 그 사이의 "신도시"를 쉽게 이동할 수 있으며, 동시에 두 도시가 직면한 미래 인구문제도 완화되는 시나리오가 예상되었다. 선형도시의 배경은 여러 정당과 혼합경제가 존재하는 정치체계이며, 중국 경제체계를 모델로 한 개방적이면서도 통제되는 시장의 조합이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통신·운송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가 유치된다. 기존 철도노선 재개, 승객용 고속열차를 위한 새로운 평행선(parallel) 건설, 그리고 서울과 평양을 연결하도록 고속도로 확장이 제안되었다. 북한으로의 이주는 한국의 고령화 사회, 그리고 낮은 인구밀도와 낮은 주택비용을 추구하면서도 서울로 쉽게 갈 수 있는 신형 열차와 고속도로 인프라를 원하는 서울주민들로 인해 가속화 된다. 면세구역과 다른 자유시장경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외국인의 북한 이주도 촉진된다. 선형도시에서 평양은 농촌지역의 인구유입을 위해 남쪽으로 성장하며, 서울은 높은 부동산 가격과 인구밀도를 완화하기 위해 북쪽으로 성장한다. 선형도시는 서울의 행정단위인 구 기준을 따라간다. 구는 정부·문화·의료·대중교통·학교 같은 자원을 동등하게 공유하는 북한의 사회주의적 이상을 채택하며, 개인고속환승 제도는 모든 구민들이 서울·평양으로 가는 고속철도에 접근할 수 있게 한다.

2) 주체시티

이 시나리오에서 화해는 두 개의 자치 공화국인 남한(RSK)과 북한(RNK)이 하나의 한국연방(Federation of Korea)을 구성하는 형태이다. 한국연방(FK)은 새로운 한국당(KP)이 통치하며, 동수의 북한·남한 대표들이 의석을 차지한다. 한국연방의 권한은 “한국연방 헌법”(2020)에 명시된다. 새로운 한국당은 점진적인 통일을 시작한다. 남한은 특별경제구역이 있는 자유시장경제로서 계속 발전하며, 사회주의 경제체제인 북한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한국의 특별경제구역 모델을 채택한다. 신규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며 전력 부족 같은 인프라 문제는 해결되고, 수출입 지표도 개선된다.

평양 거주 허가증 조건이 사라지며 북한 내부에서 평양으로 대규모 이주가 발생한다. 평양 남부의 주요도로 주변에 열악한 거주지와 불법 정착지가 새롭게 형성된다. 평양으로의 대규모 인구유입은 수년간 높은 실업률로 이어진다. 2025-2030년에는 평양 북쪽에 특별사업지구, 혹은 초현대식 마천루가 있는 “신도시”가 건설된다. 신도시는 관광을 촉진시키며, 남부의 불법 정착촌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2050년까지 더 많은 신도시, 혹은 국제사업지구가 형성되며, 도시의 정치적 양극화가 지속된다. 양측은 주체시티(Juche City)라는 독립 국가(state)를 평양에 건설하기로 통일협상에서 합의한다.

주체시티는 자치·자립의 기본원칙에 기반한 정치·경제적으로 자급자족하는 군주제 국가이다. 바티칸 시티를 모델로 하는 주체시티는 정치적·경제적 자급자족 군주제 국가로서 자주와 “자립” 주체사상의 기본원칙에 기반한다. 2036년에 완공되는 주체시티에는 통일 이전 북한의 전 지도자인 김정은과 1000명의 지지자들이 거주한다. 주체시티는 대동강 동쪽에 위치하며, 주체사상탑(1982) 및 김일성광장(1954)과 같은 축에 있다. 주체시티의 개념은 새로 건국한 북한(RNK)에서 조선을 통치하던 김일성 왕조의 힘을 압도적이며 기념비적인 건축물로 상징하는 것이다. 지도자 권력 승계는 혈통을 따라서 이어진다.

제안된 주체시티는 85만 평방미터 면적 규모이며, 기존 평양에 대규모 거주지를 삽입하는 형태이다. 주체시티는 대동강과 주체사상탑 같은 공공장소에서 시작해서 지도자의 가장 은밀한 주거지까지 올라간다. 세 가지 등급은 각기 다른 접근성을 가지게 된다: 첫 번째 등급인 주체사상탑 주변과 강변의 공공장소는 여행객들과 평양주민들이 도보로 접근 가능하며, 주체 피라미드가 주체 메가몰(Mega Mall)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한다. 두 번째 등급은 주체 군사기지이자 준-사유공간이며, 주체시티가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을 군사 퍼레이드로 기념하는 기간에만 매년 대중에게 공개된다. 그리고 주체국가건물은 주체 지도자와 공무원들만 접근이 가능하

다. 최상층인 세 번째 등급은 가장 비밀스러운 공간이며, 주체 지도자의 거주단지를 포함하는 대형주체건물에 접근이 가능하다. 각 등급 구역은 다른 구역과 경사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탱크가 다른 구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폭이 충분해야 한다. 그리고 각 등급 구역은 5미터 높이의 문으로 분리되며, 주체시티 보안군이 문을 지키게 된다.

이 기념비적이고 위협적인 도시 경관 아래에는 주체메가몰이 있다. 주체메가몰은 주체사상탑보다 높은 공공장소에 위치한 유리 주체피라미드를 통해 출입할 수 있다. 주체피라미드는 의도적으로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보다 크게 지어졌으며, 이 곳의 접근 역시 주체시티 보안군이 통제한다. 주체메가몰은 635천 평방미터 규모인 미국 미네소타 주의 쇼핑몰보다 두 배나 크다. 미네소타 쇼핑몰은 현재 전세계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에서 가장 큰 쇼핑몰이다. 도시를 바라보는 주체시티 성벽에는 주체시티 보안군이 관리하는 상점과 기타 상업시설이 줄지어 위치하고 있다. 주체메가몰은 소매품, 제조시설, 및 디자인 판매 등으로 주권국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며, 과거 북한처럼 기념비와 기념비적인 건축물, 역사적 사건을 그린 대형 파노라마 작품, 영화관, 주체사상박물관, 조선박물관 등이 메가몰에 위치한다.

3) 기념비 & 순간(Moments)도시

기념비와 순간도시는 주체시티 프로젝트와 동일한 정치·경제 시나리오에 기반한다. 모든 사람들의 동등한 사회적·물질적 권리를 보장하는 이념을 대표하는 사회주의 도시에서 기념비의 역할을 인정한다. 이 프로젝트는 새로 형성된 한국연방(FK)과 화해한 한반도에서 김일성 왕조, 조선 인민, 그리고 주체사상을 기리는 기존 기념비가 파괴되지 않는 것을 제안한다. 포스트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정권이 변하면서 기념물을 파괴했던 관행을 따르기보다는, 현재 북한(RNK)의 수도인 평양을 위한 새로운 도시정책을 도입한다.

이 정책은 세 가지 주요 시각적 축을 기반으로 북한의 기념물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설명한다. 첫 번째 축은 김일성광장(연방광장)과 만수대대기념비(1972)를 연결한다; 두 번째 축은 김일성광장과 주체사상탑(1982)를 연결한다; 세 번째 축은 당창건기념탑(1995), 만수대대기념비, 그리고 류경호텔(1989)까지 연결한다. 이 도시정책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는 정권을 보여주는 새 기념물을 추가하는 “기념물 도시”를 만들기 위해 평양에 기념물 층(layer)을 추가하는 전략을 보여준다. 정책은 조선의 주체사상과 민족정체성 중심의 사회주의 도시 특징에 주목하며, 북한에서 활용된 거리, 광장, 기념비적 건축물을 유지시킨다.

“기념물”의 첫 번째 층은 “순간(moments)”으로 부르는 작은 기념비들의 네트워크이며, 기존 사회주의 기념물·거리·광장·명소마다 “순간”이라는 문구를 새기면서 연결시킨다. 케빈 린치의 “경로”와 “랜드마크”를 통한 도시 이미지 이론을 바탕으로 현재 평양의 정체성에 통로를 추가하며, 방문객과 주민들이 도시에 더 공감할 수 있게 한다. “순간” 표기는 기존 기념물을 변경하지 않고도 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순간” 기념물은 시각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으며, 전략적으로 위치함으로써 일부는 숨기고, 일부는 보여준다. 이 정책은 거대한 거리와 공공장소의 공허함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도시가 물리적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미래에 역사적인 사회주의 도시로 기억될 수 있게 된다. 버나드 추미가 설계한 파리의 라 빌레트 공원(1987) 전략과 비슷하지만, “순간”을 사용하여 개방된 공간을 정의하는 대신, 거리와 명소의 기존 기념비를 적극 활용한다.

만수대예술학원 출신의 북한 건축가들이 기획한 통일 이후 국가공모전의 첫 수상작 작품명은 “통일의 순간”이라고 미래의 역사에 기록된다(2036). 릉라도 끝자락에 위치한 이 “순간”은 만수대대기념비 및 당창건기념비와 같은 축에 나란히 위치한다. 이 “순간”은 두 나라의 분리를 상징하기 위해 섬의 끝자락을 자르는 것을 제안한다. 갈라진 틈은 양측이 각기 다른 나라와 역사를 지녔었다는 점을 상징한다. 강변에서는 이 기념비가 거의 보이지 않지만, 시각적 축은 유지된 상태이며, 기념비 내부에서만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

과거 김일성광장으로 알려졌던 연방광장은 한국전쟁 이후 평양 기본계획을 통해 1954년에 완성되었다. 광장은 도시의 영적·물리적 중심지로 남아있다. 광장은 대규모 행사나 군사 퍼레이드 때 활용되지만,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모임장소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방문객은 도시에서 강둑까지 가는 움푹 들어간 대체경로이자 “순간”의 가장자리에서 내려온 뒤, 강으로 이어진 길로 간다. 릉라도의 “순간”처럼 이 “순간” 역시 광장의 시각적 요소를 유지하며, 방문객이 “사회주의 건축 야외 박물관”에서 벗어날 기회를 준다.

4) 롤러코스터 도시

이 프로젝트는 기념물·도시공간과 관련된 기억을 바꾸기 위해 공공장소가 할 수 잇는 역할에 관한 것이다. 롤러코스터 도시 시나리오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고, 김정은 독재가 다당재 민주주의, 사회적으로 발생한 인본주의, 그리고 시장주도 자유시장경제로 대체되는 모습이다. 프로젝트를 관통하는 질문은 “한때 선전의 장소였던 상징적 건물과 구조물, 정부청사, 랜드마크 공간, 광장 및 거리에 대한 북한 시민들의 관점과 기억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이다.

프로젝트는 공공장소를 정치적 이념을 표현하는 공간에서 여가공간으로 전환함으로써 위 질문에 답한다. 롤러코스터 프로젝트의 의도는 통일한국에서 도시의 공공장소가 북한 개인과 시민들에게 김정은 권위주의 밑에서 어려웠던 날들에 대한 개인적·집단적 기억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평양을 상징하고 정체성을 부여하는 기념비와 과거를 제거하거나 파괴하지 않는 것이다.

2050년, 평양 도시 롤러코스터는 세게에서 가장 길고(15km) 가장 높은 지점(150m)에 있다. 지도자, 북한 인민의 상징, 그리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기념하는 기념비 사이에서 롤러코스터만이 시각적 통로로서 이들을 연결한다. 평양 도시 롤러코스터에는 다양한 종류, 높이, 속도, 및 위치를 기준으로 세 가지 루트가 있다. 류경호텔 타워의 롤러코스터는 중앙 돛대를 회전하며 상상할 수 없었던 360도 도시 경관을 보여준다. 호텔 층과 주거 층의 두 개의 슬라이드가 류경호텔을 오고 가며 100미터까지 올라간다. 100미터 높이 지점에는 A,B 노선이 있으며, 롤러코스터는 보통문 방향에서 만수대거리의 낮은 언덕으로, 그리고 김일성광장과 만수대대기념비 교차로까지 고속으로 달려간다.

B&C 루트는 이 지점에서 시작하며, 보통문을 지나고 난 뒤 갈라진다. B 루트는 승객을 구시가지의 상징적 공간으로 안내한다. 롤러코스터는 김일성광장을 가로질러서 대동강을 건넌다. 탑승객은 170미터 높이의 주체사상탑 주위를 돌며, 돌아오는 길에는 인민대학습당을 지나온다. C 루트는 보통문에서 만수대대기념비, 그리고 당창건기념탑까지 이어진다. 탑승객은 상징적인 망치, 낫, 그리고 붓을 지나오고, 류경호텔을 배경으로 만수대언덕 위의 김일성·김정일 동상을 향해 돌진한다.

결국에는 롤러코스터의 스릴, 흥분과 새로운 경험만이 기억에 새겨지며, 그 장소에 대한 과거의 기억은 망각 속으로 사라진다. 북한주민들은 롤러코스터에서 통제력을 상실하며 짜릿하면서 이색적인 경험을 하며, 새로운 경험으로 평생 경험해온 절대적 통제의 경험을 상쇄시켜 버린다. 더 이상 북한주민은 확대된 김일성·김정일의 기념비 아래에서 작게 느껴지지 않으며, 주체사상탑을 올려다보지도 않게 된다. 롤러코스터는 북한주민들을 기념비 주변을 돌고 그 위로도 올라가며, 과거의 지도자들의 눈을 마주하게 하면서 주민들의 육체적·정신적 관점을 변화시킨다.

초대형 롤러코스터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라도 정치적·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기억을 잊을 수 있는 극단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반복과 시간이 지나면서 상쾌하고 새로운 경험은 그 추억을 새롭고 재미있는 추억으로 바꿀 것이다. 롤러코스터는 시민들이 익숙한 장소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형성·재형성하는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

여시킨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억들이 생기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주민들은 새로운 집단적 기억을 형성하게 된다.

5) 평양 프로젝트

평양 프로젝트는 평양 도시 형태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로 정치·경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도시는 한국전쟁 이후처럼 도시를 완전히 파괴하는 "와일드카드" 사건의 희생자이다. 이 시나리오는 김정은이 2019년에 권력에서 내려오며 시작된다. 미국의 커지는 압박과 여행·무역을 제한하는 안보리 대북제재로 인해 남북 통일은 불가피해졌다. 평화로운 권력이양과 통일한국이라는 새 나라의 건국은 전세계에서 큰 지지를 받았다. 놀라운 속도로 이산가족 상봉, 안전한 에너지 대안책 강구, 고용시장 확대, 그리고 북쪽지역 산업화가 일어났다. 북쪽 주민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전환이었지만, 경제적으로 발전된 남쪽 기준을 북한지역에 도입하는데 정부는 초점을 맞췄고, 많은 사람들이 잘 적응하는 듯 하다.

평양은 새로운 정치적·경제적 변화와 에너지 인프라에 초점을 맞춘 환경적 도시개발 접근법을 환영한다. 에너지 수출국이 되겠다는 통일 이전 한국의 목표에 따라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가 도시 외곽에 건설된다. 청정 에너지 전략에 집중하는 민간·정부 연구시설이 포함되었으며, 이전 정권의 기존 정부청사에도 있다. 한때 북한의 공포와 자부심을 상징했던 건물·기념물·광장이 도시의 사회적 허브로 전환된다.

열악한 주택과 산업적 기회가 희박한 상황에서 고통 받는 하층민들, 그리고 북부 지방의 고립·저개발 상태를 고려하면, 2025년 통일 이후 한반도 북부에서 남부로 이주하는 흐름은 불가피하다고 예상한다. 남부로의 급격한 인구유입은 심각한 젠트리피케이션과 극심한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노숙자와 실업자는 평양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장하는 에너지·농업 산업에 참여하게 된다. 10년 뒤인 2035년에 평양과 북부 지방의 산업규모는 남쪽에 상응하는 수준까지 성장한다. 한국청정에너지 이니셔티브를 통해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전국에 거의 모두 공급하게 되면서 석유수입이 감소한다. 한국전쟁 이후 놀라운 성장을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통일한국의 GDP는 2045년에 독일과 일본을 제치게 된다.

하지만 2045년에 평양을 초토화시킨 원전 폭발과 북부 지역의 산불로 다시 뒷걸음치게 된다. 핵 방사선은 북부의 많은 지역으로 퍼져간다. 체르노빌(1986), 후쿠시마(2011)에 이은 세 번째 원전 재난은 방사선 확산뿐만 아니라 원자력 산업 전체에 세계적인 영향을 미친다. 원자력의 위험성이 에너지 대안의 시급성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여진다.

실패한 에너지 산업, 재건비용 및 재배치는 도시성장을 지연시킨다. 지연에도 불

구하고 2030년 완공 예정인 지속가능한 신도시 평양 프로젝트의 개발을 위해 재건 계획이 수립된다. 남부 지역으로부터 여러 투자를 받은 핵시설 개선 프로젝트는 사고 2년만에 완성되고, 원자력발전소는 최대 용량으로 복원·가동된다. 공기·물에 있던 방사능 대부분은 1년 내에 흩어졌지만 일부 동위 원소가 유령도시 땅에 남아있다. 정부는 도시 중심부 500m 반경을 청소하고, 토양을 12cm까지 제거한다. 서울보다는 방사능 수치가 약간 높지만, 시간이 지나며 500m내 수치는 해롭지 않은 수준으로 된다. 하지만 다른 지역보다 방사능 수치가 높은 도시로 돌아가는 것에 회의적인 분위기도 있다. 우려에도 불구하고 통일한국의 시민 일부는 2050년까지 평양으로 이주하겠다고 자원한다.''

평양 프로젝트는 새로운 도시의 아이콘이 되었으며, 인위적(anthropogenic) 시대에서 도시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방법, 환경보존정책, 및 대체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글로벌 연구원·환경운동가들의 본거지가 된다. 희소성 있는 연구기회는 젊은 연구원 및 1인가구를 흡수한다. 도시는 연구범위를 더 많은 글로벌 협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기술 및 가상 커뮤니케이션에 크게 의존한다. 2048년에 시작한 공공근로 프로그램(PWP)은 도시가 북부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의 전환점이 된다.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거주민들에게 평균 이상의 임금과 주택을 제공한다. 이로 인해 프로젝트 지역에 거주하며 유리한 조건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젊은 중산층 가정의 수가 증가한다. 통일 이후 취업시장이 급변하면서 남부의 취업률이 낮아지며, 대학을 졸업한 학생 다수가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 따라서 프로젝트는 공공근로 프로그램과 협업하여 남부 청년들이 새로운 삶으로 전환할 기회를 제공한다.

평양 프로젝트는 100만명 이상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도시 공장시설 안에서 약 96만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대규모 단지의 형태를 취한다. 4층 쇼핑몰과 여러 연구시설도 포함된다. 다목적 대형 구조물은 방사능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는 인공 파사드 벽 안에 위치한다. 프로젝트는 과학연구센터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가까이에서 모니터링하는 사회연구센터 역할도 수행한다. 통일한국 정부는 앞으로 더 많은 토지를 개량하고 더 많은 프로젝트를 건설하며 도시의 거주지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각 단계의 부지는 농업·연구, 농업·생산, 인프라, 주거 및 상업의 5개 구역으로 구분된다. 각 구역의 입구에서는 환경보안 수준을 검사한다.

수직형 대형 구조물은 5개 구역으로 분리되며, 구역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문제의 확산을 차단하고 대응하도록 한다. 프로젝트의 흔적은 100 x 100 x 100m 규모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은 원자력 재해 이후 토양을 활성화하는 연구실험 장소로 남겨진다. 이 땅에는 새 토양 조건 연구에 사용되는 것, 프로젝트의 농업생산에만 사용되는 것 등 다양한 식재(planting) 방법이 있다.

평양 프로젝트는 임시 거주자만 있는 고립된 도시로 변하는 문제를 직면한다. 젊은 세대로부터 많은 인기를 받았지만, 도시에는 가족과 다양한 연령대가 부족하다. 기술관료제 정부는 지속적으로 평양 프로젝트의 구성원을 새로 채용하기 때문에 중대한 변화를 완성해내기는 매우 어려워진다. 도시에 법적·인프라·주거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보다는 캠퍼스나 시설 정도로 여겨진다. 내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평양은 핵 사태 이후 도시농업 연구 및 글로벌 청정 농업개발 분야의 선두주자이다.

평양의 미래에 대한 공간적 이야기를 시나리오 형태로 정리하며 화해가 있거나 없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미래에 해야하는 행동에 대한 “근거”를 준비하는 과정은 결국에는 더 바람직한 미래를 향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도 있으며, 아닐 수도 있다. 시나리오와 프로젝트는 서로 다른 종류의 상상력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젝트이며 – 대리인(agent)이 있는 이야기 기능을 수행하며 – 미래의 사회적 조치를 “발견한” 대리인은 틀에 박힌 예측보다는 더 포괄적이면서 깊이 있는 미래 시나리오 개발을 환영한다.

Imagining Pyongyang After Reconciliation

Annie Pedret

Abstract

"The years to come will be defined by the struggle over the imagination." (Crises of Imagination, Crises of Power, 2014).

Imagining what Pyongyang will look like in 30 or 35 years in a reconciled or unified Korea as a research subject raises epistemological challenges. The urban future of Pyongyang is inextricably linked to the form that reconcili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take. North Korea is one of the most inaccessible countries in the world. Access to Pyongyang is controlled by "regimes of visibility" that determine what visitors can experience depending on the connection they have with the country. Field research is not easily possible if at all. Unification is impossible to predict because of "wild card" events. The kind of reconciliation to which the urban future of Pyongyang is so intricately tied, has incomplete, contradictory and changing requirements. The subject of the urban future of Pyongyang in a reconciled Korean peninsula is an "irreducibly complex" subject in which politics, geopolitics, economy, shared culture and history function as a system of interacting parts that would stop functioning in its current form if any one of the parts were removed or altered. Reconciliation is a "wicked," problem for which there is not final solution, and for which our research methodologies are ill-equipped.

Traditional epistemology is the knowledge that is based on "justified true belief." The subject of the urban future of Pyongyang does not meet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propositions to be justified. This raises the question of whether a subject that cannot be known and for which belief cannot be justified can be considered as a subject for serious scholarship at all. I argue that it is possible to investigate propositions for complex and emergent subjects, however, they are inadequate for investigating complex, contingent, unknowable, and emerging subjects, like

the urban future of Pyongyang. The future we want to create demands that we reconsider 'research' as we are used to imagining it. Investigating this particular complex and emergent subject requires re-calibrating the status of traditional epistemology and acknowledging imagination as a crucial cognitive function as not only a valid, but crucial form of knowledge for the kinds of problems we are facing today. Whether imagination is considered as being a valid form of generating knowledge or not may be beside the point, if we do not develop methods for investigating subjects that are threatening our very existence on the planet.

Imagination is not a flight of fancy, dreaming of Utopias, nor is it creativity, although it fuels creativity. It is not simply the irrational, undisciplined cognitive function belonging to artists. Imagination is the counter-faculty to reasoning and science. Imagination is the power or capacity of humans to form internal visual or auditory images of objects and situations. Imagination is "our capacity to think about those things we do not or cannot directly experience. Imagination creates reality which in turn creates imagination. Imagination is a special form of knowing, and a crucial faculty for investigating what we do not know. It is a special form of agency. Imagination is particularly suited for investigating the future. It bridges fact and fiction, and the past, present, and future. Imagination is not a marginalized or specialized activity of the mind, but lies at the center of all human cognitive processes, from perception, reasoning, speculation, experimentation and free play. Imagination is integral to the sense-making cognitive function of perception and its role in making sense of the world.

Imagination forms the epistemological basis for a series of projects that were developed using imagination together with methods of conventional research, scenarios from future studies, narrative fiction, world building, and design fiction to create alternative possible futures for the unification and Pyongyang in 2050. The only pre-condition for these futures was that reconcili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uld not take the form of a winner-loser scenario that would result in more easily imaginable scenarios, but some kind of rapprochement. The projects, range from the ironic and dystopic to the subtle and exhilarating.

These futures imagine a linear city connecting Seoul and Pyongyang by

a train based on a mixed economy like China; a policy for Pyongyang that not only maintains the existing monuments, but which adds new monuments after reconciliation to reflect ongoing changes of political and economic ideologies; the creation of an over-sized structure that functions like a city state at the site of the Juche Tower site where Kim Jong Un and a cadre of his most faithful followers live and govern themselves; a proposal for changing the memories of the role public space played in promoting North Korean ideology by inserting an urban scale super roller coaster that connects and occupies existing monuments; a proposal for "spatial equalization" that would slow real estate speculation in Pyongyang after unification; and a catastrophic scenario of Pyongyang as a global center for nuclear research after Pyongyang is destroyed by a nuclear disaster; a short fictive narrative that occurs on a train that connects Seoul and Pyongyang and the design of objects on those trains to make the "what if" scenario into an "as if" it already exists reality.

1. THE RESEARCH CONTEXT

There are problems with futures as a subject of scholarly research. Futures are commonly conflated with science fiction.1[23] Futures as predictions describe a single route from the present to the future. Their history of failure predictions is met with scepticism.2[24] And they fail to acknowledge "wild card" events. Predictions are, however, only one way of understanding the future. Predictions" of the future is regarded with skepticism[25] which may be warranted given the history of failure of predictions.

There are problems with the nature of Pyongyang as a subject. It is a city in a country in a state of semi-permanent suspension. The future of the city is intimately tied to the form that reconciliation will take which is impossible to know since it is governed as much by a history of extraordinary events as a future of "wild card" events. North Korea and Pyongyang is a subject where

23) 1 This paper is based on material published by the author in Pyongyang 2050: Spatial Futures (Seoul: Damdi, 2018), and "Imagination as a Research Method: Spatial Futures for Pyongyang in 2050," European Journal of Korean Studies, 19, n. 1 (2019): 15-54.

24) 2 David J. Staley, "A History of the Future," History and Theory, 41, no. 4 (December 2002), 72.

25) Staley, "A History of the Future," 73, 76.

data is inconsistent, and documents, if they exist at all, are difficult to access and where direct access to Pyongyang is controlled by a “regime of visibilities” where access to the depends on who you are, and how you are there.4[26] A subject that can only be known indirectly raises epistemological questions. This raises the issue of whether the subject of the urban future of Pyongyang can be considered as serious scholarship at all.

I argue that the future of a subject that cannot be known directly can be examined, however, it requires that we accept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epistemology for knowing things that can be known and accept alternative epistemology of imagination and fiction as a means for investigating things that cannot be known – like the future of Pyongyang. Imagination is necessary to avoid thinking of the future of North Korean architecture that looks to the past as is the case with the drawings by a North Korean defector living in Beijing (2014). These are images of rural idyll, historicist idyll, historical forms cast in modern material of concrete, looking to Frank Lloyd Wright, and even looking to the futures from the past television cartoon The Jetsons of the early 1960s.

2. IMAGINATION

Imagination is not dreaming Utopias, or flights of fancy, or a sophisticated critique of the status quo. Imagination is not creativity, although imagination is necessary for creativity. It is not simply the irrational, undisciplined counter-faculty to reasoning, or a capacity that belongs solely to artists. Imagination is not only about producing novelty that fuels creativity.”[27] It is not a marginalized or specialized activity of the mind. Imagination is the image-making cognitive process of our mind. It is the power or capacity of humans to form internal visual or auditory images of objects and situations. 6[28] It lies at the center of all human cognitive processes in varying degrees

26) Benjamin Joineau, "Regimes of Visibility in Pyongyang: Notes for an Ethnographic Fieldwork on Public Spaces and Monumentality in DPRK." Seoul Colloquium in Korean Studies: City, urban planning and architecture in North Korea. Lecture, Centre de l’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à Séoul (IFEO), Royal Asian Society Korea (RASK) and Asiatic Research Institute, Korea. Asiatic Research Center, Korea University, Seoul. 19 April 2018.

27) Ann Pendleton-Jullian & John Seely Brown, "Pragmatic Imagination," in Design Unbound, vol. 2 (MIT Press: Cambridge MA: 2018), 385-447.

from perception to reason to speculation, experimentation and free play.[29] Imagination is not a cognitive faculty that belongs solely to artists, or is opposite to reason and "science." Imagination is "our capacity to think about those things we do not or cannot directly experience. It is a special form of knowing.[30] It is crucial for investigating subjects that are unfamiliar, novel, and what does not yet exist.

Imagination bridges fact and fiction, and the past, present, and future. Different forms of imagination are involved in the processes of data analysis, formulating scenarios, narrative fiction, and design. Imagination is associated with a wide spectrum of cognitive functions from sense-making capacity of perception and reasoning, to the sense-breaking capacity of speculation, experiment, and free play.9 We need imagination for its coherent synthetic "image-making" and "sense-making capacity" of known phenomena, but also for the disruptive side of "sense-breaking" required for projecting new thing s.[31] Imagination is how humans make sense of something when we see it for the first time, understand the world cognitively, and attempt to cognitively order disparate elements of a disorderly world.[32] Imagination guides our strategies and actions.

This capacity of humans to make mental images allows them to create surprising and novel worlds that do not yet exist, by making them "as if" they already do exist.[33] Imagination is integral to the sense-making cognitive function of perception.[34] It makes the world stable and coherent physiologically. Our eyes, our visual organ of perception, are in constant motion, not only by the voluntary movement of the eyes and head when we track something, but when we are looking at static objects, i.e. when there is

---

28) Ibid.
29) Etienne Pelaprat & Michael Cole, "Minding the Gap: Imagination, Creativity and Human Cognition," Integrative Physiological and Behavioral Science 45 n.4 (June 2011): 397.
30) Pendleton-Jullian, "Design, Agency, and the Pragmatic Imagination," YouTube, November 30, 2015. https://www.youtube.com/watch?v=DY3Qd2L5iY8
31) Pendleton-Jullian and Seely Brown, "Pragmatic Imagination," in Design Unbound, vol. 2 (Cambridge, Mass.: MIT Press, 2018), 392.
32) Ibid.
33) Sierk Ybema and Thijs Willems, "Making Sense of Sense-Breaking," Academy of Management Proceedings, 2015 n.1.
34) Pendleton-Jullian and Seely Brown, "World Building," in Design Unbound, v. 2 (Cambridge, Mass.: MIT Press, 2081): 55.

discontinuity of sensory input, the eye experiences involuntary saccadic movements of 20 to 200 millisecond duration[35] and even shorter saccadic movements.

Achieving cognitive continuity, or a stable mental image of the world involves a 'resolving activity' comprising three parts: biological (direct pathway), cultural mediation (indirect pathway), and individual imagination (fills the gap).[36]15 The direct pathway that connects the subject (oneself) to an object (event or object in the world) occurs biologically through the senses. At the same time there is an indirect pathway that connects the subject to an object/event that is mediated by "images," feelings and memories associated with an individual's history and culture, con mediates through "images" and feeling and memories, ontology behaviour protocols, and epistemology of an individual.[37]16 There is a gap between the input of the direct and indirect pathways – between what we experience, and how we perceive the experience through our cultural and ontological frames – that needs to be resolved cognitively. "Every engagement we have with the world has a degree of novelty associated with it,"[38] a degree of the unknown. Imagination fills–in the gap between the discordant moment–to–moment sensory input[39] so that we experience the world as a stable image. The more unfamiliar the phenomena or setting, the larger the gap and the more theimagination has to work to understand what they are seeing to produce an image of the world so that they can act and think in the present. When the gap is too large to resolve with normal reasoning, the imagination must come up with alternative, different, often novel possibilities to work on the space of the gap[40] such as speculation, experimental, and free–play. Reasoning processes of deduction, induction, and abduction all depend on imagination in different forms and with different functions. Deductive reasoning and inductive reasoning, in which a conclusion is supported by evidence but does not directly follow from conclusions,[41] relies on observation and logical inference and some

35) Max Haiven, and Alex Khasnabish, The Radical Imagination: Social Movement Research in the Age of Austerity (London: Zed Books, 2014), 4.
36) Ibid., 3.
37) Etienne Pelaprat & Michael Cole, quoted in Pendleton-Jullian and Seely Brown, "Pragmatic Imagination," 413.
38) Ibid., 412.
39) Pendleton-Jullian and Seely Brown, "Pragmatic Imagination," 411.
40) Ibid.
41) Pendleton-Jullian and Seely Brown, "Pragmatic Imagination," 414-15.

imagination to fill the gaps. Abductive reasoning, or "best guess" hypothetical reasoning, is a recursive process of logical inference from observation to hypothesis and testing for validity and meaning leading to formulating a new hypothesis. That is as dependent on imagination as it is on reasoning. Abductive imagination leads, and reasoning cleans up.

Designers engage in abductive reasoning to address complex situations. At the extreme end of abductive reasoning imagination does more than make sense of the world through perception and reasoning, but functions as an agent to think about things that we do not, or cannot experience directly.[42] Imagination in the cognitive functions of speculation, experiment and free-play is the necessary for "sense-breaking" and making new things. In the act of making something that did not exist before there is a widening gap to escape from the known and familiar to generate novelty, or going after strangeness when going after "radical novelty."[43] The unknowable can be knowable through the sense-breaking capacity. In these capacities, there is less reliance on facts and an increasing depending on imagination.[44] Speculative imagination, is not fantasizing. It is a sense-breaking cognitive faculty that serves us in learning about the world. Speculation is a cognitive function grounded in reality and that creatively explores the play of possibility in the present through imaginative speculation about the future.[45] Speculation functions synthetically and generatively. It is a vehicle for problem solving.[46]

Experimental imagination demands a wider field of play than the imaginations of perception, reasoning and speculation. Experimental imagination tries out new and foreign things turning off the critical faculties and relying on the key function of improvisational making and action with images.[47] It is a kind of imagination that forms images in a back and forth between imagination and action.

Free-play is the function that is most generative in nature in the cognitive

---

42) Ibid., 392, 396-7
43) Khasnabish & Haiven, Radical Imagination, 4.
44) Pendleton-Jullian and Seely Brown, "Pragmatic Imagination," 392, 412.
45) Ibid., 392.
46) Thomas Alexander, quoted in Pendleton-Jullian and Seely Brown, "Pragmatic Imagination," 397.
47) Pendleton-Jullian and Seely Brown, "Pragmatic Imagination," 398-9, 401.
26 Ibid., 401-405.

spectrum. It generates novelty rather than synthesize sensations, and produces images that are unplanned and unforeseen. It energizes and surprises. It is more associated with the unconscious mind, emotions, serendipity and intuition. It is a divergent activity rather than a convergent one of reasoning and speculation. Free-play is after crossing and breaking boundaries rather than pushing boundaries, disrupting rather than experimenting, breaking with creative history and what it knows it can do.[48)]

3. METHOD: A WAY TO KNOW THINGS THAT CANNOT BE KNOWN

The method developed in the Spatial Strategies Lab engages different types of thinking: analysis (data), analytical discourse (scenario method), fiction (narrative), experimentation, speculation, free play, and projective thinking (narrative and design). Each step generates a different aspect of the vision: the scenario method generates future contexts, fictive narratives prepare the ground for future social actions, and design materializes the urban futures that inhabit those spatial futures.

1) Scenarios

The scenario method is a way of investigating the future that does not rely on single-route predictions. Scenarios do not produce the most likely image of the future, but possible and even plausible equally valid alternative futures. Scenario are a vehicle for exploring what is possible Scenarios can generate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contexts of possible futures from which the physical world emerges. Unlike predictions, scenarios incorporate the possibility of innovation, contingency, and unexpected outcomes[49)] and range from the possible to the plausible to the probable. They are “less a prediction of, than a systematic reflection on the future.”[50)] The goal of the scenarios is to evoke a “much wider and deeper set of possible and even plausible futures” to indicate the strategic decisions that will take them into the future. The process

48) Ibid., 408-9

49) Brian Fay, “Unconventional History,” History and Theory, 41 no.4 (December 2002), 3.

50) Peter Schwartz, The Art of the Long View: Planning for the Future in an Uncertain World(Chichester, 2005), quoted in, Johannes Tschapka & Taeyon Kim, “2043: Scenario Technique as an Educational Means of Learning Sustainability,” Zeitschrift für Didaktik der Gesellschaftswissenschaften 1 (2015): 135.

of scenarios begins with a “What if?” question and once it is visualized, it is very much about “how we will go towards the future we will inhabit.”

What possibilities are revealed? What action needs to be taken now to avoid an undesirable future. The scenario method with its “What if?” focus provides a method that can shift the discipline of architecture from an autonomous critical practice to a projective practice. The scenario method as it was used here was a five-step recursive process. The first step is to identify the key factors and sub-factors that would impact the urban form of Pyongyang in the future to most followed by a dialectic discourse to determine which two key factors would impact this future the most. The second step is collecting and analyzing data of past and present trends and project different trajectories for those trends into the future. The third step is to develop alternative scenarios based on the two-key factors and bringing in the sub-factors that entangle with the key factors. This step is involves writing an origin story of the scenario or a history of the future. The fourth step was to check the coherence and consistency of the scenarios through dialectic discourse and/or fictive narratives, with a plot, fictive characters set in a future scenario.

2) Fictive Narratives

Fictive narratives function as a tool for testing the plausibility of a future reality, and providing a synthetic image of a future society from abstract data and trends. Fictive narratives give texture and tactility to abstract quantitative data and the impact that the data can have on everyday life. Narratives are a tool for “radical empathy” for the kinds of experiences, emotions, social rituals and the setting where the daily life of the people inhabiting the future scenario are played out. Fiction is more than a tool for checking the reliability of a scenario, as they are a free space for speculation, and for a space for pla y.[51)]

Fictions allow us to cross between our present world and a simulated future and functions as a “diegetic buffer”[52)] that allows us to insulate ourselves

51) Joshua Tanenbaum, Marcel Pufal, and Karen Tanenbaum, “The Limits of Our Imagination: Design Fiction as a Strategy for Engaging with Dystopian Futures,” Limits’16, Proceedings of the Second Workshop on Computing within Limits, Irvine, California, 8 June 2016 (New York: ACM, 2016).
52) Ibid., 4.

from the psychological difficulties of contemplating dystopian scenarios by creating space to play and explore alternative visions of the future. Fictive narratives also function as "spatial stories," which as Michel De Certeau argues, "found" and "create the field" that precedes the realization of social actions that are yet to come.[53] Narrative fiction allow us to go beyond visions of incremental change. Discourses about space include architectural drawings of a projected future is a discourse about space as much as are fictive narratives

3) Design

Design makes imagination material. Design fiction – a design practice that articulates fictive objects and events in the context of a fictive future[54] –– is, like narrative fiction, a kind of playful thinking that connects imagination and reality.[55] Design fiction is a kind of play that allows for free speculation is a way of making things, a form of understanding, but also a method for exploring the consequences of different commitments and values. Design fiction takes the pre-figuration developed by narrative fiction one step closer to its possible realization by giving it form.[56] Designers navigate easily between real and imagined worlds. The provisional way designers work, their method of abductive reasoning and projective capacities to imagine futures makes their form of practice particularly suited to materializing futures "as if" they already exist.

4. PROJECTS: VISUALIZING THE UNKNOWABLE

The project of the spatial futures of Pyongyang in 2050 looks to a medium-term projection into the future of 30-25 years that is a span of time within our lifetime to encourage the reality and agency of making certain decisions now. The only pre-condition for these future of Pyongyang projects

53) Michel de Certeau,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123-124
54) David A. Kirby, "The Future is Now: Diegetic Prototypes and the Role of Popular Films in Generating Real-World Technological Development," Social Studies of Science 40 n. 1 (February 2010).
55) Michael DeAnda, review of Play Matters, by Miguel Sicart, American Journal of Play 7 no.2 (Winter 2015), 254.
56) Pendelton-Jullian and Seely Brown, "World Building," 55.

was that reconcili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ould not take the form of a winner-loser scenario that would result in easily imaginable scenarios.

Reunification could only take the form of some kind of rapprochement in which both sides would have to give something up. The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s of the DPRK were determined by most groups to be the key factors that impact the urban form of Pyongyang in 2050. Four of the futures dealt directly with the issue of monuments and monumentality.

1) Linear City36

The Linear City project proceed from the premise that the future development of Pyongyang and Seoul are reciprocally linked. Over time Pyongyang expands southward, and Seoul expands northward, both hooking urban development along an existing and new railway line between the two cities making it easy to commute from these “new towns” and between the capital cities and at the same time alleviating future population problems faced by both cities anticipated in the scenario. The context of the Linear City is a political system with multiple parties and a mixed economy that is a combination of an open but controlled market modelled on China’s economic system. In this scenario improvements in the communication and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attract international investment. They proposed re-opening the existing railway line for transport of goods, and building a new parallel line for a high-speed train for passengers; and extending the highway to connect Seoul to Pyongyang. Migration to North Korea is fuelled by an aging society in South Korea and Seoul residents seeking lower density and housing costs, but with easy access to Seoul with the new train and highway infrastructure. International migration is stimulated by incentivizing tax-free zones and an otherwise free market economy.

The Linear City grows south from Pyongyang which grows to towards the south to accommodate influx from the rural areas of North Korea, and grows north from Seoul to alleviate the high real estate costs and density. The structure of the linear city replicates the administrative structure of the gu/구 that structures Seoul. The gu take on the socialist ideal of North Korea of equally sharing resources – government, cultural, medical, public transport, schools, and a Personal Rapid Transit provides every resident of the gu access to rapid train transit to both Seoul and Pyongyang.

2) Juche City37

In this scenario, reconciliation is achieved by forming two autonomous republics – the Republic of South Korea (RSK) and the Republic of North Korea (RNK)[57] which together form the Federation of Korea (FK), The Federation of Korea is governed by a new political party, Korea Party (KP) comprising an equal number of representatives from former DPRK and South Korea. The powers of the Federation of Korea are set forth in the "Constitution of the Federal Republic of Korea" (2020). The New Korea Party begins the gradual process of unification. The Republic of South Korea (RSK) continues to function as a free-market economy with special economic zones, and the Republic of North Korea (RNK) as a socialist economy that adopts South Korea's model of special economic zones to attract foreign investors. With the influx of new foreign investment infrastructural problems, such as the lack of electricity are solved and import/export rations improve.

Having to obtain permission to live in Pyongyang is no longer necessary which results in large internal migration in the DPRK to Pyongyang. New illegal settlements of poor-quality housing are formed along the main roads of the southern portion of Pyongyang. The influx of citizens to Pyongyang results in high unemployment for several years. From 2025-2030 special business zones, or "new town" of super-modern high rises are constructed on the north side of Pyongyang. The New Town catalyzes tourism and provides jobs for the residents of the illegal settlements on the south side. By 2050, more sindosi / 신도시, or international business districts are established as the city continues to polarize into different political zones. As part of the unification negotiations, both sides agree that an independent state, called Juche City to be built in Pyongyang.

The Juche City is a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self-sufficient monarchical state based on the fundamental tenets of autonomy and self-reliance. Modelled on the Vatican City the Juche City / 주체 시티 is a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self-sufficient monarchical state based on the fundamental tenets of autonomy and the Juche ideology of "self-reliance." Kim Jong-un, the leader of former North Korea at the time of unification and about 1000 of his staunchest supporters inhabit the Juche City which was completed in 2036. The Juche City is located on the east side of the Taedong River on axis with

57) Liu Ching-Wei and Piao Xianmei, "Linear City," in Pyongyang 2050, 132-157.

both the Juche Tower, (1982) and Kim Il Sung Square (1954). The concept of Juche City is to symbolize, through its architectural hyper-monumentality, the power of the ruling Kim dynasty in former DPRK in the newly establish Republic of North Korea (RNK). Succession for leadership continues to be hereditary.

The proposal of Juche City takes the form of a large-scale enclave inserted into the existing fabric of Pyongyang occupying an area of 850,000 square meters. Juche City steps up from the most public area by the river and the Juche Tower to the most private residential estate of the leader. There are three levels of accessibility on successively higher levels: the public area around the Juche Tower that is accessible to tourists and residents of Pyongyang by foot along the river, and the Juche Pyramid that functions as an entrance to the Juche Mega Mall; a semi-private area that is the site of the Juche Army Base and large parade grounds opened to the public every year on April 15 when Juche City celebrates Kim Il Sung's birthday, and the Juche State Building accessible only to the Juche Leader and state officials; and the top level, the most private area, is the Great Juche Building that houses is the residential complex of the Juche Leader. Each level is connected by ramps on each side wide enough to allow for the movement of tanks between levels and separated a 5-meter high gate guarded by the Juche City Security Forces.

Beneath this monumental and intimidating urban landscape is the Juche Mega Mall. It is accessible through the glass Juche Pyramid located in the public area above the level of the Juche Tower. Its large scale is intentionally larger than I. M. Pei's glass pyramid at the Louvre in Paris, with access also controlled by Juche City Security Forces. The mall is twice the size (635,000 square meters) of the Mall of America in Minnesota which is currently the largest mall in the world, but more importantly the largest mall in the United States. The walls of the Juche City that face the city are lined with shops and other commercial venues also controlled by the Juche City Security Forces. The Juche Mega Mall supports the sovereign state financially through profits from retail outlets, manufacturing facilities, the sale of designs and, as was the case in former North Korea, the construction expertise of monuments and monumental architecture, large panoramic paintings of historical events, cinemas, and the Museum of Juche Ideology and Museum of North Korea.

3) Monuments & Moments City

Monuments and Moments City is based on the same political and economic scenario of Juche City project acknowledges the role of monuments in socialist cities to represent the ideology of equal social and material rights for everybody.[58] This project proposes that the existing monuments honouring the Kim dynasty, the people of DPRK, and Juche ideology not be destroyed in a reconciled Korean peninsula in the newly formed Federation of Korea. Instead of following the practice of destroying monuments with changing regimes familiar in post-socialist countries, a new urban policy for Pyongyang, now the capital of the Republic of North Korea, is implemented.

The policy explains how Pyongyang's monuments were organized based on three main visual axes. The first axis connects Kim Il-Sung Square (Federation Square) with the Mansu Hill Grand Monument (1972); the second axis connecting Kim Il Sung Square with the Juche Tower (1982); the third axis with the completion of the Monument to the Party Founding (1995) connects Mansu Hill Monument and extends beyond it to the Ryugyong Hotel (chell complete 1989). This urban policy outlines a strategy for adding layers of monuments to Pyongyang to create a "monument city" that adds new monuments reflecting changing regimes over time while maintaining the existing carefully staged streets, squares, and monumental architecture that served during the DPRK to keep one's attention on the features of the socialist city oriented on the Juche idea of self-reliance and the Korean national identity.

The first layer of "monuments" is a fine network of small monuments called "Moments" that are inscribed on streets and engraved into squares and sites in a way that connect the existing grid of socialist monuments together. Based on Kevin Lynch's theory of the image of a city through "paths" and "landmarks" it proposed building on the current identity of Pyongyang as a city of monuments that through view corridors that allows visitors and residents to orient themselves in the city. Moments could only be added without changing the existing monuments in a network that worked within the grid of the existing Monuments. Moments are not necessarily connected visually, but rather located strategically to hide some views and reveal others. This policy allowed for the city to essentially remain the same in physical terms while

58) Jelena Mandić and Klara Romigioli, "Scenario," in Pyongyang 2050, 85-89.

addressing the problem of emptiness on the oversized streets and public spaces of what in the future would be considered the historic socialist city. It is a strategy similar to Bernard Tschumi's Park de la Villette project in Paris (1987), but instead of using the Moments to define an open space, they are used to activate the streets and sites of current Monuments.

The first post-unification Moment, called the "Moment of Unification" – as the history of the future explains, was the winning entry of a national competition designed by North Korean architects educated at the Mansudae Art Academy (2036). Located at the tip of Rungra Island this Moment is aligned with the visual axis formed by the Mansu Hill Grand Monument and the Monument to the Party Founding. This Moment proposes cutting through the tip of the island so as to symbolize the two separation of the nations. Inserted into the thickness of the cut is a path on each side that represents the separate histories of the previously separate states. This monument is barely visible when looked at from the riverside maintains the visual axis, with its impact only possible through experiencing it inside the monument.

Federation Square, previously known as Kim Il Sung Square, was conceived in the master plan of Pyongyang after the Korean War and implemented in 1954. It remains the spiritual and physical center of the city. It is a space of mass spectacles, military parades, but not used by residents in everyday life for social gatherings. Conceived as a sunken alternative path from the city to the riverbank, visitors step down from the edges of the Moment to a path that leads them to the river. Like the Moment on Rungra Island this Moment maintains the visual qualities of square, giving visitors a change to escape the "open air museum of Socialist architecture" interrupting only the possibility of mass spectacles in the new political context of a reunified Korea.

4) Roller Coaster City

This project is about the role that public space can play to change the memories associated with monuments & urban space.[59] The scenario for Urban Roller Coaster is one in which the Kim regime collapses and the dictatorship of Kim Jung Un is replaced by a multi-party democracy and a

59) Klara Romigioli, "Juche City," in Pyongyang 2050, 85-107.

socially-inspired humanistic market-driven free-market economy. The question driving the project was how to change the perspective and memories that North Korean citizens associate with the symbolic buildings and structures, government buildings, landmark spaces, squares and streets that were once sites of propaganda. This project answers this question by transforming public spaces from spaces of representing a political ideology to spaces of leisure. The intention behind the Pyongyang Urban Roller Coaster is for public spaces of the city to provide individuals and citizens of the DPRK with a mechanism to change the individual and collective memories of the difficult years of the Kim's authoritarian in a unified Korea without removing or destroying the monuments and the past that represent and give Pyongyang its iconic and identity.

By 2050, the Pyongyang Urban Roller Coasters are the longest (15km) and at its highest point (150m) the tallest in the world. It physically connects what before were only visual corridors between the monuments commemorating the leaders, symbols of the North Korean people, and Juche philosophy of the DPRK. The Pyongyang Urban Roller Coaster comprises three roller coaster routes of varying types, heights, speeds and locations around the city. The Ryugyong Tower hosts a roof top roller coaster winds around the central mast of the tower providing riders with a so-far unimaginable 360-degree unobstructed birds-eye-view of the city. Two slides, one from the hotel level and one from the residential level, slides in and out of the Ryugyong Tower to the 100 level. At the 100m level is the station for roller coaster routes A and B that run along a wide and long street at a high speed towards the Potong Gate heading up to a small hill along Mansudae Street that leads to the junction of Kim Il Sung Square and the Mansu Hill Grand Monument.

Routes B & C begin at this point and diverge after passing the Potong Gate. Route B takes passengers through the symbolic space of the old city. The roller coaster loops its way across Kim Il Sung Square and crosses the Taedong River. Riders are taken up and swirled around the symbolic 170m high column of Juche Tower. On the way back, they swoop down to The People's Grand Study House. Route C takes riders from the Potong Gate to the symbolic space of the revolution Mansu Hill Grand Monument and the Monument to the Foundation of the Korean Workers' Party. The riders come back through the symbols of the hammer, sickle and brush of the Monument

to the Workers' Party and are then whirled towards the two colossal statues of the Kims standing high on Mansu hill against the backdrop of the Ryugyong Tower.

In the end, the thrills of these rides leave riders with only the excitement and new real experience to be engraved in their memories letting past memory of the place fall into oblivion where the roller coaster now exists. The roller coaster provides the North Korean people with the unfamiliar experience of an exhilarating loss of control that counters the experience of absolute control many have experienced their entire lives. No longer are they made to feel small at the foot of over-scaled monuments of Kim Il-Sung and Kim Jong-Il, or looking up to the ever-visible Juche Tower. The roller coasters take North Koreans up and around these monuments, changing their perspective physical and psychically as they look at their past leaders in the eye.

The over-sized roller coasters provide people with an extreme experience that allows them to forget, even if temporarily at first, the difficult memories they have of their political and economic past. With repetition and over time refreshing and new experiences will transform those memories into new and more fun memories. The roller coasters allow citizens to engage in an ongoing process of forming and re-forming a new sense of a familiar place and in the process generating new individual memories and eventually new collective memories of North Koreans and the world at large.

5) The Pyongyang Projects

Pyongyang Projects does not consider the political and economic as key factors determining the urban form of Pyongyang. Instead the city is the victim of a "wild card" event that leaves the city completely destroyed, as was the case after the Korean War. This scenario begins with the fall of Kim Jong-Un in 2019. With the US involvement increasing gradually and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limiting travel and trade, the re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was inevitable.[60] The peaceful transition of power and the establishment of a new country called Unified Korea was met with great enthusiasm on the global front. Families were

60) Jelena Mandić, "City, Monuments and Moments," in Pyongyang 2050, 86-89, 104-129.

reunited, safer energy alternatives were developed, the job market expanded, and the industrialization of the northern region occurred at an incredible pace.

Though it was a sudden transition for the residents of the northern region, many seemed to adapt to it well through the introduction of government programs focussed on introducing former North Korea to the more economically developed standards of the south. Pyongyang, welcomes a new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and a new environmental approach to urban development that focuses on energy infrastructure. In keeping with South Korea's pre-unification goal of becoming an exporter of energy, a new nuclear power plant was constructed outside the city limits that included privately- and government-funded research facilities that focused on clean energy strategies housed in the existing government buildings of the former regime. Buildings, monuments, and squares that once represented the fear and pride of the DPRK are transformed to become the social hub of this semi-urban city.

Migration from the north to the southern regions of the peninsula after unification in 2025 was forecasted as being inevitable given the isolated and underdeveloped state of the northern provinces that left poor housing and few industrial opportunities for the struggling lower class. The dramatic flow of people to the south leads to severe gentrification and extreme housing costs forcing the homeless and jobless to return to Pyongyang and engage in the growing energy and agricultural industry. This allows Pyongyang, along with the northern provinces, to match the industrial scale of the south within ten years by 2035. The Korean Clean Energy Initiative (KCEI) was almost able to fuel the entire country reducing the amount imported oil. Echoing the spectacular growth of South Korea after the Korean War, Unified Korea grew at such a fast pace that the overall GDP surpassed that of the Germany and Japan by 2045.

This progress was marred by the unfortunate nuclear power plant explosion in 2045 that destroyed Pyongyang along with wild fires that ravished the northern region. Nuclear radiation spread to a large portion of the northern region. The impact of the third major nuclear disaster after Chernobyl (1986) and Fukushima (2011) had an impact globally not only with spreading radiation, but also on the nuclear energy industry in its entirety. The risk of nuclear energy as a clean energy alternative proved to outweigh the immediate

need for an energy alternative. The economic impact of the failed energy industry, cost of reconstruction, and relocation delayed urban growth. Despite the delay, the plan for the complete reconstruction was put in place for the development of The Pyongyang Projects, a new sustainable city scheduled to be completed in 2030.

Through a series of internal investments from the southern regions, a model for remediating nuclear sites, The Projects were completed within two years of the explosion and the nuclear power plant restored and running to its full capacity. Most of the radiation in the air and water was dispersed within the year, yet the remaining isotopic particles settled onto the ground surface of what was now a ghost city. The government cleared a 500-meter radius at the heart of the city by removing the debris and 12 cm of top soil. While radiation levels remained slightly higher than Seoul, the amount of radiation within the 500-meter clearing was not harmful to people over extended periods of time.

However, there was a general wariness of moving back into a city that had slightly higher radiation levels than those of other countries. Despite these concerns, a small portion of the citizens of Unified Korea volunteered to move into the Pyongyang Projects by 2050. The Pyongyang Projects, became the icon of the new city, as the home-base for global researchers and environmentalists to develop sustainable farming methods, environmental preservation policies, and alternative energy sources to best sustain the health of this city in the anthropogenic era. Its unique research opportunities attract young researchers and single-member households. The city is characterized by a heavy dependence on technology and virtual communication to extend its research reach to more global collaboration.

A Public Works Program (PWP) established in 2048 marked the beginning transition for the city's effort to revitalize the northern region. The Public Works Program offered above average wages and housing for the residents of The Projects. This stimulate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younger middle-class families living in The Projects who were taking advantage of the favourable conditions of the government assistance program. With the job market in the south at a low, due to the sudden shift in job opportunities after the reunification, many educated students were out of work after graduation.

Therefore, The Projects, along with the Public Works Program provided them the opportunity to transition into a new life. The Pyongyang Projects takes the form of a multi-level mega-structure housing about 960,000 citizens, within an urban farm facility that has the capacity to feed over a million people. It also includes a four-story mall, and numerous research facilities. The multi-purposemega-structure is secured inside an artificial façade that protects the city from additional radiation and acts as not only a scientific research centre, but also a centre for social research that monitors daily life in close proximity. The government of United Korea plans to expand the habitation of the city by remediating more land and building more projects in future phases. The site for each phase is divided into five major zones: agriculture and research, agriculture and production, infrastructure, residential, and commercial. Each zone has a main entry point ensuring a degree of environmental security.

The vertical mega-structure is divided and contains each of the five zones as well to ensure that any issues can be isolated within each block rather than endanger the entirety of The Projects. Because the footprint of The Projects is only 100 x 100 x 100 meters the remaining cleared area is left as an experimental field for research about how to revitalize the soil after a nuclear disaster. This field hosts a large variety of planting patterns that range from those used for researching new soil conditions to those used solely for agricultural production for The Project.

The Pyongyang Projects faces the problem of becoming an isolated city with temporary residents. Though popular with the younger generation, the city lacks a strong family-oriented demographic, and wide range of ages. The technocratic government system constantly employs new members of The Pyongyang Projects community, making any significant changes to government extremely difficult to complete. The city itself is almost treated as a campus, or facility rather than as a city despite having its own legal, infrastructural, and residential system. Despite the internal difficulties, Pyongyang is the heart of leading-edge research in post-nuclear urban agriculture and a leader in global clean agriculture development.

Spatial stories about the future of Pyongyang in the form of scenario

“prepare the “ground” for future actions perhaps of reconciliation, or perhaps no reconciliation, but which nonetheless prepare grounds that may lead to actions that could lead to more desirable or less futures. The scenarios and projects are projects of different kinds of imagination – and function as narratives which have agency –– an agency that “founds” future social actions that allow for the development of a wider and deeper range of futures that fall outside of box of historically ossified positions.

Imagining Pyongyang After Reconciliation

IFES CONFERENCE | URBAN KALEIDOSCOPE OF NORTH KOREA | 2021.05.26 | ANNIE PEDRET | SNU

THE PROBLEM(S)

North Korean architects, "Mountain Conicals," Residential Towers,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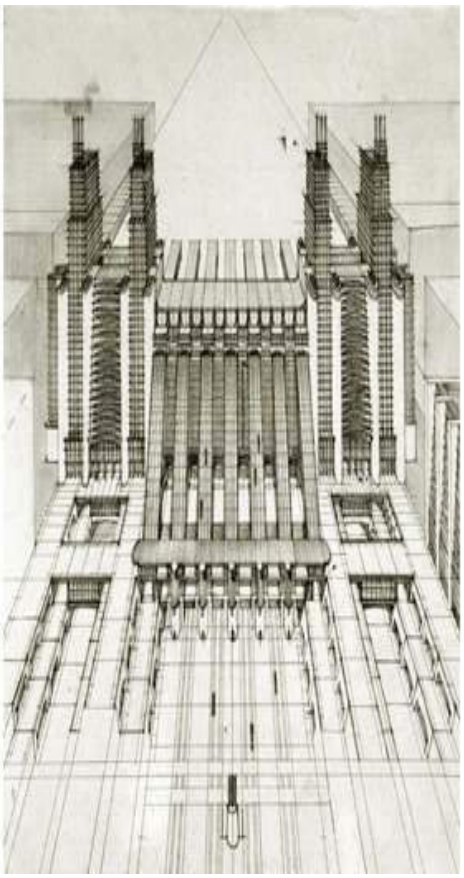
North Korean architects, hotel. Nampo, 2014.

Frank Lloyd Wright, Falling Water, Bear Run, Pennsylvania, 1935

North Korean architects, "The Bird's Nest," a guesthouse of the future, 2014.

The Jetsons, TV Cartoon, 1962-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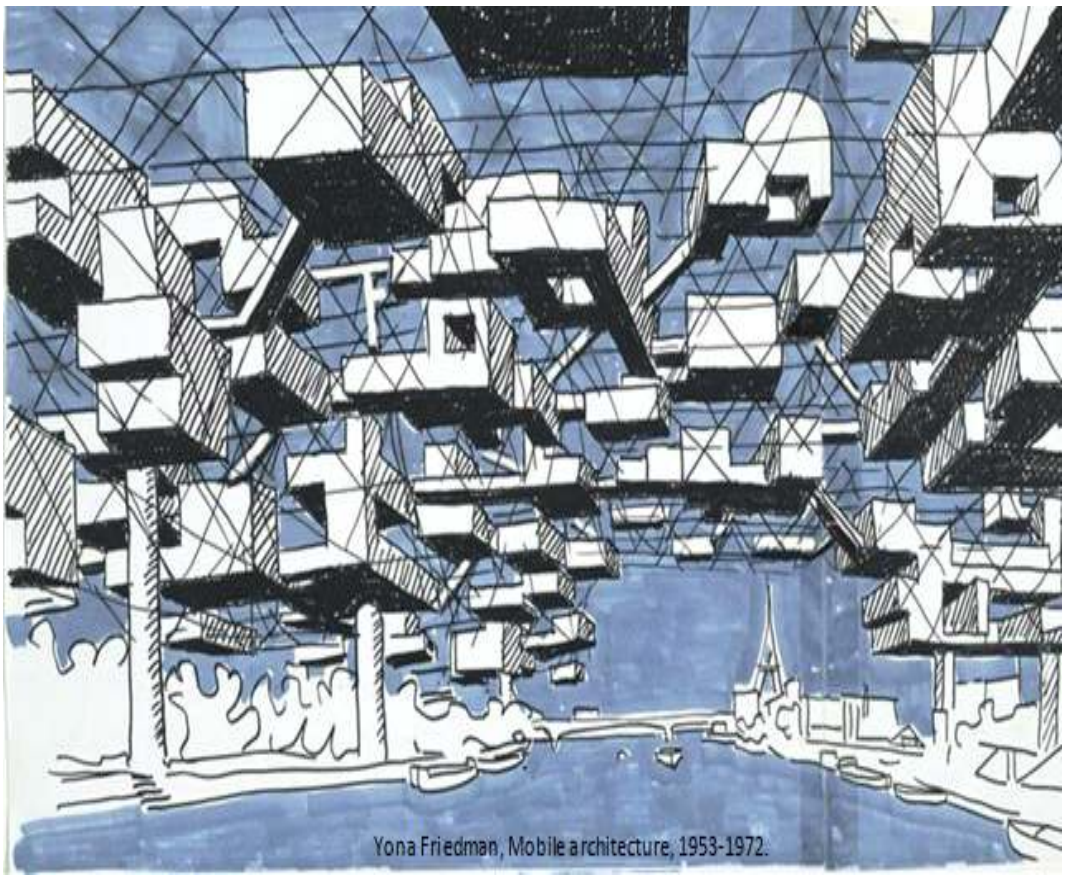
A tree-shaped Hotel at Mount Kumgang, 2014.
North Korean architects, a flying residences for holidays, 2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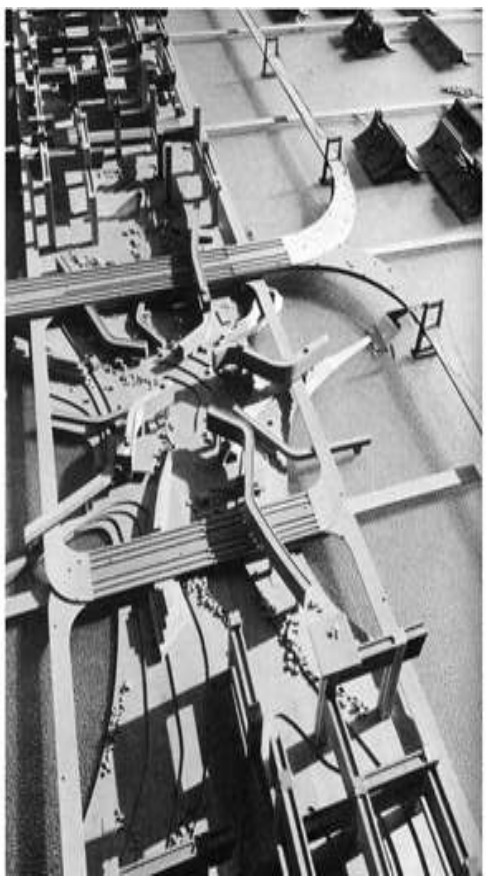
Sant'Elia, Central Station, Milan, Futurist City, 1913-1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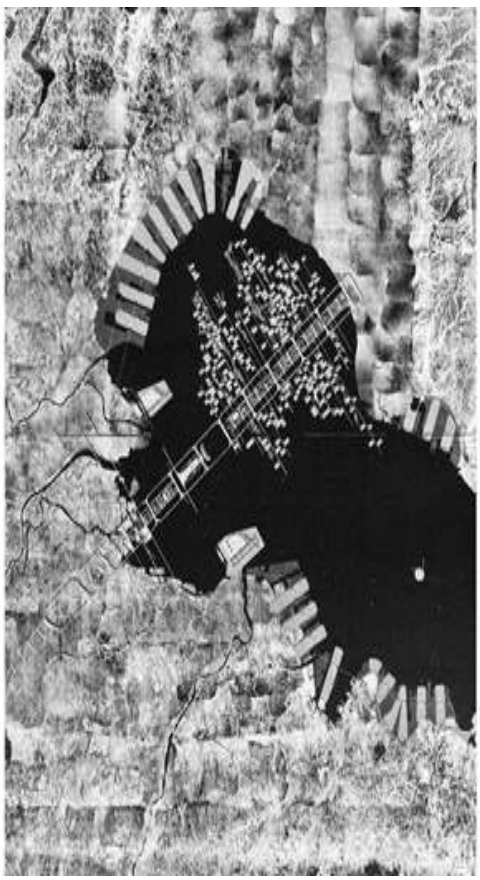
Bruno Taut, Utopian drawings, *Alpine Architecture*, 1917-1920.

Constant, New Babylon, 1956-74.



Yona Friedman, Mobile architecture, 1953-1972.





Kenzo Tange, *Tokyo Bay Project*, 1960.

Peter Cook, Plug-In City, 1964.

Superstudio, *The Continuous Monument* or *Fundamental Acts*, 1968-69.

IMAGINATION

WHAT IS IT?

IMAGINATION

WHAT IS IT?

IT IS THE POWER OR CAPACITY OF HUMANS TO FORM INTERNAL IMAGES OF OBJECTS AND SITUATIONS

IMAGINATION

WHAT IT IS NOT

NOT UTOPIA
NOT DREAMING
NOT FLIGHTS OF FANCY
NOT A CRITIQUE OF THE STATUS QUO
NOT IRRATIONAL
NOT A CAPACITY ONLY AVAILABLE TO ARTISTS
NOT A MARGINALIZED, SPECIALIZED ACTIVITY OF THE MIND
NOT CREATIVITY (although imagination is needed for creativity and sometimes they are fused together)

IMAGINATION

WHY IS IT IMPORTANT?

IMAGINATION

WHY IS IT IMPORTANT?

IT IS AT THE CENTER OF ALL HUMAN COGNITIVIE PROCESSES

IT RELATES TO ALL THOUGHT AND ACTION

IMAGI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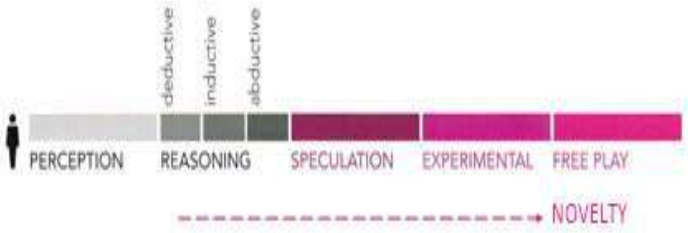
WHY IS IT IMPORTANT?

... IT IS A **SPECIAL FORM OF KNOWING**

IT IS A **CRUCIAL FACULTY FOR INVESTIGATING KNOWN UNKNOWNS**

IMAGI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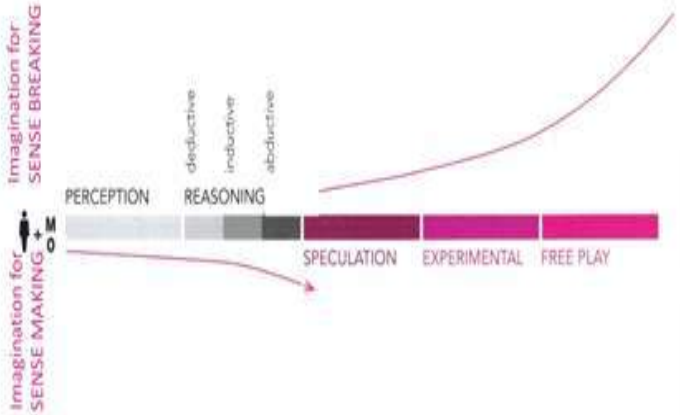
COGNITIVE ACTIVITIES



(Pendleton-Jullian & Seely-Brown,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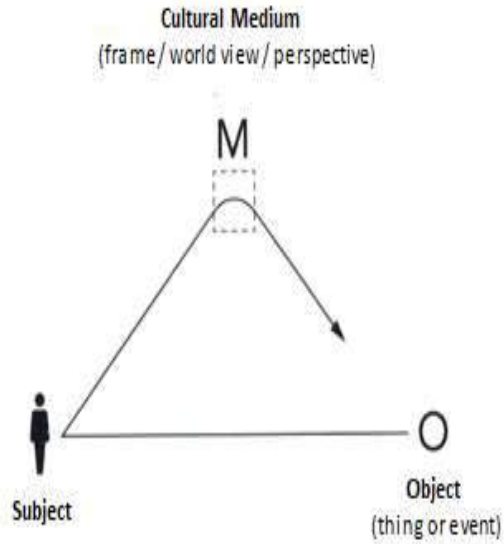
IMAGINATION

SENSE-MAKING & SENSE-BREAKING



IMAGI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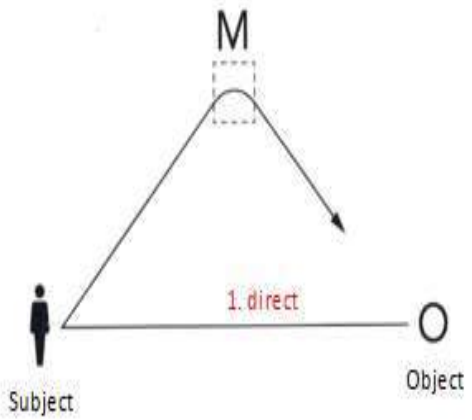
PERCEPTION



(Modified diagram from Pendleton-Jullian & Seely-Brown, 2018)

IMAGI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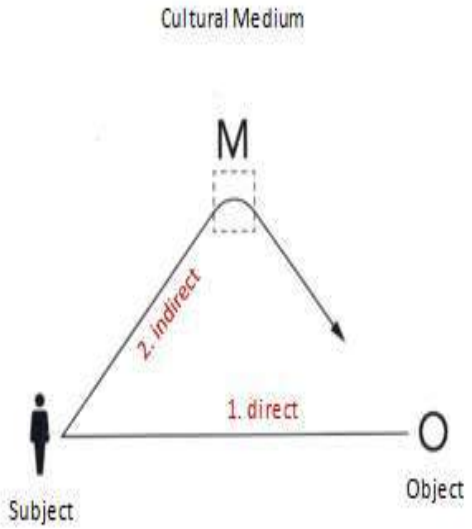
PERCEPTION : BIOLOGICAL



(Modified diagram from Pierdzioch-Julien & Seely-Brown, 2018)

IMAGI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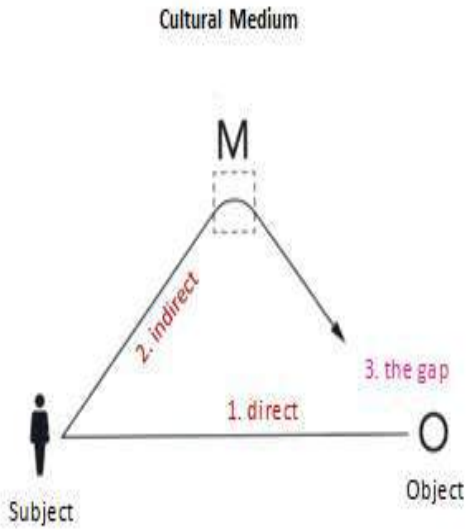
PERCEPTION



(Modified diagram from Pierdzioch-Julien & Seely-Brown, 2018)

IMAGI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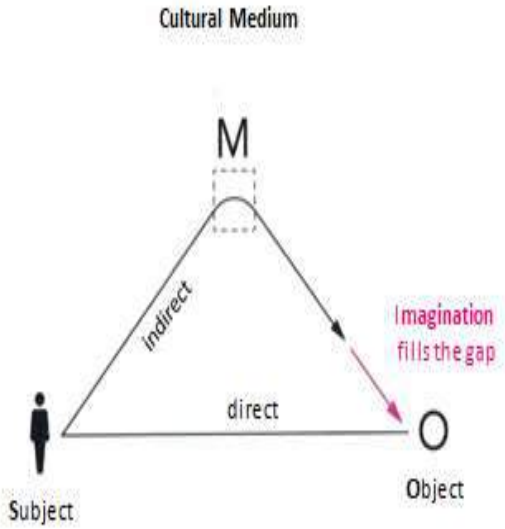
PERCEPTION



(Modified diagram from Pendleton-Jullian & Seely-Brown,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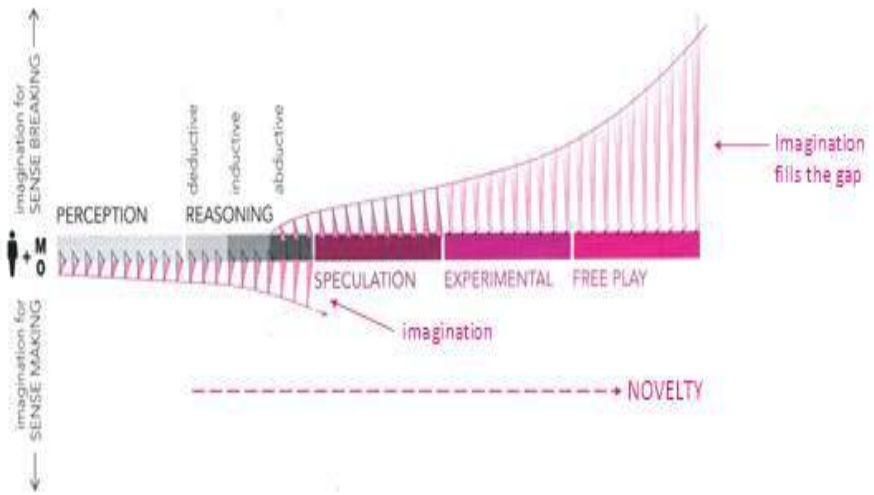
IMAGINATION

PERCEPTION



(Modified diagram from Pendleton-Jullian & Seely-Brown,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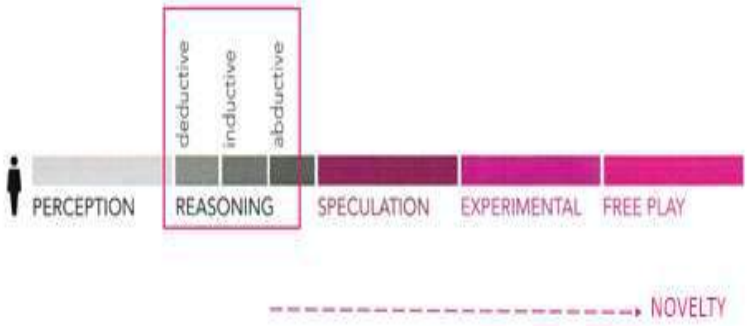
IMAGINATION



(Modified diagram from Pendleton-Jullian & Seely-Brown,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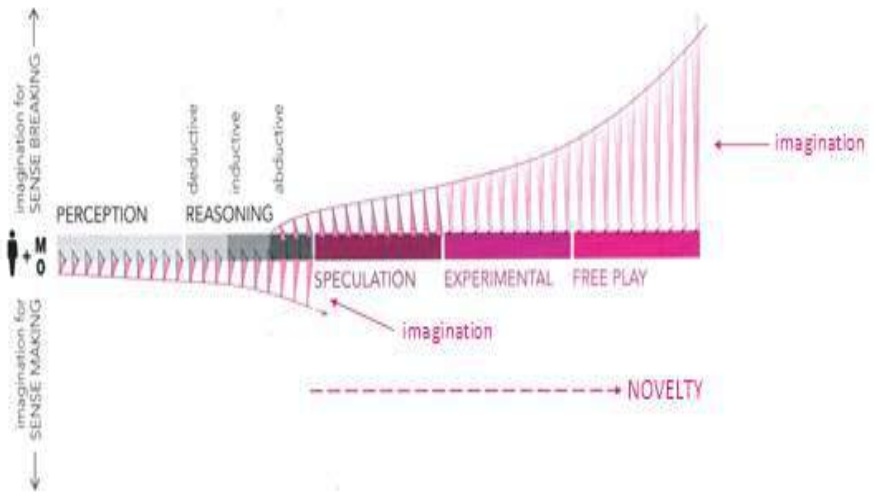
IMAGINATION

REASONING



(Pendleton-Jullian & Seely-Brown, 2018)

IMAGI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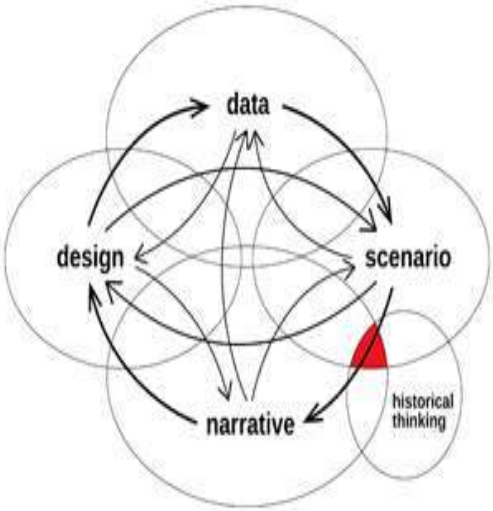
(Modified diagram from Pendleton-Jullian & Seely-Brown, 2018)

METHOD

FUTURES & FICTION

FUTURE CONTEX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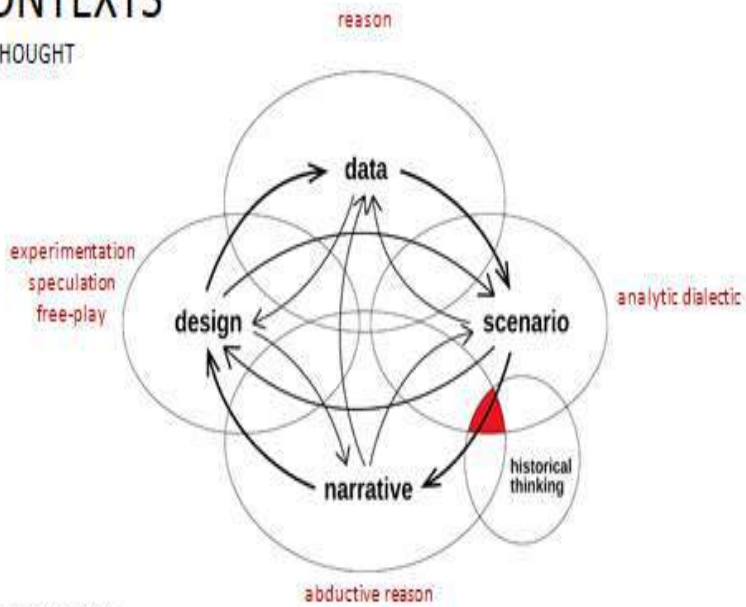
SCENARIOS : METHOD



CONVERGENCE OF THE PAST, PRESENT & FUTURE

FUTURE CONTEXTS

SCENARIOS : MODES OF THOU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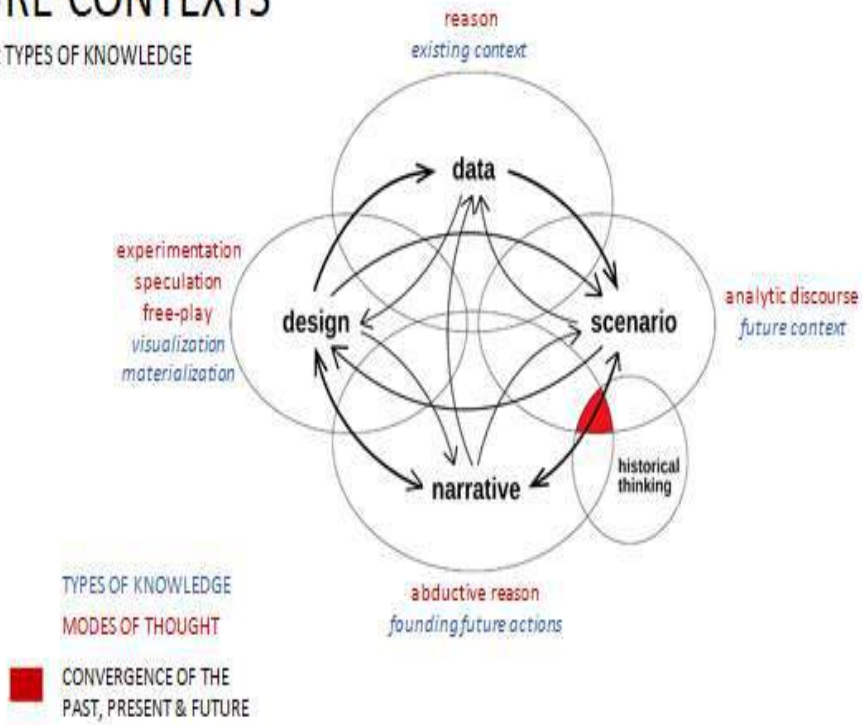


A MODES OF THOUGHT

CONVERGENCE OF THE PAST, PRESENT & FUTURE

FUTURE CONTEX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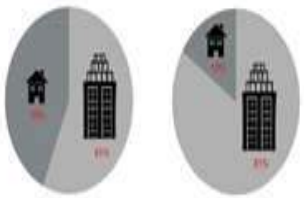
SCENARIOS : TYPES OF KNOWLEDGE



KEY FAC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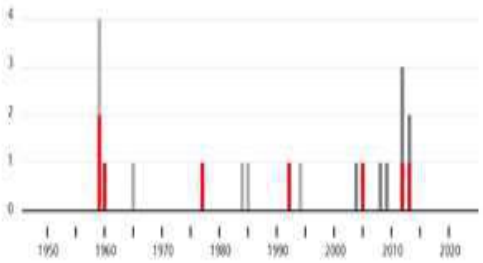
IMPACT FACTOR	DEFINITION	INDICATION/UNIT	CURRENT LEVEL	TREND	SCENARIO I	SCENARIO II
Political System	Type of government and quantity of parties	Number of parties	3[1]	↗	1	3
Economics	size of economy	GDP per capita	1,593 USD[2]	↗	25,000 USD	10,000 USD
	income	GNI per capita	1,190 USD[3]	↗	30,000 USD	10,000 USD
	employment rate	employment rate	70% [4]	↗	70%	50%
	import/export	million USD	Import: 4,023 million USD (estimated)[5] Export: 3,674 million USD (estimated)[6]	↗	Import: 10,000 million USD Export: 10,000 million USD	Import: 8000 USD Million Export: 8000 USD Million
Population	population of Pyongyang	number of people	2.5 million[7]	↗	20 million	5 million
	population of North Korea	number of people	24,895,000[8]	↗	50 million	32 million

KEY FAC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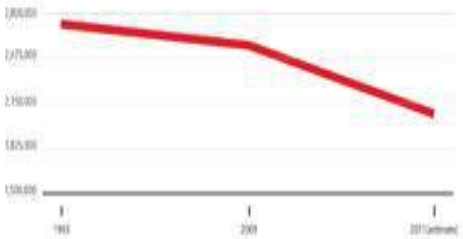


HOUSING TYPES

NUMBER OF POLITICAL PAR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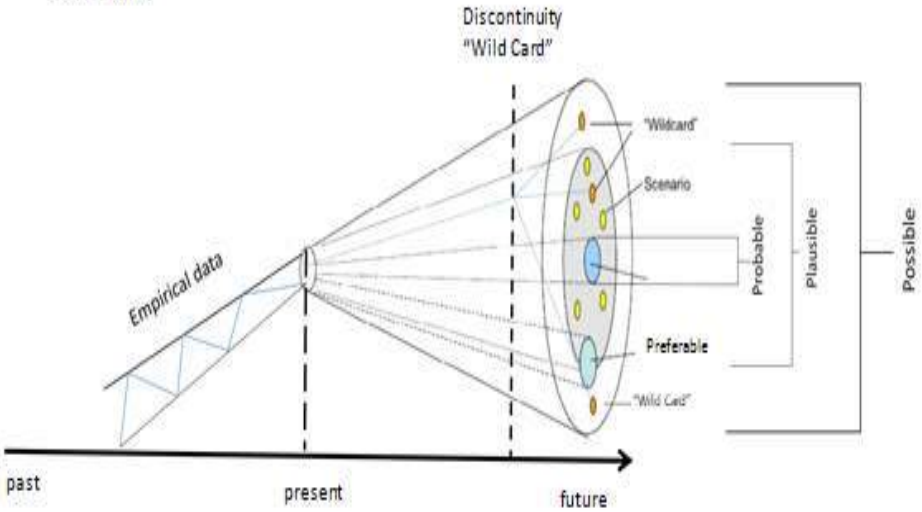
AMUSEMENT PARKS IN PYONGYANG



POPULATION OF PYONGY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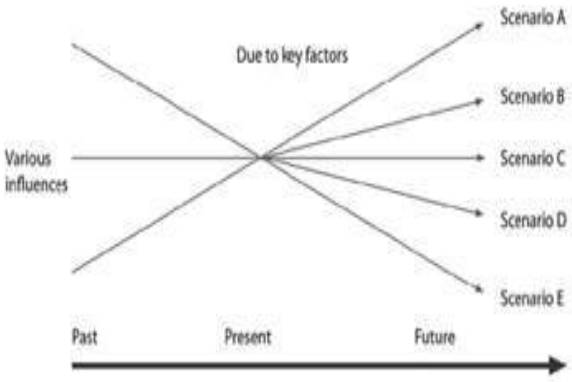
FUTURE CONTEXTS

SCENARIOS



FUTURE CONTEXTS

SCENARI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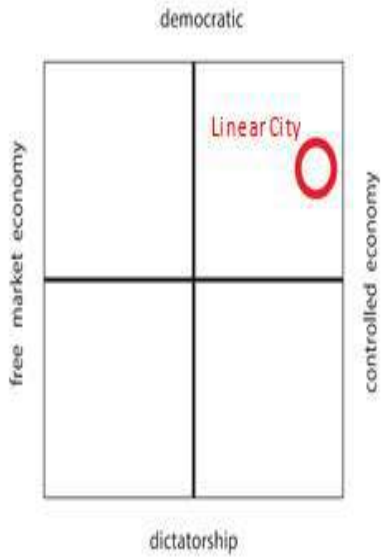
ALTERNATIVE BUT EQUALLY QUALIFIED SCENARI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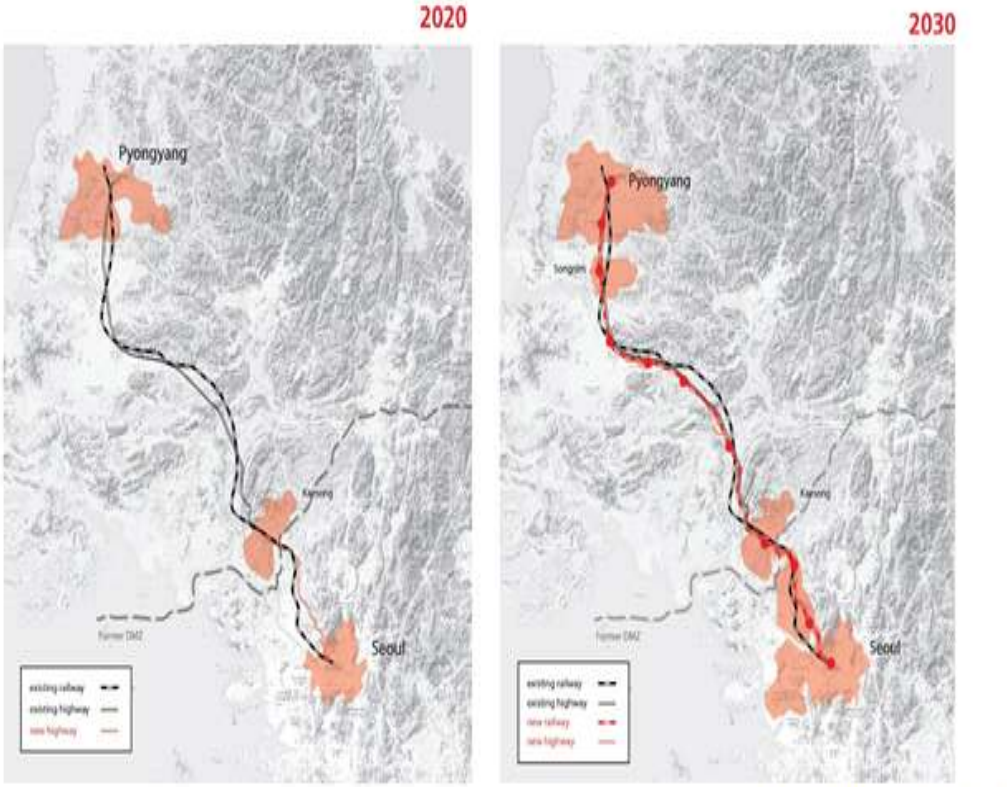
(Tschapka and Kim, 2015)

NARRATI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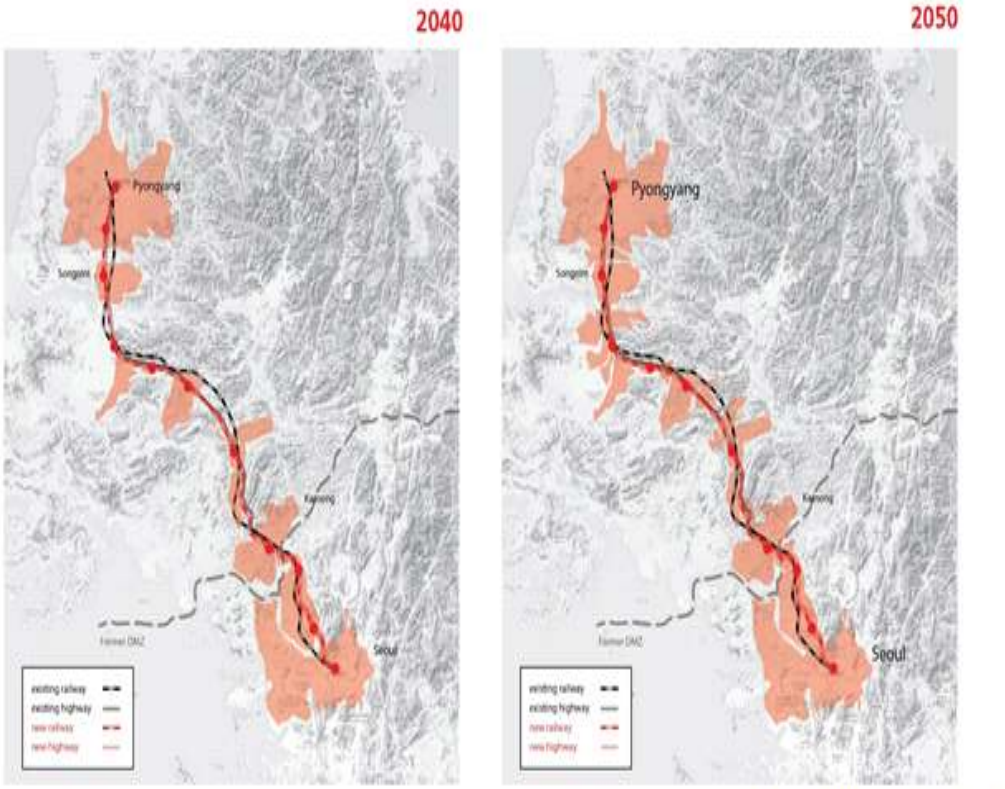
PROJECTS

MATERIALIZATING IMAGI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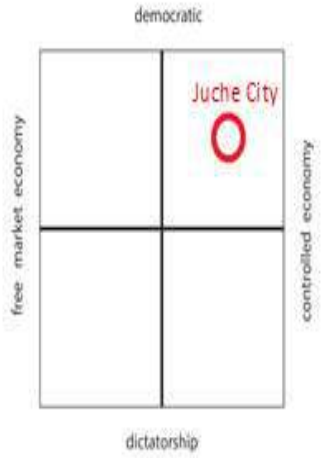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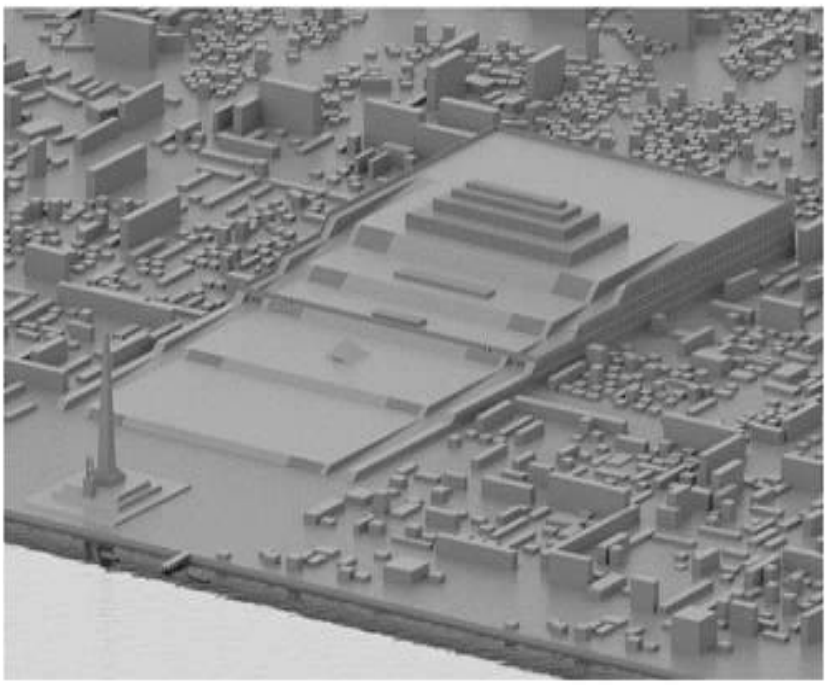
Linear City: LIU CHINGWEI & PIAO XIANM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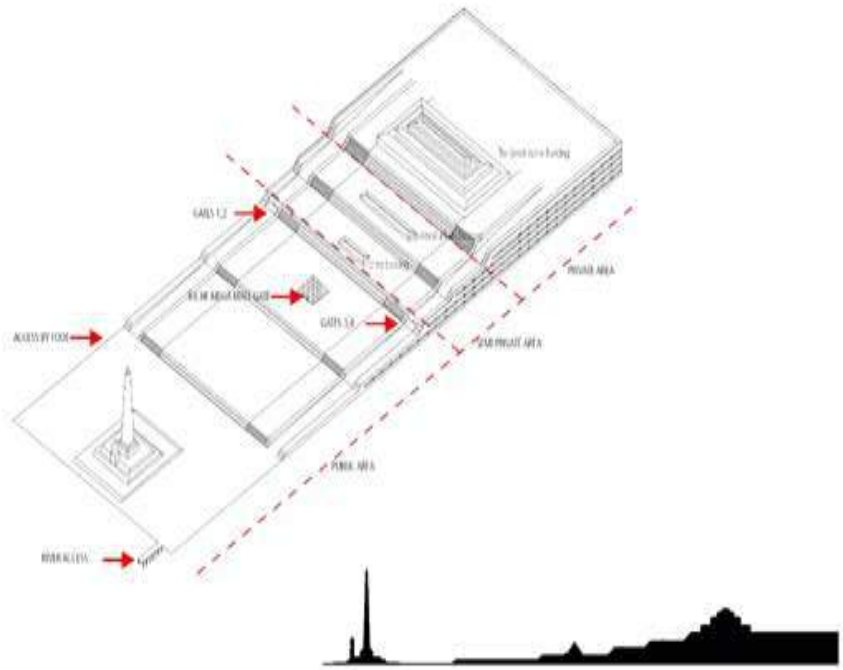
Linear City: LIU CHINGWEI & PIAO XIANM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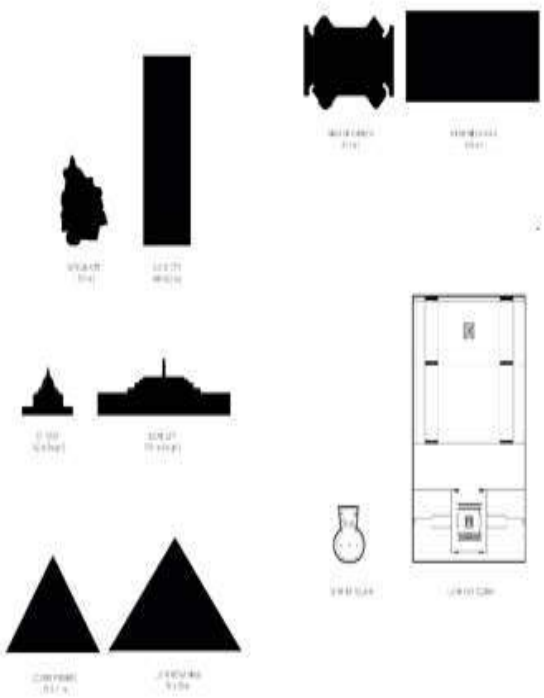
Juche City: KLARA ROMIGI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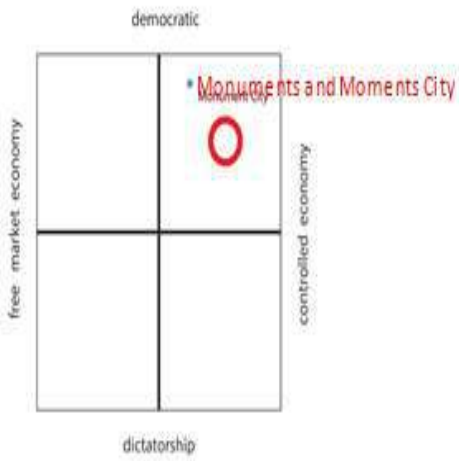
Juche City: KLARA ROMIGIOU



Juche City: KLARA ROMIGIO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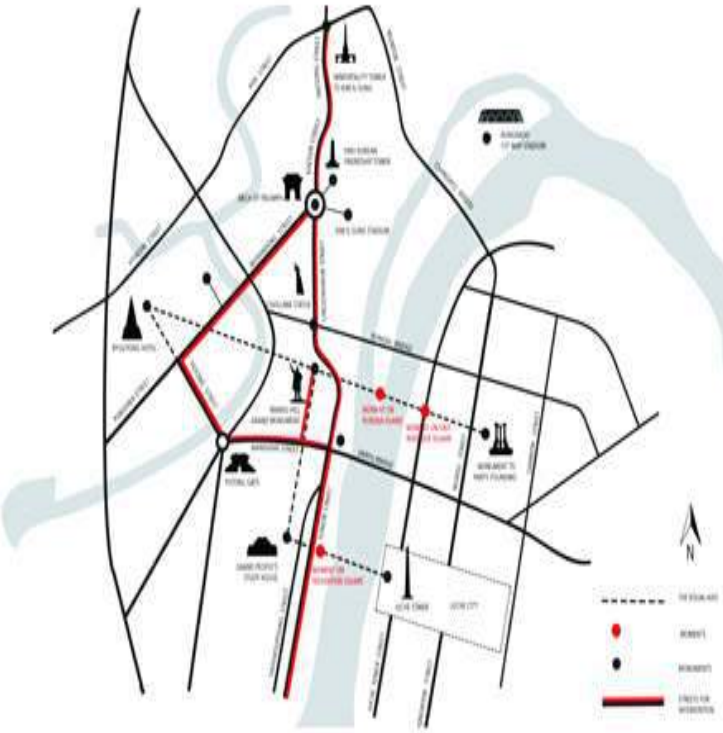


Juche City: KLARA ROMIGIOU



Monuments & Moments City
JELENA MANDIĆ

Monuments & Moments City
JELENA MANDI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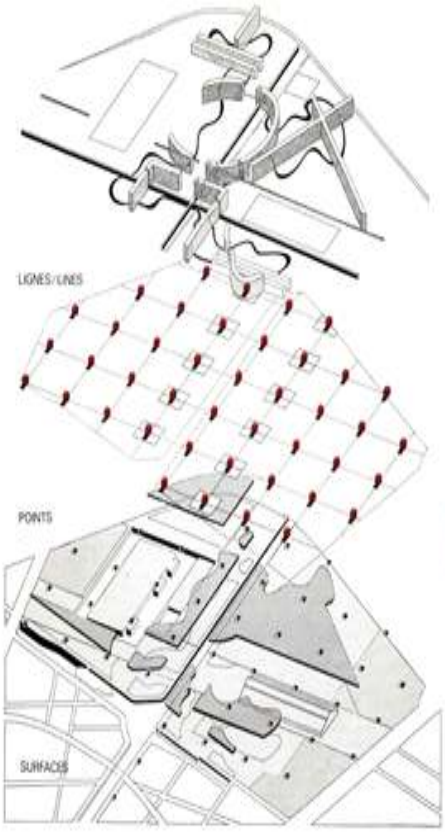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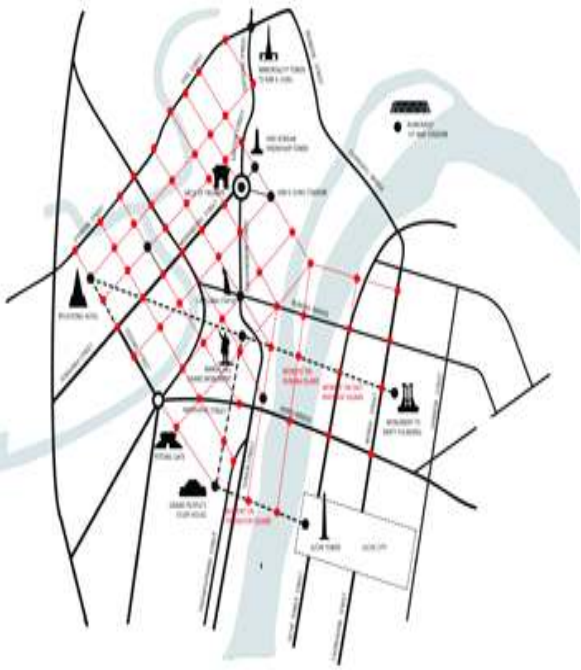
Moments on Rungra Island, East Riverside Square, Federation, Pyongyang, 2050.

Monuments & Moments City
JELENA MANDI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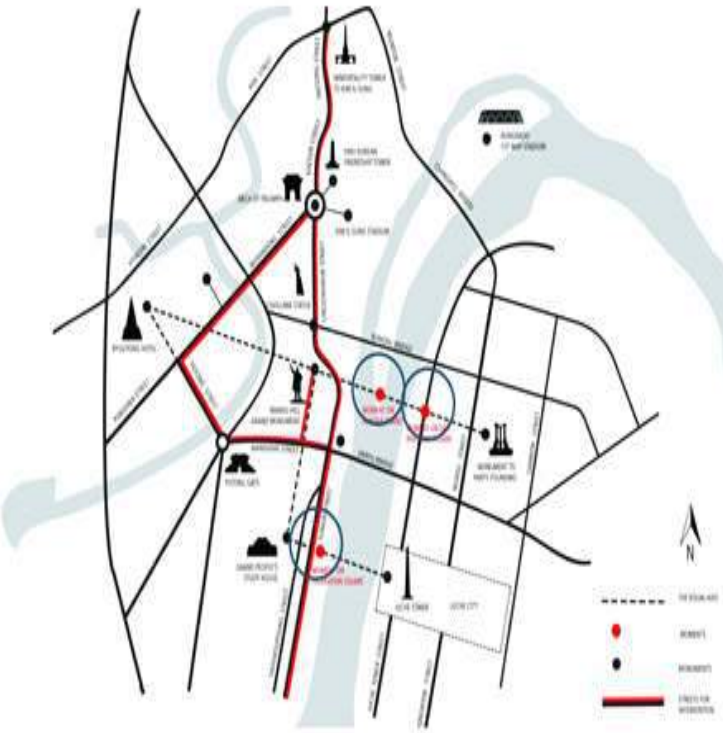
Proposed grid of Moments, Pyongyang, 2050

Monuments & Moments : JELENA MANDI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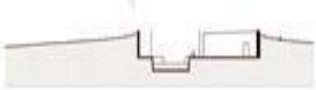


Monuments & Moments : JELENA MANDI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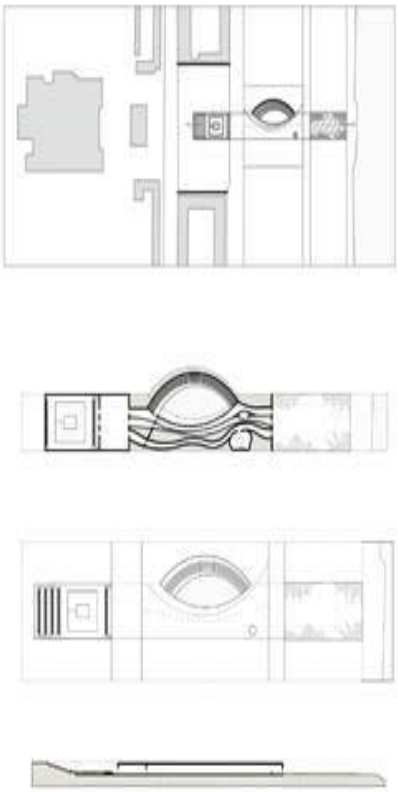


Moments on Rungra Island, East Riverside Square, Federation, Pyongyang, 2050.

Monuments & Moments City
JELENA MANDIĆ



Moment of Unification, Rungra Island
Monuments & Moments : JELENA MANDI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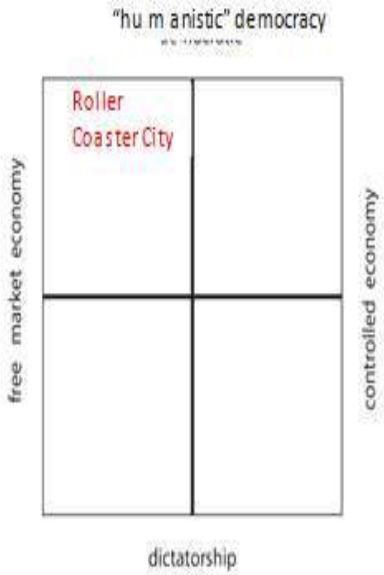


Moment at Kim Il Sung / Federation Square (2036)

Monuments & Moments : JELENA MANDIĆ

Moment on East Riverside Square (2038)

Monuments & Moments : JELENA MANDI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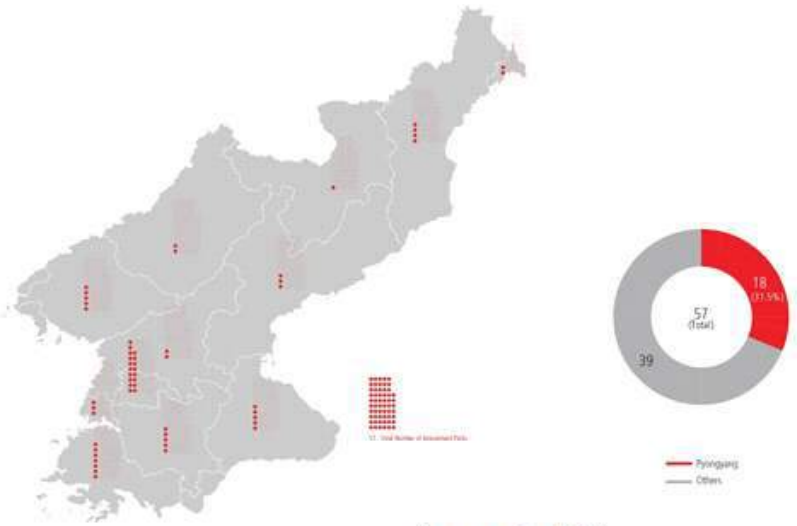
How to change the ideological ideology of the past?

1 Change the usage of square, building and statue

2 Propose new experience in sp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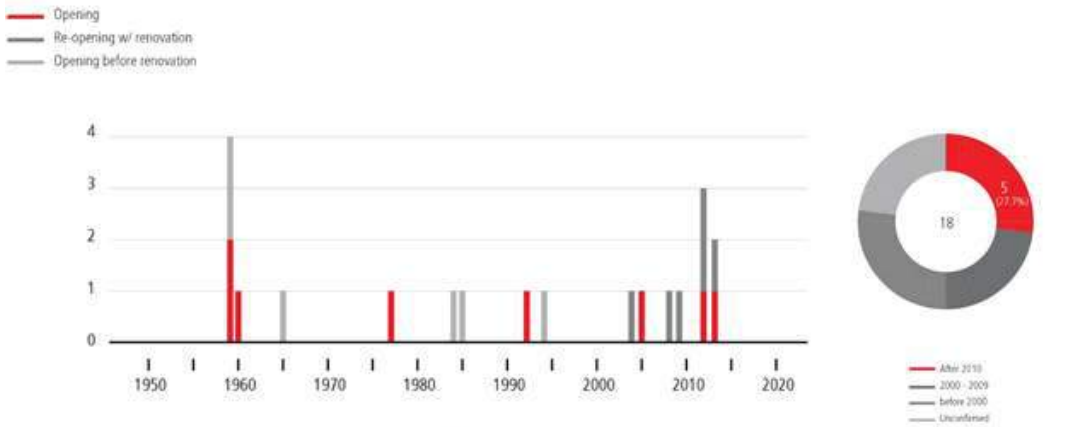
3 Change the sense of the place

Roller Coaster City : LEE JAE 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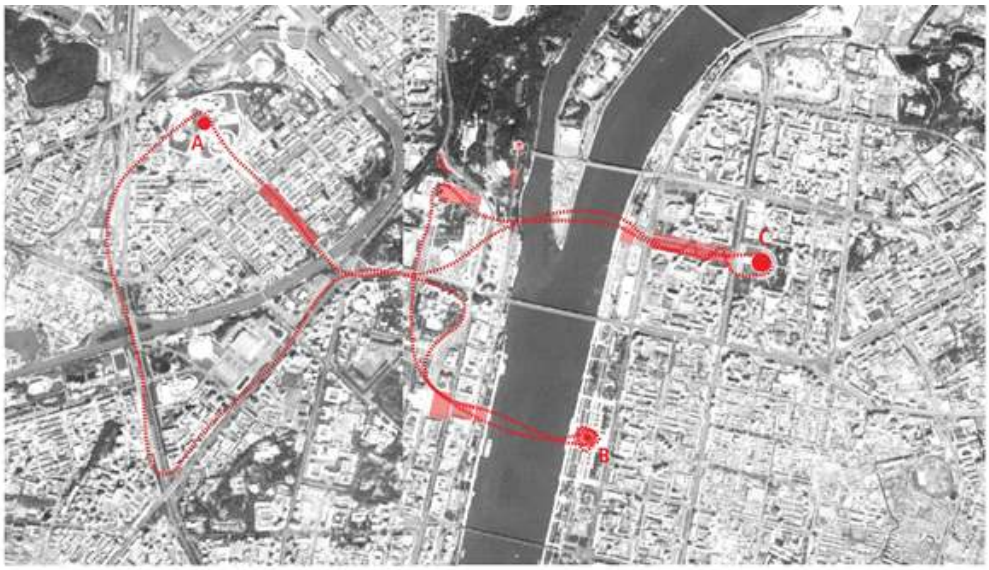
Amusement Parks DPRK

Roller Coaster City : LEE JAE 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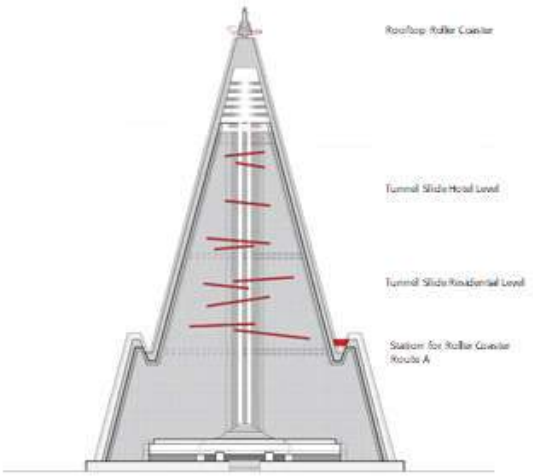
Opening of Amusement Parks in Pyongyang

Roller Coaster City : LEE JAE 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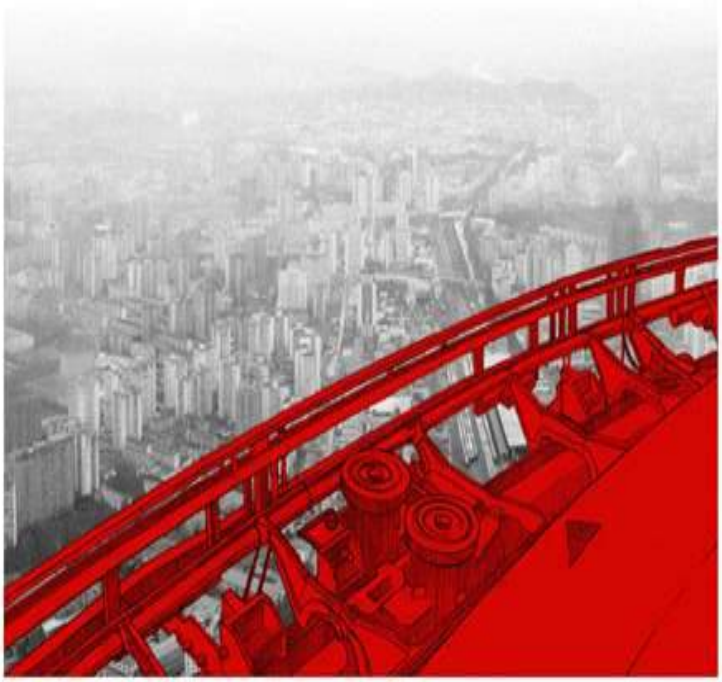


Urban Roller coaster routes A , b and C, Pyongyang, 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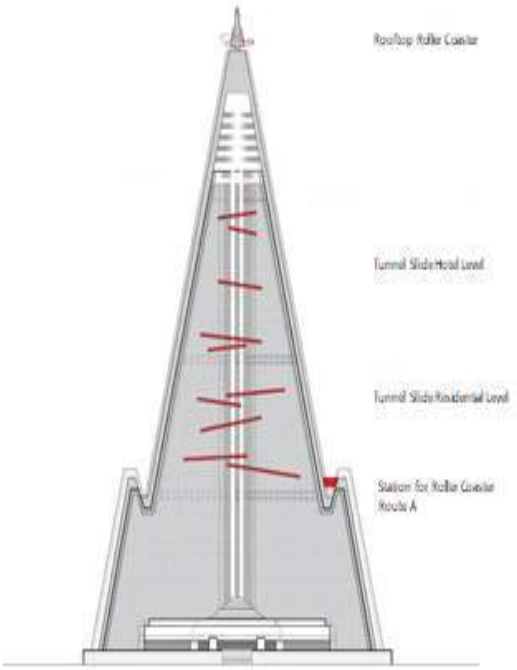
Roller Coaster City : LEE JAE HO



Ryugyong Tower, section, tunnel and slides, Pyongyang, 2050.



Rooftop Roller Coaster, Ryugyong Tower, Pyongyang, 2050.



Ryugyong Tower, section, tunnel and slides, Pyongyang, 2050.

Ryugyong Tower, slide at residential level, Pyongyang, 2050.

Ryugyong Tower, slide at hotel level, Pyongyang, 2050.

Ryugyong Tower, slide at hotel level, Pyongyang, 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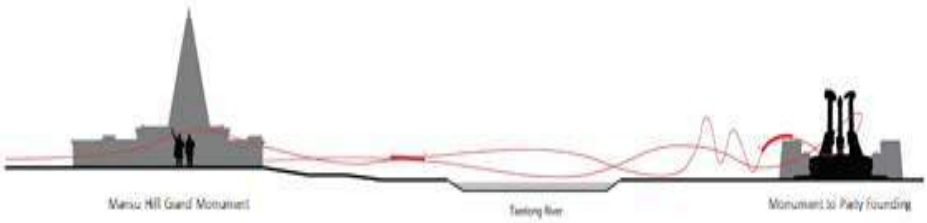
Routes A & B, Urban Roller Coaster, Pyongyang, 2050.

Route A, Urban Roller Coaster view looking at Ryugyong Tower, Pyongyang, 2050.

Route B, Urban Roller Coaster looking towards the Juche Tower from Kim Il Sung Square, Pyongyang, 2050.

Route B, Urban Roller Coaster winding around the Juche Tower, Pyongyang, 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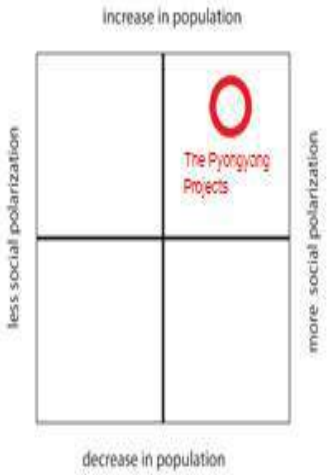
Route B, Urban Roller Coaster looking towards The People's Grand Study House, Kim IL-Sung Square, Pyongyang, 20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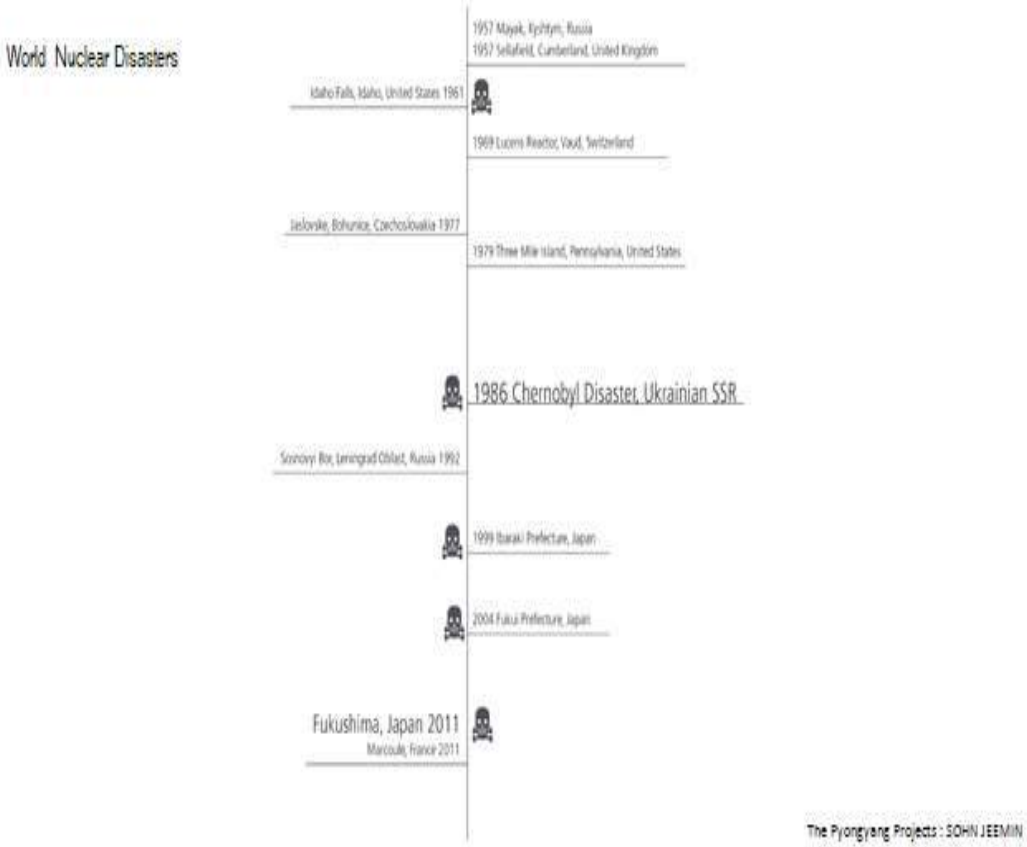
Route C, Urban Roller Coaster, Pyongyang, 2050.

Route C, Urban Roller Coaster looking towards Monument to Party Founding, Pyongyang, 2050.

Route C, Urban Roller Coaster looking towards Mansu Hill Grand Monuments and the Ryugyong Tower, Pyongyang, 2050.



The Pyongyang Projects : SOHN JEEMIN



The Pyongyang Projects : SOHN JEEMIN

UNIFIED KOREA TIMES

www.united_times.co.uk <NEWS YOU CAN TRUST> Since 2003

NUCLEAR POWER PLANT FAILS

DEMANDS FOR NEW LEADERS

THURSDAY, March 6th, 2003 VOL. LVIII ISSUE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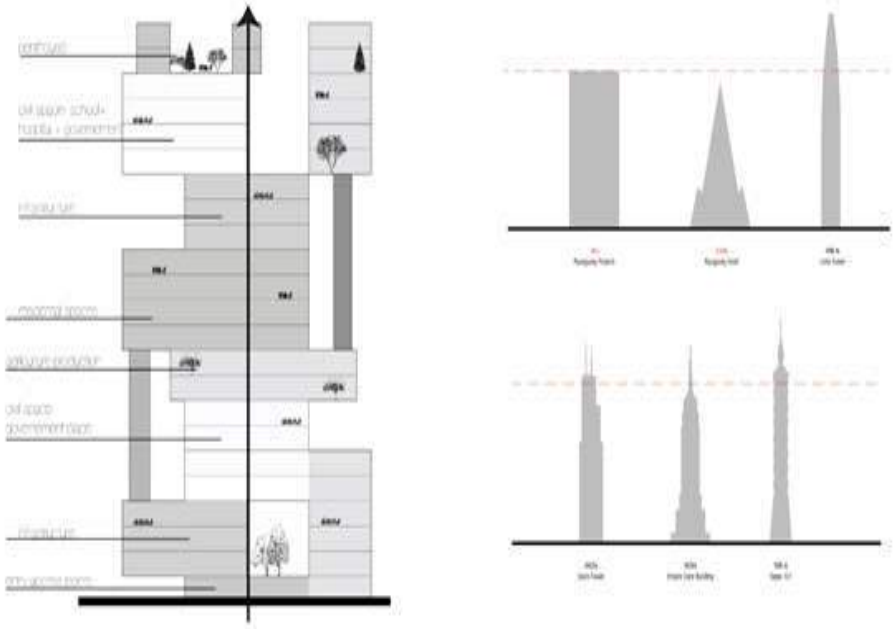
UNIFIED KOREA TIMES

www.united_times.co.uk <NEWS YOU CAN TRUST> Since 2003

RETURNING TO THE PROJEC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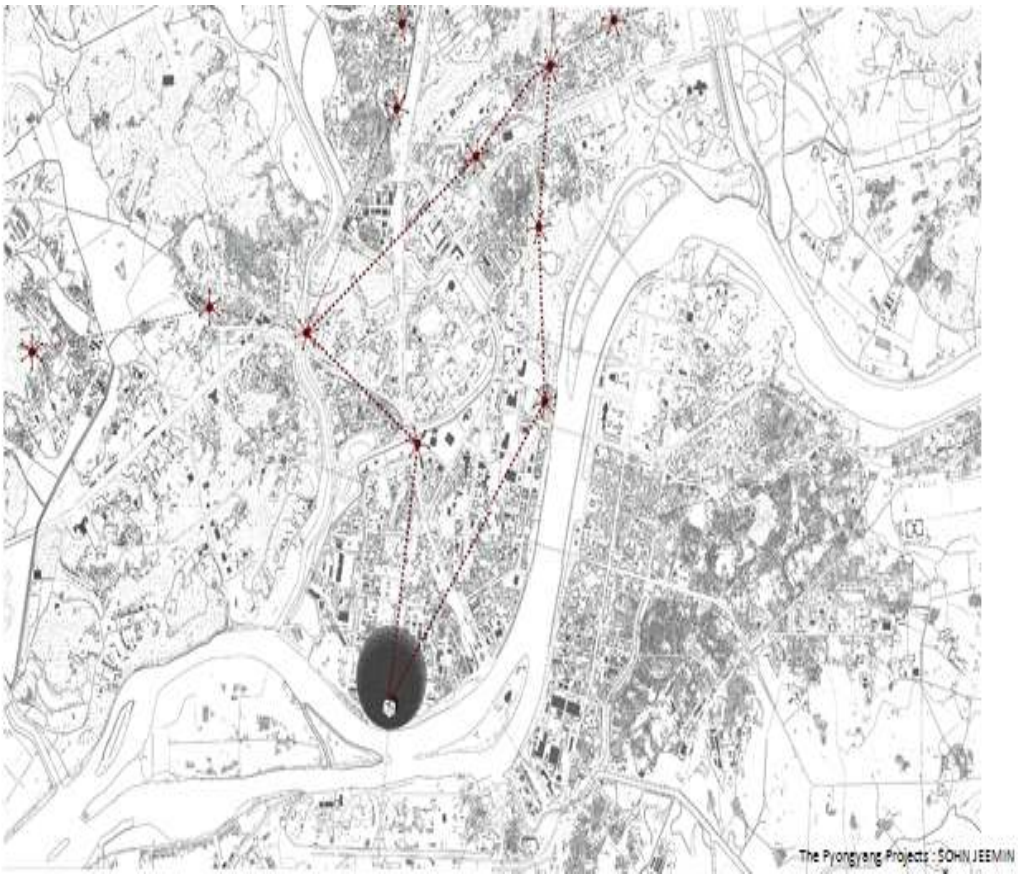
THINK TANK TO TURN TALKS

FRIDAY, April 30th, 2007 VOL. LXII ISSUE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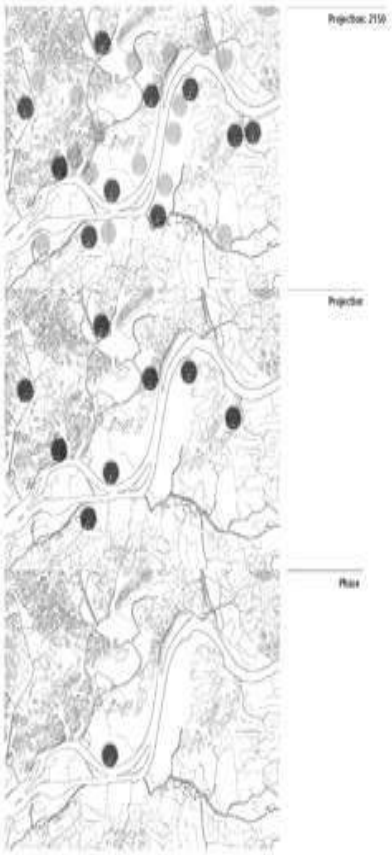


Sectionk Pyongyang Projects, Pyongyang, 2050

The Pyongyang Projects : SOHN JEEMIN



The Pyongyang Projects : SOHN JEEMIN



The Pyongyang Projects : SOHN JEEMIN

토론 1

북한의 도시 만화경 제3세션
도시국가 평양: 과거에서 미래로 [토론문]

정인하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만화경이란 거울로 된 통에 형형색색의 유리구슬, 종이조각 등등을 집어 넣어 아름다운 무늬를 볼 수 있도록 만든 장치이다. 한쪽 끝을 통해 만화경을 들여다보면, 반대쪽에서 들어온 빛이 여러 조각들을 거치고 거울에 의해 계속 반사되면서 평면상에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낸다.”

이번 국제 학술대회의 명칭을 ‘북한의 도시만화경’으로 붙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첫번째로 북한 도시가 가지는 만화경과 같은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거기에는 여러 세대에 걸쳐 건설된 기묘하고도 비현실적인 요소들이 도시 곳곳에 박혀 있어, 지구상에서 보기 힘든 드문 장면을 연출해 내고 있다. 그것은 만화경처럼 그다지 아름답지 않지만, 건축물과 기념비, 그리고 다양한 선전구호들이 계속해서 서로 조응하면서, 도시 전체가 만화경처럼 동질적인 이미지로 수렴되어 나간다. 또 다른 이유로서 이번 학술대회에 참여한 발표자들의 면면이 만화경처럼 다채롭기 때문이다. 그들은 국내 학자들과 외국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북한도시들에 접근하기 위한 다양한 시점과 견해를 전해주고 있다. 특히 세션 3에 참여한 발표자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북한 도시를 보는 시점이 각기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엇갈려 있어서 매우 흥미롭다.

우선, 필리프 메오세르 박사의 글은 직접 평양 방문을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졌다. 그의 눈에는 ‘평양이야말로 사회주의 건축이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도시’로 보여진다. 그는 평양이라는 도시를 마치 거대 박물관처럼 보고, 거기에서 세워진 건물과 기념비들을 박물관의 전시물들로 이해한다. 그럼 점에서 그의 시선은 분명 과거로 향하고 있다. 주요 건물들의 의미와 도시적 기능을 그런 방식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왜 그 북한 도시는 진짜 사람 사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모든 것들이 마치 전시장처럼 장식하려 하는가?

이에 비해 두번째 발표자인 제레나 프로코피레비치 교수의 시선은 주로 현재를 향하고 있다. 그녀는 과거와는 다른 김정은 시대의 건축의 특징을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다. 김정은 역시 그의 아버지 김정일처럼 건축을 통해 도시를 스펙타큘러한 풍경으로 만들려고 하고, 또한 빠른 건설을 위해 ‘평양속도’도 여전히 강조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점은 디자인 접근방식에서 과학적인 이미지를 선호하고, 새로운 기술과 재료를 사용하여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표현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또한 건축의 지속가능성도 강조하여, 다양한 친환경 재료와 에너지의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미약하나마, 국제적 흐름의 영향이 이 고립된 나라에도 침투해 오고 있는 점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애니 페드릿 교수의 발표는 평양의 미래를 향하고 있다. 그녀의 발표는 상상력을 동원하여 다양한 미래의 시나리오를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 방식은 현재의 정치적, 경제적, 지정학적 여건들을 충분히 이해하고서, 미래에 펼쳐질 여러 대안들을 추출하는데 이점이 있다. 그녀가 상상한 2050년의 평양은 여러 시나리오로 펼쳐진다. 우선 남북이 통일되어 서울과 평양이 선형 도시로 연결되는 것이다. 두번째는 평양이 여전히 주체의 도시로 남는 경우이다. 거기서 건축물들은 엄청난 기념성을 가지며 김씨 일가의 권력을 상징하게 된다. 세번째로 롤러 코스터 도시에서는 이념적인 도시 공간을 마치 놀이 동산처럼 만들어서 그 의미를 바꿔버리는 것이다. 마지막 대안은 다소 상상하기 어렵지만, 평양 부근의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여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경우이다. 여기에 저자는 960,000명의 주민이 머무는 엄청난 크기의 메가 스트럭쳐의 건설을 가정하고 있다.

이처럼 세 명의 발표자들은 주로 평양을 중심으로 북한 도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조망하고 있다. 그들은 북한 도시의 변화를 예견하며, 우리의 새로운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 발표와 관련하여 드는 몇 가지 의문은 다음과 같다; 현재 평양의 기념물과 도시구조는 통일 후 어떻게 변용시키는 것이 올바르고 타당한가?; 김정은의 지속가능한 건축의 강조는 북한의 정치적 이념과 병립이 가능한가? 미래의 시나리오 가운데, 외국세력의 간섭이나 침략으로 인해 한국인들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도시건설이 전개될 가능성은 없는가?

토론 2

북한의 도시 만화경 제3세션
도시국가 평양: 과거에서 미래로 [토론문]

히라이 히사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

김정은의「말씀」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일본의 식민지 시대 구 평양 시내의 남쪽에 일본인들이 많이 살고 일본식 가옥도,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한국전쟁으로 평양이 폐허가 되고 그런 일본식 가옥은 없어졌다. 저는 평양에 있는 「당창건사적관」을 방문한 적이 있다. 해방 후 김일성씨가 집무했다는 방을 볼 수 있지만, 그것은 다다미가 깔린 일본식 가옥이었다.

나는 기자로서 12 ~3 번 평양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 그 때마다 느끼는 것은 비행기나 주체탑꼭대기에서 보는 평양과 골목길에서 보는 평양의 차이다. 평양은 조감도에서 본 평양과 벌레 눈으로 본 평양이라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안내원 없이 한 레스토랑을 방문 하려고 했는데 길을 잃었다. 골목 뒤쪽에서 전기도 없이, 어둠 속에서 많은 남성들이 상반신 알몸으로 일을하고 있는 광경을 보았다. 길을 잃지 않으면 볼 수없는 광경이었다.

한 자료를 소개하고 싶다. 그것은 작년 2 월 27 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씨가 한 「말씀」이다. 이것은 내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아시아 프레스」가 입수 한 것으로 「절대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문서다. 그 속에서 김정은 씨는 「최근 년간 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 하였지만 많은 경우 광광명승지 나 휴양지, 체육 문화 시설을 꾸리고 공장, 기업소를 개건 현대화 한 것을 비롯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견지에서 게획되고 추진되다 보니 주요도소재지들 특히 평양시에 부족되는 살림집 건설이 부진 상태에 있습니다.」하고하고、「당이 건축 발전 구상과 건설 정책에 따라 건설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구현한다고하면서도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는 원칙에서 건설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관광 명승지, 휴양지를 아무리 별천지 같이 꾸려 놓아도 살림집 문제로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그것을 환영 할리 만무합니다 」라고 말해, 자신의 정권 초기에 많은 기념비적 건축물을 만들었지만 당이 내거는 인민대중제 1주의 관점에서

잘못이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자기비판의 말을 했다.

그는 「건축 부문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려면 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라는 원칙에서 정책화하여 풀어 나가야합니다」라고했다. 그는 「이런 견지에서 볼때 지난 기간 인민들의 살림집 문제를 풀기위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엿습니다. 평양시에 10 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겠다고 한 땔부터 10 여년 세월이 지나갔지만 아직까지 룡성 - 서포 - 력 포철 길 주변 2 만세대 살림집 건설에 관심을 덜 돌 렸습니다.이 사업을 내각에만 맡겨 놓고 국가적인 대책이 없다 보니 인민들 앞에 머리를 들고 말할 체면도 없게 되였습니다.」라고 자기 비판까지했다.

김정은씨는 올해 1 월 제 8 차 당대회에서 평양시에서 5 만호 주택, 지역의 함경남도 ·단천에서 2 만 5000 채의 주택을 건설하기로 했다. 김정은씨는 앞서 청년동맹 대회에서 「앞으로 15 년 안팎에 전체 인민이 행복을 누리는 륭성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 세우 자고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엔의 경제 제재, 코로나, 수해의 「3 중고 (苦)」의 북한이 「륭성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만들 수 있을지 미지수다. 김정은씨는 지난해 10 월까지 평양 종합 병원을 건설하겠다고 말했지만 실현하지 못했다.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입장에서 기념비적 건축물을 만들지 않고 주택 건설을 우선하는 방향 자체는 올바른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정은 정권이 앞으로 기념비적 건축물이 아니라 주택 건설 등 도시 설계를 크게 전환 할 경우 평양의 평가는 달라질까?

토론 3

북한의 도시 만화경 제3세션
도시국가 평양: 과거에서 미래로 [토론문]

임동우
(홍익대 도시건축대학원 교수)

본 세션의 세 팀의 발표는 마치 하나의 연속적인 이야기 구성을 보는 듯한 느낌이다. 필립 무아제의 발제는 평양의 주요한 건축물들을 소개한다. 우리가 언젠가 어디선가 봤을법한 평양의 건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펼친다. 콘크리트 건축이 주를 이루며 근대건축의 도시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평양의 현재에 대해 분석한다. 그러면서 그 이면에 감추어진 사회주의, 혹은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도시에서의 건축 혹은 도시의 경관을 짚어내고 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회주의 도시에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에서 의도했던 안했던 이들은 모더니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동유럽권의 건축과 도시에 영향을 받았고, 우리에게 결과적으로는 근대건축의 도시 풍경을 선사하고 있다.

무아제가 현재의 북한 도시의 풍경과 그 이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면, 옐레나 프로코프레비치는 변화하는 모습에 집중한다. 특히 김정은 정권에 들어와서 북한은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랜덤한 개발이라기 보다는 어떠한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다. 옐레나가 스타프로젝트라고 명명한 김정은 시기의 건축 프로젝트는, 강변의 개발, 구도심의 변화, 도시 경계부의 변화 등으로 구분된다. 이 모든 사항들은 사실 여러 탈사회주의 도시들에서 이미 벌어진 현상들이고, 이것들이 평양을 필두로 북한의 도시들에서도 이어진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다. 이는 벤츄리의 복합성과 대립성이라는 책에서도 잘 설명되어있듯, 현재 북한 건축의 변화는 여러 요소들의 반영에 대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단순히 통치자의 하나의 결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양한 변화와 요구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물로서의 건축을 보여주고 있다.

무아제가 현재, 옐레나가 변화하는 평양을 이야기 했다면, 애니 페드렛은 아예 가상의 시나리오를 이야기 하고 있다. 이 가상의 시나리오는 사실 단순한 상상이라고 볼 수 없다. 이미 우리는 시대가 변할 때마다 여러 요소들을 가정하여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도시, 건축의 변화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에 익숙하다. 가르니에의 공업도시가 그러하고, 르 꼬르뷔제의 300백만을 위한 도시가 그러하다. 이것은 건축가의 단순한 상상의 그림이 아니라, 디테일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하나의 제안이다. 바티칸을 모델로 한 “주체도시”나 평양의 상징물과 그것을 소비하는 행위를 기반으로 한 “Monuments and Moments City” 그리고 아마도 가장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야하지만, 동시에 하나의 비판적인 시각을 담고 있는 “롤러코스터 도시” 등의 시나리오는 다양한 시각을 바탕으로 한 각각의 제안이다.

이 세 발제자가 의도했던 안했던,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북한, 즉 과거를 바탕으로 한 현재, 변화하고 있는 현재와 미래, 그리고 미래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그 동안 많은 이야기들이 북한의 과거와 정치적 결과물에만 치우쳤다고 하면, 앞으로는 옐레나가 주장하듯, 지금의

변화를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중첩되서 나타나는 결과물로 이해하고 북한을 더욱 다각적인 시각으로 분석해야한다. 그리고 그 시각은 앞으로 어떠한 변화가 북한에 예견될 수 있는지로 논의의 초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줄 수 있다고 본다.